광주비엔날레 1995–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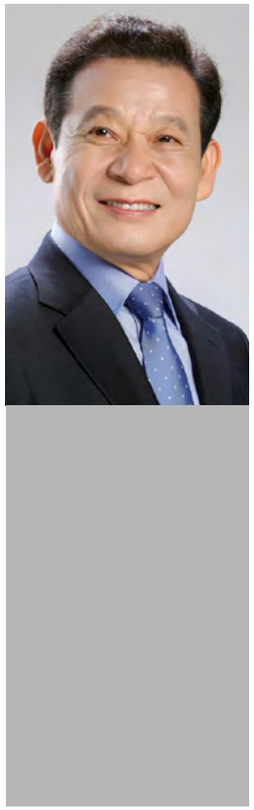
20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광주비엔날레 1995-2014 20

	발간사	3
1부	약사 광주비엔날레 20년 경계를 넘어, 창조적 혁신으로	10
2부	세계 현대미술에 던진 아시아적 화두 1995~2014 광주비엔날레	22
	1장. 창설	30
	2장. 조직과 재정	35
	3장. 전시	46
	4장. 동반행사	134
	5장. 홍보	144
	6장. 마케팅	174
	7장. 행사장 운영	190
	8장. 언론평가	200
3부	창조의 에너지 국제예술도시 전망을 열다	212
	1장. 광주비엔날레의 확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폴리 아트광주	214
	2장. 현대미술의 구심점 형성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 광주비엔날레 - 삼성미술관 리움 포럼 미술 정론지 『눈Noon』	260
	3장. 글로벌 예술교육의 현장 글로벌인스티튜트 국제큐레이터코스 시민교육프로그램	275
4부	평가와 비전 모색	288
	1장. 평가와 분석	296
	2장. 정체성과 비전	308
	부록	314

꿈이 꽃으로 피어난 광주비엔날레 20년



2015년은 광주비엔날레가 창설 20주년을 넘어 새롭게 재도약을 꿈꾸는 원년입니다. 지난 1994년 개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오랜 세월 '외로운 섬'과 같았던 광주에서 이처럼 큰 국제행사를 잘 치러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광주만이 가진 문화예술적 힘은 세계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며, 연대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문화는 인류가 피워내는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여년의 세월 동안 세계와 호흡하며, 문화로서 남도의 저력을 꽃피웠습니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는 남도의 예술적 혼과 문화예술의 전통을 바탕으로 독특한 정체성을 담아내면서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도 지난 2004년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해 20년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아트광주, 광주폴리,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행사가 새롭게 창안되어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받쳐주었기에 이처럼 줄기가 뻗어나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세계 200여개의 비엔날레 가운데 5위 안에 들면서 세계적 행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비엔날레인들의 총회가 우리 광주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로 지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20년 백서' 발간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세계인과 함께 했던 감동과 연대의 순간을 되짚어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자기성찰의 작업입니다. 한권의 책으로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 20여년은 무척 긴 세월입니다. 지나온 길의 돌멩이 하나, 작은 이파리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만, 욕심내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 위안을 삼겠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성년이 지난 광주비엔날레, 광주가 문화를 통해 꿈을 꾸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재)광주비엔날레 명예이사장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지난 20년 그리고 앞으로 100년

시간은 매듭이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 그것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매듭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은 그 매듭 덕분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성찰하기도 하고 내일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법에 의해 사람의 인격이 부여된 조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광주비엔날레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95년 대규모 국제미술행사로 출범한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당시로서 비엔날레 100년 역사에서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매회 시대적 이슈와 문화담론을 시각문화로 승화시키며 나름 주목할만한 발자취를 남겨오고 있습니다. 예술세계에 어디 순위 매김이 쉽겠습니까만 지금은 세계 최고수준의 비엔날레로 성장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엔날레는 미술행사지만 미술행사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고 또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이 사회 전반과 떨어질 수 없는 매체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적 위상을 가진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를 특히, 미술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광주가 200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지정된 것도, 지난 11월 25일 전관 개관된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된 것도 광주비엔날레의 힘이 컸습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아트광주, 광주폴리 등 미술 관련 행사들이 신설된 것도 그렇습니다. 광주비엔날레가 없었더라면 광주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지정은 담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비엔날레의 브랜드파워에 힘입어 광주지역은 물론 한국 작가들의 국제적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광주비엔날레 20년 백서」는 광주비엔날레가 자라온 지난 20년간의 기록입니다. 창설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재단운영, 비엔날레 행사, 기타 여러 사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권으로 묶기에는 벅찬 작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초기자료들이 상당 수 유실되거나 퇴색되어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는 우리 재단은 물론 한국 미술계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이 백서 발간을 계기로 지나간 20년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20년, 나아가 100년의 발전을 위한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백서는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백서이기도 합니다. 이번 백서 발간을 위해 수고한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박 양 우**

1994

⓫ 광주비엔날레 개최 승인

⓬ 초대 조직위원장 임영방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 선임

❸ 광주비엔날레 재단법인 설립허가

❹ 광주비엔날레 재단법인 설립등기

❹ 제1대 강운태 이사장 취임

❼ 제2대 송언종 이사장 취임

❾-⓫ 제1회 광주비엔날레

- '경계를 넘어' 주제, 본전시 50개국 92명, 6개 특별전, 245명 작가 참여
- 관람객 163만4825명

1994
1995

1996

❷ 광주비엔날레 지원본부·광주시립미술관 조직통합

❸ 제2회 조직위원장 유준상 예술의전당 전시본부장 선임

❾-⓫ 제2회 광주비엔날레

- '지구의 여백' 주제, 본전시 35개국 117명, 5개 특별전 256명 작가 참여
- 관람객 90만8212명

❿ 제2회 광주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

1996
1997

1998

❸ 제3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총감독 최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선임

❼ 제3대 고재유 이사장 취임

⓫ 제3회 광주비엔날레 국제심포지엄

⓬ 최민 전시총감독 해촉, 신임 전시총감독 오광수 국립현대미술관장 선임

❹ 제4대 이사장 차범석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선임

❽ 광주비엔날레 재단·광주시립미술관 조직분리

1998
1999

2000

❸ 제3회 광주비엔날레

- '人+間' 주제, 본전시 46개국 90명 5개 특별전 1439명 작가 참여
- 관람객 61만4231명

❹ 제3회 광주비엔날레 국제학술심포지엄

⓫ 제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성완경 인하대 교수 선임

2001

❶ 이사장 사임에 따른 제5대 김포천 이사장 취임

❺-❼ 1기 광주비엔날레 미술영상대학(91명 수료)

❾-⓫ 2기 광주비엔날레 미술영상대학(100여명 수료)

2000
2001

2002

❸ 제6대 김포천 이사장 연임

❸-❻ 제4회 광주비엔날레

- '멈춤' 주제, 프로젝트1 33개국 326명 외 3개 프로젝트 99명 작가 참여
- 관람객 55만6623명

❺ 제4회 광주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

❾-⓫ 3기 비엔날레 미술영상대학(128명 수료)

2003

❷ 제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이용우 뉴욕매체예술센터 관장 선임

❹-❼ 4기 비엔날레영상대학(42명 수료)

⓫ 제5회 광주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

2002
2003

2004

❶ 제5회 광주비엔날레 참여관객 워크숍

❾-⓫ 제5회 광주비엔날레

-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주제, 주제전 39개국 104명 4개 현장프로젝트 108명 작가 참여
- 관람객 51만8508명

❾ 제5회 광주비엔날레 참여관객 대토론회

2005

❶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순종 총감독 선임

❹ 제7대 한갑수 이사장 취임
제6회 광주비엔날레 김홍희 예술총감독 선임

❿-⓫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삶을 비추는 디자인' 주제, 본전시·특별전 등 33개국 829디자이너·기업 참여
- 관람객 28만8513명

2004
2005

2006

❻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순인 총감독 선임

❾-⓫ 제6회 광주비엔날레
- 첫장·마지막장 32개국 127명 작가 참여
- 관람객 70만111명

❸ 제8대 한갑수 이사장 연임

❼ 제7회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오쿠이 엔웨저·신정아 선임 신정아 감독내정 취소 및
오쿠이 엔웨저 예술총감독 선임

❿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빛 LIGHT'주제, 본전시·2개 특별전 등
45개국 927명 디자이너·103개 기업 참여
- 관람객 25만 1220명

2006
2007

2008
2009

2008

❹ 제9대 박광태 이사장 취임

❾-⓫ 제7회 광주비엔날레
- '연례보고' 주제, 길 위에서·제안·끼워 넣기 등
36개국 127명 작가 참여
- 관람객 35만6325명

❿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은병수 비움 대표 선임
제7회 광주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

❸ 제8회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뉴욕 뉴뮤지엄 특별전 디릭터 선임

❺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

❽-❾ 1기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15개국 26명 수료)

❾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더할나위 없는' 주제, 주제전·3개 특별프로젝트 등
48개국 519명 디자이너·376기업 참여
- 관람객 20만2053명

2010
2011

2010

❸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승효상 총감독 선임

❺-❻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전 '오월의 꽃' 전시

❼ 제10대 강운태(광주광역시장)이사장 취임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아이 웨이웨이 공동감독 선임

❽-❾ 2기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14개국 22명 수료)

❾ 아트광주 개최

❾-⓫ 제8회 광주비엔날레
- '만인보' 주제, 31개국 134명 작가 참여
- 관람객 35만6325명

❷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폴리' 시민보고회

❹ 제9회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 김선정·마미 카타오카 등
5인 선임(7월 알리아 스와스티카 추가선임)

❽-❾ 3기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 개강(18개국 23명 수료)

❾-❿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도가도비상도' 주제, 유명·무명·커뮤니티·광주폴리·비엔날레시티 등
40개국 146명 디자이너·86기업 참여
- 관람객 89만6502명

❾ 광주폴리 개막('소통의 오두막' 등 10개소)

⓫ 광주비엔날레 지원동 '제문헌' 개소

2012

❷ 제9회 광주비엔날레 1차 워크스테이션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영혜 총감독 선임

❺ 광주폴리Ⅱ 니콜라스 히르쉬 감독 선임

❻ 이용우 대표이사 직무개시

❽-❾ 4기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18개국 24명 수료)

❾-⓫ 제9회 광주비엔날레
- '라운드테이블' 주제, 집단성의 로그인 로그아웃 등
6개 섹션, 40개국 118명·팀 작가 참여
- 관람객 64만5061명

❿ 제1차 세계비엔날레대회

2013

❹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제시카 모건 총감독 선임

❼-⓬ 광주문화포럼(월 1회)

❽ 5기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17개국 21명 수료)

❾-⓫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거시기 머시기' 주제, 주제관·본전시·특별전 등 24개국
299명 디자이너·33개 기업/기관 참여
- 관람객 21만151명

❾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컨퍼런스

⓫ 광주폴리Ⅱ 준공식('광주천독서실' 등 8개소)

2012
2013

2014

2014

❺ 광주비엔날레 창설20주년 특별프로젝트 국제심포지엄

❻ 제10회 광주비엔날레 국제컨퍼런스(런던 테이트모던)

❼ 제11대 윤장현(광주광역시장) 이사장 취임

❽-⓫ 광주비엔날레 창설20주년 특별프로젝트 개막
('달콤한 이슬, 1980 그 이후', 광주시립미술관)

❽-❾ 6기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

❾-⓫ 제10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 '터전을 불태우라' 주제
- 관람객 34만6449명

⓬ 제12대 전윤철 이사장(전 감사원장) 취임

1부

약사 略史

광주비엔날레 20년 경계를 넘어, 창조적 혁신으로

예향, 5·18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창설

'2년마다 열리는 국제현대미술제'인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995년 시작되었다. 당시 '문민정부'가 내세운 '세계화·지방화'정책에 실천적으로 부응하면서 광복 50주년과 정부 지정 첫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한국 미술문화를 새롭게 도약시키려는 정책적 차원의 국제문화행사 창설이었다.

또한, 1995년은 '비엔날레'의 모태인 베니스비엔날레가 100년째 되는 해였다. 게다가 그 주 무대인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에 마지막 국가관으로 한국관을 개관하는 해이기도 해서 그 고무된 기운을 타고 한국에도 국제 비엔날레를 창설하려는 작업이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는 처음부터 개최 대상지가 아니었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만한 도시 인프라도 너무나 빈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원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범국가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예향으로서 문화예술 전통을 현대로 계승 발전시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도시의 상처를 문화적으로 치유하여, 그 '광주정신'을 인류의 미래 지향가치로 승화시켜 간다는 문화·정치·사회적인 여러 명분들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받아들여져 광주 개최로 결정되었다.

광주비엔날레는 창설 취지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 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 생산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모색해 왔다. 아울러 "동·서양의 평등한 역사 창조와 21세기 아시아 문화의 능동적 발아를 위하여, 그리고 태평양시대 문화공동체를 위하여…" 국제현대미술제 형식을 빌려 여러 민족·국가·문화권 간의 문화적 소통의 폭을 넓혀 가는 20년 역사를 펼쳐왔다.

2014년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와 광주광역시의 공동 주최로 중외공원문화벨트 일원에서 2년마다 약 2개월여 간에 걸쳐 10회의 행사를 치러왔다. 그동안 매회 인류의 사회문화 현실과 주요 이슈, 지향하는 미래가치를 함축한 주제와 전시 개념을 다양한 방식의 시각이미지로 구성해내는 '주제전'과 함께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특별전 또는 '특별프로젝트', 전시 담론을 학술적으로 넓혀내기 위한 '국제심포지엄', 시민·관객들이 함께 꾸미고 즐기는 '참여프로그램'들로 진행하였다.

'주제전'은 비엔날레관을 주 무대로 예술총감독의 전시 기획 방향과 개념, 공간 연출에 따라 작은 단위들로 나누어지면서 회당 평균 35개국 내외, 100~120여명의 작가들이 초대되었다. 전시공간은 기획 의도에 따라 주제전과 특별프로젝트의 일부 전시나 관련 프로그램을 중외공원 주 사이트 밖의 광주시내 필요 장소에서 분산 개최하기도 하였다. 일반대중의 행사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참여프로그램'은 주제전의 전문성이나 무게감과 다른 친숙하고 흥미로운 문화공유 현장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면서 시민·관람객의 행사 참여 기회와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현대미술 관련 이벤트 또는 공동 진행 프로그램들로 운영되었다.

또한 '국제심포지엄'은 우리 시대 미술 문화의 창조적 가치를 이끌어가기 위한 담론의 확장과 미학적 논의들을 전시 개념과 연결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학술마당이었다. 따라서 관련 분야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시각이미지 중심의 전시행사와 병행하는 정신문화의 한 장을 열어 왔다. 아울러 높아진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적인 시각문화 거점으로서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현대미술 정론지인 『눈 NOON』 발간과, 신진 전시기획자들의 양성과정인 '국제큐레이터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성장통 겪으며 국제 시각문화거점으로서 민관협력체제 구축

광주비엔날레 조직운영은 민관협력 체제를 기본으로 한다. 창설 추진부터 초기과정에는 광주시 행정체계에 따라 시장이 재단이사장, 행정부시장이 사무총장을 겸했고, 분야별 부서를 두어 파견 공무원과 민간 계약직들로 사무처를 운영하였다. 제2회 때는 광주시립미술관 조직체계를 기본으로 미술관장이 재단의 사무차장을 맡고, 학예연구실장이 재단의 전시기획실장을 겸하였다.

제1~2회 때는 재단 이사회와 별도로 조직위원회를 두어 미술계 원로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세계 주요 권역별 또는 소주제별 커미셔너를 선임하였으며, 재단 사무처에 전시기획실을 두어 전시 관련 기획과 실무를 추진토록 하였다. 그러나 비엔날레라는 행사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배가시키기 위해 제3회 준비 초기에 조직위원회를 전시기획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직위원장 대신 전시총감독제를 도입하여 전시기획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제4회부터는 예술총감독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제3회 행사 준비 과정에서 문화예술 기획의 자율성과 행정관리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어 1998년 12월

전시총감독이 해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발하여 전시기획위원 전원이 총사퇴하고 직원 6인이 해고되면서, 광주비엔날레 민영화 파동이 촉발되었다. 전국단위 범미술인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비엔날레 정상화 운동에 가세하면서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동 관심사로 확산되었다. 재단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 99년 2월 민간 이사장 중심의 독립된 민간법인 조직체계로 전환을 결정하고 부당 해고로 판정된 6인을 복직시켰으며, 8월에 광주시립미술관과 재단 조직을 분리시켰다.

당초 제3회 행사시기는 격년제에 따르면 1999년 가을이어나 하나 2000년 봄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세기말보다는 전 지구적 의지가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새로운 천년(밀레니엄)의 봄에 빛고을 광주로부터 세계 인류사회에 문화적 비전을 제시하자는 의도였다. 아울러 2002년 개최 예정인 한일월드컵에 국제문화행사인 비엔날레를 연계시키기 위해 미리 전 회부터 봄철 행사로 치러보자는 판단이 복합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3회 행사는 2000년 봄에 개최되었고, 첫 총감독제이지만 과도기 상황에서 이전의 권역별 커미셔너제를 유지하여 전시를 연출하였다.

제3회 행사 폐막 후 재단은 시민공청회와 발전방안연구를 진행하여 10월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재단의 13팀을 6팀으로 통폐합하고, 정원도 36명에서 20명으로, 파견공무원 수도 대폭 줄여 조직을 축소하였다. 민간법인으로서 조직역량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성장과 높아진 대외 위상을 기반으로 국가 문화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사업이 추진되었다. 즉 제5회 행사의 개막식에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여 '문화수도 광주'를 선포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출발을 알리게 되었다.

2005년에는 광주비엔날레가 다져 온 국제적 위상과 경험을 도시 디자인산업 진흥과 연계 활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창설하고, 그 주관을 재단에 위탁하였다. 이때부터 짝수 해에는 광주비엔날레, 홀수 해에는 디자인비엔날레를 격년으로 교차 개최하면서 '비엔날레 도시'로서 국제 시각문화 현장에서 광주의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비엔날레와 디자인산업을 접목 진흥시키기에는 지역의 한정된 산업 인프라와, 매년 두 행사의 교차 개최에 따른 준비 및 실행 과정의 집중력 분산, 재원확보와 인력운영의 부담, 행사의 성격과 지향가치에 대한 이견 등이 뒤따르기도 하였다.

2007년 들어 변화된 환경 속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 구체화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모색하기 위해 내부 T.F와 외부 용역에 의한 발전방안연구를 진행하였다. 성과와 여건 등에 관한 진단 분석, 주요 비엔날레 동향분석, 비엔날레 활동 단위별 발전방안 수립, 정체성 및 차별화 재정립, 조직과 재정운영 효율화, 비엔날레를 통한 지역 파급 효과와 도시마케팅 전망 등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보다 발전적 성장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의 시점에 제7회 광주비엔날레의 공동감독으로 내정된 신정아 동국대 교수의 가짜 학위 파문이 일면서 안팎으로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재단은 공동감독 내정을 취소하고 선출직 이사 전원이 총사퇴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 광주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다시 겸하는 체제로 재 전환 되었다. 다만, 광주시장의 재단 이사장으로서 겸직 활동에 한계가 있어 민간 전문인을 상임부이사장으로 운영체제를 보완하고 정책연구실을 신설하였으며, 이후 책임경영체제를 표방하여 상임부이사장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였다.

창설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제반 여건과 개최 환경에서 1997년과 2002년, 2007년에 이어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20주년을 앞두고 재단운영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기 위해, 2013년 내부 T.F 기초연구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집단의 발전방안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조직 진단과 환경 및 현황 분석, 전략목표 및 과제 설정, 조직·재원·마케팅·네트워크 활성화 전략 등 주로 재단 경영과 관련된 연구들로 재도약의 토대를 다지고자 하였다. 다만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2014년에 광주비엔날레 행사와 별도로 연초부터 20주년 특별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서 조직개편 등을 가을 행사 이후로 유보하였다. 그러나 특별프로젝트 개막 직전에 전시 예정작품 '세월오월'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재단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혁신위원회(2014. 9.~2015. 2.)를 꾸려 사태수습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 광주시장이 명예이사장으로 물러나고 다시 외부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게 되었다.

창설 20년을 계기로 재도약을 꾀하던 내부 혁신 작업은 물론 자칫 제10회 행사마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혼돈기에 문화예술·경영·시민사회 활동가 등 15인의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의 문제점과 해소책, 개선 과제들에 관한 집중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활동의 결과물을 2015년 2월에 '혁신위원회 발전방안'으로 발표하였고, 재단은 이를 토대로 내부 T.F를 재구성해 정책 과제와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여 4월에 '광주비엔날레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으로서 정체성과 비전, 정책목표 및 실행과제, 새 CI 등을 발표하였다.

변화와 성장, 현대 예술담론의 선도

광주비엔날레는 격년제 국제현대미술전시회이다. 전시는 3회까지 본전시와 특별전을 기본 구성으로 삼고, 외부 일부 전시들을 기념전 또는 후원전으로 연계하였다. 본전시는 매 회별 대주제에 관한 기획전으로 주 공간인 비엔날레관에 펼쳐지고, 특별전은 당대 시각문화 현장의 주요 이슈나 과제를 전시나 프로젝트 형태로 꾸며 인접 미술공간들에 배치하였다. 이 같은 전시구성 체계는 4회에는 주·부의 개념 없이 프로젝트 단위로 균등하게 위치시키고, 5회 때는 주제전과 현장전으로, 6회부터는 주제전으로 일원화하였다. 더불어 지역 공사립 미술관이나 단체가 기획한 전시의 일부를 기념전 또는 후원전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미술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주 전시의 기획은 제1·2회는 조직위원장의 총괄 아래 전시기획실장이, 3회는 폐지된 조직위원장 대신 전시총감독이, 4회부터는 예술총감독으로 명칭을 바꿔 책임 진행하였다. 1~3회까지는 권역별·소주제별 국내외 커미셔너들이 기획을 분담하고, 이후로는 총감독과 큐레이터들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총감독 선정에서 국내·외 인사의 전제를 두지는 않았지만 7회부터 연속으로 외국인 총감독이 기획을 맡게 되었다.

전시 장소는 광주광역시 중외공원문화예술벨트 내 비엔날레전시관을 주된 공간으로 삼고, 기획에 따라 인접한 광주시립미술관과 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을 연결해서 구성하였다. 아울러 2002년 제4회 이후 광주시내 역사 문화적 공공장소, 전통시장이나 폐 공간 등을 전시 사이트로 삼아 개최지 또는 지역사회 현장과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광주비엔날레 행사성격은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축제'로 설정하여 실험적인 주제전시 이외에 공연·이벤트 등 부대행사를 병행하였다. 이는 전문영역과 더불어 일반시민과 관객들의 문화향유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로, 행사 준비기간 사전 이벤트, 개막전 프레 오픈과 전야제, 행사기간 중 다양한 국내외 공연과 참여프로그램들로 미술 이외 장르에서도 폭넓게 동참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른 문화현장의 분화와 경쟁적인 축제행사들의 남발로 굳이 비엔날레에서까지 대중 상대의 일반 축제성 공연·이벤트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지 재정리가 필요했고,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참여도나 만족도가 점차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적인 시각문화 현장으로서 매회 주제전시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 제7회부터는 전시 이외 동반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점차 미술관련 참여프로그램이나 주말 이벤트 중심으로 간소화하였다.

한편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학 학기제 방식의 '비엔날레 미술영상대학'을 4기 운영하였다. 매회 100여 명씩 배출된 수료자 상당수는 자원봉사, 문화해설, 도슨트 등의 현장 활동을 이어 갔다. 2002년부터 시작된 도슨트는 전시 운영에 필요한 작품설명 서비스 요원이면서 전문인력 양성 효과도 겸할 수 있었다. 여러 회를 참여하면서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들 가운데서 공사립 미술관 또는 문화현장의 전문가로 활동력을 넓히는 경우들도 많다.

2002년 제4회 때는 본전시·특별전 구분 대신 4개 '프로젝트'로 전시 단위를 균등화하여 5·18자유공원과 옛 남광주역 일원 등 광주의 역사적 장소 또는 일상 삶의 공간을 전시 사이트로 개발하여 개최지 사회 문화현장과 연결하였다. 이는 1997년 제2회 때 특별전–공공미술프로젝트에 이은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2004년 제5회 때도 주제전 이외에 새로 개통된 광주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자유공원·비엔날레 광장 등 4개 '현장'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아울러 광주비엔날레의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부응할 대외역할로서 2009년부터 국내외 신진기획자 양성을 위한 국제큐레이터코스 운영, 현대미술과 인문사회학을 연결하는 정론지 『NOON』 발간을 시작하였다. 국제큐레이터코스는 매회 사전공모를 통해 20~25명의 신진 기획자나 전공자들을 선발하여 개막 전 한 달여 간 광주에 머물며 비엔날레 총감독과 큐레이터·초청강사의 강의, 그룹스터디, 전시현장학습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어 2014년까지 6기가 배출되었다. 『NOON』은 매호별 특집주제에 따른 전문 학자 및 활동가들의 논고와 비엔날레 및 현대 시각문화 현장의 소식들을 담아내는 전문지로 2014년까지 5호가 발간되었다.

2010년은 광주비엔날레 창설의 주요 배경의 하나인 5·18광주민주화운동이 30주년 되는 해였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제8회 비엔날레 행사와는 별도의 특별프로젝트로 '오월의 꽃'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시립미술관 등과 공동주최로 기획하여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광주의 오월을 기념하였다. 또한 예향 전통 및 왕성한 창작활동에 비해 기반이 부실한 지역의 미술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주최로 재단에 위탁한 '제1회 아트광주'를 인큐베이팅 차원에서 맡아 주관하였다.

2011년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때는 전시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광주폴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도심의 사라진 옛 광주읍성 성벽터 10군데에 국제적인 건축가들의 폴리작품들을 설치하여 광주 역사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복원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가는 연속 프로젝트다. 이 광주폴리는 읍성터 외에 푸른길 1개소에 함께 진행되었고, 2013년 2차 프로젝트로 광주역 앞, 광주천변 등에 8개 작품이 추가 설치되었다. 2015년에는 1·2차 조성 결과에 관한 평가 분석을 거쳐 3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012년에는 아시아 출신의 여성기획자 6인을 공동감독으로 선정하여 '라운드 테이블'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였다. '광주정신'을 토대로 수평적 관계의 기획 진행방식에서나 기획자 간에, 전시 섹션별 구성에서도 그 정신을 따르고자 하였다. 이 해에 비엔날레 120여년 역사상 최초의 '세계비엔날레대회'를 재단이 주관하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주 행사장으로 서울·부산 등을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이 대회 기간 중 개최한 '비엔날레 대표자회의'에서 협회 결성을 결의하여, 이듬해 3월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에서 '세계비엔날레협회'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초대회장에 재단 대표이사가 피선되고, 사무국도 광주에 개설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은 창설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재도약하기 위한 '터전을 불태우라' 주제의 제10회 행사와, 20주년 특별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내부적으로는 발전방안연구에 이은 혁신위원회의 개혁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외부적으로는 20주년 특별프로젝트 전시작품 파행에 따른 혼돈이 행사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제10회, 20주년 특별행사를 계획대로 마칠 수 있었다.

창의와 혁신의 발걸음, 광주에서 세계로

광주비엔날레는 10회의 전시행사를 치러오면서 국제적인 문화도시이자 민주도시로서 문화발신지가 되어 한국-아시아-세계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향으로서 전통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의 기반이 열악한 광주에 비엔날레가 창설된 것은 충격과 축복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낯선 실험적 형식의 작품들에서 마주한 문화적 자극은 후일 광주는 물론 한국의 작가들에게 세계적인 무대로 나가는데 학습의 기회와 영감을 주었다. 이른바 '비엔날레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된 셈이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는 '경계를 넘어'였다. 이에 따라 세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이념과 국가, 종교, 인종, 문화, 인간, 예술 사이의 복잡다단한 경계를 넘어서 세계 속의 시민 정신을 향한 메시지를 담았다. 국제현대미술축제로서 새 장을 열었던 창설 비엔날레 행사에서는 개최지 광주의 특성을 살린 '광주 5월정신전', '증인으로의 예술전'과 남도 예향의 정체성을 부각시킨 '문인화와 동양 정신전'을 비롯하여 '한국현대미술의 오늘''한국 근현대 미술 속의 한국성'전 등 6개 특별전을 통해 광주, 한국의 현단계 미술현장의 모습을 비추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제2회 광주비엔날레는 세기말 인간중심주의적 태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만물이 평등하게 공생하는 성찰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따라서 삶의 터전인 지구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생성, 새로운 창조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주제로서 '지구의 여백'을 마련했다. 본전시는 동양의 오행 사상을 현대 문명사회와 대입시켜 5개 소주제로 구성하고, 특별전으로 공공미술 '도시의 꿈'을 비롯 '일상, 기억 그리고 역사' '삶의 경계' '동서 명작전' '청년 정신전'을 마련해 광주 전역이 미술축제의 장이 되기도 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2000년 제3회 때는 그동안 대륙별 커미셔너 책임 아래 전시기획이 되었던 틀에서 벗어나 전시 총감독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전체 통합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새 천년의 봄에 인간 삶의 환경에 대한 진단과 모순을 파헤쳐 인간 삶의 조건을 보다 건강하게 가다듬어 가자는 절실한 명제로서 주제 '人+間'을 제시했다. 대륙별 5개 권역과 1개 특별코너로 구성된 본전시와 더불어 5개 특별전이 진행되었다. 특히 제3회 광주비엔날레는 남북 관계의 호전과 북한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그동안 기념전으로 다루어오던 '북한미술'을 특별전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제4회 광주비엔날레는 총감독의 책임기획력을 높이고 전시의 구성단위 및 큐레이터를 최소화하였다. 전시와 부대행사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축제행사도 총감독 총괄 아래 두면서 전시총감독에서 예술총감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급속한 변화가 거듭되는 현대 문명사회와 기계적 삶에 대한 반성적 접근과 문화적 성찰로서 '멈춤'을 주제로 설정하고 본 전시와 특별전 틀을 벗어나 동등한 위치의 프로젝트 1~4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특히 국내외 미술현장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던 대안공간들을 비엔날레의 본 무대에 초대하여 최근 문화 동향에 적극 대응하면서 비 제도권 실험적 전시문화로서 비엔날레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그 일환으로 중외공원 이외 5·18자유공원, 남광주 폐선부지 등을 행사장소로 개

발함으로써 개최지 광주의 역사와 일상 공간 속으로 전시를 연결하였다.

제5회 광주비엔날레는 행사 기본 방향을 동양적 사유담론 제시와 실험적 현대 미술제 중심의 복합문화 축제를 기조로 추진하였다. 동양적 사유 전통에 바탕을 둔 풍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시각적 전시와 인문사회학적 담론화 작업을 통한 '문화생태학적 제안'및 '관객의 주체적 문화 생산 참여'의 장을 열고자 하였다. 주제전 외에 비엔날레 앞마당, 새로 개통된 광주 지하철, 역사적 공간인 5·18자유공원 등을 현장 프로젝트 장소로 연결함으로써 비엔날레와 개최지 광주, 시민사회, 도시 일상 삶의 현장과 접점을 넓혀나갔다.

제6회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의 눈으로 세계 현대미술을 재조명, 재해석한다는 취지로 '아시아'를 대주제로 삼았다. 주제 '열풍변주곡'은 최근 아시아의 새로운 변화 에너지, 역동적 비전과 함께 아시아 권역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이 열풍처럼 전 세계로 파급, 확산되는 아시아 효과 및 그 다층적 함의를 담보하고자 하였다. 초기 기획부터 시민 참여자 워크숍 등을 통해 일반 시민이 문화 현장의 주체가 된 '광주별곡'을 통해 진행 방법에서 관객 서비스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문화 참여마당을 제공하였고, 신예 전시기획자의 발굴과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전시기획 공모형식의 '미술오케스트라'는 미술 관련 부대행사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었다.

제7회 행사의 공동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국내감독 내정자의 가짜학위 파문으로 2007년은 격동의 시기였다. 따라서 첫 외국인 총감독체제에서 현지 어시스턴트와 재단 실무팀으로 준비를 이원화하여 진행하고 설치 전에 합류하는 등 늦어진 일정을 차질없이 메워나갔다. '스펙터클의 정치학'을 기조로 현대미술과 인문·사회·문화 정치 또는 관련 분야와의 관계를 확장하고, 만남과 매개의 공간으로서 문화교류, 형식과 매체, 작가와 제도, 기관과 지역성 사이의 유연하고 흡수적인 관계를 모색하였다. 특히 대인시장 '복덕방 프로젝트'를 통해 비엔날레를 계기로 행사 후에도 도시문화사업으로 연결되는 문화 사회적 의미 외에 쇠락한 재래시장에 활기를 돋우고 매출이 늘어나게 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도시재생의 큰 어젠다를 제시했다.

제8회는 7회에 이어 국제적 명성과 뛰어난 기획력의 외국인 예술총감독과 재단의 안정된 조직 운영, 체계화된 실행 체계로 세계 10대 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주제나 섹션에 따라 전시를 나누지 않고 특정 주제 및 작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시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경험을 유도하였다.

동반행사였던 '나도 비엔날레 작가 : 만인보+1'은 시민과 함께하는 비엔날레를 기본 방향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큐레이터 코스'를 개설하여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신진 큐레이터 간 다국적 네트워크 형성과 참여자간 전시기획 및 협력에 관한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눈 예술상' 제정으로 그간 시상제도를 재정립함으로써 역사성과 일관성을 되새기고자 하였다.

제9회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6인의 여성 기획자들을 공동감독으로 선임하였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아시아 여성감독들의 시각과 해석을 통해 창의적 방식의 전시로 펼쳐지는 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광주의 신진작가 발굴에도 역점을 두었다. 6인의 수평적 공동감독체계로 다중적인 전시 실행체제의 '라운드 테이블'주제를 실현코자 하였으며,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기념비적인 작품 대신 대중적인 친화감과 다양성을 펼쳐놓고자 하였다. 또한 역대 행사 중 가장 많은 지역작가 참여로 광주의 사회문화적 지리적 맥락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제10회 광주비엔날레는 현대미술 전시공간의 전형인 '화이트 큐브'에서 벗어나 다양한 컬러와 화염 패턴으로 전시공간을 연출하였다.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주제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퍼포먼스와 사운드작품들의 대거 출품, 400여 명의 일반 시민이 작품의 일부로서 비엔날레 현장에 참여했다. 아울러 중외공원 일대로 전시 공간을 제한하여 전시장의 집중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시내 사이트를 발굴 연계해온 이전과는 다른 기획을 보여주었다.

창설 20년을 넘어 성년이 된 광주비엔날레는 제11회 행사를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와 미비점을 진단하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3년에 내부 T.F와 외부 연구용역으로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엔날레 본연의 성격과 지향 가치를 보다 분명히 하고 새로운 예술담론을 풍부히 이끌어내는 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부

세계 현대미술에 던진 아시아적 화두 1995-2014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20년 전시

1회 광주비엔날레
경계를 넘어

1995. 9. 20 ~ 11. 20
50개국 92명의 작가
163만명의 관람객

2회 광주비엔날레
지구의 여백

1997. 9. 1 ~ 11. 27
35개국 117명의 작가
91만명의 관람객

3회 광주비엔날레
人+間

2000. 3. 29 ~ 6. 7
46개국 90명의 작가
61만명의 관람객

4회 광주비엔날레
멈-춤

2002. 3. 29 ~ 6. 29
33개국 326명의 작가
56만명의 관람객

5회 광주비엔날레
먼지한톨물한방울

2004. 9. 10 ~ 11. 13
39개국 104명의 작가
52만명의 관람객

6회 광주비엔날레
열풍변주곡

2006. 9. 8 ~ 11. 11
32개국 127명의 작가
70만명의 관람객

7회 광주비엔날레
연례보고

2008. 9. 5 ~ 11. 9
36개국 159명의 작가
36만명의 관람객

8회 광주비엔날레
만인보

2010. 9. 3 ~ 11. 7
30개국 134명의 작가
49만명의 관람객

9회 광주비엔날레
라운드테이블

2012. 9. 7 ~ 11. 11
63개국 330명의 작가
65만명의 관람객

10회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

2014. 9. 5 ~ 11. 9
38개국 103명의 작가
18만명의 관람객

성년이 된 광주비엔날레는

세계현대미술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아시아의 대표 비엔날레로 성장했다.

2006년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슈민 린의 <내공>.

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예술적 소통과 담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2012년 전시주제 '라운드테이블'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 참여작가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진행한 라운드테이블 워크스테이션2.

광주비엔날레 전시주제는

매회 세계현대미술계에

새로운 관심과 화제를 촉발했다.

2014년 '터전을 불태우라'를 준비하면서 런던 테이트모던과 연계해 런던 현지에서 가진 컨퍼런스 모습.

1장

창설

도시 인프라가 취약하고 비엔날레라는 국제행사의 성격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상황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창설이 가능했던 것은 역사적 상처를 딛고 문화로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적 열망과 절실함이 컸기 때문이다.
행사 승인 후 개막까지 9개월여 동안 숨가쁜 일정으로 전문가, 행정가, 지역민들과 출향기업인 등이 합심해 예산을 만들고, 하드웨어와 전시를 꾸려 역사적 개막을 이뤄냈다.

1994년 11월 역사적 창설 선언

광주비엔날레 창설을 위한 움직임은 1994년 9월 28일 광주시에 실무기획단이 꾸려지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출향 재경 인사인 김영중 원로조각가의 제안에 당시 강운태 광주시장이 즉각 의기투합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다. 대부분 국가단위 큰 시설과 행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는 당시 상황에서 광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 때문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 대규모 국제미술행사를 광주로 유치하게 되었다. 그해 11월 5일 문화체육부가 개최를 승인하고, 14일에 언론을 통해 개최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비엔날레 창설이 공식화되었다. 12월 설립준비위원회에 이어 바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국제심포지엄과 국내심포지엄이 연달아 열리는 등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광주비엔날레를 도시 변화의 전기로 삼으려는 광주시의 확고한 의지와, 범국가적 행사로서 정부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광주비엔날레 중앙지원협의회' 및 외교부 주관의 '중앙홍보협의회'의 지원,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와 범시민지원협의회 등의 역할 분담과 협력 속에서 행사 추진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5년 3월 29일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고, 4월 1일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공식적인 추진체계도 갖추어졌다.

행사 승인에서 개막까지는 실로 숨 가쁜 일정이었다. 대규모의 국제적인 미술이벤트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고 예산, 조직, 전문인력, 공간 등 무엇 하나 갖춰진 것이 없었다.

1994년 11월 설립 승인을 받은 직후 설립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광주비엔날레 준비는 본격화 되었다. 12월 13일 창립총회를 가진 조직위원회에는 중앙부처 관계관과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및 지역 언론사 사장, 미술인, 미술평론가 등 53명이 참여하였다. 조직위원장으로는 창립총회에서 임영방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선출됐고 조각가 김영중 씨와 광주직할시 이만의 부시장, 미술평론가 오광수 씨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강봉규 광주예총회장과 최만린 서울대 미대학장이 실무집행을 담당할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아 행사 준비 실무 작업을 진행했다. 집행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총회의 의견을 존중해 빠른 속도로 사업추진을 주도하였다.

광주비엔날레 준비는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전시관 등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과 행사의 정체성을 정하고 전시주제를 제시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한편으로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과정에서 그 개최 명분과 행사 개최 시기, 진행 방식 등에 대한 찬반론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특히 오월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 참여미술 진영에서는 불만과 비판적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국적 불명의 외래 행사를 끌어들여 이를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저항감과 경계심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미술인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광주통일미술제추진위원회가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광주 망월동 5·18묘역 일원에서 국내외 100여 명의 현실주의 참여미술 작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안티비엔날레-95광주통일미술제>(1995. 9. 20~10. 15)를 별도로 개최하였다.

그러나 광주비엔날레 창설 행사에 비판적 대립각을 세우고 기획된 이 행사가 5·18 및 전 세계 민중미술, 참여미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결국 광주비엔날레와 서로 상승효과를 불러 일으켜 양쪽 모두 기대 이상의 이슈와 참여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안티비엔날레로 시작된 이 광주통일미술제는 국내외 참여미술인들의 결집의 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1997년 제2회 광주비엔날레 때는 특별기념전으로 연계되어 망월동 오월묘역에서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하고 정치·사회 환경 및 내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추진되지는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완공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당시 광주의 전시 하드웨어는 국제적인 미술행사를 치러내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조직위원회는 전시관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신축 전시관은 국제적인 규모의 미술행사에 맞는 규모와 설비를 갖추고 건축적인 미감도 지녀야 했다. 방재, 방범, 항온, 항습시스템이 있는 첨단 미술전시관으로 짓되 항구적 사용을 위해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접근도 용이하며 최대한의 전시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부지와 규모는 여러 차례 회의와 토의를 거쳐 중외공원 내 수영장 부지가 최종 선정되었다. 건립후보지로 검토된 중외공원 일대는 여러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문화벨트화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미술관 건립 규모를 수용할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남양건설(주) 마형렬 대표이사가 흔쾌히 조기 기부채납을 승낙하여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엔날레전시관 건립부지는 총 10만6,516㎡ 규모로 당시 광주시민의 휴양시설인 어린이대공원이 있어 녹지가 확보되어 있었다. 또한 주변에 여러 관공서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은 물론 아파트단지 및 주택지구가 인접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했다.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최대 관건인 시점에서 1994년 12월 지역 연고기업인 나산그룹과 덕산그룹이 2,000평 규모의 전시장을 건립하여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청신호를 밝혔다. 우선 양 그룹에서 설계자를 지정하여 빠른 시일 안에 설계에 착수키로 합의, 서울이웨스설계사무소를 설계자로 지정, 기본계획에 착수하였다.

선진 미술관 시설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베니스, 카셀, 프랑크푸르느 등 미술관 시설을 견학한 후, 2월 4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계와 주변 정지공사를 병행키로 결정, 공사는 덕산그룹에서 시공하기로 하고 1995년 2월 10일 기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1995년 2월 27일 덕산건설의 부도로 설계용역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를 맞았다. 비엔날레 개막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미 완성상태였던 기본설계를 참고해 광주시 주관으로 공사착수가 이뤄졌다.

그 후 대호종합건축사무소의 협조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시공에 들어갔다. 공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규모, 외부모형, 전시 공간 변형 등을 위해 3차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를 진행한 끝에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은 1995년 9월 준공되었다. 절대적인 공기 부족으로 치밀한 계획과 기본 설계가 미흡한 가운데서 시작한 공사였으나 설계 및 감리자, 발주처 및 시공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공한 결과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었다.

전시관의 건폐율은 8.78%, 용적률은 16.63%, 연면적은 1만3,329㎡으로 지상 3층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며, 총공사비 84억2241만9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층고는 1층-4.7m, 2층-7.5m, 3층-5.5m이며 최고높이는 21.7m이다.

주 전시관은 A동, B동, 연결동으로 나누어 우체국, 은행 등 편의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고 레벨의 차이를 이용하여 전 층을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1층은 사무공간과 5전시실, 전기·기계실이 있으며 2층에는 1·4전시실 및 중정, 3층에는 2·3전시실 및 연결통로로 구성되었다. 주 출입구인 1층 출입구 정면에는 마당을 두어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2층 중정과 만나는 부분에는 소규모 야외공연장을 두어 소규모의 콘서트나 퍼포먼스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면계획은 모듈로 하여 전시관 내부의 관람을 위해 효율적으로 동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층별로 조명을 처리하여 관람객 수용능력을 증대시켰다. 또한 전시관 사용 시 가용벽면이 최대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창문을 내지 않음으로써 창을 통한 전시관 내부로의 자연광선을 배제하여 에너지 절약효과와 작품에 대한 인공조명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고 전시관 내부의 구획을 임의로 자유로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변의 자연경관과 지형의 형태를 그대로 입면에 반영하였고 전시관 건물의 특성과 창문을 내지 않는 형식을 취하여 자유로운 입면 형태를 취하였다. 외장재인 드라이 비트의 특성을 살려 베이지색의 넓은 평면에 수직과 수평의 기하학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지형의 형태를 살리고, 중간에는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을 두어 각 동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2층 주 출입구 부분의 형태를 일반적인 출입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방향을 15도 각도로 변화를 주어 건물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더불어 관람객의 동선 자체를 자유스럽게 유도시켰다. 많은 인원과 하중이 큰 작품이 운집하는 만큼 안전에 최대 역점을 두며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에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풍하중 및 지진하중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전시관이다.

창설의 이념과 정체성을 만들다

조직위원회는 전시관을 짓고 운영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한편,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체화 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취지와 정신을 담은 선언문은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민주성지로서 광주의 상징성과 예향으로서의 특성을 밝히는 한편 기존의 비엔날레와의 차별성을 부여하고 분절된 한국사와 세계사를 극복해 새로운 예술의 가치와 지향을 밝혀내기 위한 선언문이 1995년 2월 제 4차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부록 창설선언문 참조>
창설 비엔날레로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회의 심벌·로고와 상징마스코트는 전국공모를 통해 제작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심벌·로고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시각디자이너 3인에게 지명 공모한 결과 포톤테크디자인 수석연구원인 장동훈씨의 작품이 최종 결정됐다. 무등산의 빛을 기본 형태로 광주비엔날레의 의미를 담은 심벌과 조선조 완판본 소설의 독판 글자체를 조형한 로고가 간결하고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광주비엔날레의 홍보와 친근감 확보를 위해 계획된 상징 마스코트 현상공모에서는 김창식(안양전문대교수, 시각디자인)씨가 광주시를 상징하는 시조, 비둘기에서 착안해 만든 '쿠비'(후에 비두리)가 선정됐다. 광주 비엔날레의 예술 축제적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양쪽 날개에 붓과 팔레트를 든 깜찍한 모습을 담고 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의 첫 주제는 짧은 기간에 정해졌지만 광주비엔날레 역사에 의미 있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창설지 광주의 역사적 토대와 지역적 정체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 창설된 비엔날레로서의 의미, 타 서구 비엔날레와 다른 독자성 등을 함축하고 광주비엔날레의 전망을 밝혀낼 수 있어야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조직위원회는 두 번의 국제, 국내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제안을 종합한 끝에 1995년 1월 3차 집행위원회에서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결정했다. '경계를 넘어'는 '이념과 국가, 종교, 인종, 문화, 인간, 예술 사이의 복잡다단한 경계를 넘어서 세계 속의 시민정신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학적으로는 무기력한 다원주의를 극복하고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며 예술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질서와 관계 정립을 위한 탐색의 장이 될 것'을 지향하는 주제이다. '경계를 넘어'가 갖는 의미를 기념비적으로 상징화하기 위한 기념 조형물인 '무지개다리'도 만들어졌다. 조각가 김영중씨의 설계로 북구 운암동 어린이대공원과 운암제를 연결하는 육교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경계를 넘어 이어지는 3개의 반원형 구름다리 형태이다. 포항제철로부터 8억원을 지원받아 제작된 이 다리는 7월 착공, 두 달여 만에 완성됐다.

2장

조직과 재정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조직은 20년 동안 현장의 요구와
갈등 속에서 성장통을 겪으며 안정화됐다.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낸 조직위원회와 행정력이 결합된 형태의
초기의 조직체제는 10회의 전시를 치르면서
전문성과 실행력이 조화를 이루는 민관협력체제로 발전해왔다.

1. 조직

1) 창설 초기 조직,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출범과 광주비엔날레 창설 준비

광주비엔날레 출범은 1994년 9월 광주시 실무기획단 설치와 12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거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제1회 행사의 행사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직운영 및 재원조달, 부대사업 시행을 주관하기 위한 의결기구로서 조직위원회는 위원총회를 중심으로 산하에 조직위원 중 위임사항을 기획 실행하는 집행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상정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기획조정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실무 추진 기구로 전시·행사·사업·홍보 등을 분담하는 실무부서들이 구성된 사무처를 두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아래 정부지원협의회, 중앙홍보협의회, 광주광역시종합지원단, 범시민추진협의회 등이 지원 및 자문기구로 구성·운영되었다.

그러나 1995년 4월에 광주비엔날레가 재단법인으로 등기를 마치면서 의결기구 기능은 이사회로 넘겨지고, 조직위원회는 주로 행사 및 전시의 기획과 준비에 관한 외부자문 및 협력기구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이어 제3회 준비 초기에 조직위원회를 전시기획위원회로 바꾸고 전시총감독제를 도입해 전시기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각계 전문가 망라한 대규모의 제1회 조직위원회

1994년 12월 6일 중앙과 지방의 예술계 인사와 지방언론사 사장 등 35명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13일 중앙부서 관계관,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 및 지방언론사 사장, 미술 분야 대학교수, 미술평론가, 미술 각 장르별 미술인 등 중앙과 지방인사 53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조직위원장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임영방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집행위원장에 강봉규 한국예총 광주시지회장이 선출되었고, 운영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정식 출범하였다.

조직위원회 공식명칭은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라 하고 광주비엔날레를 효율적으로 준비, 운영하여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면서 광주를 21세기 태평양지역의 문화예술 중심권으로 부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운영과 재원 조달,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조직위원 80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된 1994년 12월 13일 창립총회 개최 이후 제1회 대회가 폐막할 때까지 총 6차례의 위원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차기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임기가 만료되었다.

총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제1회 대회 주제를 광주비엔날레를 통하여 국가 민족 이념 종교 등을 초월한 세계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경계를 넘어'로 선정하고 1995년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중외공원문화벨트 일원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100억원의 대회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였고 집행위원회에서 창설선언문을 작성하여 조직위원회 명의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광주비엔날레 전시의 핵심인 국제현대미술전의 커미셔너를 아시아, 서유럽, 동유럽, 중동아프리카, 북중미, 남미, 한국, 오세아니아 등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집행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국내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비엔날레와 문화의 지역주의'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내학술심포지엄 각 1회를 개최하여 참여기반을 조성하였다.

조직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기획 실행하는 집행위원회는 1995년 1월 5일 제1차 집행위원회를 열어 조직위원회 직제규칙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광주비엔날레 선언문과 주제 기초안의 작성 위원을 선정하는 등 첫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후 1995년 11월 14일까지 행사 전 17회, 행사기간 중 2회 등 총 1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커미셔너 선정, 전시장 신축 기본개념 구상에서부터 명칭결정, 대회 심벌로고 선정, 전시기획안 및 기본계획, 특별전 기념전 후원전 범위와 큐레이터 결정, 축제행사 추진 방안 및 부대행사 계획, 시상제도 결정, 수익사업, 법인설립의 건, 해외 잡지광고 및 주요 언론사 초청, 전시작품 운송계약, 참여작가 체재비 지원 및 제작지원, 작품파손분실 건, 후원자 감사장 수여계획, 재단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 다수의 위임사항을 처리하였다.

'미술계 인사 중심으로' 제2회 조직위원회 규모 축소

제1회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방대한 구성으로 인해 운영상 비효율적이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제4차 재단이사회에서는 제2회 광주비엔날레를 이끌어나갈 조직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미술계 인사를 중심으로 선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조직위원회 구성 후에 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는데, 재단이사회에서 조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하고, 이들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관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후 조직위원장의 선임을 위하여 재단이사와 지역미술계 중진 원로들이 1996년 2월 2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3월 제5차 이사회에서 유준상 예술의 전당 전시본부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4월 개최된 제7차 재단이사회는 조직위원장이 제청한 후보 29명을 포함 30명의 위원을 확정하고 부위원장 3명은 조직위원총회에서 선출토록 하였다(사정상 위촉을 사양한 경우도 있어 제2회 조직위원회는 2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어 제2회 행사 첫 조직위원회의에서 송재구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이일 홍익대 교수, 임병성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위원회 산하에 전시기획·홍보·행사의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시기획분과위원회 19명, 홍보분과위원회 13명, 행사분과위원회 12명의 위원을 배정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였다. 1996년 4월 24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997년 8월 8일까지 6차례의 위원총회와 수차례의 분과위원회에서 행사기간 결정, 전시행사 기본방향 설정, 전시 주제안 및 전시마스터플랜, 특별전 기획방향과 추진일정 및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계획을 심의하였다. 더불어 97광주비엔날레의 전시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국민적 홍보를 위하여 국내 미술계와 문화예술계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준비단계의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96년 6월 2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97광주비엔날레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97광주비엔날레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주제발표'와 '97광주비엔날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이를 기초로 전시기획, 홍보, 재원 마련, 전시 실행, 관람 편의, 조직 등 전반적인 부분에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범정부적인 후원과 참가 국가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계 중앙인사, 주요국 대사, 교민 대표, 외국의 비엔날레 관계자를 명예위원으로 추대하고 전시기획 등 행사 전반에 걸친 자문과 지원을 구하기 위하여 사회 저명인사와 미술계 원로를 전시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2)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당시 우리나라에 비엔날레 개최와 관련한 문화기관 설립 선례가 없는 가운데 재단 설립을 통해 영속적인 개최 기반의 초석을 놓았고,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예술 인프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궁극적으로 광주 발전의 견인차로서, 나아가 세계 미술문화 현장의 질적 성숙을 위한 유효한 역할을 자임하는 만큼 광주비엔날레를 이끄는 주체로서 재단의 설립과 활동은 핵심적이라 하겠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설립은 1995년 2월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제4차 집행위원회에서 기금확보와 같은 물적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 외에 영속적이며 효율적인 행사추진을 위해 법인의 조기설립이 필요하다고 결의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같은 달 광주광역시청 상황실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강봉규 예총 광주시지회장, 박정구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이돈흥 미협 광주시지부장, 정경주 광주시의회 의장, 정영식 광주시 부시장 등 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재단설립 발기인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법인 명칭 및 정관을 의결하고, 법인 출연 기본재산을 조직위원회가 출연한 1억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1995년 사업계획을 결정하였다.

이어 1995년 3월 6일 민법 제32조에 의거 문화체육부에 허가를 신청하였고 3월 29일 문화체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4월 1일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정식 출범하였다. 법인의 초대 임원은 정관에 정한 당연직 임원 5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되 강운태 광주시장을 이사장으로, 강봉규 예총 광주시지회장과 정영식 광주시 부시장을 부이사장으로 선출했고 이사에는 강연균, 김명민, 박정구, 이돈흥, 정경주를, 감사에는 고경주, 류한덕을 선임하였다.

설립목적은 '재단은 광주비엔날레를 효율적으로 준비 운영하여 한국미술의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여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광주를 21세기 태평양지역의 문화예술 중심권으로 부상시키는 데 둔다.'라고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단은 광주비엔날레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을 맡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14년 12월 현재 285억원으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인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 재단의 역할과 임무 및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재단 조직체계는 재단기금 조성 및 관리, 사업기본계획 결정 등 재단운영의 주체로서 재단 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이사 5명이상 30명 이내, 감사 2명, 명예이사장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재단법인의 제반 실무집행기능을 맡고 있으며, 민간 개방형 대표이사, 광주시 파견 국장급 사무처장과 실무 공무원, 재단 민간 인력으로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다.

(1)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사회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미술영역 이외에도 문화계 인사와 전국단위 인사, 언론과 학계, 기업체, 시민단체 인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광주비엔날레의 경영, 인사, 운영 전반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광주비엔날레의 역사를 이끌어왔다.

이사회는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장, 한국미술협회광주광역시지회장, 광주광역시립미술관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었다. 당연직 이사의 범위는 첫 이사회 이후 여러 차례의 정관개정을 통해 현재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한국예총 광주지회장, 한국미협 광주지회장, 광주시립미술관장으로 변경되었다.

법인의 출범 이후 첫 이사회에서는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감사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였다. 이후 28차례의 정관개정을 거쳐 당연직이사 및 이사장, 연임 연한 및 임기 등이 수차례 변경되었다.

특히 1998년 말 최민 전시총감독의 해촉과 오광수 신임감독 긴급선임, 재단직원 6인 해고가 발단이 되어 광주비엔날레 민영화 파동이 범미술인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을 통해 광주는 물론 전국으로 번져 문화예술계에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직운영에서 광주시립미술관과 재단이 분리되고 본래 민간법인의 독자성을 보장하도록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는 광주광역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던 이사장을 민간인 선출직 이사장으로 전환해 광주시장은 명예이사장이 되었다.

2007년 공동감독 선임과정에서 발생한 당시 동국대학교 교수 신정아 국내감독 내정자의 학력위조 사건이 재단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 일파만파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사회는 혁신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갑수 이사장과 선출직 이사 전원이 사임하고 상임부이사장이던 임우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의 이사장 대행체제로 시민토론회를 거쳐 전문성을 보강한 이사진을 새롭게 개편했다. 그 일환으로 2008년 4월 명예이사장이던 광주광역시장이 다시 이사장을 겸직하고, 상임부이사장과 부이사장(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두는 등 정관과 관련 제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처럼 광주광역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상임부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보좌하는 체제는 2011년 재단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부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직제를 통합한 대표이사체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미술비평가이자 전시기획자인 이용우 상임부이사장이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 재단운영과 광주비엔날레 운영에서 국제적 위상과 관계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사업과 전시 및 행사의 기획 운영에서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광주비엔날레의 차별성 및 위상강화 작업은 2014년 8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프로젝트 전시 개막 직전에 터진 '세월오월' 걸개그림 파행으로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외부 각 분야에서 참여한 혁신위원회가 가동되고, 민간법인으로서 재단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장이 다시 명예이사장으로 물러나고,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가 2015년 12월부터 새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역대 이사장 명단

구분	이사장	임 기
1대	강운태(광주광역시장)	1995. 4. 1 ~ 95. 6. 30
2대	송언종(광주광역시장)	1995. 7. 1 ~ 98. 6. 30
3대	고재유(광주광역시장)	1998. 7. 1 ~ 99. 4. 1
4대	차범석(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1999. 4. 16 ~ 2000. 11. 8(99. 4. 1 선출)
5대	김포천(前 광주문화방송 사장)	2001. 1. 3 ~ 2002. 3. 21(00. 12. 27선출)
6대	〃	2002. 3. 22 ~ 2005. 1. 31

구분	이사장	임 기
7대	한갑수(한국산업경제연구원 회장)	2005. 3. 23 ~ 2007. 3. 22(05. 3. 23 선출)
8대	〃	2007. 3. 23 ~ 2007. 7. 18
9대	박광태(광주광역시장)	2008. 4. 3 ~ 10. 6.30
10대	강운태(광주광역시장)	2010. 7. 1 ~ 14. 6. 30
11대	윤장현(광주광역시장)	2014. 7. 1 ~ 14. 10. 14
12대	전윤철(前 감사원장)	2014. 12. 23 ~ 17. 12. 22

(2) 재단의 집행기구, 사무처

조직과 운영체제의 변화

광주비엔날레의 제반 실무집행기능을 맡아온 사무처 조직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행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자체 직무분석을 통해 재단직원과 파견 및 겸직 공무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필요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역대 조직체계는 창설초기인 제1회 대회는 조직위원회 조직체제로 운영하고 2회 대회는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조직체제로 운영하였으며 3회 대회부터는 현 체제인 민관협력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조직위원회 운영체제(1995. 1. ~ 1996. 2.)

창설초기에 구성된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조직의 구성 및 직제규칙과 인사관리규칙 제정 등 행사추진을 위한 기초체제부터 가다듬었다. 조직위원회 산하의 실행기구인 집행위원회(위원장 강봉규)는 1995년 1월에 '광주비엔날레'라는 행사명칭과 첫 행사의 주제, 전시 커미셔너 등을 확정하고, 1실 4본부의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구성하여 행사준비에 돌입하였다.

조직위원회와 사무처까지 추진체제는 구성되었으나 광주는 물론 국내에서 전혀 경험이 없는 대규모 국제비엔날레를 치러야 하는데다 촉박한 일정에 추진 과제들이 산적한 상태였다. 따라서 광주시청 내 한 시기구로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를 조직하여 공무원들을 파견(최초 29명에서 단계별로 증원하여 행사개막 직전인 9월에 116명 운영)하여 행정력을 갖추면서 전시본부 등 전문분야는 민간 전문 인력과 보조인력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 또한 비엔날레전시관 신축과 야외공연장을 조성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였으나 파견가능한 정원의 한계로 지원본부와 시립미술관 조직을 통합하여 비엔날레 준비와 전시관 신축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광주시립미술관 통합체제(1996. 3. ~ 1999. 4.)

제1회 행사는 조직위원회체제로 광주시 파견공무원과 민간 인력들이 한시적으로 결합된 형태였다. 이후 제2회 광주비엔날레 준비와 행사의 영속적 개최기반 구축,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제5차 이사회(1996. 3. 2)에서 사무처 직제를 광주광역시립미술관체제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립미술관의 광주비엔날레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술관 직제를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한시 기구인 정원 30명의 지원본부를 없애고, 시립미술관장을 국립현대미술관장과 동급인 2급 상당 지방전임 전문직으로 격상시킨 뒤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비엔날레 기획과 시행 전시홍보 시설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미술관장이 재단의 사무차장을 겸하고 사무국장은 양 기관을 겸하였으며, 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이 비엔날레 전시기획실장을 겸하고, 각 부서에도 미술관 인력과 재단 인력들이 함께 배치되었다.

따라서 광주시립미술관 조직의 행정체계로 재단의 사무처가 실무기구 역할을 전담하게 되면서 집행위원회는 더 이상 구성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조직위원회의 각 분과소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기획안과 재단의 사무 및 운영 관련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거나 보고 절차로 확인하는 의결기구 역할을 진행하였다. 즉, 제2회 행사의 행사기간과 주제, 본전시·특별전 등의 전시구성 및 커미셔너와 작가 선정 방법 등은 조직위원회의 전시기획분과소위원회에서, 개·폐막식과 공연·이벤트 행사들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 행사분과소위원회가 안을 만든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준비단계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무원을 추가로 파견 받아 실행력을 보강하였고, 사무처 직제규칙에 따라 재단직원과 파견 및 겸직 공무원 등의 정원을 규정하여 필요시 재단의 민간직원 채용도 공무원 직급에 준하여 임용하였다.

민·관 협력체제(1999. 5. ~ 현재)

제3회 행사 초기 준비과정에서 전시기획에 관한 행정의 과도한 관여를 이유로 불거진 광주비엔날레 민영화 파동(1998. 12~1999. 2)을 겪고 난 뒤 재단 운영체제는 대폭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다. 1999년 3월 제29차 이사회에서는 사태수습을 위한 광주비엔날레 민영화를 논의하여 당연직인 광주시장을 명예이사장으로 변경하고 이사장은 선출직 민간인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어 5월에는 광주광역시 조례를 개정하여 광주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 조직운영체계를 별도로 분리하고 민관협력조직체계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이사장 아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사무국장을 두고, 학예연구실장은 다시 전시기획실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시총감독제를 도입하고 과 단위를 팀 체제로 변경하였다.

창설 초기의 특수성 때문에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조직체계는 단계별로 정비과정을 거쳐 2000년 11월에는 13팀을 6팀으로 대폭 통합 축소하였으며, 제3회 행사부터 전시총감독을 예술총감독으로, 전시기획위원회를 전시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5년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새로 창설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관을 수탁 받으면서 디자인총감독과 디자인전시부·팀 및 전시지원팀을 신설하고 4부 8팀에 사무처 정원을 20명에서 27명으로 증원하였다.

2007년에는 감독선정과정에서 불거진 공동감독 내정자의 학력위조 사건으로 개혁을 요구받으면서 이사장을 비롯한 선출직 전체 이사가 퇴진하였다. 이후 2008년 2월 이사회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다시 전환되고 사무처도 4부 8팀 27명에서 4부 2팀 19명(재단 14, 파견공무원 5)으로 축소되었다가 후에 23명으로 조정되었다. 특히 국제적인 미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의 특성과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CEO개념으로 미술전문가의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고, 연구기획실(후에 정책연구실로 명칭 변경)을 신설하였다.

2010년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특별전 추진과 광주시에서 새로 개설한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의 주관을 맡게 되면서 특별프로젝트부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였다. 이어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때 광주역사 복원과 문화자산 조성을 위해 추진된 '광주폴리' 프로젝트가 이후 광주시의 도시문화 정책사업으로 채택되어 지속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그 주관을 재단에 맡겨 그 수행을 위한 특별프로젝트부를 두게 되었다. 디자인비엔날레, 아트광주, 광주폴리 등 광주시의 주요 정책사업들이 재단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그 사업마다 광주시의 담당부서와 협력관계가 추가로 이어지게 되고, 부서나 인력도 증원되게 되었다.

2014년은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을 맞는 해였다. 재단은 1년 전인 2013년 재단의 경영효율화와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외부 용역과 내부 T.F활동을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시행연도

로 예정했던 2014년에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외에 20주년 특별프로젝트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그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등 발전방안의 실행은 행사 이후로 미루게 되었다. 그 20주년 특별프로젝트의 전시개막 직전에 걸개그림 '세월오월' 파문이 일면서 후폭풍으로 재단은 획기적인 개혁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단의 개혁 차원에서 먼저 이사장부터 광주광역시장에서 민간 이사장으로 재전환되었다. 이어 외부 각 분야 활동가들이 참여한 광주비엔날레혁신위원회(위원장 정동채)의 조사 연구과정을 거쳐 혁신방안이 제안되고, 기 제출되어 있던 발전방안 연구 결과와 혁신안을 토대로 내부 T.F.T 연구를 진행하여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으로 새롭게 재단의 미션과 4대 정책목표, 20개 실천과제 등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실은 정책기획실로, 홍보사업부는 홍보마케팅부로, 특별프로젝트부는 광주폴리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정책연구실의 축제행사팀을 폐지하고 전시부 교육행사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발전방안과 부서별 주력방향에 따라 업무분장도 일부 재조정하였다.

현재 광주비엔날레는 광주광역시와 공동주최 관계이면서, 광주비엔날레 외에 광주시의 미술관련 정책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주관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 이사장과 대표이사, 광주시 파견의 사무처장, 5개 부서장 중 2개 부서는 파견공무원이 맡고, 행정지원과 광주폴리 추진을 위해 총 7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민관협력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비엔날레전시관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립미술관 공무원 3명이 겸직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광주비엔날레 역대 직원구성 현황 (단위 : 명)

개정일	합 계	재단	파견공무원	겸직공무원	비고
1995. 4. 26	129	44	85		
1996. 5. 27	123	44	79		
1996. 7. 23	123	44	79		
1998. 4. 21	124	44	80		
1998. 10. 26	114	35	79		
2001. 1. 1	35	20	15		시립미술관 조직과 분리
2005. 2. 15	42	27	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수탁
2007. 7. 23	19	14	5		
2008. 4. 22	22	17	5		
2008. 12. 3 1	21	16	5		
2010. 3. 24	24	19	5		
2010. 11. 26	29	20	5	4	
2011. 12. 26	36	23	8	5	광주폴리 수탁
2013. 1. 1	37	24	8	5	
2013. 4. 29	41	28	8	5	

※ 2011년 이후 파견공무원 정원은 광주폴리 추진 3명 포함, 겸직공무원은 시립미술관 시설관리 공무원이 겸직

2. 재정

1) 예산과 재원

비엔날레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 미술전으로 행사예산은 준비년도와 행사년도를 합한 2년간의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대회별 행사비 지출규모는 제3회 대회까지는 100억 원 이상, 제4회 대회부터 제7회 대회는 90억 원 이상, 제8회 대회 이후는 90억 원 이하였다. 그간의 지출규모 감소는 20년간 전시 개최에 따른 노하우 축적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했다는 내부적인 요인과 국내외 다른 도시들의 잇따른 비엔날레 창설로 인한 관람객 분산 등 외부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비엔날레는 행사예산을 전시에 집중하여 전시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한편 수익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마케팅 강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행사재원은 국비(국고보조금)와 시비(시비보조금, 위·수탁협약금), 자체수입으로 자체수입은 재단 기금 등의 이자수입과 수익사업에 의한 입장권 판매, 휘장사업, 광고사업, 시설임대사업, 도록 등 판매사업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세입측면에서 볼 때 국고 보조금은 창설 초기부터 범정부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행사 난립 등으로 지원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고, 은행금리의 지속적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내수 악화 등 대내외 여건의 부진이 당분간 세입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세출 측면에서는 증가가 예상된다. 전시에 대한 기대 수준의 향상과 인건비, 운송비, 전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반 비용 상승 등 세계적 비엔날레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비례하여 전시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주비엔날레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비와 시비 확대 노력과 자체수입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과 수익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행사재원의 구성은 그동안 국비 328억 원, 시비 132억 원, 자부담 506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전체 행사예산 중 약 48%를 차지하고 나머지 52%를 재단 자체적으로 충당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는 사업예산의 긴축운영, 다각도의 행사협찬, 적극적 기금조성과 운용을 기조로 해 알뜰하고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정관 및 규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재단의 예산편성기준을 매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세입예산은 내시액 등을 기준으로 반영하며, 국비(국고보조금)는 문체부 내시액을 기준으로 하되, 내시액 미통보 시 기재부에서 국회로 제출한 금액을 반영하고 시보조금과 위·수탁협약금은 시 주무부서 신청에 따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확정된 금액을 반영한다. 그리고 기금 이자수입, 판매수입, 임대수입 등 자체 수입은 전년도 수입을 근거로 산출된 금액을 반영하고 있다.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되, 전년도 집행상황, 사업시기,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되, 사업별 소요액, 산출기초 등을 원점부터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고 부서별 중복·유사사업 투자를 방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 등은 기준경비를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 대회별 행사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행사재원			
		계	국비	시비	자부담
제1회	소계	11,740	4,000	7,740	
	1995년	11,740	4,000	7,740	
제2회	소계	10,639	3,000	1,800	5,839
	1996년	1,603			1,603
	1997년	8,073	3,000	1,800	3,273
	1998년	963			963
제3회	소계	10,477	1,400		9,077
	1999년	2,601			2,601
	2000년	7,876	1,400		6,476
제4회	소계	9,143	2,000		7,143
	2001년	2,846			2,846
	2002년	6,297	2,000		4,297
제5회	소계	8,771	4,000	494	4,277
	2003년	1,492			1,492
	2004년	7,279	4,000	494	2,785
제6회	소계	9,551	4,000		5,551
	2005년	1,854	1,000		854
	2006년	7,697	3,000		4,697
제7회	소계	9,528	4,000		5,528
	2007년	1,911	1,000		911
	2008년	7,617	3,000		4,617
제8회	소계	8,938	4,300	300	4,338
	2009년	1,602	1,000		602
	2010년	7,336	3,300	300	3,736
제9회	소계	9,134	3,000	1,500	4,634
	2011년	2,096	1,500		596
	2012년	7,038	1,500	1,500	4,038
제10회	소계	8,752	3,100	1,400	4,252
	2013년	2,361	1,000	1,000	361
	2014년	6,391	2,100	400	3,891

2) 기금

광주비엔날레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인 비엔날레로서 위상을 확보한 데는 각계각층에서 애정으로 기탁한 기금의 공헌이 절대적이었다. 기금 조성은 광주비엔날레가 자체예산 및 사업수익만으로는 성공적 운영이 어렵고, 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정적 자립재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추진되었다.

2015년 현재까지 재단에 기탁된 기금은 110건 285억2100만원이다. 이를 세분화하면 국고 출연금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4건 84억 원, 광주시 출연금이 1996년과 2000년 2건 15억원, 개인과 기업체의 협찬금이 89건 118억3300만원이다. 또 잉여금이 3건 63억3000만원, 기타 재단설립금 1건 1억원, 이자발생 2건 1억8700만원, 작품판매 및 첨단전자전 수익기금 9건 1억7100만원 등이다.

재단기금은 당초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이후 500억 원으로 추가확충을 계획했으나, 2007년도 이후 입장권 판매수입 감소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행사예산으로 모두 사용돼 추가적립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단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를 비엔날레 행사경비에 충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일부기금은 고금리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기금 조성은 광주비엔날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성공을 염원하는 마음들을 모아내는 과정이었다. 창설 당시 효과적인 기금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부 등 중앙부처와 국내 300개 대기업체에 2회에 걸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시 지원단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기업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1995년 5월 2일에는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 307명이 광주비엔날레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과별로 기금마련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기금조성에 대한 애향 기업인의 솔선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지역출신 작가 124명이 작품을 기증하여 '기금마련을 위한 애향작가 초대전'을 예총시지회 주관으로 1995년 7월 12일부터 10일간 서울 일민문화관에서 개최하였고, 이어서 7월 31일부터 27일간 전남일보사 내 전일 문화관에서 광주전시회를 개최하여 9,9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8월 18일에는 무등산 구락부 회원 및 재경기업인 64인을 서울 힐튼호텔에 초청하여 설명회와 함께 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하였고, 기금기탁이 있을 때는 기탁내용을 TV,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참여의욕을 고취시켰다. 참여자 가운데는 이름을 밝힌 기탁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익명의 독지가가 30만원부터 3억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재단에 기금을 기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차후 영속적인 행사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단기금 등에 참여한 후원자들에게는 적절한 예우로 감사를 전하고 자긍심을 심어줬다. 감사서한 발송, 입장권 증정, 감사장의 교부와 함께 재단법인 이사 및 명예이사, 명예 조직위원으로 위촉했고, 전시관 현관 벽면에 기탁자 명단을 동판에 각인하여 뜻을 영구히 기리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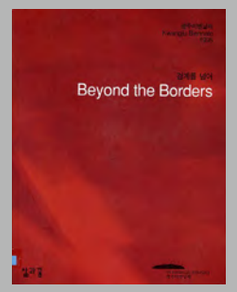
구분 / 년도	계	국비	시비	협찬금	잉여금	재단설립금 등
계	28,521	8,400	1,500	11,833	6,330	458
1995	9,795			9,047	530	218
1996	3,137	2,000	1,000	65		72
1997	5,268	3,000		2,100		168
1998	2,000	1,400		600		
1999	14			14		
2000	500		500			
2001	2,007	2,000		7		
2002	3,000				3,000	
2006	2,800				2,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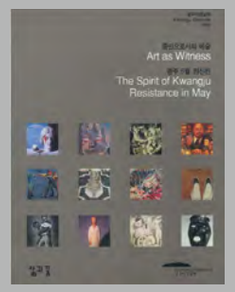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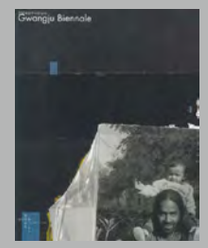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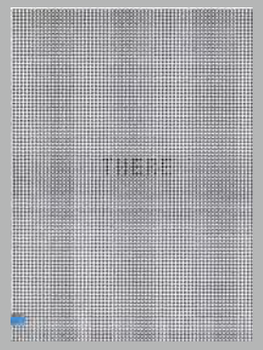
광주비엔날레는 20년동안 10회의 전시를 통해
첨예한 예술적 화두를 던져왔다. 유럽 중심의 현대미술계에
아시아적 발언과 시각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고
매회 진중한 이슈와 참신한 전시방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국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역량 있는 기획자들과
스타 작가들이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배출됐고,
이들이 현대미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의 역사를 만들어온 국내외 예술감독들은
역동적인 현대미술의 현장을 이끌고 새로운 전망을 열어왔다.
이들은 광주비엔날레의 전시를 통해 과감한 예술적 발언과
창조적 제안을 시도했고 현대미술계에 더욱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부상했다.









매회의 주제로 통합되는 작품들의 의미를 담아 만든
전시도록들은 광주비엔날레가 만들어온
시각문화 담론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

제1회 광주비엔날레
'경계를 넘어'

1995년 9월 20일 ~ 11월 20일

제1회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중외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62일 동안 열렸다. 주제 '경계를 넘어'는 국가 민족 이념 종교 등을 초월하여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세계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와 함께 예술을 포함한 각 개인의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창조적 세계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본전시(국제현대미술전)는 세계를 대륙별 문화권으로 나누고 각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는 커미셔너들에게 전시를 기획 구성토록 하였다. 따라서 한국 및 오세아니아(유홍준), 북미(캐시 할브라이쉬), 서유럽(쟝 드 르와지), 동유럽(안다 로텐버그), 남미(성완경), 중동-아프리카(클라이브 아담스), 아시아(오광수) 등 7개 권역에 50개국 92명이 참여하여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작업들을 선보였다. 전체 출품작을 대상으로 세계의 저명 미술비평가와 전시기획자들의 의견을 모은 바, '보트피플'로 대변되는 제3세계 시대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은 크초(쿠바)의 <잊어버리기 위하여>가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대주제를 보완하면서 본전시와 함께 현대미술의 주요 관심사와 광주비엔날레의 지향점을 전시형태로 꾸며 보인 특별전은 백남준과 신시아 굿맨이 디렉터를 맡은 <인포아트전>(김홍희)을 비롯하여 <증인으로서 예술전>(임영방)·<광주 5월 정신전>(원동석·곽대원)·<문인화와 동양정신전>(장석원)·<한국현대마술의 오늘전>(서성록·윤진섭)·<한국근대미술 속의 한국성전>(윤범모) 등 6개의 전시로 구성되어 총 249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1) 전시 구성 및 참여작가

구분	전시섹션, 전시명	장소	커미셔너 큐레이터	국가	작가	작품
본전시	한국·오세아니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2,3층	유홍준	9	10	88
	아시아		오광수	7	10	
	북미		Kathy Halbreich	4	11	
	남미		성완경	7	11	
	서유럽		Jean de Loisy	13	25	
	동유럽		Anda Rottenberg	7	12	
	중동 아프리카		Clive Adams	3	13	
특별전	인포아트(정보예술전)	광주시립미술관 1층 및 광주비엔날레전시관 A동 1층	백남준, 신시아 굿맨, 김홍희	20	94	90
	증인으로서 예술	광주시립미술관 2층	임영방	19	39	151
	광주 5월 정신전		원동석, 곽대원	3	33	54
	문인화와 동양정신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장석원	7	32	51
	한국 현대미술의 오늘	광주비엔날레전시관 A동 1층	서성록, 윤진섭	1	32	35
	한국근대미술 속의 한국성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층	윤범모	1	18	72

2) 전시기획자(권역별 커미셔너)

▶클라이브 아담스 Clive Adams(중동, 아프리카)

클라이브 아담스(Clive Adams)는 영국의 바스미술대학과 브라이튼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판화를 연구한 후 더비대학에서 판화 및 미술사를 강의하였다. 영국의 아놀피니미술관 관장을 역임하고 인디펜던트 큐레이터로 활동하였다. 리버풀 테이트갤러리에서 열린 한국현대미술전을 기획한 바 있고 1984년 모스틴미술관 <윌리암 터너의 웨일즈>전의 기획자로 황태자 상을 수상하였다.

▶캐시 할브라이쉬 Kathy Hallbreich(북미)

캐시 할브라이쉬(Kathy Hallbreich)는 미국 케임브리지 앨버트 앤 베라 리스트 예술센터관장과 보스턴 현대미술관 현대미술담당 큐레이터, 워커아트센터 관장을 역임하였다. 앤디워홀 시각예술재단 이사와 독일 카셀도큐멘타의 국제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브루스 나우만전 등 다수의 전시회를 기획하였다.

▶쟝 드 르와지 Jean de Loisy(서유럽)

쟝 드 르와지(Jean de Loisy)는 루브르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문화성 창작예술담당관을 역임하였으며 님므미술관장, 카르티에재단 현대미술관 큐레이터를 거쳐 퐁피두센터 큐레이터를 역임하였다. 퐁피두센터에서 개최된 <제한 밖으로(Hors Limites), 1952~1994> 전을 기획하여 미술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으며 1998년 <Song Lines-Europe>의 총괄 큐레이터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안다 로텐버 그 Anda Rottenburg(동유럽)

안다 로텐버그(Anda Rottenburg)는 바르샤바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행정부의 문화부 예술국장을 역임하였으며 바르샤바 소로스 현대미술센터를 설립한 바 있고, 세계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 폴란드관 커미셔너, 바르샤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역임하였다.

▶오광수(아시아)

오광수는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후 국립현대미술관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대미술』과 『공간』지 편집장, 홍익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출강, 환기미술관 관장,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성완경(남미)

성완경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프랑스 국립장식미술학교에서 벽화를 전공하였다. 1994년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는 <한양에서 서울까지>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시회를 기획한 바 있으며 미술평론가이면서 인하대학교 사범대학과 대학원 환경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유홍준(한국·오세아니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인 유홍준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한 후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에서 예술철학 과정을 수료하였다. 『80년대 예술의 현장과 작가들』을 비롯한 여러 저서와 역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하였다.

3) 전시 내용

본전시

▶국제현대미술전 :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에 담겨있는 상호텍스트성을 목적으로 서구에 '70년대 후반부터 몰아쳐 우리에게도 '80년 중후반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던 포스트주의의 무기력성을 극복하고 보다 명확한 경계개념을 창출하여 잡다한 다원주의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별전

▶인포아트(정보예술전) : 과학문명과 예술의 접목을 통하여 정보사회에서의 예술의 첨단형식을 검증해 보이는 테크노 아트 전시회로, 첨단의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정보예술은 주제인 '경계를 넘어'와도 부합 된다. 지구적 차원의 인간소통은 물론 예술과 기술, 예술과 사회, 예술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증인으로서 예술 :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숨져간 광주의 희생자들과 5·18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주와 평화, 투쟁 등의 주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전시구성은 현대미술의 주요 형식을 이루어 온 추상운동이나 감성의 예술 등 모더니즘의 주요 텍스트를 떠나 예술이 사회적 사건과 역사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대응했는가를 검증하는 전시였다.

▶광주 5월 정신전 : 광주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지어보고 5·18이 끼친 사회 예술적 의미를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전시기획의 원칙은 80년대 예술운동에서 대 사회적 발언을 통하여 활동한 작가, 2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원칙으로 하였고 작품은 신·구작이 병행하여 전시 되었다.

문인화와 동양정신전 : 동양정신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문인화의 진수와 그 현대적 변용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대가그룹과 현존의 현대적이며 국제적으로 상통하는 작품성을 추구하는 작가군을 비교하였다. 현대 문인화의 과제인 과거 개념을 탈피하여 전통적으로 문인화에 부여되던 형식, 내용, 화법, 재료, 품명 등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변혁을 이루며, 서양의 현대미술과 대등하게 상통되면서 동시에 동양의 전통과 문화의 뿌리에 근거를 둔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한국 현대미술의 오늘 : 90년대 빠른 사회적 변모 중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사회적 변모와 미술의 상관관계를 관측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특정 이념이나 주제를 표방하지 않고 현재 진행되는 미술의 흐름을 정리, 점검해보기 위한 일종의 '보고형 전시'로 진

행되었다.

▶한국근대미술 속의 한국성 : 20세기 벽두에서부터 1970년대까지 활동한 한국의 대표작가 18명의 작품 72점을 한 자리에 모아 집중 조명하였다. 주로 일제강점시대 등 20세기 전반기에 작가적 토대를 일궈낸 출품작가들은 외세의 강풍 속에서도 자주적 정통성을 견지하면서 한국적 정서를 토대로 수립한 개성적인 예술세계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작가군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와 시각이 돋보이며 세계미술 속의 독창성을 확인한 전시였다.

4) 시상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를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고 관람객들과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독창적이며 참신한 작품을 선정하기로 하고, 국내 1인, 국외 4인 등 국내외 미술계 저명인사 5인의 심사위원이 개막일 전일 심사를 실시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고 시상식은 개막식 당일 거행하였다

시상은 대상 1명과, 특별상 3명으로 하고 그 대상은 본전시인 국제현대미술전 출품작가로 한정하였다. 시상금은 대상이 미화 5만 달러(매입상)이며, 작품은 광주시립미술관에 영구 소장하도록 하고, 특별상은 트로피 및 기념하는 상징적 시상물을 순금으로 제작하고, 관람객들의 투표에 의해 인기작가상을 선정 시상하였다. 심사위원은 이경성, 넬슨 아길라(Nelson Aguilar), 르네 블록(Rene Block),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 폴 쉼멜(Paul Schimmel) 등 5인이 참여하고 이경성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수상 작가

대상의 영예는 쿠바작가 크초(Kcho)의 <잊어버리기 위하여>에게 돌아갔으며 특별상으로 한국작가 김정헌의 <디즈니가 세운 판문점>, 미국작가 다이아나 세이터의 <클로드 모네 정원에서의 일주일>, 호주작가 트레이시 모파트의 <밤에 흐르는 눈물>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기작가상은 한국의 우제길이 수상하였다.

대상작인 크초의 작품은 쿠바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낡은 배를 통해 표현하였으며 빈 맥주병들 위에 낡은 쪽배를 올려 부유하는 난민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념과 현실의 경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작품이었다.

김정헌의 <디즈니가 세운 판문점>은 한국의 분단 상황을 우화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다이나 세터는 현대과학문명의 산물인 비디오를 통한 영상작업을 통해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어 아름답지만 과학문명이 주는 일방소통의 폐해를 드러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레이시 모파드는 서정적인 영상작품으로 호주의 원주민이 발전된 자본주의 세계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심적 갈등을 그려내었다.

5) 전시공간

전시공간의 기획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며 관람객과 작품의 최대한의 안전을 고려하고, 작품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 및 작품의 보호, 이해를 원칙으로 하였다. 본전시인 국제현대미술전은 조직위원회가 전시물 설치 및 관리, 보안을 주관하며 전시장의 인테리어를 위하여 조직위원회 김석철, 김현위원과 전시본부장, 전시부장,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전시물 설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선을 복도형과 터널형, 개방형 등 3개 구조로 분할하며 출품작품은 성격별로 분할 전시하였다. 차기 전시를 위하여 영구 전시실과 이동형 칸막이실을 구분하여 분할하고 옥외 전시물은 전시관 주변의 언덕, 잔디밭 등을 활용하며 잔디밭의 경우 잔디를 훼손하지 않는 가벼운 설치작업만 허가하였다.

특별전의 경우 각 담당 큐레이터가 전시부장과 협의하여, 전시물 설치를 책임지나 이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는 조직위원회가 지원하되 특수보안장치가 필요하거나 가드레일이 필요한 작품은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별도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기본 동선 및 배치도면

전시장 내의 원활한 동선의 확보를 통해 관람객이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영구 전시실과 이동형 칸막이실을 구분하여 분할하고 전시 가용면적 1,871평을 3가지 형태의 방으로 구분하여 출품 작가들의 작품을 수용하였고, 13가지 주제로 세분하여 전시장에 배치하였다. 전시관 모형을 통해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하여 관람객의 관람순서 및 개인, 단체의 관람형태에 따라 이동순서를 계획하여 약 5가지의 이동 동선으로 최대한 관람객을 각 전시관으로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작품의 설치 및 전시장 운영

작품의 설치

전시장의 보수 및 신축 등으로 광주시립미술관 내부공사가 9월 14일에서야 완공되는 등 전시작품 설치 기간이 매우 부족함은 물론 설치 및 해체 전문요원 확보는 일부 대상학교 교수들의 비협조적인 자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협찬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작품 제작에 따른 물자 지원과 작품 설치를 위한 물품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추석 연휴가 설치 기간과 중복되어 짧은 시일 내에 전시물을 설치 완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원활하고 안전한 작품 설치 및 해체를 위해 자원봉사자 및 시청 산하 가용 인력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기로 하였다. 자원봉사자는 신체 건강한 미술대학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하며 필요시 미술대학 재학생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설치보조요원, 관리요원, 안내요원, 경비요원, 기능요원, 프레스 센터 운용요원을 모집하였다. 참여 인력은 설치해체요원 50명, 관리요원 49명, 안내요원 26명, 경비요원 44명, 기능요원 14명 등이었다.

전시장 운영 및 관리

▶전기 시설 : 작품전시를 위하여 전력을 필요로 하거나 전시관 내 조명 및 전기 시설에 대하여 많은 사람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관람객 동선 유도 및 작품전시에 만전을 기하였고, 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전자 제품 대리점의 기술요원 3명을 상주시켜 응급조치가 가능하게 하였다.

▶기계 시설 :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각 층별 공기조화기를 가동하여 전시관 내 온도를 20±℃, 습도는 50±%를 유지하도록 하여 관람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항온 항습의 제어로 미술작품을 보호할 수 있었다. 작품 반입구 및 이동통로에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열손실의 방지, 먼지의 차단, 청결유지에 힘썼으며 특히 인체에서 발하는 이산화탄소를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로 환기 및 배기하여 이산화탄소량을 허용기준치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설비를 종합 관제하는 통제

실에는 기계설비 분야를 관리하는 2명의 관리요원이 항상 상주하여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어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방재 시설 : 출품작의 방재를 위해 작품 당 또는 구역별로 책임자를 선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에 필요한 설비도 아울러 갖춘 최신 첨단 미술전시장의 조건으로 구비하도록 조치하였다.

7) 학술행사

국제학술심포지엄	
일 시	1994년 12월 18일, 10:00~17:00
장 소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주 제	국제 비엔날레와 문화의 지역주의
참 석	강운태(광주시장), 임영방(조직위원원장), 미술관련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 총 350여명
발제/발제자	베니스비엔날레 100년 / 아킬레 보니토 올리바(전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위원장)
	광주비엔날레의 방향 설정과 운영 방법에 관한 제언 / 윤범모(미술평론가, 경원대 교수)
	현대미술 운동과 비엔날레 / 킴 레빈(미국미술평론가 협회장)
	카셀도큐멘타와 문화의 지역주의 / 캐더린 데이비드('97 카셀도큐멘타 전시위원장)

국내학술심포지엄		
일 시	1994년 12월 30일, 09:30~18:00	
장 소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주 제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을 위한 제언	
참 석	강운태(광주시장), 임영방(조직위원장), 미술관련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 총 500여명	
발제/발제자	1부 : 광주비엔날레의 목적과 성격 (사회 : 김영중, 조각가)	광주비엔날레의 목적과 성격 / 오광수(미술평론, 한국미술평론가 협회장)
		자연과 저항 / 장석원(미술평론, 전남대 교수)
	2부 : 광주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제언 (사회 : 윤진섭, 미술평론가)	광주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제언 / 이규일(월간미술 편집주간)
		광주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제언 / 임동락(동아대 교수, 조각가)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성 / 문순태(전남일보 주필, 소설가)

8) 전시도록

	전시의 종류	출판사	페이지	부수	가격
본전시	국제현대미술전	삶과 꿈	432	3,000	35,000
특별전	증인으로서의 예술	삶과 꿈	212	2,000	20,000
	광주5월정신				
	Info Art	삼신각	345	1,500	28,000
	문인화와 동양정신	삶과 꿈	188	2,000	15,000
	한국근대미술속의 한국성	가나아트	186	1,500	20,000

9) 전시추진일정

1994. 12. 17 조직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커미셔너 선정 및 작가, 작품선정을 집행위원회에 일임

1995. 1. 23 제3차 집행위원회 개최, '경계를 넘어'로 주제 선정

1995. 3. 4 커미셔너 계약 완료

1995. 3. 10 제1차 국내외 커미셔너 회의 개최

1995. 4. 1 커미셔너 유홍준의 한국작가 선발을 위한 국내 심포지엄 개최

1995. 4. 10 제2차 특별전 큐레이터 회의 개최, 전시기본계획 확정

1995. 4. 22 작가 선정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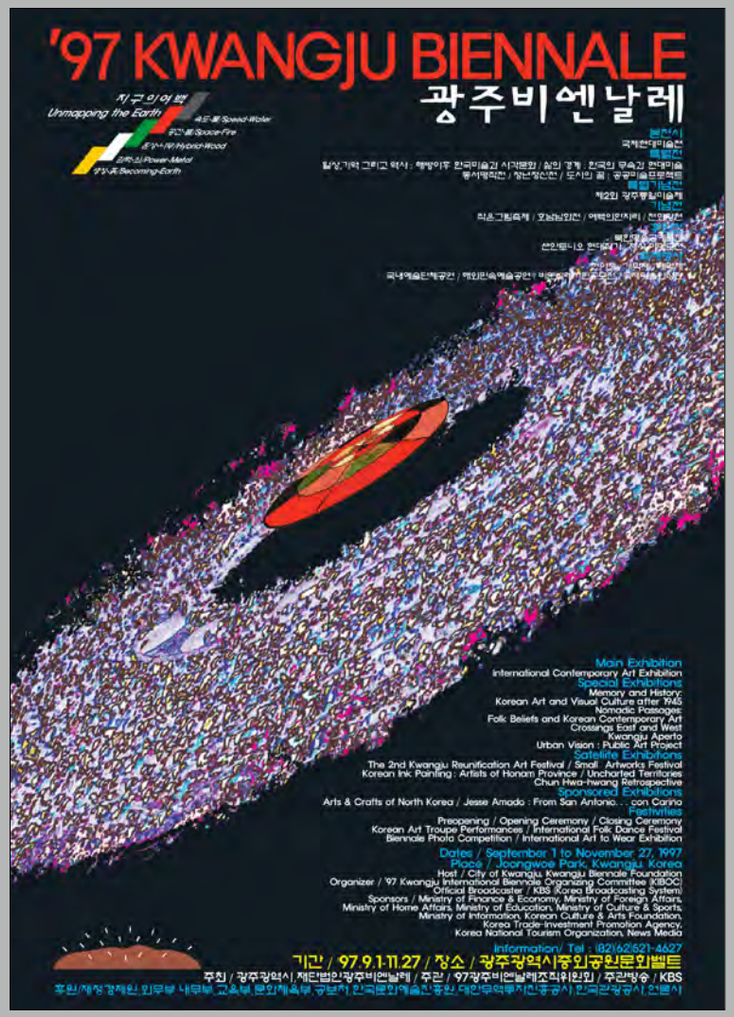
1995. 5. 17 제11차 집행위원회, 국제현대미술전(본전시) 초대작가 선정 발표

1995. 8. 8 참여작가 지원내용 논의 및 도록 제작 관련 규칙 마련

1995. 9. 18 프레 오픈

1995. 9. 20 행사개막

1995. 11. 20 행사폐막



2.

제2회 광주비엔날레
'지구의 여백'

1997년 9월 1일 ~ 11월 27일

제2회 광주비엔날레는 1997년 9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88일간 열렸다. 삶의 터전인 지구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신선한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면서 새로운 트임과 창조를 기약하는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의미의 '지구의 여백'이라는 주제 아래 동양 오행사상을 현대사회·문화에 대입시켜 풀이한 속도(水, 하랄드 제만)·공간(火, 박경)·혼성(木, 리처드 코살렉)·권력(金, 성완경)·생성(土, 베르나르 마카데) 등 다섯 개념을 본전시 소주제로 설정하여 35개국 117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본전시는 주로 제3세계 청년세대 작가들에 비중이 두어졌던 1회와 달리 국제미술계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작가와 작품이 많이 선정되어 전시의 무게를 더하여 주었다.

아울러 <일상, 기억 그리고 역사>(김진송)·<삶의 경계>(박영택)·<동서명작전>(유준상)·<청년정신전>(유재길·조광석·오병욱)·<도시의꿈-공공미술프로젝트>(박호재·유영국) 등 5개 특별전에 257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삶, 현세와 미지의 세계 등에 대한 다양한 발언들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미술문화계 주요 관심사와 활동들을 모은 기념전과 후원전, '전지구화와 탈식민주의' '정체성의 정치' '미술과 문화정치' 등 주제 토론을 벌인 국제학술심포지엄도 가졌다.

2회 행사에는 동양 고전철학과 서양 현대미학의 담론을 각 소주제와 특별전 전시개념 등으로 접근시킴으로써 훨씬 깊이 있는 문화적 자기성찰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아시아는 물론 한국의 문화전통과 깊이를 지구촌에 널리 알리고 건강한 정서함양과 창의적 미래 문화가치 창출의 바탕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1) 전시 구성 및 참여작가

구분	전시섹션 전시명	장소	커미셔너 큐레이터	국가	작가	작품
본전시	속도 水	광주비엔날레 제1전시장	Harald Szeemann	11	20	68
	생성 土	광주비엔날레 제2전시장	Bernard Marcade	18	43	39
	혼성 木	광주비엔날레 제3전시장	Richard Koshalek	10	23	26
	권력 金	광주비엔날레 제3전시장	성완경	17	23	77
	공간 火	광주비엔날레 제4전시장	박 경	13	18	374
특별전	일상, 기억 그리고 역사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김진송	11	36	216
	삶의 경계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1실	박영택	18	26	46
	동서명작전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2실	유준상	10	35	52
	청년정신전	교육홍보관 1~3실	조광석, 오병욱, 유재길	17	56	70
	도시의 꿈	남봉갤러리	유영국, 박호재	13	104	86

2) 전시기획자(소주제별 커미셔너)

▶속도 : 하랄드 제만 Harald Szeemann

1933년 스위스 베른 태생으로 미술사 및 고고학, 신문학을 전공한 후 베른미술관 디렉터, 리옹비엔날레 전시기획 총감독을 역임하고, 독립전시기획자, 평론가로 활동하였다. 1969년 베른에서 <태도가 형태로 될 때>, 1972년 카셀도큐멘타 큐레이터, 1980년 베니스 비엔날레 <아페르토>, 1970년 쾰른의 <해프닝과 플럭시스>, 1975년 베를린과 파리에서 열린 <독신자들의 기계들>, 1983년 취리히의 <전 예술에 대한 하나의 작품 탐구>, 1988년 베를린에서 열린 <시간을 넘어>전, 1994년 파리 퐁피두센터 <요셉 보이스>전, 1996년 비엔나 <오스트리아 1000년 기념>전 등을 기획하였다.

▶공간 : 박경 Park Kyong

1954년생 한국계 미국인으로 스토어프론트 디렉터로 프로그램 및 전시기획, 학술회, 출판 등 총감독이었다. 주로 테크놀로지, 환경주의, 문화와 도시계획 등 폭넓은 이슈를 다루면서 1992년도에 상상 및 공상의 문화를 연구 개발하는 전략적 건축설계소(OSA)를 열었다. 남가주 건축대학,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 뉴욕시립대학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스토어프론트의 역사를 연구한 논문을 프린스턴대학에서 출간하였으며, 네덜란드의 신세대 건축가와 환경 건축가들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과 사회와 도시로 인한 파편화를 다룬 건축소설 『두 번째 뉴욕』을 출간하였다. 1997~1998년의 <마이애미 예술 프로젝트>, 1997년 뉴욕 국제경제센터 <아메리칸 꿈의 신화와 현실>전 등을 기획하였다.

▶혼성 : 리처드 코살렉 Richard Koshalek

1941년 미국 위스콘신 주 매디슨 출생으로 미네소타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후 동 대학에서 건축과 미술사 석사를 받았다. 미네아폴리스 워크 아트센터 큐레이터와 텍사스의 포트 워트미술관 관장, 로스엔젤레스 현대미술관 관장을 역임하고, 1983년 건축가 프랭크 게리와 함께 모카 게픈 현대미술관 개관, 1986년 건축가 아라타 이소자키와 캘리포니아 프라자 현대미술관을 설계, 1972년의 <장 뒤 뷔페>전, 1983년의 <제1전시 1940-1980 8개 콜렉션 중 회화와 조각>전, 1991년 <아라타 이소자키 1960/1990 건축>전, 1993년 <로버트 어윈>전, 1996년 <세기말>전, <리처드 세라>전, 1975년 <로버트 어윈>, <댄 플레빈>, 1976년 <미국 로데오 미술>전 등을 기획하였다.

▶권력 : 성완경 Sung Wan Kyung

1944년 대전 생으로 미술평론가이며, 인하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1979년 창립한 '현실과 발언'창립동인이자 핵심 리더로서 대중매체와 미술, 제3세계 미술, 예술과 과학, 미술과 정치 등 폭넓은 주제의 글들을 발표하였다. 주요 전시 기획으로는 <민중예술-한국의 새로운 문화운동>(뉴욕, 1988) 공동기획, 1995 광주비엔날레 남미지역 커미셔너, 뉴욕의 퀸즈미술관 <전 세계의 개념미술-지역적 맥락>(1999) 전시프로젝트 한국 큐레이터 등을 맡았다.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 기획전문위원 단장, <한양에서 서울까지>전(세종문화회관, 1993)의 전시기획 및 연출 총감독, 제1회 <과학+예술>전과, 제1회 <국제만화페스티벌>의 기본계획 등 여러 전시행사 및 문화 프로젝트의 기본계획을 입안하였다. 1981년 파리비엔날레 국제운영위원회 한국대표, 1993년 제5회 후카이 국제비디오비엔날레의 한국 커미셔너를 역임하였다.

▶생성 : 베르나르 마카데 Bernard Marcadé

1948년 프랑스태생의 미술비평가, 전시기획자이다. 세르지 퐁트와즈 국립미술학교 미학과 교수, 플라마리용 출판사 현대미술부분 디렉터를 맡았고, 1984년 보르도의 빌네브 다스크 현대미술관과 낭트 미술관에서 열린 <조각의 역사>, 1986년 뱅쿠버 화랑의 <사치, 고요와 쾌락, 1966~1986 프랑스 미술의 부분>전, 1988년 취리히 미술관의 <두 개의 높은 춤을 위하여>전, 1990년 브뤼셀 왕립 현대미술관의 <선택된 관계>, 1991년 상파울로 비엔날레 프랑스관의 <초과와 축소>, 1995년의 파리 퐁피두센터 <여성-남성, 성의 예술> 등을 기획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나쁜 영감의 찬사』(1986), 『펭크』(1988), 『꽁바스』(1991), 『르네 마그리트, 불가능의 경향』(1992), 『위젠느 르루와』(1994), 『여성-남성, 성의 역사』(1995) 등이 있다.

3) 전시 내용

본전시

▶속도 : 현대성과 속도에 관한 주제로 속도에 대한 해석을 문명, 정신, 자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에너지와 생명의 근원인 물과 속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상상력을 통해 시각화 하였다. 시각, 촉각, 청각의 공감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생성 : 탈현대 이후 생성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시로 서구권과 비서구권 작가를 고르게 안배하는 한편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생성을 네 개의 축(여자, 아이, 동물, 사물)과 세 개의 사이클(상상력, 상징, 신체의 사이클)로 구분하여 각 요소들 간에 열려진 체계를 보여주는 데 전시의 초점을 두었다.

▶혼성 : 탈현대 문화의 혼성성에 대한 전시로 문화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의 혼성 양상을 탐색하는 전시로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스펙터클한 공간 연출을 시도하였다.

▶권력 : 새로운 관료사회에 대한 전시로 북미와 서유럽 중심의 작가 배치에서 벗어나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등지의 젊은 작가 발굴에 관심을 집중하여 전통적인 권력 개념과 포스트모던 사회의 권력 개념 사이의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 권력의 양태들을 제시하였다.

▶공간 : 현대의 도시성에 대한 전시로 세계 16개 도시(베이루트, 디트로이트, 라스베가스, 광동, 홍콩, 서울, 광주, 평양, 하바나, 베이루트, 멕시코시티, 사라예보, 가자 지구, 르완다 난민촌, 호치민, 모스크바)를 통해 오늘날 지구촌 도시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특별전

▶일상, 기억 그리고 역사 : 해방 이후 한국미술과 시각문화에 관한 전시로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서 급속한 변화의 연속이었던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회문화사적 현상의 해석과 시각적 매개체로서 미술의 관계, 그리고 그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예술로서의 미술'과 '사회적 현상으로서 시각문화'를 미술·역사·일상이라는 세 중심축 사이의 상호 분리 및 혼합현상들에 초점을 두어 각 시대와 유형별 소단위 주제로 구성하였다.

▶삶의 경계 : 한국 고유 문화전통과 생활습속 의식의 원형을 찾아 그 정신적 뿌리와 의미를 발굴 조명해보고자 하는 전시로 현세와 영적 세계, 또는 영과 육,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무한생명소통선상에서 한국인 특유의 세계관에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토속신앙 특히 무속에서 그 구체적 예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동서명작전 : 서구미술 또는 유명거장들 위주로 편행되어 있는 일반대중들의 문화적 이해도와 관심사에 비추어 동서양 미술문화를 동일선상에서 고루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장을 제공코자 하였다. 역사·지리적으로 왜곡·단절된 문화의 상호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 공유가치를 극대화하며, 또한 명작 거장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여 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틀을 새롭게 가다듬고자 하였다.

▶청년정신전 : 광주비엔날레가 지향하는 지역·민족문화의 미래전망 및 가능성, 그 세계화 또는 공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전시로 한국현대미술에서 청년세대의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즉 기성문화의 틀로부터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미완상태 각 소단위 개별인자들의 정체성 찾기이면서, 한편으로는 복합 문화주의로 흐르고 있는 20세기말의 문화적 과도징후들로부터 한국문화의 미래 방향 정립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들을 조망코자 하였다.

▶도시의 꿈 : 비엔날레를 주최하는 광주시가 공적 주체와 대상이 되어 미술인·자치단체의 행정력·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21세기 문화예술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의 전통과 특성을 현대문화매체로 계발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현장성에 적합한 조형물을 제작하여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의 미의식과 문화욕구를 공유 가능한 형식으로 적극 표출해내고자 하였다.

4) 시상제

비엔날레 성격이 비경쟁 국제미술전시인 점을 전제로 등위개념이 없는 기념성격의 공로상을 시상키로 하고 부상 또한 비엔날레 성격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수상 작가

속도 : 피필로티 리스트 Pipilotti Rist(스위스, 비디오 설치 1점), 공간 : 가브리엘르 바실리코 Gabriele Basilico(이태리, 사진 10점), 혼성: 첸젠 Chen Zhen(중국, 설치 1점), 권력 : 에릭 불라토프 Eric Boulatov(러시아, 회화 7점), 생성 : 폴 맥카시 Paul McCarthy(미국, 설치 2점 비디오 1점 총 3점) 등이 97광주비엔날레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5) 전시공간

전시공간 기획

▶전시공학 개념 도입 : 전시공학 개념을 도입해 전시공간을 기획했다. 공간 디자인을 운용하여 합리적인 전시 설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전시 주제와 개념, 작품에 맞는 공간 연출을 도입하여 평면적인 전시구성을 탈피함으로써 적절한 관람동선을 계획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감상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했다. 전시공학은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관람객의 작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새로운 전시기법으로, 이를 도입한 2회 전시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 기획에 새로운 기점이 되었다.

▶파티션 설치, 운용 : 비엔날레 본전시인 국제현대미술전과 특별전의 파티션 디자인 기본계획은 각 전시별 커미셔너(큐레이터)가 설계한 전시구성(안)을 전시기획실에서 검토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전시장별 기존 시설, 원활한 동선확보, 파티션의 안정성, 작품의 전시효과, 쾌적한 공간조성, 제작예산 절감방안 등이 고려되었다. 대상 전시장은 비엔날레관 A·B동의 5개 전시실, 시립미술관 본관 1·2층 전시실, 교육홍보관 2층 전시실로 정하고 전시기획실에서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쳐 파티션 설계 확정(안)을 수립하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1997년 1월에 열린 커미셔너회의와 1997년 3월의 큐레이터 회의에서 전시장 실측도면을 커미셔너(큐레이터)에게 전달했고, 그들과 같이 전시장 시설을 점검했다. 그 후 작가 선정이 진행되면서 각 전시장별 파티션 설계(안)의 윤곽이 도출되었다. 본전시 1전시실(속도) 커미셔너 하랄드 제만은 설계의 편리함과 정확성을 위해 전시장 도면(100:1비율)을 요청했고, 그 도면으로 작가들과 개별 연락하여 세부설계(안)을 만들었다. 1전시실의 경우처럼 본전시의 다른 전시장도 도면(100:1비율)을 활용한 결과 설계 및 제작 공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설계(안) 확정까지 과정을 보면 본전시의 경우 1전시실(속도)은 일부 작가 선정지연, 암실 및 출입통로 폐쇄에 따른 관람동선 혼잡, 벽면 높이(6m)와 천정의 천(커튼) 설치로 인한 환풍 곤란, 소화전 및 비상구 기능 유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2전시실은 기존의 많은 이동파티션 처리방법, 천정 자연채광의 차단 방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6) 작품의 설치 및 전시장 운영

작품설치

국외운송 작품은 보세구역 설영 이후 관세사와 운송사에 의하여 전시장 반입 후, 전시별로 커미셔너·큐레이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참여작가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설치 위임한 작가 작품에 있어서는 조직위(전시기획실)에서 설치를 주관하였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전시장별 담당요원을 지정하여 전시인력, 장비지원, 소모품, 소품 등 세부일정표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본전시는 전시별 커미셔너와 작가의 일정별로 설치조를 운영하였는데, 언어권별 통역을 포함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별전의 경우도 전시별 큐레이터와 작가의 일정별로 설치조를 운영하였다. 커미셔너와 작가들과 주고받은 많은 정보들을 통합 관리하여 사전 준비와 현장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품설치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전시별로 설치조 구성을 살펴보면, 인력은 1개조에 2~3명씩 배정하였고, 장비는 일정별로 유압사다리, 통신 장비, 수송 장비 등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구함 1세트와 A형 사다리

등 기본 공구를 지급하였고, 디스플레이는 전시장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합이미지를 구축하고, 보조인력, 전시기자재, 장비 등은 전시장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운영하였다. 참여 인력은 설치해체요원 50명, 통역요원 15명, 청원경찰 14명, 기능요원 15명, 자원봉사(통역) 15명 등이었다.

전시장 운영 및 관리

전시운영 조직체계를 보면 전시장 관리의 총지휘는 사무차장(관장)이며, 운영 책임에 사무국장, 전시장 관리책임관은 관리부장이 맡았으며, 전시관별로는 비엔날레관은 전시운영과장, 본관은 전시계장, 교육홍보관은 전시기획과장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한편 각 전시관별로 운영요원(공무원, 안내원, 자원봉사자, 청원경찰) 11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이들은 전시작품의 안전한 관리와 관람객 안내, 질서유지를 맡아 많은 관람객의 수용으로 인한 전시장 내의 작품에 손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교한 전자제품이 사용되는 작품은 수시 점검하여 훼손과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7) 학술행사

국제학술심포지엄	
일 시	1997년 10월 30~31일
장 소	광주 중외공원 관리사무소 강당
주 제	지구의 여백
참 석	발제자 및 토론자 25명, 국내 중앙 및 지방언론사 10명, 조직위·사무처 관계자 10명, 국내·외 학술·문화·미술계 인사 및 방청객 200명
소주제	전지구화와 탈식민주의
발 제/발제자	근대성과 서구의 역사적 구성물 / 나오키 사카이(코넬대)
	주술과 현대성 / 최정무(U.C.얼바인)
	전지구화, 미디어 그리고 문화의 역동성 / 로렌스 그로스버그(노쓰 캐롤라이나대)
	전지구화와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유교와 동아시아 발전 / 한상진(서울대)
소주제	정체성의 정치
발 제/발제자	대만의 대안적 근대성과 탈정체성 정치 / 요평회(칭화대)
	시네 마니아, 시네 필리아, 영화제 그리고 정체성의 질문 / 김소영(한국예술종합학교)
	멜로우즈 공간, 전 지구적 텔레비전 시대의 정체성 정치 / 콘스탄스 펜리(U.C.산타 바바라)
소주제	미술과 문화정치
발 제/발제자	정의는 항상 눈을 가리워야 하는가? 법에 대한 이미지들의 도전 / 마틴 제이(U.C.버클리)
	세기말의 현대미술과 탈근대적인 문화정치적 실험 /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8) 전시도록

전시기획실에서 발행처인 도서출판 광주비엔날레를 관할구청에 등록하고 한시적인 별도의 편집팀을 구성해 출판 편집 작업을 관리하였다. 원고와 이미지 자료의 수합은 전시기획실의 각 코디네이터를 통해 홍보자료과에서 담당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기획자와 협의 하에 인쇄처에서 디자인과 인쇄 작업 진행하였다.

전시의 종류		출판사	페이지	부수	가격
본전시	국제현대미술전	I&I	510	3,000	40,000
특별전	일상, 기억 그리고 역사		228	1,500	30,000
	삶의 경계		162	1,500	20,000
	청년정신전		158	1,500	20,000
	동서명작전	가나아트	100	1,500	20,000
	도시의 꿈	전일실업	153	1,500	20,000

9) 전시추진일정

1996. 7. 29 전시기획소위원회 개최, 전시행사 기본방향 설정

1996. 7. 31 조직위원회 회의, 전시 주제안 관련 토의

1996. 11. 12 조직위원회 총회, 커미셔너 5인 확정

1997. 2. 28 1차 작가 및 작품 리스트 제출, 1차 공간 디자인 제출

1997. 4. 1 최종 작가 및 작품 리스트 제출, 2차 공간디자인 제출

1997. 4. 15 작가 및 작품 계약 완성, 작품 운송 및 보험 체결 시작,
공간 디자인 수정, 보완 및 확정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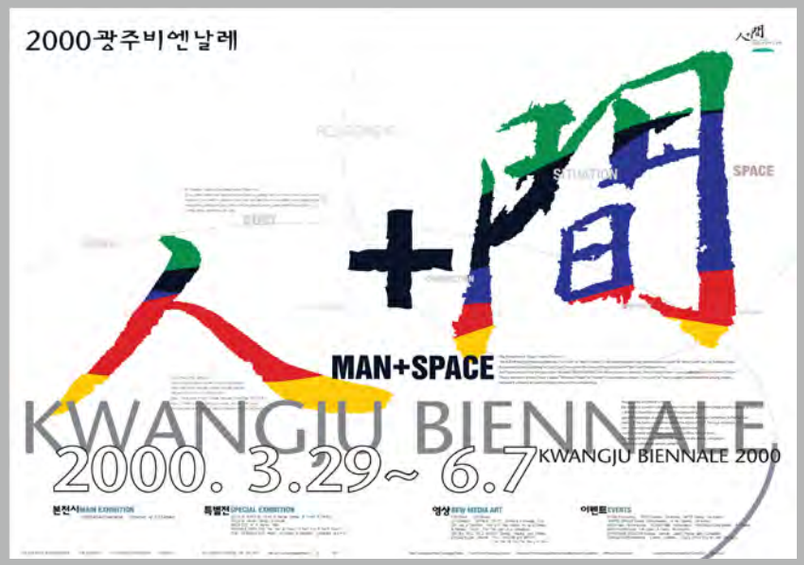
1997. 5. 1 본전시 공간 공사 시작

1997. 7. 1 공사 완공 및 작품설치 시작

1997. 8. 27 프레 오픈

1997. 9. 1 행사 개막

1997. 11. 27 행사 폐막



3.

제3회 광주비엔날레 **'人+間'**

2000년 3월 29일 ~ 6월 7일

새 천년의 빛과 진취적 시대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열린 제3회 광주비엔날레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문화 환경 변화를 앞서 이끌어 나가면서 세계 속의 아시아 문화 창구로서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가다듬고 5·18민중항쟁 20주기를 기념하는 복합적 의미를 담았다. 운영체제부터 새롭게 개편하여 미술전문행사의 민·관 협력모델로서 전시총감독제(오광수)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전시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일반시민과 청소년층의 참여·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축제행사 외에 영상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다.

3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71일 동안 열린 이 행사는 일상의 삶과 예술 활동의 본질적 명제인 '人+間'이라는 주제 아래 새 천년 벽두에서 인간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전시는 대륙별로 나누어 아시아(하리우 이찌로), 유럽·아프리카(르네 블록), 북미(토마스 핀켈펄), 중남미(김유연), 한국·오세아니아(김홍희) 등 5개 권역과 1개의 특별코너(오광수)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특히 아시아성의 강화가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높이 평가되었는데 대상인 쉬린 네샤트(이란)의 <무제-환희>, 특별상 토야 시게오(일본)의 <경계로부터Ⅴ>·세레테르 다우크도르즈(몽고)의 <애원/길>, 미술기자상인 김호석(한국)의 <역사의 행렬>을 비롯한 총 46개국 245명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1) 전시 구성 및 참여작가

구분	전시섹션 전시명	장소	커미셔너 큐레이터	국가	작가	작품
본전시	유럽·아프리카	광주비엔날레 제3,4전시관	René Block	12	20	20
	북미	광주비엔날레 제2전시관	Thomas Finkelpearl	2	15	15
	중남미	광주비엔날레 제3전시관	김유연	9	13	13
	아시아	광주비엔날레 제1전시관	Arata Tani	13	20	20
	한국·오세아니아	광주비엔날레 제2,3전시관	김홍희	2	13	13
	특별코너	광주비엔날레 제1,2,3,4전시관	오광수	5	9	9
본전시	예술과 인권	광주비엔날레 제5전시관	하리우 이치로	15	36	134
	한일 현대미술의 단면	광주시립미술관 1층	윤진섭	2	40	92
	북한미술의 어제와 오늘	광주시립미술관 2층	유재길·김찬동	1	45	76
	인간과 성	교육홍보관	베르나닥 마카데, 서정걸	10	15	67
	인간의숲·회화의숲	중외공원 야외전시장	김성희, 오세권		1212	1

2) 전시기획자

▶르네 블록 René Block(유럽·아프리카)

1942년 독일 뒤셀도르프 태생으로 베를린갤러리를 개관하여 게르하르트 리히터, 요셉 보이스와 백남준 등의 작품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1974년 10년간의 갤러리 프로젝트로 독일비평가협회가 수여하는 예술상을 수상하였다. 1982년부터 92년까지 DAAD의 아티스트 거주 창작 프로그램 기획으로 시각예술과 작곡부문 작가들을 위한 전시와 공연기획, 1995이스탄불비엔날레 <Orient/ation> 전시총감독, 카셀현대미술관장을 역임하였다. 요셉 보이스의 <나는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은 나를 좋아한다>, <다운타운 맨해튼: 소호>, <눈과 귀를 위하여>, <오늘의 독일미술>, 1990시드니비엔날레,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테크놀로지의 예술적 전환>(1991)을 기획한 바 있다.

▶토마스 핀켈펄 Thomas Finkelpearl(북미)

1956년 미국 태생으로 허드슨 리버 미술관의 지역관련 프로그램 담당, P.S.1 클락타워 갤러리 큐레이터와 디렉터, 뉴욕시 문화부 공공미술 관련 프로그램 행정 담당, 스코히건 프로그램의 디렉터, P.S.1 현대아트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였다. 인터랙티브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제시하여 <Salvaged : Altered Everyday Objects(폐품수집 : 대체된 일상의 사물들)>, <Out of the Studio : Art with Community(스튜디오를 벗어나 :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미술)>, <프랑스 기보르시 서비스업 종사자들과 차량이 함께 참여하는 퍼레이드와 퍼포먼스> 등을 기획하였다.

▶김유연 Yu Yeon Kim(중·남미)

1956년 한국 출생으로 뉴욕에서 전시 기획자 활동과 더불어, 비영리 인터넷 아트 조직인 '플렉서스

(WWW.Plexus.org)'의 수석 큐레이터로 활동하였다. 제3세계 현대 미술과의 활발한 소통과 담론의 공유, 예술을 통한 삶과 문화의 투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디지털 문화의 지도 그리기에 대한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온라인 전시기획과 함께 『아트 아시아 퍼시픽』, 『애틀란타』와 『플래쉬 아트』 등에 기고활동을 겸하였다. 1999년 록펠러재단의 인문학 지원금을 수상하였고 <Transversions – 97년 요하네스버그 비엔날레>, <호랑이의 눈 – In The Eye of Tiger>, <조각난 역사 – Fragmented Histories>, <프로젝트 OMNIZONE> 등을 기획하였다.

▶타니 아라타 谷新 / Arata Tani(아시아)

1947년 일본 나가노현 출생으로 1972년 미술출판사 주최 예술평론모집에서 1위 당선 후 활발한 평론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미술평론가연맹 상임위원, 우쯔노미야 미술관장, 1977년 '파리비엔날레'커미셔너, 1982/84년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로 활동하였고, <90년대의 아트신>, <미술전선 북상중 – 동남아시아의 뉴아트>, <Beyond the Border>, <New Asian Art Show>, <Neo Lagoon – 북동아시아의 현대미술> 등을 기획하였다. 저서로는『회전하는 표상』,『북상하는 남풍』이 있고, 공저로는『현대미술사전』,『Art in Japan Today Ⅱ』,『흙과 불의 기상(奇想)』 등이 있다.

▶김홍희 金弘姬 / Kim Hong-hee(한국·오세아니아)

1948년 서울태생으로 이화여대 불문과, 뉴욕 Hunter College와 코펜하겐 대학과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미술사로 석사학위, 홍익대에서 서양미술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2년 귀국 후 비디오, 테크놀로지 미술과 페미니즘 미술에 관한 평론활동과 연구를 지속하면서 <플럭서스 페스티벌>, <여성, 그 다름과 힘>, <인간과 기계 : 테크놀로지 아트>, 제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정보예술>을 기획하였다. 월간미술 전시기획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저서로는 『백남준과 그의 예술』,『페미니즘·비디오·미술』, 편저 『플럭서스 : The Seoul of Fluxus』,『여성, 그 다름과 힘』,『정보예술』 등이 있다.

▶오광수 吳光洙 / Oh Kwang-su (특별코너)

1938년 부산 태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졸업후 196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당선을 계기로 활발한 평론활동을 펼쳐왔다.『공간』 편집장, 1979년 상파울로 비엔날레와 1985년 칸 국제회화제의 한국 커미셔너, 제1회 광주비엔날레 조직위 부위원장 겸 아시아지역 커미셔너, 1997년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 2000광주비엔날레 전시총감독, 환기미술관장, 중앙대 예술대학원 객원교수, 국제 미술평론가협회 위원, 문화재 전문위원, 김포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 수석 커미셔너, 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추상미술의 이해』, 『한국현대미술의 미의식』, 『이야기 서양미술·서양미술 이야기』, 『한국현대미술비평사』,『이야기 한국현대미술·한국현대미술이야기』 등이 있다.

3) 전시 내용

본전시

▶유럽·아프리카 : 시간적 기준과 접점을 근거로 할 때 2000년 자체는 지난 세기에 대한 회고와 다음 세기에 대한 조망의 표상으로 상징화 된다. 회고와 전망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본질의 공간(間) 속에 처한 변화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며 예술가들은 이 추상적이고도 난해한 '변화'의 개념을 '人+間'의 관계(상황)와 '사이'로서의 2000년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결합된 함축적인 것으로 표현하였다.

▶북미 : 자화상은 서구미술의 오랜 전통이고 북아메리카와 한국 문화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다. 한국문화 내에서 자화상은 곧 서구적 인간성을 대표하는 이상적인 장르로서의 표현으로 현대의 자화상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중남미 : '에그조티카 인코그니타(Exotica Incognita)'란 이산(離散)과 대륙, 이를테면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과 공간을 의미하며 내적, 외적 구조로부터 전달되는 표현, 모순, 자율적 창조의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겹겹으로 생성된 복합성과, 창조력에 기인한 개혁적 시각, 그리고 시적으로, 그러나 다양한 문화적 기호요소들로 함축된 표현들을 통해 개인,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표출하려는 기량, 그러한 요소들이 전시 주제의 핵심이다.

▶아시아 : 人과 間의 동질과 차이를 의식화하는 것으로, 21세기를 지난 세기와는 다른 전망에 입각하여 20세기의 인간관이 간과해 왔던 세계를 보다 정밀하게 재구축하고자 하였다. '人+間'의 '+'는, 人과 間의 동질과 차이, 동체감과 거리감을 의식화하는 것으로, 21세기를 지난 세기와는 다른 전망에 입각한 인간의 시대를 회복하기 위한 의미이다.

▶한국·오세아니아 : 인간중심적인 인간관을 해체하고 외부와의 새로운 관계로 다시 형성되는 탈중심화된 인간을 시사하는 '인+간'은 서구문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동양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비서구권 국가들인 한국과 호주 권역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전시이다.

▶특별코너 : 세계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커미셔너에 의해 작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자칫 통일성이 결여될 수 있고, 주제의 해석에 있어 산만해질 수 있는 통일성과 주제 결집을 위해 전시장 여러 곳에 특별코너를 배치함으로써 전체를 이어주고 통일감을 기해 주제를 환기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기획되었다.

특별전

▶예술과 인권 : 5·18광주민중항쟁 20주년을 맞아 인권의 도시인 광주의 이미지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예술작업들과 연계시키려는 의도에서 기획하였다. 인권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면서 '예술의 자율성'을 획득하고 공공의 윤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전시였다.

▶한·일 현대미술의 단면 : 한국의 '단색조 회화'와 일본 '모노하'의 미감적 특질, 양식적 특성 및 제작 방법론에 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미국 중심의 미니멀리즘(한국 단색조 회화의 경우)와 서구의 오브제 미학 및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일본 모노하의 경우)가 각각 차별화 될 수 있는지를 조망하는 전시이다.

▶북한미술의 어제와 오늘 : 분단초기 월북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의 계기를 만들며 주체미학적 관점에서 제작된 최근 작품을 통해 북한미술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코자 하였다. 조선중앙미술박물관 등 북한 작품의 전시를 원칙으로하되,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인간과 성 : 성의 담론은 에로티시즘에서부터 동성애뿐만 아니라 전통적 성 신앙과 관념, 문화적, 지리적 차이 등에서 생성되는 문제들을 포괄한 전시이다. 성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의미와 가치 속에서 변천되어 왔는가를 검토하여 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와 가치, 개념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인간의숲·회화의숲 : 21세기는 환경오염, 자연파괴 등의 주범이 되어 왔던 첨단과학에 대한 관심보다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 인간과 자연의 균형 회복을 주제로 하여 새로운 세기, 우리 사회가 가져야할 인간의 문제, 자연의 문제를 미술사적 맥락에서 모색하는 전시였다.

4) 전시공간

전시공간 기획

▶전시공학 적용과 운용 : 전시공학은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관람객의 작품 이해를 쉽게 해 주기 위한 새로운 전시기법으로 최근 수년간 서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시공간을 운용했다. 첫째, 전시공간 전체가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둘째, 쾌적한 관람 환경조성과 작품감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관람자에게 지루하지 않는 자연스런 동선을 제공하여 전시개념과 흐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작품별 연출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데 있다.

▶파티션 설치, 운용 : 비엔날레 본전시와 특별전의 파티션 디자인 기본계획은 각 전시별 커미셔너, 큐레이터가 설계한 전시구성안을 중심으로 전시총감독과 전시기획실이 검토 협의하여 최종 조정되었다. 본전시 1전시실(아시아관)의 경우 대규모 설치작품들이 주류를 이룸에 따라 안정성과 출입동선, 주 보행통로의 확보, 작품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2전시실(북미·한국관)에서 북미는 커미셔너 토머스 핀켈펄이 전시 연출 전략에 의해 거울과 여행문구 판넬, 전시작품들을 시각적으로 연결, 중화시킬 수 있도록 회색도색을 요청하였고 파티션도 격자모양의 특수한 형식을 제시하였다.

3전시실(유럽·아프리카)은 암실효과를 요하는 영상설치작품이 대다수여서 르네 블록 커미셔너의 요청에 따라 특수 방음벽과 천정방음을 시공하였다. 5전시실은 전시장 높이가 다른 전시장보다 낮아 전시연출효과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관람동선의 마지막 부분으로 설정됨에 따라 출구를 넓게 확보하여 중앙로비로 연결되는 통로 확보 문제를 우선 고려하였다.

5) 작품의 설치 및 전시장 운영

작품의 설치

반입 작품의 설치와 해체 업무는 운송사가 담당하고, 각 전시담당자들이 시설, 인력, 기자재,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치 시 가장 중요한 기능 인력은 설치작업 경험을 가진 운송사 기능요원들이 담당했고, 이를 각 전시담당자(전시1팀, 전시2팀)와 설치지원자(전시지원팀)가 지원했고, 단기간의 설치와 해체작업을 감안해 광주 전남지역 각 대학의 설치 보조 인력과 통역요원 등 연인원 620명이 동원되었다. 이 외에도 전기, 목공, 철공, 페인트공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외부 고용 기능 인력들이 투입되었으며, 작업 시 안전관리를 위해서 경찰경비와 재단 내 청원경찰의 경비업무가 부가되었다. 참여인력은 공무원 21명, 도우미 77명(통역 4, 팀장 9, 작품설명 1, 일반도우미 63), 자원봉사자 33명 등이었다.

전시기자재들은 작품에 해당하는 것은 작가가 제공하고, 설치부분에 대한 지원을 광주비엔날레 측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각 전시담당자들이 해당 작가와의 연락을 통해 필요량과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였다. 전시가 끝난 뒤 해체작업 역시 운송사에서 담당했으며, 폐기처분 대상 소모품은 폐기처리 하였고,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품목은 보관하였다.

전시장 운영 및 관리

전시장 관리의 총지휘는 사무차장이, 운영 책임은 사무국장, 전시장 관리 책임관은 관리부장이 맡았으며, 전시관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비엔날레전시관, 시립미술관, 교육홍보관, 야외전시장으로 나누어 관리토록 하였다. 한편 각 전시관별로 운영요원(공무원, 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12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관람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대응하고 친절한 안내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 업체를 통하여 우수한 자질과 밝은 미소를 갖춘 도우미를 선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안내서비스를 제공했고 안내도우미 77명(통역 4, 팀장 9, 작품설명도우미 1, 일반도우미 63)이 참여했다. 전시장 관리운영 안내도우미의 임무로는 전시작품의 안전한 관리와 관람객안내, 질서유지이며 많은 관람객의 수용으로 인한 전시장내의 작품에 손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소수단체 관람 시 전시장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품설명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정교한 전자제품이 사용되는 작품은 전시기자재 관리시스템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훼손과 고장 시 즉시 조치하여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6) 학술회의

국제학술심포지엄	
일시	2000년 4월 21일
장소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목적	2000광주비엔날레에 대한 미술, 인문, 사회학 전반에 걸친 폭넓은 학제적 토론의 장 마련
주제	인+간
1부 발제/발제자	미국적 시각에서 본 현대미술의 한계와 미래의 예술 / 캐롤린 크리스토브 바카기브(P.S.1 현대미술센터 선임큐레이터)
	서구적 시각에서 본 새 밀레니엄과 대안 / 로버트 C. 모건(미술평론)
2부 발제/발제자	혼성의 문화와 미래 / 히데기 나카무라(미술평론, 나고야 조케이대)
	현대미술의 위기와 전망 / 크리스토프 블라제(미술평론)
종합토론	박정기(미학, 조선대), 김영호(미술평론, 중앙대), 윤난지(미술평론, 이화여대)

7) 전시도록 및 해설서

자료수집 후 원고정리 및 번역 등의 작업은 내부에서 진행하고 디자인 인쇄는 용역업체에서 담당해 제작·납품하는 방식을 취했다. 판매율 상승과 예산절감 효과를 위하여 본전시와 각 전시별 도록을 별도 제작했던 기존 방식에서 본전시와 특별전 5개를 묶은 두 권의 도록으로 출판했고 일반대중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별도의 해설집도 발간하였다.

종류	구분	출판사	부수(권제작)	판매가
도록	본전시	디자인 : 비컴미디어 / 인쇄 : 용지인쇄	3,000	33,000원
	특별전	디자인 : I&I / 인쇄 : 삼성인쇄	3,000	37,000원
해설서	초판	전일실업	7,000	3,000원
	제판	전일실업	4,000	3,000원

8) 전시추진 일정

1999. 9. 29 ~ 10. 1. 권역별 전시에 대한 커미셔너별 해석과 구상 등 논의

1999. 10. 20 참여작가 최종명단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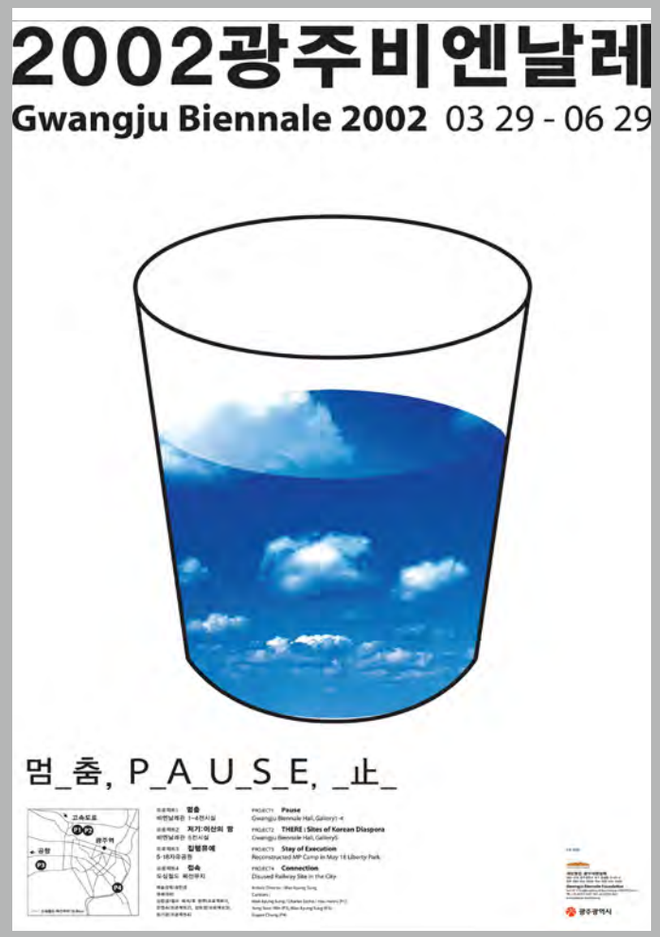
2000. 1. 20 파티션 공사 착수하여 2월 초순 완공

2000. 2. 25 운송 시작

2000. 3. 22 작품설치 개시

2000. 3. 29 행사개막

2000. 6. 7 행사폐막



4.

제4회 광주비엔날레
‘멈__춤·P__A__U__S__E·__止__’

2002년 3월 29일 ~ 6월 29일

제4회 광주비엔날레는 2002년 3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93일 동안 열린 민주도시·예술도시의 역사 전통과 세 차례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미술문화계에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을 열었다.

주제 ‘멈__춤·P__A__U__S__E·__止__’는 현대사회의 숨가쁜 개발 속도·진보위주의 움직임 속에서 잠시 멈춤을 통해 휴식과 반성적 성찰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행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면서 미술의 공공성과 교육성, 지역사회 밀착과 통합성에 무게를 둔 프로젝트 형식의 4개 전시(전체 참여작가 33개국 326명)와 부대행사들로 기획되었다. 특히 기존의 전시방식을 과감히 탈피하면서 현실 문화와 예술창작 활동이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으로 꾸며졌다.

프로젝트 Ⅰ 인 ‘멈춤’(비엔날레관 1~4전시실)은 성완경 예술감독과 공동큐레이터인 찰스 에셔와 후 한루가 함께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연출을 선보였다. 특히 미술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세계적 대안 공간 그룹들과, 파빌리온(정자)과 개별 작가 등 230명의 작품들이 유기적으로 엮어지면서 편안한 휴식공간과 대담하고 역동적인 진행형의 문화현장을 펼쳐 보였다.

프로젝트 Ⅱ 는 ‘저기 : 이산의 땅’(비엔날레 5전시실)을 전시명으로 큐레이터 민영순이 이산(Diaspora)과 분단이라는 한국사의 현실상황을 해외 교포작가 24명의 작품으로 재조명하였다. 알마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작가들의 다큐멘터리 영상기록과 영화, 회화와 입체조형물 등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프로젝트 Ⅲ 인 ‘집행유예’(5·18자유공원)는 광주의 역사적 특성과 5·18민중항쟁 당시 법정·영창 등의 장소성을 살려 풍부한 해석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해낸 국내외 작가 49명의 작품들로 채워졌다.

프로젝트 Ⅳ : ‘접속’(구 남광주역 일원)은 광주의 근·현대 유적이자 삶의 현장으로서 철길이라는 장소성을 살려 참여작가 22명이 공공미술 환경조형물을 설치 조성함으로써 대중친화적 문화공간으로 되살려 내는 제안을 펼쳐 보였다. 철길주변의 역사적 흔적과 삶의 연속성, 자연생태적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 문화자산 가꾸기 제안인 것이다.

2002광주비엔날레는 급속한 변화 혼돈 속의 현대사회,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살리자는 숨 돌리기로서 미술과 사회, 예술가와 일반 대중사이의 거리를 좁히면서 보다 친숙한 문화생산과 체험의 현장이 되고자 하였다. 아울러 6월에 기간이 겹쳐진 2002월드컵과 함께 세계 속에 한국 문화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1) 전시 구성 및 참여작가

전시구분	장 소	큐레이터	국가	작가	작품
프로젝트 1 : 멈춤	광주비엔날레 제1-4전시장	성완경, 찰스 에셔, 후한 루	29	95	90
프로젝트 2 : 이산의 땅	광주비엔날레 제5전시장	민영순	7	24	55
프로젝트 3 : 집행유예	5·18자유공원	성완경		49	129
프로젝트 4 : 접속	남광주역 폐선부지	정기용		22	57

2) 전시기획자

프로젝트 1 : 멈춤

▶성완경 : 1944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와 동 대학원, 파리 국립장식미술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영상문화학회 공동 회장, 제1회, 제2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커미셔너, 인하대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중예술-한국의 새로운 문화운동>전(아티스트 스페이스, 뉴욕, 1998) 등 다수의 전시회를 기획했다. 주요 저서로는 『기계시대의 미학』, 『민중미술을 향하여-현실과 발언 10년』, 『민중미술 모더니즘 시각문화-새로운 현대를 위한 성찰』 등이 있다.

▶찰스 에셔 : 스코트랜드 에딘버러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던 젊은 큐레이터이자 저술가이다. 스웨덴 말뫼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보적 예술을 위한 신개념의 미술교육 형태인 '프로토 아카데미'를 연구하고, 런던의 세인트 마틴 미술학교 『애프터올(AFTERALL)』의 공동편집인이다.

▶후 한루 : 1988년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0년부터 파리에서 거주하며 독립큐레이터와 미술평론가로 활동했다. 암스테르담 빌덴드 쿤스텐 아카데미의 교수, 미국 미네아폴리스 워커아트센터의 자문위원, 2000년 상하이 비엔날레 총감독,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 프랑스관 커미셔너, 2000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의 공동큐레이터를 역임했다.

프로젝트 2 : 이산의 땅

민영순 :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졸업하고 뉴욕 휘트니미술관 큐레이터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1999년부터 어바인 캘리포니아 주립대 미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1년 이탈리아 코토나의 <송골매의 비행>전, 런던비엔날레의 <원더보드 이미지화하기>전 등의 전시기획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3 : 집행유예

성완경 예술총감독이 직접 기획을 맡았다.

프로젝트 4 : 접속

정기용 : 서울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6대학에서 수학했다. 프랑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용건축연구소 대표와 서울건축학교 운영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로 재직하였다. 2000년 제3회 교보환경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공항동 성당, 계원조형예술대학, 프랑스 대사관 별동 계획안, 동숭동 무애빌딩, 동명중·고등학교 등이 주요 작품이다.

3) 전시 내용

▶프로젝트 1(멈춤) : 현대미술의 거대한 스케일과 숨 가쁜 행보를 잠시 멈추어 성찰해 보고자 하는 전시로 현재의 사회적·정치적 발전에 현대미술을 접목시키는 확장된 문화담론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세계 각지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안 공간을 초청하고, 바쁜 도시 속에서 쉬어 가는 공간을 만들어 주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정자(亭子)' 파빌리온, 개별 작가들의 작업을 대안 공간과 파빌리온 구조물 사이에 배치하여 관객들에게 참여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프로젝트 2(이산의 땅) : 이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여 현지문화와 모국 문화 사이의 조화와 갈등, 흡수와 거부, 친밀함과 낯설음이라는 이중구조 혹은 갈등구조를 '정착'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혼성적 문화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해외동포들의 문화적 힘과 면모, 우리 문화의 세계로 나아감,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 속에서 한국의 이산과 분단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로 하였다.

▶프로젝트 3(집행유예) : 장소 특수성 해석을 통한 광주민중항쟁의 재맥락화, 한국의 근대화 경험 및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반성, 공공미술 및 문화의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개념을 담았다. 5·18 자유공원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과거의 장소라기보다는 현재까지 살아있는 장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람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공원 같은 기념공간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프로젝트 4(접속) : 근대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도심폐선부지에 미술, 건축, 조경, 도시계획 설치가들의 제안을 통해 광주시가 추진 중인 녹도 공간과 연계하여 도심의 광려선 폐선부지 10.8km에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려는 환경 중재 작업의 일환으로 전체 전시 주제인 '멈춤'과 폐선부지의 기차가 멈춰진(Pause) 상황과의 접속을 시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전시의 일관성을 이뤄내고자 하였다.

4) 전시공간

전시공간 기획

제4회 비엔날레는 기존 비엔날레와 다르게 전시공간을 도시환경으로 구축하여 현대미술을 현대생활의 요소로서 관람객들이 친근감 있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전시건축은 작품간 구분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기존의 파티션 제작을 벗어나서 전시에 건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입시켰다. 이로서 전시작품 자체의 오브제 감상에서 벗어나 환경까지 구축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 형식을 제시하고, 자유로운 관람동선이 형성됨으로써 전시 관람의 새로운 개념을 보여 주었다.

프로젝트 4(접속)의 경우 도심철도 폐선부지 구 광려선 10.8km 구간 중 남광주역 일대에서 국내외 작가 22명(국내 18명, 국외 4명)이 참가하였다. 폐선부지의 전시테마에 부합하는 작가를 예상 작가로 선정한 후 작가의 제안서가 폐선부지의 장소성 해석에 뛰어난 작가를 선정하였다. 국내외 건축가는 40세 전후의 젊은 건축가들 중에서 조경, 도시와 관련한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축가를 선정하였다.

5) 작품의 설치 및 전시장 운영

작품설치

2002광주비엔날레 출품작 설치는 운송설치, 작가설치, 재단설치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운송된 작품

의 경우 운송사와 Nail to Nail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설치 철거의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였고, 작가가 직접 설치하는 작품의 경우 별도의 설치팀을 운영하여 설치하였다. 전체적으로 작가 선정이 늦어짐으로써 작품정보 수합과 분석이 늦어지고, 전시공간구성 공사가 설치일정과 맞물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설치되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였다.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상당 부분 수정하여 짧은 일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개막에 맞출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였다.

전시장 운영 및 관리

관람객들이 작품을 관람하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정자 형태의 참여형 휴식공간이 많이 설치되었다. 일정한 동선이 없는 전시였으나 관람객들이 작품 주위 입·출구를 찾지 못해 동선이 혼란스러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작품 중 비디오 설치 및 영상, 파빌리온(정자) 등 관람객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아 관리상의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었다.

6) 학술행사

포럼A 워크샵(프로젝트 1 : 멈춤)	
일 시	2002년 3월 2~8일
장 소	서울 영은미술관
참여자	도시주의 그룹 플라잉시티, 서울-아케이드 프로젝트, 성남프로젝트, 최정화, 황학동 프로젝트, 세메티 미술재단, 수퍼플렉스, 아티스트 프로 엑티브-방사르 우타마 유니버시티, 폭살 갤러리 재단, 프로젝트 304, 프로토아카데미, 플래스틱 키네틱 웜스, 찰스 에셔 등
내 용	워크숍, 강의, 토론을 통한 지적 생산물 창출이라는 프로젝트 1 전시를 구체화한 것으로 전시 및 현장 작업 외에 세계 7개국에서 온 대안 그룹들이 참여하여 미술과 사회의 역학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국제 심포지엄(프로젝트 2 : 이산의 땅)	
일 시	2002년 5월 24~25일
장 소	비엔날레관(5/24), 의재미술관(5/25)
주 제	여기가 우리의 자리인가? Predicament of Place
참 석	프로젝트 2 참여작가, 역사·사회학·여성학·문화인류학 등의 학자, 미술 관계자 등 참여
소주제	· 다양한 예술의 현장 Aesthetic Plateaus · 문턱을 넘어서 Beyond the Threshold · 어떤 지대 Certain Latitudes

학술회의(프로젝트 3 : 집행유예)	
일 시	2002년 5월 28일
장 소	5·18 자유공원
주 제	기억·장소·축제 – 5·18 역사공간을 어떻게 문화공간화 할 것인가?
내 용	· 5·18 민중항쟁을 포함한 모든 공공적 사건의 기념방식에 대한 반성 및 새로운 대안적 기념형식 모색 · 5·18 자유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3을 계기로 이러한 기념공간이 단순히 당시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견학하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기념문화공간을 제안하는 자리 마련
발 제/ 발제자	허연식(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정근식(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성완경(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김호균(북구문화의집 상임위원), 김홍남(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김형중(광주문화연대 운영위원)

7) 전시도록 및 해설서

제4회 전시도록은 프로젝트1 2권(구상, 실현),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프로젝트 4 등 총 5권으로 제작하였다. 총괄진행과 편집책임은 각 편집장(P1 : 전시부장, P2~P4 : 해당 큐레이터)이 맡았고, 교육정보팀 1인, P1과 전시해설집 편집을 위한 한시 계약직 3인이 도록 편집 실무를 진행했으며 P3와 P4는 각 1인씩 외부 편집자가 맡아 진행하였다. 도록 디자인은 디자인사와 제휴 협약으로 추진됐는데 재단이 모든 원고와 사진촬영 도판 및 자료구입·번역·교정·편집진행 등 편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제작사에서는 디자인과 필름출력 및 인쇄 그리고 도록 및 해설서에 대한 판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분담하였다. 현대미술에 대한 관람객들의 올바른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젝트별 해설서를 제작하였다. 각 프로젝트별 전시공간 배치를 중심으로 앞부분에 전시장 도면을 싣고 작품번호를 매겨 해당 작가의 작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8) 전시추진일정

2001. 3. 28 예술총감독 전시기본구상안 제시
2001. 4. 28 전시자문위원회에서 주제안으로 'Pause' 토론
2001. 5. 21 광주지역 미술인 간담회, 언론인간담회 등을 통해 '일시 멈춤(Pause)' 주제에 대한 논의 진행
2001. 5. 26 제1차 국제학술회의 '일시 멈춤 : 글로벌리즘과 현대미술에 대한 반성' 개최
2001. 6. 1 전시주제 '멈춤(Pause) P_a_u_s_e_止_' 발표
2001. 10. 24 전시기획 총괄 조정회의 프로젝트별 전시 구성 세부안 논의
2002. 2. 1~3. 28 작품운송 진행
2002. 3. 10~3. 31 작품 설치 진행
2002. 3. 29 행사 개막
2002. 6. 29 행사 폐막

5.

제5회 광주비엔날레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2004년 9월 10일 ~ 11월 13일

제5회 광주비엔날레는 2004년 9월 10일부터 11월 13일, 65일간 이용우 예술총감독과 Kerry Brougher, 장석원 공동예술감독의 기획으로 동양적 사유 전통에 바탕을 둔 풍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시각적 전시와 인문사회학적 담론화 작업을 통한 '문화생태학적 제안' 및 '관객의 주체적 문화생산 참여'의 장을 열었다. 주제는 전시의 기본 방향인 동양적 사유의 담론을 안내하는 하나의 '표상'으로서 생성과 소멸을 전제로 한 자연적 생명현상과 질서의 생태학적 해석을 담고 있다.

'먼지'는 현대 산업·문명·소비사회 파열음의 상징이며 소멸의 동기이자 무생물적 분자지만 물과 섞여 생명체로 거듭나는 희망의 메시지로서 낱알의 의미를 갖게 하였다. '물 한 방울'은 무생물을 생물로 변화시키고, 다양한 운동현상을 적시고 소통케 하는 매개물. 따라서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은 기와 멸, 생성과 소멸의 교차현상이자 순환과정으로서 문화생태학적 제안을 함축하고 있다.

전시는 예술작품의 미학적 평가나 수용의 문제를 과감하게 열어두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동안 전문 큐레이터나 작가들에 의해서 기획된 전시가 예술의 생산과 소비의 통로를 고착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면, 5회 전시는 관객을 피동적 수용자나 소비자가 아닌 전시기획에 주체적 생산자로 참여시킴으로서 차별화된 새로운 전시문화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평범한 일반인부터 인문·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 전문가까지 여러 활동 분야별로 60여명의 참여 관객이 전시기획 및 작품제작 과정에 작가별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1) 전시 구성 및 참여작가

구분	전시섹션, 전시명	장 소	큐레이터	국가	작가	작품
주제전	먼지	광주비엔날레 제1전시장	이용우 Kerry Brougher·장석원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5인	-	32	29
	물	광주비엔날레 제2전시장		-	26	15
	먼지+물	광주비엔날레 제3-4전시장		-	69	54
	클럽	광주비엔날레 제5전시장	상상릴레이 in Club 프로그래머 김기용	-	19	19
현장	즐거운 발자국 흥겨운 축제마당	비엔날레 앞마당	이성훈	3	8	8
	한국특급	교육홍보관 1층	장석원	-	31	31
	그 밖의 어떤 것	5·18자유공원	박찬국·정희승	-	33	33
	비엔날레 에코메트로	광주 지하철	장동조	7	29	29

2) 전시기획자

▶예술총감독 : 이용우(李龍雨)

옥스퍼드대학에서 문화이론과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학교 교수와 뉴욕대학교 초빙교수, 95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실장, 세계미술평론가협회 집행위원, 현대미술학회 회장, 뉴욕매체예술센터 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호랑이 꼬리전>을 기획하였으며 <테크놀로지 대 반테크놀로지>, <레오나르도에서 현대문명까지>, <한영현대미술8인전>, <전자단풍나무> 등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저서로는 『정보와 실재성』,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비디오예술론』 등이 있다.

▶국내 예술감독 : 장석원(張錫源)

홍익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월간미술지 『공간』 편집장과 '95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겸 2000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실장, <노출·반전/아시아담론> 한·중 공동 큐레이터, 2002부산비엔날레 <퍼포먼스 인 부산> 커미셔너를 지냈으며, 미국 아이오와대 교환교수를 역임하였다. 『남도미술100년 작가선집』, 『뉴욕25시』, 『체험의 예술론』 등의 저술을 펴냈다. 당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이자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원이며 미술평론가로 활동했다.

▶국외 예술감독 : 캐리 브리우어(Kerry Brougher)

캘리포니아대학(UCLA) 및 동대학원에서 미술사와 영화사를 전공하였다. LA 현대미술관 큐레이터와 옥스퍼드현대미술관 관장을 지냈고, <열린 도시 : 1950년 이후 거리의 카메라>, <미니멀 아트와 그 유산>, <둘러싸인 것과 매혹적인 것 : 정원과 현대미술> 등의 전시기획 및 『거울로 이루어진 복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기이한 캐비넷』, 『풍경에 대한 이야기』, 『거리의 카메라』 등의 저술을 발표하였다. 위촉 당시 스미소니언재단 허쉬혼미술관의 미술프로그램 디렉터 겸 수석큐레이터였다.

3) 전시 내용

주제전

▶먼지 : 지구촌의 파편화된 개별 존재 또는 산업사회의 충돌과 현실 문화의 갈등, 역사의 전복 현장과 제 현상들에 대한 자가 진단의 장으로 소멸이라는 퇴보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배태시키는 진보의 메타포로서 '먼지 한 톨'의 의미를 가시화 함. 현재의 삶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현실비판적인 작품들을 대거 전시하였다.

▶물 : 소주제 '물 한 방울'의 의미 속 내포된 치유와 거듭나기, 다양한 현상계 생명체들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펼쳐 보이고자 하였다. 즉 종속과 이탈, 전복과 화해, 이동, 복원 등 파편화된 존재들에 대한 씻김과 소통의 매개물이자 무기물의 결합 속에서 생명체의 배태를 가능케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로 담아내었다. 따라서 물과 직접 연관되거나 소주제를 상징적으로 해석해낸 작품들을 주로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밝고 차분하면서 명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먼지+물 : 세계화의 전형 및 전 지구적 환경에서 비롯된 억압과 제한된 미학적 판단기준들에 대한 재정의를 시도하면서 먼지와 물의 결합이라는 복합적이고 다층적 소주제의 개념을 펼쳐 보이고자 하였다. 즉 본질적 질서로 회귀하려는 자연 질서의 힘을 시각적 전시작품들로 담아내면서 예술의 생산과 수용의 관행을 넘어 개체와 집단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클럽 : 일반 관객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참여하여 문화적 카타르시스를 즐길 수 있는 미학적 놀이공간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전문성과 대중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시의 목표인 차별성·친근성·축제성을 구현해내는 장으로서 현대예술 또는 비엔날레 전시에 대한 관객의 거리감과 소외를 극복하는 전시와 이벤트의 교차점으로서 공간을 연출하였다.

현장(특별전)

▶즐거운 발자국 흥겨운 축제마당 : '관객 주체화'를 실현하는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되어 예술적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광주비엔날레 행사의 성격과 주 관객층인 젊은 세대의 문화감각에 부응하는 조형공간을 연출한다는 취지로 조성,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향수권 제공 및 지역공동체와의 적극적 교감을 유도하였다.

▶한국특급 : 역동적 한국 현대미술의 실상을 표현하여 오랜 역사성을 지닌 문화적 토대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의 도전, 융합과 열정, 힘과 속도를 동시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개최지의 예술적 역량과 활동상을 보여주고 강렬하면서도 저력 있는 힘과 속도와 매력과 열정을 보여주어 때로는 과격한 듯 보이지만 작품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부드럽고 각별한 예술성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밖의 어떤 것 : 광주의 시대정신을 다양한 전시 형태로 꾸준히 수용해 온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전시로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근거인 '광주정신'을 미학적으로 계승하면서 '광주정신'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5·18 이후 젊은 작가의 시각으로 재조명 하였다. 또한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된 계층의 이야기 전달에 관심을 기울여 진전된 민주화가 이루어낸 정치적 복권이라는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에 있는 소외된 어떤 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데 기획의 초점을 맞추었다.

▶비엔날레 에코메트로 : 광주 지하철 개통과 함께 문화열차를 천명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적극적인 문화마인드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광주비엔날레 개막 한 달 전 개통하여 폐막일까지 95일 동안 진행된 '비엔날레 에코메트로'는 2004광주비엔날레의 주제와 삶의 장소에서 개최하여 보다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접근시키는 배달전시의 성격으로 광주비엔날레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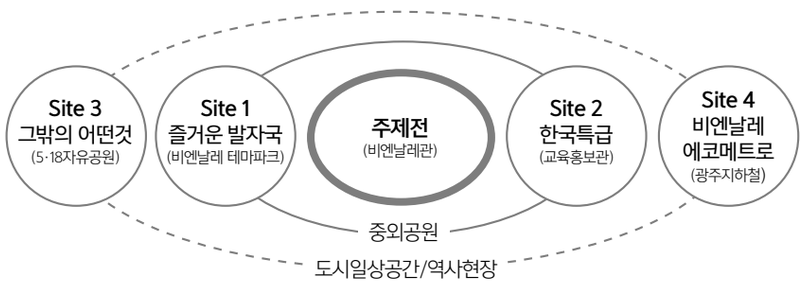
4) 전시공간

전시공간의 기획

비엔날레관의 주제전을 중심축으로 중외공원문화예술벨트에 집중도를 높이고 관련 전시공간들을 '현장'으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비엔날레관에 집중되는 행사운영을 개최지의 역사성 및 현재의 일상공간과 적극적으로 확장 연결하기 위해 '현장' 장소 선정에 많은 고심을 하였다.

따라서 중외공원 내 비엔날레관 5개 전시실의 주제전(이전 본전시)과 일부 옥외 설치작품, 인접공간인 교육홍보관의 3개 전시실, 광주 현대사의 기념비적 역사공간인 5·18자유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일상공간으로서 광주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등을 연결하여 각각의 장소성 및 공간적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참여와 소통 교감의 장을 넓히고자 하였다.

2004광주비엔날레 전시 배치 개념도



전시실별 공간 구성

▶'먼지'(1전시실)

'먼지'의 소주제 의미를 가시화하기 위해 사각 부스들을 셀 개념으로 혼잡스럽고 답답하게 구성하면서 동선에 따른 통로 이외 주변 여유 공간을 최소화하여 배치하였다. 특히 떠도는 먼지의 이미지를 허공에 뜬 부스 형태로 표현하거나 부스 외벽을 천이나 스티로폼, 사진인화지 등 여러 소재들로 마감 처리하여 각 작품들이 담아내고 있는 다양한 현재적 조건들에 대한 메시지와 강렬한 이슈 제기들을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물'(2전시관)

2 전시실은 소주제 '물'이 갖는 씻김과 치유 소생의 이미지를 공간 속에 담아내는 데 일차적인 비중을 두었다. 1전시실과 달리 상대적으로 부스설치를 최소화하고 자연채광을 활용하여 부드러우면서 역동적인 물결 흐름 모양의 파티션으로 공간전체가 통합된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놓여지는 설치 작품들의 소재와 형식 규모 등에 따라 파티션 시공과정 중 부분적인 조정을 하여 공간과 작품 사이에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먼지+물'(3·4전시관)

'먼지'와 '물'의 결합 이미지를 가시화 하고자 하였다. 3실은 각 부스들을 횡축으로 배치하면서 중앙통로 쪽 외벽을 비대칭의 비스듬한 기울기로 마주보도록 하여 마치 협곡 사이로 물이 흐르듯 관객의 동선을 구획하였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별도의 목재 바닥소재 공간을 배치하여 관람동선 중에 변화를 꾀하였다. 4실은 층고가 높은 전시공간의 특성을 살려 2개의 복층 구조를 연결하면서 중앙부분을 넓게 활용하여 대형 설치작품을 배치함으로써 여러 시점에서 전시공간과 각 작품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층 연결은 접근 편의를 위해 길고 완만한 기울기로 설치하고, 공간이 좁은 부분은 철제 계단으로 처리하였다.

▶'클럽'(5전시관)

당초 상설관으로 일부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5전시실의 카페·아카이브·전시 세미나실을 클럽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맨 안쪽에 유선형의 무대를 배치하고 둘레에 등고선 형태의 여러 단으로 짜여진 객석을 둘러 경관조경과 설치작품, 퍼포먼스 이벤트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동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연출하였다. 따라서 주제전 동선의 마지막 공간에서 관객들은 색다른 공간을 접하면서 문화적 휴식과 카타르시스로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는 장이 되도록 의도하였다.

5) 작품의 설치 및 전시장 운영

작품설치

기본적으로 운송업체가 운송작품의 설치까지 일괄 대행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작품 설치는 단계별 일정에 따라 실행하였으며, 기자재 및 설치소품을 신속하게 조달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원활한 진행과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운송작품 외 작가 본인의 방문설치나 재단에 위임된 설치는 재단인력을 지원하고 설치인력 운용 시 효율성과 안정적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인 공정 진행 및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작품의 설치는 과거 본전시와 특별전의 설치를 재단에서 일괄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현장 1, 현장 3, 현장 4의 위탁한 전시는 주관처에서 설치를 진행토록 하여 설치관련 업무를 줄이면서 일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의 개막 일정을 본 개막전 D-30일, D-10로 현장3과 현장2를 단계적으로 개막하여 업무의 부하를 줄이면서 2004광주비엔날레 사전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 또한 거두었다. 전시 운영인력은 전시팀 15명(팀장 1, 코디네이터4, 어시스턴트 겸 코디 1, 행정 2, 전문위원 1, 인턴 4, 전시보조 2), 전시지원팀 7명(팀장 1, 운송·기자재·설치·전시장 관리·현장 관리 3, 행정 3) 등이었다.

전시장 운영 및 관리

2004광주비엔날레는 각 전시 및 작품의 의도와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전시관 및 작품의 안전 관리체제 및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전시별 작품별 관람 서비스 업무를 체계화하여 관객·작가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전시운영에 따른 인력은 작품설명을 위한 도슨트, 전시작품 관리 및 동선유도를 위한 자원봉사자, 작품의 수리 보수를 위한 작품관리 요원으로 구분하여 배치 운영하였다.

작품관리 요원은 총 5인(재단직원 2, 임차기자재 용역업체 3)으로 설치작품의 보수 및 관리에 대해 주제전 및 '현장 2'를 총괄 관리 운영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히 보수 및 수리하였다.

전체 전시장 관리는 아침 8시부터 전시장 점검을 시작하여 조명, 전시작품 기자재 작동 그리고 작품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많은 관람객 방문에 따른 바닥 카펫 보수, 위험지역 차단봉 설치, 전시장 관람동선 관리, 전시관련 안내문 등을 신속히 조치하였다.

도슨트의 작품설명과 함께 음성안내기 시스템 도입하여 작품관람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기존 FM수신 방식의 음성안내기는 일정 위치를 벗어나거나 주위 환경에 따라 수신감도가 떨어져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여 MP3 방식의 휴대녹음장치로 개선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6) 학술행사

국제학술심포지엄		
일 시	2003년 11월 27~29일	
장 소	서울대학교 경영대 국제회의실	
주 제	시각예술에서의 동양성 다시 보기	
목 적	2004광주비엔날레의 기본방향인 '동양적 사유 담론의 창출'과 관련하여 학술적 깊이를 다지고 국내외 인문사회학 및 미술문화에 기여하기 위함	
사회	김문환(서울대 미학과), 김영호(중앙대/미술비평), 정대현(이화여대/철학)	
발 제/ 발제자	제1부 : 동양성에 대한 문예적 담론	발칸의 재발견-남동유럽의 지정학적인 요인 Marius Babias(독일 프랑크푸르트대/문화이론)
		생태적 숭고미 : 산수화의 이념 김우창(고려대학교 명예교수/문화평론가)
		재현의 오리엔탈(?) 패러다임 Jale Nedjet Erzen(터키 미들이스턴대/건축학)
		한국현대미술의 한국성 형성요인의 다면성 김정희(서울대/미술사학)
	제2부 : 시각예술의 동양성	물과 먹의 재발견 : 현대 중국미술의 물질성에 대하여 Wu Hung(미국 시카고대/미술사학)
		한국미술에서의 동양성 개념 출현과 그 내용 정형민(서울대/미술사학)
		전망 Peter Pakrsch(오스트리아/그라즈미술관 관장)
		김환기의 모노크롬 회화에 나타난 산수화 정신 윤익영(창원대/미학)
	제3부 : 동양성의 사회문화적 재고	욕망과 폭력으로서 미국 : 전후 냉전시대 일본과 아시아의 미국화 Yoshimi Shunya(일본 동경대/사회학)
		미래의 우상 Phillip Baldwin(미국 뉴욕주립대/매체이론)

참여관객 워크숍		
일 시	2004년 1월 12 ~13일	
장 소	광주 프라도호텔	
목 적	'관객의 주체적 문화생산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선정된 세계 권역별 활동 분야별 60명의 참여관객들을 대상으로 광주비엔날레 및 주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관객의 미의식과 비엔날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참여작가 선정의 기초자료를 수합하기 위하여 개최	
구성	전체회의	- 성격 : 2004광주비엔날레에서 새로운 전시문화의 대안으로 제시코자 하는 참여관객제에 대한 참여대상자들의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04. 1. 12 / 10:00~11:50 - 참석 : 이사장, 사무총장, 예술총감독 등 전시기획자, 참여관객 39명, 전시 관계자 등
	소그룹 토론 I	- 일시 : 2004. 1. 12 / 14:00~17:40 - 그룹구성 : 유럽, 중동·아프리카, 북남미,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지역별 5개 그룹 - 진행내용 : 논제 1 '예술활동이 우리 생활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와 논제 2 '작가와의 교류를 통해 어떻게 생활방식을 바꿀 수 있나?'를 가지고 토론 진행
	소그룹 토론 II	- 일시 : 2004. 1. 12 / 20:00~21:30 - 그룹구성 : 일반인, 타분야 전문가, 문화행동가 그룹 등 활동 분야별 3개 그룹 - 진행내용 : 논제 3 '내가 바라는 2004광주비엔날레'에 대한 토론 진행
	전체 종합토론	- 일시 : 2004. 1. 13 / 09:30~11:50 - 참석 : 예술총감독, 예술감독 2인,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4인, 참여관객 39명, 재단관계자 - 진행내용 : 소그룹 토론 내용 정리, 참여관객들의 질의응답, 참여관객 설문조사

대토론회			
일시	2004년 9월 10 ~ 11일		
장소	비엔날레 '클럽'(5전시실)		
목적	행사개막에 집중된 관심을 '참여관객제'로 연결하여 관객의 문화생산 참여 및 협업방식에 대한 의미 확장과 진행과정을 공론화		
진행	김형숙(서울대 교수), 홍영준(호남대 교수)		
진행 방식	사례발표(5팀, 각 20분), 초청토론(7인, 각 10분), 참여자 자유토론		
진행 내용	권 역	국 가	참여관객
발제 : 관객의 주체적 문화생산참여 예술총감독	독일	Stefan Rabanus(인문학 교수)	Ilka Meyer(설치)
	나이지리아	Jahman Anikulapo(언론인)	Muyiwa Osifuye(사진)
	한국	이정은(순천여고)	SAA(회화, 설치, 영상)
	필리핀	Mervin C. Vergara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Alfredo & Isabel Aquilizan(설치)
	미국	Jerry Mander(생태 운동가)	Russell Crotty(회화, 설치)

7) 전시도록, 해설서

재단 내부 도록편집위원회가 편집내용 확정, 원고청탁, 수집, 번역, 원고 교정교열, 디자인 방향제시 및 검수의 역할을 맡고, 역량 있는 전문 출판사를 선정하여 디자인과 인쇄, 제본을 실행하였다.

미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대학생 이상 일반관람객의 관람과 이해를 돕고 현대미술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개막 후 실제 전시이미지를 넣어 제작하고 표지의 색을 이원화(빨강, 흰색)하여 취향에 따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제전은 (주)열음사, 현장들은 (주)안그라픽스가 도록 출판을 맡았다.

8) 전시추진일정

2003. 3. 11 예술총감독 선정

2003. 7. 25 예술총감독 기자회견(주제 및 전시개념, 전시구상, 전시관련 주요 일정 등 발표)

2004. 2. 19~21 작가 선정을 위한 기획자회의

2004. 4. 16 전시공간 디자인 확정

2004. 6. 19 전시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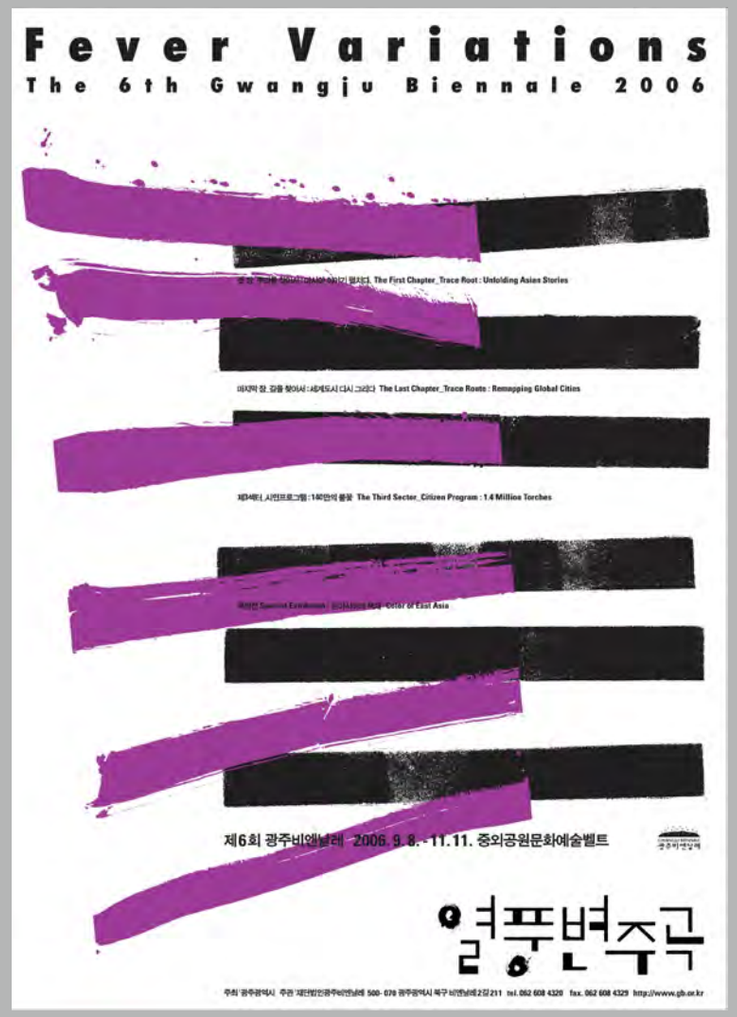
2004. 7. 27 작품 운송 개시

2004. 7. 31 전시마스터플랜 수립

2004. 8. 10 전시 설치 착수

2004. 9. 10 행사개막

2004. 11. 13 행사폐막



6.

제6회 광주비엔날레
'열풍변주곡'

2006년 9월 8일 ~ 11월 11일

제6회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의 눈으로 세계 현대미술을 재조명, 재해석하고자 하는 취지와 함께 '아시아'를 대주제로 삼았다. 주제어 '열풍변주곡'은 아시아의 새로운 변화 에너지, 역동적 비전과 함께 아시아 권역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풍요로움이 일종의 열풍처럼 전 세계로 파급, 확산되는 아시아 효과 및 그 다층적 함의를 담보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는 아시아의 변화와 역동성을 대변하는 장소이자 한편으로는 광주에서 아시아와 세계로 뻗어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와 전 세계가 광주로 집결되는 '여기로부터' 광주와 아시아의 원심적이고도 구심적인 탄력 관계가 형성되는 도시이다. 김홍희 예술총감독의 기획 총괄로 2006년 9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65일 동안 개최된 제6회 행사는 32개국 127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이러한 '진원지 내러티브'를 가시화 하는 대단위의 2개 전시와 시민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전시 <첫 장_뿌리를 찾아서 : 아시아 이야기 펼치다>는 우흥수석큐레이터와 큐레이터 샤힌 메랄리, 빙후이 후앙푸, 협력큐레이터 자클린 바스 등에 의해 현대 미술 문화 속에 나타나는 아시아 정신의 뿌리를 추적하는 통시적(通時的, diachronic) 접근의 기획으로 '신화와 환상', '자연과 몸', '정신의 흔적', '현재속의 과거' 등 4개 섹션에 72명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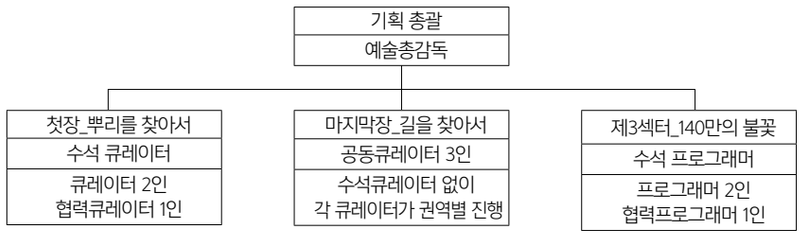
또한 <마지막 장_길을 찾아서 : 세계도시 다시 그리다>는 백지숙, 크리스티나 리쿠페로, 크리스 길버트·시라 파스쿠알 등의 큐레이터에 의해 꾸며졌다. 과정 중이고 이동 중인 현재진행형의 아시아와 세계를 네트워킹하고 그 흔적을 추적하는 공시적(共時的, synchronic)인 전시회로 55명의 작가들이 아시아, 유럽, 북남미의 도시들에서 현장 워크숍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첫 장에서 뮤지엄 성격 전시구성으로 전시주제에 대한 관객들의 접근을 보다 친근하게 이끌면서, 마지막장에서는 아시아를 바탕에 둔 동시대 세계의 인적 문화적 이동과 이주 등에 관한 프로젝트 형식의 문화진단과 제안형식을 함께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제3섹터_시민프로그램 : 140만의 불꽃>을 통해 비엔날레 전시와 광주시민, 일반대중을 연결시키고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시 첫 장과 마지막장에 개념적 실제적으로 합류하면서 광주라는 장소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1) 전시 구성 및 참여작가

구분	전시섹션, 전시명		국가	작가	작품
첫장	신화와 환상	예술감독: 김홍희 Wu Hung Shaheen Merali·Binghui Huangfui 협력큐레이터 Jacquelynn Baas	8	14	14
	자연과 몸		11	9	11
	정신의 흔적		5	13	11
	현재 속의 과거		10	13	13
마지막장	유럽	Cristina Riccupero	12	26	39
	중앙발칸-중동-아시아-북미	백지숙	4	13	11
	남미	Chris Gilbert&Cira Pascual	-	-	4

2) 전시기획자



예술총감독 : 김홍희

이화여대 불문과와 캐나다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 미술사학과 석사를 거쳐 홍익대학교 서양미술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술사가이자 큐레이터,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면서 홍익대 겸임교수로 후학양성에 정진하는 한편, 젊고 실험적인 작가 발굴과 육성에 주력하는 쌈지스페이스의 관장으로 일해왔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1995) 특별전 <인포아트> 큐레이터, 제3회 광주비엔날레(2000) 본전시 커미셔너, 제50회 베니스비엔날레(2003) 한국관 커미셔너 등을 맡았었다. 이와 함께 <99여성미술제-팥쥐들의 행진>(1999), 동아시아 여성전 <<East asian Women>(2002), 헤이리페스티발 <장소와 공간전>(2004), <미디어 in "f">(2005) 등 전시를 기획하였고, 'CIMAM서울 2004' 준비위원, '2001요코하마트리엔날레' 국제커미티 멤버 등으로 활동하였다. 저술로 『현대미술의 담론과 현장』Ⅰ·Ⅱ(2003), 『백남준·해프닝·비디오』(1999), 『페미니즘·비디오·미술』(1998) 등이 있다.

▶첫 장 수석큐레이터 : 우흥 Wu Hung

북경 중앙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에서 중국미술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술사학자이자 전시기획자이며 북경 고궁박물원 연구원과 하버드대학 조교수를 지냈고 현재 시카고대학 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1회 광쩌우트리엔날레 수석큐레이터, <중국회화3000년전>(1997), <20세기말의 중국실험미술>(2000 중국·시카고) 등 전시기획, 『초기 중국미술과 건축의 기념비성』(1995), 『더블 스크린 : 중국 회화의 재료와 표상』(1997) 등 저술이 있다.

▶첫 장 큐레이터 : 샤힌 메랄리 Shaheen Merali

인도 태생의 작가이자 큐레이터 겸 교육자이다. Black Atlantic(2004)·Slow Release(2000) 등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20여 회의 전시를 기획하였고, 현재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수석큐레이터이다.

▶첫 장 큐레이터 : 빙후이 후앙푸 Binghui Huangfui

빙후이는 북경 태생으로 싱가포르 LASALLE-SIA 단과대학 Earl Lu 갤러리 관장을 역임했다. <Asian Traffic>(2005)·<Site+Sight-Translating Cultures>(2002) 등 전시를 기획하였고, 현재 시드니 캐설라 파워하우스 아트센터 큐레이터로 있다.

▶첫 장 협력큐레이터 : 자클린 바스 Jacquelynn Baas

미국의 미술사가이다. UC버클리미술관·태평양필름아카이브 관장을 역임했고, 『SMILE OF THE BUDDHA』·『BUDDHA MIND IN CONTEMPORARY ART』 등을 저술하였다.

▶마지막 장 공동큐레이터 : 백지숙(중앙발칸-중동-아시아-북미)

연세대 사회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였다.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수석큐레이터(2000~2004)를 거쳐 인사미술공간 프로젝트 디렉터로 있다. <컨테이너전>(2002)·<대안공간네트워크전>(2002)·<새로운 과거>(2004) 등을 기획하였고, 공역서로 『TV: 가까이서 보기, 멀리서 보기』(1999), 『이 유쾌한 씨를 보라』(2000) 등이 있다.

▶마지막장 공동큐레이터 : 크리스티나 리쿠페로 Cristina Ricupero(유럽)

프랑스 출생으로 헬싱키 노르딕현대미술인스티튜트(NIFCA) 큐레이터와 런던 현대미술인스티튜트(ICA) 겸임감독을 지냈다. 97리용비엔날레 프랑스관 전시기획 참여, <Social Hackers> (2001), 비디오다큐멘터리 필름프로그램 <Criss-Cross>(2004)를 공동기획 하였다.

▶마지막장 공동큐레이터 : 크리스 길버트 & 시라 파스쿠알 Chris Gilbert & Cira Pascual(남미)

크리스 길버트는 하버드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전공하고 미술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볼티모어미술관의 현대미술 큐레이터로 재직하며 실험적 시리즈 전시 <크램 세션 Cram Sessions>(2005)을 기획한 바 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미술관의 큐레이터이며, 각종 매체에 다수의 기고문 등을 발표하였다.

시라 파스쿠알은 스페인 태생으로 볼티모어의 현대미술관 디렉터이자 큐레이터이다. 휘트니미술관 인디펜던트 스터디프로그램을 수료하였고, <Crowd of the Person> <Headquarters: Interventions in Social Space> 등 전시를 기획하였다. 예술과 액티비즘과 관련된 저작과 강연 및 전시기획을 주로 하였다.

3) 전시 내용

첫 장_뿌리를 찾아서

▶신화와 환상 : 창조적인 작가들을 매료시켜온 역사 이전의 신화적 시공간과 샤머니즘, 전통적 제의의 요소들은 여전히 독창적이고 풍부한 시각언어와 영감을 제공한다는 맥락으로 구성하였다. 주제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문화적 뿌리로부터 현대적 신화와 전설을 창조해 내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앙코르와트유적지에서 접한 머리 없는 불상들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딘 큐레의 <머리 없는 불상>, 물질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에 대한 병치의 개념을 내포한 마이클 주의 <보디 옵푸스케터스> 등의 작품이 포함되었다.

▶자연과 몸 : 아시아 미술에서 두드러진 전통적 요소인 자연 풍경에 대한 작가들의 현대적 실험성과 다양한 접근 방법을 보여주며 작품들은 장르의 구분을 넘어 현대적 맥락 속에서 인간의 신체와 내면에 주목하는 다른 작업들과 상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나뭇잎이나 볏짚 등으로 그림자 산수를 만든 수빙의 <백그라운드 스토리>, 전시관 밖 센서를 통해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크리스 웰스비의 영상설치작인 <나무연작> 등이 있다.

▶정신의 흔적 : 동양철학과 선사상에 영향 받은 내면의 자발적 표현으로서 정신성을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플럭서스를 비롯해 선묘의 정신성과 행위의 자발성을 표현한 곽선경의 검정 마스킹 테이프드로잉 <언타잉 스페이스>, 관객들의 뇌파반응에 따라 영상이 변화하는 슈민 린의 <내공> 등 최근의 뉴미디어 설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전통을 가시화하는 작업들로 구성되었다.

▶현재 속의 과거 : 역사와 기억이 주어진 사실 이상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얽혀진 관계를 조명하고, 변화된 현대사회와 새로운 도시환경 속에서 과거 역사를 새롭게 추적하고 다양한 매체, 사진, 사물들을 통해 기억이 창조되는 과정을 현대미술의 형식으로 펼쳐내었다. 모친이 30년 동안 모아온 일상용품들을 설치한 송동의 <버릴 것 없는>, 베트남의 이주와 정착에 대한 내용을 다룬 준 구엔 하츠시바의 퍼포먼스 <메모리얼 프로젝트 워터필드 : 별들의 이야기> 등이 선보였다.

마지막 장_길을 찾아서

▶유럽 : 유럽 내의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대립이 아닌 생산적인 다양성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고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과 빌니우스를 비롯, 전통적 문화수도인 파리, 코펜하겐 간의 연결과 다이내믹한 교류를 통해 시류적 이슈를 주로 다루었다. 대부분의 작품이 과정 중심의 협업 프로젝트, 각 도시 루트간의 개념을 연결하는 다양한 현지 프로젝트를 담은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며 과정 지향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미학적으로 형상화 한 영상, 도큐먼트, 설치 등의 작업이 주조를 이루었다.

▶중앙발칸 – 중동 – 아시아 – 북미 : 중앙발칸에서 시작하여 중동, 아시아, 그리고 북미에 이르는 20여개 도시들을 가로지르며 동시대적이며 역사적인, 혹은 실제적이며 상상적인 이야기들을 펼쳐내었다. 지역 간의 대화에 기초하여 관계와 태도로서의 아시아를 찾아가는 몇몇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제 간 협업과 공동의 제안들, 도시 간 이동과 연계의 틀, 워크숍과 레지던시의 결합, 아카이브의 구축과 각종 인쇄물 산출 등으로 작품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약 20여개 도시들의 루트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남미 : 이 섹션은 반–헤게모니적 논리를 기초로 제도적 구조와 시스템에 대립하는 태도를 취하여 군사화, 제국적 권력, 저항의 범죄화 등의 이슈를 토론하기 위한 세미나를 사회 활동가, 운동가 및 미디어 작가그룹들과 함께 각 도시에서 개최하고 권력 지향적 네트워크에 반대하는 지역적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만남의 과정 및 결과를 비엔날레 전시공간에 시각적 자료로 구성하여 제3세계, 제국주의 전쟁, 테러리즘, 민중 전쟁의 4가지 소주제로 남미의 관점으로 전시하였다.

4) 전시공간

전시공간 기획

주제인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바탕에 흐르도록 하면서, 첫 장_뿌리를 찾아서와 마지막 장_길을 찾아서 간의 유기적 연결 및 차별화를 구현하고 작가별 작품제작 계획에 따른 요구 공간을 최대한 제공하되, 전체 가용면적의 배분과 전시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에 작품을 배치하였다.

5) 작품의 설치 및 전시운영

작품설치는 재단의 직접 설치와 용역업체가 설치 및 철거까지를 일괄 대행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3회의 전시기획자 워크숍을 통해 예술총감독과 큐레이터, 전시 스텝들이 마련한 전시구성안을 바탕으로 전시실현을 위해 실무회의에 전문 업체를 참여시켜 참여작가와 전시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였고, 이를 통해 전시작품 설치에 따른 기자재 및 설치 소품들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출품작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3회의 전시기획자 워크숍을 통해 예술총감독과 큐레이터, 전시 스텝들이 마련한 전시구성안을 바탕으로 전시 실현을 위해 실무회의에 전문업체를 참여시켜 참여작가와 전시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전시작품 설치 시 지역미술인의 참여를 높여 과거와 다른 방식의 설치진행을 시도하였고, 조선대학교의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에 광주비엔날레를 활용함으로써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미술계와 연계를 꾀하면서 전시작품 설치의 전문성과 신속성, 설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전시 운영 인력은 설치보조요원 68명, 통역요원 3명, 운영요원 30명, 안전요원 7명, 작품관리요원 3명 등으로 진행되었다.

6) 학술행사

아시아 미술포럼		
일시	2005년 12월 5일~6일	
장소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시청각실	
주제	아시아의 문으로 본 세계 현대미술	
발제/발제자	제1부 : 아시아의 전통과 새로운 정체성	
	사 회	김홍남(국립민속박물관장)
	발 제	· 우 흥(2006광주비엔날레 수석큐레이터) · 멜리사 츄(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술관장) · 니코스 파파스테르쟈디스(호주 멜버른대학 교수) · 송미숙(성신여대 교수)
	토 론	· 이원복(국립광주박물관장) · 조송식(조선대학교 교수) · 신지 코모토(교토 국립현대미술관 수석큐레이터) · 유진 탠(미술사학자, 싱가폴 라살시아대학교 교수) · 자클린 바스(전 UC버클리미술관장) · 빙후이 후앙푸(시드니 캐설라 파워하우스 아트센터 큐레이터)
	제2부 : 아시아 현대미술과 글로벌네트워크	
발제/발제자	사 회	최은주(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발 제	· 백지숙(인사미술공간 디렉터) · 샤힌 메랄리(베를린 세계문화의집 전시부장) · 루 지에(롱마치 프로젝트 큐레이터) · 김상윤(지역문화교류재단 운영위원장)
	토 론	· 류재한(전남대 교수) · 김하림(조선대 교수) · 만레이 수(2006리버풀비엔날레 컨설턴트) · 데이빗 콰드리오(상해 BizArt 디렉터) · 로버트 모건(조선대 방문교수) · 크리스 길버트(전 UC버클리 미술관 큐레이터)
주요 논의사항	·2006광주비엔날레 주제·전시개념과 연계한 아시아 미술의 미술사적 재조명 및 아시아 현대미술의 새로운 정체성 규명 · 아시아미술 글로벌네트워크, 문화공존주의 기조로 공동체적 비전 모색	

CAA 컨퍼런스	
일시	2006년 2월 25일
장소	미국 보스턴 Hynes convention Hall
주제	2006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보는 '아시아 현대미술과 미디어 인터랙티비티'
참석	예술총감독, 수석큐레이터, 현지 큐레이터1인, 미디어작가 2인, 미술비평가 1인, CAA 참석기자, 작가, 큐레이터, 미술관계자, 학생 등
주최	CAA(College Art Association, 미국 보스턴 소재)
주요 논의 사항	시각예술문화를 후원하면서 학자와 예술가들의 상호이해 및 학문연구와 창작·비평에 관한 전문성을 교환하는 CAA의 연례 컨퍼런스에 참가, 2006광주비엔날레와 실험적 현대미술 현장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사전 홍보의 장을 마련.

비엔날레 열린 토론회		
일 시	2006년 9월 8일	
장 소	광주비엔날레 회의실	
주 제	세계현대미술과 국제비엔날레	
발 제/ 발제자	제1부 : 세계비엔날레의 역할과 아시아비엔날레의 의미	
	사 회	김홍희(2006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토 론	· 백지숙(2006광주비엔날레 마지막 장 공동큐레이터) · 유코 하세가와(도쿄 현대미술관 수석큐레이터) · 후 한루(2007이스탄불비엔날레 큐레이터) · 박만우(2006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전 전시감독) · 우 홍(2006광주비엔날레 수석큐레이터
	제2부 : '좋은' 비엔날레를 위한 미래지향적 제안	
	사 회	이용우(2004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토 론	· 우타 메타 바우어(2004베를린비엔날레 총감독) · 찰스 에셔(2005이스탄불비엔날레 큐레이터) · 후미오 난조(2006싱가포르비엔날레 감독) · 성완경(2002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주요 논의 사항	- 세계 현대미술과 주요 비엔날레의 맥락 속에서 제6회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다각적 조명 평가 및 장기적 방향 모색과 아시아권 비엔날레의 전망 제시 - 2006광주비엔날레 전시개념 및 기획의도와 실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분야별 평가 및 세계 속 광주비엔날레의 재조명 - 세계 주요 비엔날레와 아시아 미술, 비엔날레의 현실 및 전망 고찰	

7) 펀드레이징 및 전시협조기관

국가명	후원기관	지원내역	참여작가
태국	태국문화청	여행경비지원	마니크 스리와닛품, 바산 지티켓, 아라야 잠레아른수크
호주	호주예술진흥원	작품제작지원	수잔빅터
한국	국제 갤러리	작품제작지원	이수경
한국	갤러리 현대	플럭서스 퍼포먼스 지원	에릭 엔더슨
네덜란드	몬드리안 재단	여행경비, 운송 및 도록 제작지원	제니퍼 티, 로니 반 브루멜렌, 줄리카 루델리우스, 에릭 반 리스하우트, 메샥 가바
독일	독일국제예술교류 진흥원(IFA)	여행 경비 및 운송, 도록 제작지원	숀 스나이더, 미하엘 보이틀러, 마이클 엘름그린& 잉가 드라그세트, 모니카 본비치니
덴마크	덴마크아트 에이젠시	작품제작, 여행경비, 운송 및 도록 제작지원,	옌스하닝&수퍼플렉스, 코펜하겐 프리 유니버시티
프랑스	프랑스예술진흥원 (AFAA) 프랑스대사관	여행경비, 운송 및 도록 제작지원	멜릭 오하니언, 브루노세라롱그, 셴 유옌

국가명	후원기관	지원내역	참여작가
핀란드	핀란드 문화교류펀드	작품제작, 여행경비, 운송 경비지원	라우라 호렐리

8) 전시도록 및 해설서

출판사와의 협약을 통해 재단과 업무분담 형식으로 제작을 진행하였다. 재단 전시담당 코디네이터가 원고를 취합하고 출판코디네이터가 원고 번역, 윤문, 편집, 디자인, 실현 작품 사진 촬영, 교정, 교열을 거쳐 원색분해, 인쇄 제책에 이르는 공정을 진행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도록 Ⅰ, 도록 Ⅱ, 작품해설서 및 비엔날레 가이드로 구성. 도록 Ⅰ은 전시개막전에 발간(2006. 9. 5)하여 전시기획 의도와 개념 등을 수록하고. 도록 Ⅱ는 개막 후에 발간(2006. 9. 20)하여 전시 실현 이미지 위주로 수록하였다. 또한 제작을 맡은 디자인하우스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 등의 판매유통망을 확보하여 배급 판매하였다.

종류	출판사	부수	가격
도록	디자인하우스	도록 Ⅰ, Ⅱ / 각 1,500부	도록 Ⅰ : 25,000
			도록 Ⅱ : 30,000
해설서	디자인하우스	10,000	2,000

9) 전시추진일정

2005. 4. 11 예술총감독 선임을 위한 2차 이사회 예술소위원회

2005. 4. 27 김홍희 예술총감독 선정(제77차 이사회)

2005. 7. 8 전시자문위원회 위촉(관련분야 학자 전문가 27인)

2006. 2. 21 ~22 참여작가 발표

2006. 5. 19~21 전시공간구성 워크숍

2006. 8. 10 ~9. 3 작품설치

2006. 8. 19 전시공간공사 완료

2006. 8. 26 도슨트 교육 종료 및 임명장 수여

2006. 9. 7 프레스 오픈, 전야제, 미드나잇 파티 진행

2006. 9. 8 개막식, 열린토론회 진행

2006. 11. 11 폐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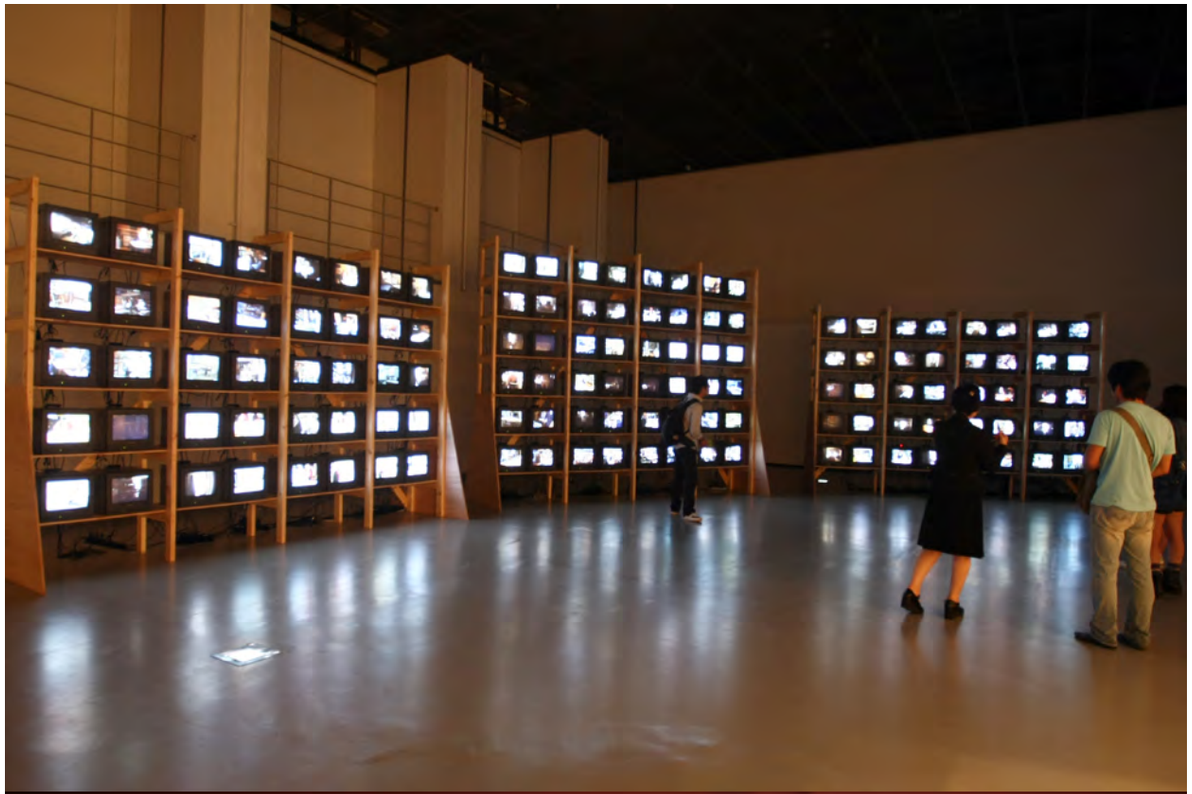
7.

제7회 광주비엔날레
'연례보고'

2008년 9월 5일 ~ 11월 9일

제7회 광주비엔날레는 특정한 주제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 전시 네트워크를 통해 비엔날레에 초대된 순회 전시로 구성했다. 제7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예술 작품, 발표 맥락 및 전시 환경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시 코드에 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현대 미술과 문화의 복합적인 환경 내에서 전시 활동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방식과 전시공간과 비엔날레 장소에 표현된 작가의 다양한 표현과 개념화 방법은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갖는 주요 요소이다. 작가 소개를 위한 작품 제작 배경 대신 경험과 예술개념, 미술작품과 관객이 마주치는 공간인 매개 공간에 초점을 맞춘다. 이 매개 공간은 전시 시스템을 수용하는 장소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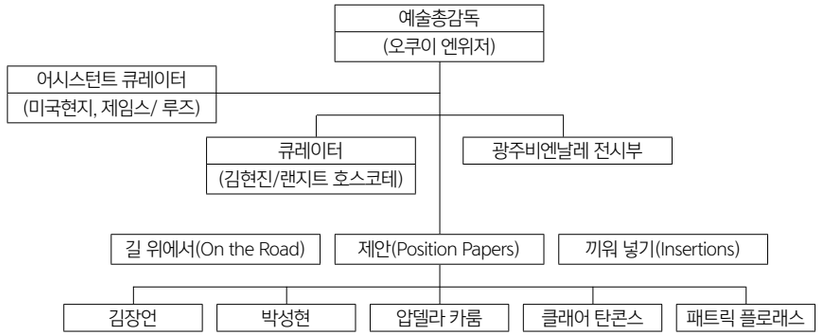
'연례보고'를 통해 최근 18개월간의 활동을 결집하고 해당 기간 내에 진행된 전시와 퍼포먼스, 읽을거리, 영상, 음악, 무용, 연극 등 현장 활동과 갤러리의 결과물을 통합하여 전시를 개최했다. 이는 변방 문화에서 주류 문화까지 또는 지역 문화에서 국제 문화까지 이러한 활동은 문화 세계, 언어 및 독특한 실험적 작품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쇼핑몰, 민속 극장, 이웃에 있는 임시 전시장, 대체 갤러리 시스템, 비영리 기관, 지방 문화 센터 또는 상업 갤러리, 예술 박람회, 박물관, 축제 및 다양한 전시 시스템 및 공간 등 어떤 종류의 공간 인지와 관계없이 비엔날레에서는 작품을 다양한 위치에 전시하여 매개 공간 연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마주침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문화 교류의 개념을 탐색하고 작품 배경과 실제 작업, 형식과 매체, 작가와 시스템, 기관과 지역성 간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1) 전시 구성 및 참여작가

구 분	장 소	큐레이터	국가	작가	작품
길 위에서	광주시립미술관 의재미술관·광주극장	Okwui Enwezor(예술총감독) Ranjit Hoskote·김현진	18	43	333
끼워넣기			24	53	139
제 안	비엔날레관 1-4실 대인시장	김장언·박성현·Patrick D. Flores Abdellah Karroum, Claire Tancons	16	29	77

2) 전시기획자



▶예술총감독 : 오쿠이 엔위저 Okwui Enwezor

샌프란시스코 아트인스티튜트 부총장이자 학장이며, 뉴욕 국제사진센터의 큐레이터이다. 뉴욕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코넬대학 아프리카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NIKE』 창간 및 편집장 등을 역임했다.

카셀 도큐멘타 11(1998~2002), 제2회 스페인 세비야비엔날레(2005~2007), 제2회 요하네스버그 비엔날레(1996~1998)의 예술 감독을 역임했으며, 뮌헨 빌라슈툭 미술관의 <짧은 세기 : 아프리카 독립과 해방운동 1945-1994>, 구겐하임미술관의 <인/사이트 : 1940년부터 현재까지의 아프리카 사진작가들>, 뉴욕 퀸즈미술관과 미네아폴리스 워커아트센터의 <글로벌 개념주의>,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의 <스탠 더글러스 : 디트로이트>, 뉴욕 국제사진센터의 <스냅 저지먼트: 현대 아프리카 사진의 재조명>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써드 텍스트 Third Text』, 『도큐멘트 Documents』, 『파켓 Parkett』, 『아트포럼 Artforum』, 『프리즈 Frieze』, 『아트저널 Art Journal』, 『아프리카 문학연구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아틀란티카 Atlantica』등에 비평을 기고해 왔다.

▶보조 큐레이터 : 랜지트 호스코테 Ranjit Hoskote

인도 뭄바이 태생으로 문화이론가이자 미술비평가, 큐레이터, 시인이며, <The Hindu> 부편집장이다. <풍경의 비전>(봄베이), <낯설음>(캘커타), <아파란타 : 고아 현대미술의 군중>(고아 관광청)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하였고, 『순례자, 망명자, 마법사』(뭄바이), 『Sudhir Patwardhan : 문제 관찰자』(뭄바이), 『회화의 용광로: 제항거 사바발라의 예술세계』(뭄바이 국립현대미술관) 등 비평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조 큐레이터 : 김현진**

독립큐레이터, 미술평론가, 계원조형예술학교 갤러리27의 객원큐레이터, 『우적 Friendly Enemies』 발간 멤버이다.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아인트호벤 반아베미술관 객원큐레이터, 2005이스탄불비엔날레 전시기획 보조, 아트선재센터 어시스턴트큐레이터를 역임하였다. <바깥에서>(계원조형예술학교갤러리), 2007KIAF 특별전 <Something Mr.C Can't Have> 등을 기획하였다.

3) 전시 내용

▶'길 위에서' On the Road : 최근 1년 동안의 전시를 매개삼아 예술문화의 사회적 경험을 연결하면서 예술 문화적 형태의 분배구조와 '매개공간'의 문화적·제도적·전시 네트워크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였다. 문화적 지적 행위의 중요한 표현방법으로 전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전시의 형태가 미술적 토론을 위한 무대의 역할을 넘어서 그 자체가 새로운 표현수단과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고찰하고 현대미술과 문화의 복잡한 현상내의 활동들을 살펴봄으로써 참여작가들의 다양한 표현과 개념적 방법론들과 더불어 중요한 매체로 삼았다.

▶'제안' Position Papers : 젊은 기획자들의 관점과 제안을 통해 현대미술문화의 현황에 대한 최근의 의견들을 전시로 구성하면서, 소규모 소론으로부터 넓은 비평의 지평까지를 연결하는 담론형성을 지향하였다. 현대미술 예술문화의 흐름과 현황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해석과 관점 또는 입장을 젊은 기획자들의 제안형식 전시 또는 프로젝트로 구성하였다. 예술 총감독의 전시기획 개념에 대한 반응이자, 해석이고, '제안'으로서 기획되는 각각의 전시들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열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끼워 넣기' Insertions : 전시 전반적인 구조 속에 구두점처럼 삽입되는 단기 전시나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규모가 있는 한 두 작업 또는 작은 개인전 형식이거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워크숍, 퍼포먼스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매개방식의 독자적 이슈와 소통 형식을 가진 개별 작가들의 실험은 다양한 외부적 조건과 상황들 속에서 작가의 미술언어 형식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도전을 보여주었다.

4) 전시공간

전시공간 기획

중외공원문화예술벨트를 주 행사장소로 하되 개최지 광주의 역사성, 문화적 상징성, 도심 및 시민들의 일상 공간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이전의 소주제 또는 섹션별 전시장소 배분방식이 아닌 통합된 하나의 전시를 추구하는 전시개념에 부합하기 위해 광주시립미술관과 함께 공공 프로젝트로서 진행형 프로그램들은 현장성과 프로젝트의 성격상 외부 전시장소를 활용하였으며 특별영화 상영의 경우 광주극장을 이용하였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 1~5실 공간의 면적, 동선위치, 층고, 채광 등 조건을 고려해 작품을 배치하였다.

▶광주시립미술관 : 광주의 지역적 기반을 가진 공립미술관으로서 기능과 역할, 국제적 전시를 위한 시설조건, 비엔날레관과 동선의 연계성 등을 활용하였다. 1층 제1전시실의 시설조건이 필요한 일부 임차작품을 배치하였다.

▶의재미술관 : 광주의 미술문화 전통과 특성을 반영하는 장소성과 기능을 연계하였다. 미술관의 시설조건을 고려하여 공간특성에 맞는 전시작품을 배치하였다.

▶광주극장 : 광주 근·현대사에서 시민 문화공간으로서 의미와 예술전용극장으로서 특성, 도심에서 접근성 등을 고려하였다. 파스빈더의 알렉산더광장을 9월 한 달 동안 임차하여 상영하였다.

▶대인시장 : 광주 도심 가까운 재래시장으로서 장소성과 일상문화의 재조명, 지역예술의 대안적 접근을 위한 환경이 고려되었다. 쇠락한 시장 폐점포를 역동적 현장진행형 프로젝트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전시공간 디자인

전시의 건축적 맥락을 적극적인 문화 담론의 매개수단으로 설정한다. 건축은 그 자체를 내세우지 않고 중간적 공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전시작품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배경으로 묶을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개적인 특징을 갖는다.

전시의 건축적 배경은 전시의 무게와 주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작품 간에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개방성과 집중력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변적인 눈금 위에 가벽이 대략적으로 배치되었다.

5) 작품의 설치

작품설치는 재단의 직접설치와 분야별 전문업체를 통해 설치 및 철거까지 일괄 대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술총감독과 큐레이터, 전시부에서 전시구성안을 만들고 작가와 전시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필요한 기자재 및 설치 소품들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장을 넓혔다.

2008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 구성의 성과는 전시기획자의 기획의도를 최대한 반영하고, 공간 디자이너의 전문적인 식견 속에 그 동안 재단이 축적해 온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기획, 연출 및 시공의 3박자를 조화롭게 이루어낸 점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섹션별, 작가별 부스 개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장 곳곳에 자유롭게 배치한 공간구성을 통해 전시공간 연출의 묘를 최대한 살려낸 점은 아시아지역 비엔날레를 주도해 가는 광주비엔날레의 자부심을 세울만한 성과였다.

2008광주비엔날레에서는 과거 대회에 비해 폐쇄적인 공간을 지양하고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소규모 갤러리 개념의 유닛으로 각 전시실을 구성하였다. '연례보고'라는 주제에 맞는 매개적 공간의 연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관람객들에게는 전시 관람을 위한 기능적 요소가 배제된 미로 같은 부자연스러움도 야기되었다. 유가상승 등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 불황으로 열악한 시공환경 속에서도 공법의 다양화와 유연한 현장대처를 통해 정해진 일정 내 공간공사와 작품설치를 완료해 낸 점은 이번 행사추진에 있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6) 학술행사

국제학술심포지엄	
일 시	게릴라 살롱 : 2008년 8월 29일~10월 24일 / 공개 심포지엄 : 2008년 10월 25~26일
장 소	인사미술공간, 아르코미술관 등
주 제	8008 한국현대미술의 '현실'과 '발언', 그 비평적 가능성의 모색

국제학술심포지엄	
내 용	198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의 비평적 쟁점들을 2008년 현재적 관점에서 그 비평적 가능성과 의미를 모색
게릴라 살롱 발 제/ 발제자	한국미술의 '비판성'과 작가의 '관심' / 박찬경(작가, 미술비평가)
	비평의 지형학 : 모더니즘, 민중미술, 포스트모더니즘 비평 재문맥화하기 / 이영욱(미술비평가, 전주대 교수)
	신자유주의 미술과 대안 공간 / 심상용(미술비평가, 동덕여대 교수)
	민중미술 이후-새로운 시각적 삶의 세계와 미술의 정치 / 서동진(비평가, 계원조형예술대 교수)
	'한국현대미술전', 해외관객을 향한 한국현대미술 기획 / 문영민(작가,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미대 교수)
공개 심포지엄 발 제/ 발제자	Session 1 · 박찬경(작가, 미술평론가) · 이영욱(미술비평가, 전주대교수) · 문영민(작가, 메사추세츠대 앰허스트 미대 교수) · 김현진(2008광주비엔날레 공동큐레이터) · 민영순(작가,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스튜디오 아트 교수)
	Session 2 · 서동진(문화이론, 계원조형예술대 교수) · 사와라기 노이(미술비평가, 타마 미술대학 교수) · 가오 링(독립평론가, 큐레이터, 『비평가저널』 창간자) · 김장언(2008광주비엔날레 제안 큐레이터)
	Sesssion 3 · 심상용(미술비평가, 동덕여대 교수) · 시라카와 요시오(작가, 미술비평가) · 주치(독립큐레이터, 아트맵 잡지 주편집자)

국제학술대회	
일 시	2008년 10월 28일~31일
장 소	북경 중앙미술학원(CAFA)
주 제	국제 시민사회 형성과 공공문화영역
참여자	국제 미술문화, 인문 사회과학 분야 현장 활동가
내 용	시민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예술을 통해 공공문화의 영역에 기여하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학술적 논의와 담론확장의 계기를 마련
프로그램	프레-플레너리 강연, 리셉션, 공개 심포지엄, 사이트 투어

7) 펀드레이징 및 전시협조기관

국가명	후원기관	지원내역
네덜란드	몬드리안 재단	네델란드 거주 및 활동 작가여행경비(항공료, 일비지급) 및 기자재 임대비용
독일	독일국제예술교류진흥원	독일 국적 및 독일활동작가 여행 경비 및 운송경비 일부
프랑스	프랑스예술진흥원	프랑스 국적 작가 여행경비, 운송 경비 일부 불어권 아프리카출신 작가 여행경비 및 운송경비일부 프랑스국적 및 모로코국적 포지션페이퍼스 큐레이터 2인 여행 경비일부
	프랑스 문화원	
스페인	스페인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국출신 작가 작품제작 경비 전액 및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리서치 여행경비부담
	스페인아시아 문화의집	
아일랜드	아일랜드문화예술진흥원	자국작가 작품제작지원비, 여행경비, 작품운송 경비 일부
	아일랜드 문화성	
일본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자국작가 작품운송경비 일부 부담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 문화성	자국작가 및 거주작가 여행 경비 지원

8) 전시도록 및 해설서

국외 추천업체와 유 경험 국내 도록제작업체들이 제작을 총괄하는 외국인 스텝과 협의를 거쳐 제작하였다. 제작업체 디자이너가 개막 전 30일 동안 광주비엔날레에 상주하면서 작업하였다.

전시장 동선별 작품을 소개한 도록과 해설서는 전시관뿐만 아니라 대인시장, 광주시장 등 광주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전시장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해 국·영문을 같이 수록하였다. 출판담당 코디네이터가 기초 원고를 만들고 참여작가에 관한 에세이들은 큐레이터, 평론가, 미술 사학자 등 각 분야의 전시 관련자들에게 작품에 관한 글을 쓰도록 하였다. 해설서는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감상하는데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벼운 주간지 느낌을 살려 지질과 제책 방식 채택함.

종류	출판사	부수	가격
도록	베이스디자인	3,500	40,000
해설서	베이스디자인	10,000	5,000

9) 전시추진일정

2007. 7. 4 제7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정(제98차 이사회)

2007. 8. 14 전시기본구상안 보고(제103차 이사회)

2007. 11 ~ 2008. 2 4차례 전시기획자 회의 진행

2008. 5. 2 ~ 8. 22 도슨트 교육

2008. 7. 18 ~ 8. 18 전시공간공사

2008. 8. 15 ~ 9. 2 전시작품설치

2008. 9. 5 행사개막

2008. 11. 9 행사폐막

8.

제8회 광주비엔날레
'만인보 / 10000 Lives'

2010년 9월 3일 ~ 11월 7일

1) 전시 구성 및 참여작가

구 분	장소	국가	작가	작품
이미지 박물관	비엔날레 전시관 제1전시실	12	26	27
시각의 기제탐구	비엔날레 전시관 제2전시실	13	28	32
신화창조 이미지탐구	비엔날레 전시관 제3전시실	-	18	19
종교적 우상 또는 형상	비엔날레 전시관 제4전시실	-	23	26
언캐니 세션 : 변화와 변형, 창조적 재해석 요소	비엔날레 전시관 제4전시실	-	19	34
영화와 텔레비전 구조에 대한 독특한 관점	비엔날레 전시관 제5전시실	2	2	2
자아에 대한 인간의 욕구와 인식에 대한 고찰	광주시립미술관	-	14	17
이미지와 기억의 상호작용	광주시립민속박물관	-	9	17

2) 전시기획자

예술총감독 :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Massimiliano Gioni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미술잡지 『플래시아트 인터내셔널(Flash Art International)』 미국편집장(2000~2002), 2001년 롱갤러리(Wrong Gallery) 공동 설립, 『찰리(Charley)』와 『롱 타임즈(Wrong Times)』 등을 통해 독립 프로젝트를 시도해 왔다. 2003년 제50회 베니스비엔날레 <The Zone> 섹션 큐레이터, 2004년 <마니페스타 5>(스페인) 공동전시감독, 2006년 제4회 베를린비엔날레 공동전시기획자, 데스테재단(Deste Foundation·아테네) 주최 <Monument to Now>(2004)와 <Fractured Figure>(2007) 전시기획, 2007년 리옹비엔날레와 The Fractured Figure 자문위원, 2003년부터 밀라노 니콜라 트루사르디재단(Nicola Trussardi Foundation) 예술총감독, 2006년부터 뉴욕 뉴뮤지엄(New Museum) 특별전 디렉터를 역임하며 <Paul Chan : the 7th Lights>(2008), <After Nature>(2008) 등의 전시를 선보였다. 최근에는 <The Generational : Younger Than Jesus>(2009)을 공동 기획했다.

3) 전시 내용

▶이미지 박물관 : 이미지의 창조와 제시라는 큰 틀 안에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고, 창조되는가, 이미지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관한 접근을 여러 매체와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었다. 또한 이미지를 창조해 내고 관점을 만들어내는 신체기관으로서의 눈의 기능을 전시장 전반에 걸쳐 상기시키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기념비 작업(퍼포먼스) 및 관객참여 작품, 널리 알려진 이미지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하거나 초대형으로 제작된 하이퍼 리얼리즘 형식의 자화상, 이미지를 만드는 기기와 시각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장치, 시각적 연관성과 연상 작용을 창조해내는 주체의 작업, 진품과 차용 사이의 관계에 관한 작품을 폭넓게 보여주었다.

▶시각의 기제탐구 : 광학적 환영과 초과학적인 상상을 통한 시각의 기제 탐구를 위해 토바 아우어바흐, 토마스 바이를레, 브리짓 라일리, 폴샤리츠, 스탠 밴더비크와 양혜규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시각적 경험이 우리의 눈과 신체에 어떻게 각인되는지를 분석, 이를 통해 인간이 이미지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유통시키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오늘날 예술가들과 이미지 생산자들은 심각할 정도로 이미지의 수용과 소비에 심취해 있다는 측면에서 한스 피터 펠드만이나 신로 오타케, 세스 프라이스 및 다른 많은 작가들은 발견된 이미지들과 시각문화의 단편들을 수집하고 체계화 하였다. 이미지의 생산과 소비를 구분하는 간극이 하루가 다르게 희미해지는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 이미지들이 조직되고 배포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신화창조 이미지탐구 : 영웅들과 순교자들의 표상을 다루는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여 신화를 창조하는 이미지들을 탐구, 전쟁과 압제를 증언하고 그 희생자들의 기억을 보존하는 전시이다. <렌트 컬렉션 코트야드>는 1965년에서 1978년 사이에 학생들과 예술가들, 쓰촨 미술학교의 교수들, 전업 작가들, 그리고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예술과 정치, 그리고 집단주의적 신념에 대한 예술적 결정체를 제시하여, 교육을 주창하고 혁명을 선동하는 이미지의 힘을 보여주었다. 최병수가 그린 <이한열 열사의 영정초상화>는 운집한 추모객들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이미지의 힘의 증거로 남아 있다.

▶종교적 우상 또는 형상 : 애정(affections)의 대상으로서 이미지, 변화하는 대상(transitional objects)으로서 이미지를 주로 다루었다. 주요 작으로는 큐레이터이자 컬렉터인 이데사 헨델레스의 <파트너스-테디 베어 프로젝트>로서, 테디 베어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3천여 장이 넘는 사진들을 모은 일종의 아카이브 같은 작품이다. 또한 전통상여의 부속물인 꼭두를 전시함으로서, 이미지를 향수(鄕愁)의 반향으로 드러내었다. 전체적으로는 자가 번식능력으로 대량 증식하고 추종자를 끌어 모으는 이미지의 힘을 보여주는 전시를 구성하면서 이미지에 대한 애정과 그것들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감추고 있음을 보여준 전시이다.

▶언캐니 세션(변화와 변형, 창조적 재해석 요소) : 존 드 안들레아, 베를린데 더브라위케러, 두에인 핸슨, 제프 쿤스, 브루스 나우먼, 오윤 등이 제작한 실물 크기의 채색 조각들로 구성된 전시로 인간을 이상화 하거나 사실적으로 복제시킨 극사실주의 인물상들로 구성되었다. 마이크 켈리의 1993년 전시 <언캐니 Uncanny>전을 부분적으로 재현하고, 변화와 변형, 창조적인 재해석의 요소들을 새롭게 소개하여 <언캐니> 전시의 경계를 보다 확장시켜 아시아와 동양의 새로운 작품들과 작가들 및 문화적 오브제들을 보여주었다.

▶영화와 텔레비전 구조에 대한 독특한 관점 : 영화와 텔레비전의 구조에 대한 특이한 관점을 보여준 전시다. 광주시 현역 영화관 포스터 화가인 박태규의 영화간판 그림들은 한국 영화사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저우샤오후의 비디오 설치물은 근로자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부조리한 상황 묘사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와 전도된 사회적 가치를 코믹하게 보여주었다.

▶자아에 대한 인간의 욕구와 인식에 대한 고찰 : 초상화와 투사된 자아로서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통해 자서전에 대한 이질적인 접근을 보여주었다. 디터 로트와 데칭셰의 자가 발생적인 감시 장비들은 이미지의 무대에 서서 포즈를 취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억제할 수 없는 욕망과 인간의 동료들이라 할 생물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응시를 드러내었다.

▶이미지와 기억의 상호작용 : '역사와 기억'을 화두로 이미지와 기억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개별 작가 9명이 참여하였다. 헨리크 올레센은 작가와 작품의 숨겨진 역사를 기록하였고, 안드로 베쿠라는 전적으로 기억에만 의존해 그의 고향에 관한 사적인 기록을 재구성하였다. 최광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행복한 추억을 사진으로 담고, 또 연로한 친척들의 죽음과 초상을 치르는 장례를 통해 삶의 마감을 기록하였으며 앨리스 콕의 비디오 작품은 국경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야 했던 가족의 재결합을 담아, 부재를 현재화하는 이미지의 힘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4) 전시공간

전시공간 기획

전시공간 연출은 엄격한 범주나 주제에 따른 분류에 의한 의도가 아닌 큰 주제의 틀 속에서 작품들 스스로가 주제의 연관성을 선보이는 기본적인 전시 원칙에 따라 전시기획자와 공간디자이너 사이의 부단한 협의를 통해 도출되었다. 현대 미술과 문화의 복합적인 환경 내에서 비엔날레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양동시장 등 4개로 나누어진 전시공간에서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소규모 공간들은 전시의 주요 작품들이 각국의 미술관과 개인소장품에서 온 것으로 그들의 독립된 표현들을 상충됨이 없이 잘 살리기 위한 의도였다. 비엔날레 각각의 장소에 표현된 작가의 다양한 표현과 개념화 방법을 각각의 분할된 공간이지만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내기 위한 과제는 제8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 구성에 있어 최대의 숙제였다.

전시의 건축적 배경은 전시의 각각 소주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들의 주제를 묶어 하나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독립성과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독립적 섹터를 유지하는 동시에 관람객들이 공간속에 스며들고 흘러나오도록 자연스러운 유도를 기획하는 강제동선의 형성이 불가피하였다.

가벽들은 일관성 있는 색과 모습에 각각 전시실들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통일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때로는 각 공간의 특징에 따른 입구 부분의 개방성, 대비되는 색채감 등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각각의 특징을 독립적이게 잘 표현되도록 의도하였다. 각각의 그룹은 서로 개별적 특징은 뚜렷하지만 하나의 동선을 통해 연결되고, 관람객들은 그 경로를 따라 전시를 관람하면서 작품과 자신과의 관계,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5) 작품의 설치

분야별로 선정된 전문 업체와 재단 내 테크니션 팀을 구성해 설치 및 철거를 분야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예술총감독 이하 전시부에서 이룬 전시구성을 토대로 전시실현을 위해 전문 업체 및 해당팀이 선정된 작가와 전시작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시작품의 설치에 따른 기자재 및 설치 소품들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에 출품작가의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설치 업무는 재단에서 직접 구성한 설치 담당자들과 운송업체 현장 팀이 분담하여 하였다. 주로 평면과 조각 작품들이 많다 보니 설치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특별한 조건이 요구된 설치작품과 작가 본인이 직접 설치를 하는 경우 설치전문 인력(테크니션)이 설치 또는 지원하였다.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작품이 반입되어 공간의 여유가 없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일정에 맞추어 설치를 완료하였다.

2010광주비엔날레는 이전과 달리 각 전시관 또는 공간이나 소주제, 섹션 등의 구분을 두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전시로 단일하게 통합시키고, 모든 작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 조망되도록 하여 하나의 '임시 박물관'과 같은 형태로 연출되었다.

비엔날레관과 시립미술관·민속박물관 등 장소 특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작품을 배치 설치하였고, 현대미술의 창작품과 더불어 테디 베어 컬렉션, 꼭두 컬렉션, 초상화 프로젝트 등 대중문화 속 아이콘 또는 친숙한 매체들을 함께 구성하였으며, 중외공원 외에 개최지의 도시문화 또는 삶의 현장과 직접적인 소통 연결을 위해 전시성격에 부합하는 별도의 사이트에도 작품을 연결 설치하였다.

6) 특별프로젝트 : 양동시장프로젝트

2010광주비엔날레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가운데 일반 시장상인과 시민이 중심이 된 전시와 이벤트가 시장공간에서 진행됐다. 상인들이 만들어내는 아카이브 공간이자 양동시장 정체성의 원천을 보여주는 공간을 구성한 <양동시장 日日記>, 작가 김기범의 기획으로 시장 단골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시장지도 <오물조물 시장지도>의 전시, 비엔날레 기간에 시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벽면에 자국의 언어로 시장을 만난 느낌과 소회를 남기고 그 과정을 기록해 이를 다시 벽면에 투사시키는 작가 정기주의 <열린_벽>, 2010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박태규의 시장사람들의 <나눔꽃> 벽화 프로젝트 등이 이어졌다. 또 프로젝트의 동반행사인 <양동야상곡>은 학술대회 및 이벤트를 개최, 문화현장 공공프로젝트의 주요 활동과 사안들에 대한 논의와 효과적 가치 창출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7) 전시도록 및 해설서

국외 추천업체와 국내 유 경험 도록제작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출판물 제작을 담당하는 외국인 스텝과의 제작 협의가 가능한 곳을 제작업체로 선정하였다. 출품작 '만인보'의 이미지를 표지에 담아 전시 콘셉트를 보여주고 활용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PUR 제본을 활용하여 실용성과 미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관람객의 관람과 이해를 돕는 해설서 제작을 위해 전시장 및 전시 행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출판담당 코디네이터가 모아 원고를 만들고 전시팀장, 전시부장을 거쳐 완성하였다. 국영문 버전으로 제작하고 갤러리 동선에 따른 전시 정보를 수록하였다.

종류	출판사	부수	가격
도록	현실문화연구	2,500	45,000
해설서	현실문화연구	2,500	4,000

8) 전시추진일정

2009. 4. 10 제8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임(제110차 이사회)

2009. 5. 8 예술총감독 협약체결

2009. 5~ 9 국내외리서치 진행

2010. 1. 16 ~ 1. 22 전시기획 실무회의

2010. 2. 5 ~ 2. 11 국내리서치 및 전시기획 실무회의

2010. 6. 28 ~ 9. 3 도슨트 교육

2010. 8. 2 ~ 8. 31 작품운송 및 설치

2010. 9. 3 행사개막

2010. 11. 7 행사폐막

201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전시 및 행사

'오월의 꽃' 은 5·18민중항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5·18민중항쟁30주년기념행사위원회 공동주최로 추진되었다. 이 기념전은 5·18의 현재적 의미와 '광주정신'의 다각적인 계발을 모색함과 동시에 민주·평화·예술의 도시 광주를 새롭게 각인시키고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전시 '오월의 꽃'에는 정치·사회적 테마로 작품 활동을 해 온 국내·외 작가 25여 명이 참여했다. 이탈리아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 예술의 거장인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Michelangelo Pistoletto)를 비롯해 칠레 출신 미국작가 알프레도 자(Alfredo Jaar), 남아공 출신 캔디스 브라이츠(Candice Breitz), 미국의 토니 아우슬러(Tony Oursler), 고(故) 백남준과 이불·이경호·변종곤 등 작가들이 인권과 휴머니즘의 미학을 보여줬다.

기념전과 함께 진행된 국제심포지엄 '예술의 두 얼굴-대중과 예술, 그리고 시장'은 2010 광주비엔날레 주제인 '만인보'의 저자 고은 시인과 독일 카셀도큐멘타 예술총감독 캐롤린 크리스토프 등 유명 학자와 큐레이터·비평가·컬렉터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중과 예술, 그리고 시장'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등지에서 5월 11~12일 이틀간 진행됐다. 영국 골드스미스 칼리지의 저명 정치철학자 리처드 노블 교수를 비롯해 전 바젤아트페어 총감독 케이 소피 라비노위츠, 동경 모리미술관 수석큐레이터 마미 카타오카, 일본 저명 대중문화비평가인 히사시 무로이(요코하마대학 교수), 샌프란시스코 미술대학 학장인 오쿠이 엔위저(7회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인 전남대 최협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 진지한 논의를 펼쳤다.

전시회, 심포지엄과 동반해 이뤄진 콘서트 퍼포먼스 '새로운 꽃, 새로운 법'은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에 초청돼 큰 반향을 일으킨 퍼레이드 퍼포먼스로 가수이자 시각예술가인 아르토 린제이(Arto Lindsay)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제작된 조각 작품 '광주'는 백과사전을 만든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인 디드로의 고향 랑그르에서 그해 9월 열린 공연과 함께 전시되어 광주의 정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전시 '오월의 꽃'

2010. 5. 12 ~ 6. 13 / 광주시립미술관, 쿤스트할레광주, 금남로 폐공간 등

전시문맥에서 벗어나 '광주정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광의의 미학적 실천과 이를 보다 확장 계발시켜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작품이 구성되었으며 주로 민주·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역사적 인물·사건·공간 등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이미지와 형식·매체들로 채웠다.

참여작가 : 25명(국외 15, 국내 10)

강성욱 / 김주연 / 백남준 / 변종곤 / 이경호 / 이불 / 이이남 / 허달용 /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 알프레도 자 / 아이 웨이웨이 / 이고르 그루비치 / 토니 아우슬러 / 주세페 스탐포네 / 캔디스 브라이츠 / 세실리아 트립 / 차이 유안 & 지안 준시 / 밥티스트 코엘료 / 카데르 아티아 / 도라 가르시아(광주시립미술관) / 권승찬 / 마문호 / 라이너 가날 / 밥티스트 코엘료 / 세실리아 트립 / 매튜 슈라이버(쿤스트할레광주)

국제심포지엄 '예술의 두 얼굴 – 대중과 예술, 그리고 시장'

5. 11 ~ 12 / 전남대학교 용지관 광주은행홀

(후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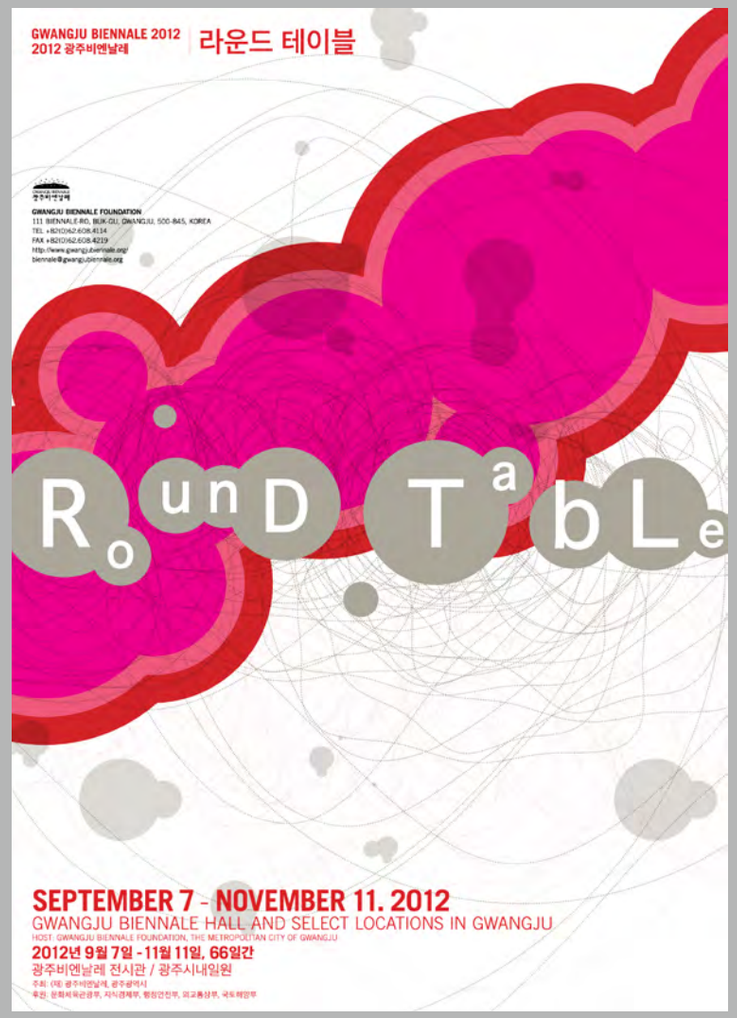
광주정신을 기반으로 오늘날 예술현장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되는 비평적 관점들을 노정하고 평가해보는 세미나형식으로 특히 비평의 쇠퇴와 시장의 등극, 자본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확대와 매체의 역할, 글로벌 사이즈의 국제전시의 다층화 등에 관한 시각문화적 담론들을 토론하며 타개책을 모색하였다.

일시	장소	주제	참여
2010. 5. 11	전남대학교 용지관 (광주은행홀)	개회	기조발제 및 대담 1(고은·최협)
		예술의 저항적, 실험적 가치와 예술운동	발제 1(Okwui Enwezor) 발제 2(Richard Noble) 토론(정금희, Caecillia Tripp)
		시장지배 현상의 대두와 비평의 쇠퇴에 대한 대안	발제 3(Alfredo Jaar) 발제 4(Melissa Chiu) 토론(김영호, Alessandra Sandrolini, Baptist Coelho)
2010. 5. 12		예술과 미디어, 시장, 그리고 관객	기조발제 대담 2(Ai Weiwei·이용우) 발제 5(Hisashi Muroi) 발제 6(Mami Kataoka) 토론(김지원, Franck Goutherot, 김승덕)

Arto Lindsay 콘서트 퍼포먼스

5. 11 / 전남대학교 대강당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시민의 에너지와 민중의 지혜를 모으는 공연 및 퍼포먼스로 Gathering(모으기), Transforming(변환하기), Sending(전파하기) 로 구성되었다.



9.

제9회 광주비엔날레
'라운드 테이블'

2012년 9월 7일 ~ 11월 11일

1) 전시 구성 및 참여작가

구 분	장 소	큐레이터	국가	작가	작품
집단성의 로그인, 로그아웃	비엔날레 전시관	낸시 아다자냐	12	20	150
역사의 재고찰	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장	와싼 알-쿠다이리	8	13	13
일시적 만남들	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장, 무각사	마미 카타오카	13	78	531
친밀성, 자율성, 익명성	무각사, 대인시장, 광주극장, 비엔날레 광장 및 전시관, 광주시내 일원	김선정	11	187	242
개인적 경험으로의 복귀	비엔날레 전시관	캐롤 잉와 루	8	14	173
시공간에 미치는 유동성의 영향력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극장	알리와 스와스티카	11	18	73

2) 전시기획자

6인 공동예술감독제 도입

제9회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지역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여성전시기획자 6명이 공동감독 체제로 실험적인 구조로 출발하였다. 이는 역대 광주비엔날레나 타 비엔날레와의 변별성을 확고히 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초의 다중 여성 공동감독제의 선택이 주는 미술사적, 문화적 의미를 선점하고, 세계 시각 문화의 현장을 폭넓게 통찰, 새롭게 추구해 나갈 미래의 가치들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로서 추진되었다.

▶책임공동예술감독 : 김선정

1993년부터 2004년 사이 서울 아트선재센터의 수석 큐레이터,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를 역임했으며, 전시기획 회사 사무소(SAMUSO: Space for Contemporary Art) 설립자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다. 사무소 기획의 연례 미술 행사인 '플랫폼 서울'의 전시로 <Somewhere in Time>(2006), <Tomorrow>(2007), <I have nothing to say and I am saying it>(2008), <Platform in Kimusa: Void of Memory>(2009), <Projected Image>(2010)가 있다. 제6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_미디어시티 서울 2010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책임공동예술감독 : 낸시 아다자냐

인도 봄베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이론가이자 독립큐레이터이다. 초문화적 예술 활동, 예술과 생산적 정치의 관계를 주제로 많은 글을 발표해왔다(카셀 도큐멘타 11; 칼스루헤 ZKM 베를린 트렌스미디알레, 비엔나 퀸슬러하우스, 위트레히트 BAK 등). 매거진 『아트 인디아』의 편집장을 역임했고, 다수의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제시해오면서 비평집, 미술 저널 및 도록 등에 글들을 기고했다. 실파 굽타의 작품집(2010, 프레스텔) 편집, 『다이얼로그 시리즈』(2011, 파불러 프라카샨 / b&g 재단) 등을 공동 저술했고 위트레히트의 현대미술센터 BAK의 연구원이다.

▶공동예술감독 : 와싼 알-쿠다이리

이라크 출신으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영국, 미국 등지에 거주하며 애틀랜타의 하이 뮤지엄 오브 아트, 뉴욕의 브룩클린 미술관 등에서 일하기도 했다. 아랍 근현대미술 전문 큐레이터이다. 아랍근대미술관 초대 관장으로서 미술관의 새로운 방향성과 정책 확립, 소장품 구입과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사랍 : 차이 구어치앙>(2011)을 기획했고, <사질 : 근대미술의 한 세기>(2010)를 공동 기획했다.

▶공동예술감독 : 마미 카타오카

2003년부터 모리미술관 수석 큐레이터로 재직하며 전시기획과 저술을 병행하고 있다. 2007~2009년 런던 헤이워드갤러리의 첫 번째 국제큐레이터를 역임했다. 모리미술관의 주요 전시기획으로는 <아이 웨이웨이: 무슨 근거로?>(2009, 2012년부터 미국 순회전), <이불 : 나로부터, 오직 그대에게>(2012) 등이 있다. 최근 전시로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안 아트 뮤지움의 <아시아의 유령: 과거를 깨우는 현대>(2010)를 기획했다.

▶공동예술감독 : 캐롤 잉화 루

베이징 기반의 미술평론가이자 큐레이터이다. 매거진 『Frieze』의 객원편집위원이며, 컨템포러리 아트 & 인베스트먼트의 공동설립자이자 공동편집인이다. 이-플럭스 저널, 『엑시비셔니스트』, 『이슈』, 『테이트』 등을 비롯한 국제 미술저널과 매거진에 기고하며, 다양한 전시도록, 책, 출판물, 비평집 등에 비평을 싣고 있다. 2005~2007년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중국 연구원을 역임했다. 2009~2010년 투데이 미술관의 프로젝트 스페이스인 '수트케이트 아트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설립자이자 아트디렉터로 재직했다.

▶공동예술감독 : 알리아 스와스티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이자 미술평론가이다. 2002~2004년 인도네시아의 아트스페이스 세메티 아트 하우스의 아트매니저와 『SURAT』의 공동편집인을 역임했고, 2008년 이후 자카르타 아크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그 잊혀진 시간>(2007~2008, 암스테르담, 자카르타, 세마랑, 상하이, 싱가포르)과 <마니페스토 : 7인의 인도네시아 작가들의 새로운 미학>(2010, 싱가포르 현대미술관) 및 에코 누그로호, 틴틴 울리아 등의 개인전을 기획했다. 제11회 족자카르타 비엔날레와 2012 아트 두바이의 인도네시아 미술 마커 프로그램 큐레이터를 역임했다.

3) 전시 내용

▶집단성의 로그인, 로그아웃 : 문화적인 실천 공간에서 발생하는 발화 지점과 그러한 공간에서는 작가 개인의 예술적인 선택과 집단적인 시민의지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비판적인 주체가 갑작스레 출현한다. 문화 생산자들은 '개인'과 '집단'이 점진적으로 구성한 것들 사이를 항해하면서 때때로 자신을 분산(分散)된 주체성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혹은 배반당한 유토피아라는 관념을 지지하기도 하고, 지워져버린 비판적 시민의식의 원형을 회복하려 하기도 한다. 위기의 순간에 외견상 구별되는 역사들이 구분할 수 없이 뒤엉켜 있거나, 저항이나 혁명의 징조가 있을 무렵 사회 변화가 전개되면서 투쟁과 결단이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라운드테이블'은 즉흥적인 방식을 통해 참가자 자신과 연대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전이하는 관계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역사의 재고찰 : 큐레이터 진 피셔가 "역사를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글쓰기는 역사를 마치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확실한 경계를 지닌 일종의 사물로 다루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과 같이 '라운드테이블'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이 명제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역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재사용되는가? 우리는 역사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특정 사건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를 일종의 '사물'로 이용하는 것은 갖가지 극적인 사건들- 지진, 전쟁, 쓰나미, 시민운동- 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하나의 방법인가?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언제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기억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재논의하는가?

▶일시적 만남들 : 변화하는 큐레토리얼의 주제와 구조를 반복적으로 반영하는 비엔날레의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보다 큰 가능성이 열려있는 담론에 이를 수 있다. 삶은 역사적인 구성물들로 암시되는 확고부동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주의 장구한 역사에서 보면 현재 팽배한 전 지구적 추세와 최근의 발전들은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겪어야 하고, 변화를 스쳐가는 만남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라운드테이블'은 우리 자신의 일시적 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 상이한 맥락들 간의 다양한 상호 연결성을 깨닫게 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諸行無常)"는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겨 본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아 보존해야 하며, 무엇을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지 진지한 물음을 던지고자 하였다.

▶친밀성, 자율성, 익명성 : 광주비엔날레는 시민운동의 정신을 반영한 비엔날레로 역사적, 정치적인 중요성을 가진 비엔날레이다. 시민운동은 어느 특정 인물이나 사건보다는 익명의 개인이 만들어낸 결과로 비엔날레를 통해 그들의 익명성, 자율성 그리고 친밀하게 연결된 관계가 만든 다양한 층위를 광주라는 도시를 통해 바라보고자 한다. 예술가들은 광주의 특정 장소를 통해 광주의 역사를 드러내거나 광주와 연관된 다른 곳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 광주를 다시 바라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개인적 경험으로의 복귀 : 디지털화, 세계 무역, 정치적 움직임이 야기한 경제적,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경계의 와해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적 논리의 틀을 해체하고 있다. 개개인이 고취시키고 동기 부여한 변혁적 힘이 사회적, 철학적, 예술적 영역에서 배양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되었다. '라운드테이블'은 지역과 전 세계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기여하는 개인적 정신의 가치를 인지함으로써 현재 팽배한 신자유주의적 정치, 경제 담론을 초월하는 연결성의 대안적 질서와 논리에 대해 성찰하고자 하였다.

▶시공간에 미치는 유동성의 영향력 : 전 지구화의 결과로 물자와 인구, 정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려, 경계와 지정학적 관념이 동시적으로 해체되거나 고착되고 있으며, 지역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급속도로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경계에 대한 역사적 개념과 경계가 사회현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재구성되고 재발견되어야 한다. 대부분 장벽을 만들어내고 억누르는 경계의 전통적 역할은 이제 서로를 연결하고 만나게 하는 기능으로 대체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의 작가들은 이러한 여정의 핵심적인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유동성, 공간성, 시간성_시간/공간, 여기/저기, 현재/과거_에 대한 상이한 관념과 해석들을 탐험하며, 맹아 단계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가고자 하였다.

4) 전시공간

전시공간 기획

2012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장소적 특성, 광주의 역사, 개인사, 흔적, 기억들이 작가들의 작업 요소로 작동하는, 도시 곳곳에 배치된 광주-특정적인 작업들이 큰 특징이었다. 이는 올해 전시의 개념을 광주시내 곳곳으로 확대하여 광주의 문화, 역사, 공간적 맥락을 반영하고자한 공동예술감독의 전시기획 방향이 우선 고려되어 진행된 결과였다. 특히 광주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역사나 전통, 개개인의 삶이나 이야기, 장소성과 연관된 작업을 보여주고자 했던 전시기획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고자 하였다.

전시장소 선정 과정 중 무엇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은 장소 접근성이나 전시공간으로서의 재원에 앞서 광주의 장소적 특성, 광주의 역사, 그리고 그 장소에 스며있는 개인사, 흔적, 기억 등에 대한 이해였다.

비엔날레전시관은 중외공원문화예술벨트 내에 자리한 행사의 주 전시공간으로 5개 전시실이 있으며, 공간의 면적, 동선위치, 기존에 조성된 벽체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르별 특성에 따라 고루 작품을 배치하였다. 광주시립미술관에는 개최지 광주의 지역적 기반을 가진 공립미술관으로서 기능성을 살리고, 미술관에서 자체 기획한 전시와 유기적이고 상생적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1층 로비 및 외벽을 활용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작품들을 배치하였다.

도심 속의 불교 가람인 무각사에는 전시실, 선방 등 공간특성에 맞는 철학적 사유를 담은 작품이 주로 배치되었으며, 광주의 근·현대사에서 시민 문화공간으로서 의미와 예술전용극장인 광주극장은 영상작품의 상영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방치되어 있던 사택을 레지던시 공간 및 전시공간으로 되살려 낸 점은 특이할 만하다. 광주 도심 가까운 전통시장인 대인시장도 폐 점포 7개소에서 현장진행형 프로젝트 및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서구문화센터 앞 전광판도 영상작품의 상영공간으로 활용하였다.

5) 작품의 설치 및 전시장 운영

작품설치

참여작가의 완성도 높은 작품연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전시기자재를 활용하여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퀄리티의 작품을 표현해냈다. 자체 보유한 조명기자재 부품을 재조립, 보수하여 비용을 절감했고 설치 테크니션팀이 작가들의 직접 설치작업을 지원해 만족도를 높였다. 목공, 철공,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작업이 가능한 테크니션의 활용으로 별도의 인력을 섭외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여 비용 절감과 설치시간의 효율화를 꾀했다.

전시장운영 및 관리

2012광주비엔날레는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공간 구성 대부분을 재활용하였다. 특히 신작이 60%가 넘는 실험적인 전시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기획단계 초기부터 재단 내 전문가와 공동예술감독들 간에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였다. 역대 어느 비엔날레 행사보다 많은(출품작의 60%이상) 신작 제작으로 운송 및 보험의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신작 및 레지던시를 추진하기 위한 작품제작 지원비 및 작품설치관련 물량 및 예산은 증가하였고, 신작 및 레지던시 추진을 위한 시민협업이 활발하였다.

6) 학술행사

제1차 워크스테이션	
일 시 장 소	2012년 2월 14~15일(2일간, 광주·서울) 1) 1일차 : 14일 10:00~18:30 / 전남대 용봉문화관(시청각실) 2) 2일차 : 15일 15:00~20:30 / 서울 아트선재센터(아트홀)
주 제	윤리로서의 자기조직화 'Self-Organisation as Ethic'
참여자	전시기획자, 미술 비평·이론 분야 전문가, 미술 및 전시기획, 인문학 전공학생 등 200여명
행사구성	초청자 발제 및 토론(10개국 13명), 기자간담회
기 획	낸시 아다자냐(2012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제1차 워크스테이션	
발 제/ 발제자	1일차(광주)
	· 워크스테이션 포지션페이퍼 : 낸시 아다자냐(2012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 10년 동안-비엔날레 문화와 국제적 환경의 변화 : 찰스 에셔(아인트호벤 반아베미술관 디렉터, 2002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 10년 이후-인도네시아의 아트스페이스와 새로운 움직임들 : 알리아 스와스티카(2012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 감독) · 불확실한 미래 : 현재의 전망 : 마리아 흘라바요바(위트레이트 BAK 설립 아트디렉터) · 적에 대한 정의와 여전한 포스트 포드주의 : WHW(나타샤 일리치, 자그레브의 큐레이터 그룹 WHW 멤버) · 예술/지식의 정치적 생산 : 플랫폼으로서의 Chto delat와 방법론으로서의 자기조직화 : 드미트리 빌렌스키(작가, 무엇을 할것인가 창립멤버) · 기관형성의 협업 과정 : 니콜라우스 허르쉬 (건축가, 프랑크푸르트슈테델슐레 Städelschule 건축대학 학장, 포르티쿠스 디렉터) · DIY 콜렉티브의 회복: 미술에서 대안의 새로운 국면 : 김희진(아트 스페이스 풀 디렉터&큐레이터)
	2일차(서울)
	· 워크스테이션 소개 : 낸시 아다자냐(2012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 "세계가 되는"미술 : 하바나 비엔날레 : 헤라르도 모스퀴에라 (하바나 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 참여의 악몽 : 마커스 미에젠(건축가, 프랑크푸르트 슈테델슐레 Städelschule 조형미술대학 비평적 공간디자인과 교수) · 과연 "아랍의 봄" 또는 "점거"가 현대미술에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 바쌈 엘 바로니(알렉산드리아 현대포럼 공동설립자) · 윤리로서의 자기조직화 -테이크아웃 퍼포먼스 : 임민욱(작가, 서울) · 통치성 너머로 나아가는 자기조직화 : 2011년 희망버스에 대한 고찰 : 이택광(경희대학교 영미문화학과 교수)

제2차 워크스테이션	
일 시/장 소	2012년 9월 7일 10:00~18:00(광주비엔날레 제2전시관 온사이트)
주 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 'Where Do We Sit?'
참여자	전시기획자, 미술비평·문화연구, 이론가등 관련 전문가, 참여작가 및 국제 큐레이터 코스 참가자, 뒤뜰캠프 참가자 및 관람객등 150여명
행사구성	초청자 발제 및 토론, 퍼포먼스(15명(팀))
기 획	와싼 알-쿠다이리, 캐롤 잉화루, 알리아 스와스티카(2012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발 제/ 발제자	· 알렉산드라 코제베에 대한 발표 : 보리스 그로이스(철학자 겸 큐레이터) · 기억을 창조하는 신중한 행위 : 2012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 올리버 차나린, 알라 유니스, 말락 헬미 · '재창조'의 행위 : 와엘샤키(2012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와 나브하크(영국 아놀피니 큐레이터)의 대화 · 예술가들의 광주 레지던시 : 아브라함 크루스비예가스, 크레이그 월시, 스콧 이디(2012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 보관인(The Keeper) : 슈루크 하르브(2012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7) 펀드레이징 및 전시협조기관

국가명	후원기관	지원내역	참여작가
네덜란드	몬드리안 재단	네덜란드 거주 및 활동 작가여행경비 (항공료, 일비지급) 및 기자재 임대비용	딕 베르될, 페이지스 (나스린 타바타바이, 바박 아프라시아비)
독일	독일국제예술교류 진흥원	독일 국적 및 독일활동작가 여행 경비	볼프강 라이프
프랑스	프랑스 문화원	프랑스 국적 작가 및 프랑스 활동 작가 여행경비, 운송 경비 일부	로랑 그라소, 파이샬 바그리쉬, 노엘 버치, 파오드 엘쿠리
뉴질랜드	크리에티브 뉴질랜드	자국작가 여행경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지급), 작품운송경비 및 작품제작지원 부담	데인 미첼, 스콧 이디

8) 전시도록 및 해설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 제작업체를 결정하고 6인의 공동예술감독별 각 코디네이터가 원고를 취합해 제작하였다. 책 여백을 2008년 도록보다 넓게 하여 전시와 콘셉트의 통일감을 주고 활용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반양장으로 제작하였다.

일반인들의 관람을 가이드하는 해설서 제작은 퍼블리케이션 매니저가 수합한 기초 원고를 토대로 전문 에디터의 실무 작업과 디자인작업을 거쳐 국영문 버전으로 제작하였다.

종류	출판사	부수	가격
도록	워크룸	10,000(국 8,000 / 영 2,000)	4,000
해설서	워크룸	2,500(국 1,600 / 영 900)	4,5000

9) 전시추진일정

2011. 4 공동감독 선정

2011. 5 ~ 2012. 5 전시기획회의개최(베니스, 서울·광주, 카타르, 런던 등)

2012. 2. 14 ~ 15 라운드테이블 : 워크스테이션1 개최(서울·광주)

2012. 7. 15 참여작가 최종발표

2012. 7. 20 ~ 8. 20 전시공간 파티션공사

2012. 8. 1 ~ 9. 5 전시작품 설치

2012. 8. 15 ~ 9. 9 작가 방문

2012. 8. 16 ~ 9. 3 운송작품 전시장반입

2012. 9. 8 행사개막, 라운드테이블 : 워크스테이션2

2012. 11. 11 행사폐막

10.

제10회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

2014년 9월 5일 ~ 11일 9일

제10회 광주비엔날레는 2014년 9월 5일부터 11일 9일까지 66일간 제시카 모건 예술감독의 '터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야외광장 그리고 중외공원에 몰입을 유도하고 보다 집중적인 시각적 자극을 위한 전시로 구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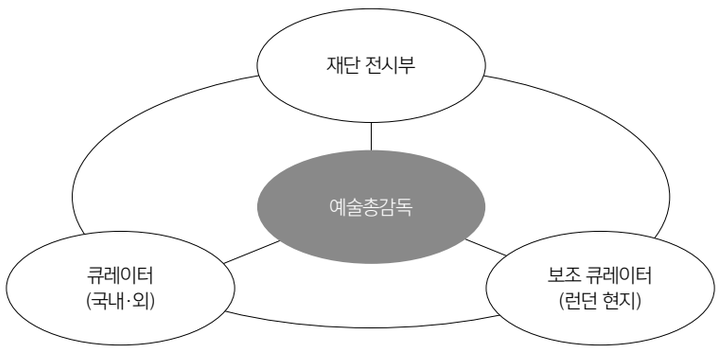
1980년대 초 미국의 팝 그룹 토킹 헤즈가 발표한 동명의 팝송에서 비롯된 주제 '터전을 불태우라'는 역사에서 되풀이되는 불태움과 변형, 발언과 혁신의 순환을 탐구하였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과정이 암시하는 부정과 부활의 소용돌이를 전시를 통해 포착하면서 시각과 청각 운동, 공예에 두루 걸쳐 미술이 지닌 비판적 역량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전시구성은 주제에 걸맞게 5개 전시실을 개별적 집(house)의 형태로 구성, 관념적 상업적 관행에 의해 제도화시켜온 '예술의 그룹화'를 지양하고 전시 주제와 개념에 따라 각각의 작업들을 분리된 전시 건축 구조 안에서 다양한 시각적 표현과 비유로서 구현해 관람객들이 새로운 문화현장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1) 전시 구성 및 참여작가

구 분	전시 장소	큐레이터	작품수
터전을 불태우라 Burning down the house	광주비엔날레 제 1전시실	제시카 모건(예술총감독) 에밀리아노 발데스, 파토스 우스텍, 배은아(협력큐레이터) 테레사 키틀러(보조큐레이터)	37
	광주비엔날레 제 2전시실		31
	광주비엔날레 제 3전시실		14
	광주비엔날레 제 4전시실		23
	광주비엔날레 제 5전시실		1
	광주비엔날레 옥외 광장		3
	중외공원 內 팔각정		1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

2) 전시기획자



▶예술총감독 : 제시카 모건

영국 출신. 케임브리지대학 킹스칼리지에서 미술사로 학·석사 학위, 런던 커톨드인스티튜트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보스턴 현대미술연구소를 비롯한 시카고현대미술관, 하버드대학 포그아트 미술관, 예일대학 영국미술예일센터 등에서 실험성 있는 전시를 기획하였다.

2010년에는 테이트 모던의 다스칼로플로스 컬렉션의 큐레이터로 선임되어, 멕시코 설치미술가인 가브리엘 오로즈코(2011)와 레바논 출신 예술가 살루아 라우다 슈케어(2013)의 전시를 기획하면서 남미와 중동이라는 변방지역의 문화를 현대미술 중심지인 런던으로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현대미술전문지인 Parkett과 Artforum 등을 통해 괄목할 만한 에세이들을 출판·기고하며 현대미술의 비판적 담론형성에 기여하고 있고,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으로서 활동영역을 넓혔으며, 비엔날레 개막 후 뉴욕 디아아트센터 관장으로 선임되었다.

▶협력큐레이터 : 에밀리아노 발데스

과테말라 프란시스마로킨대학 교수 및 과테말라 스페인 문화센터 큐레이터를 역임하였다. 2012년 카셀 도큐멘타 교육 및 공공프로그램 기획 보조, 2012년 제8회 니카라과비엔날레 큐레이터 등 남미,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콜롬비아 메데인 현대미술관 수석큐레이터이다.

▶협력큐레이터 : 파토스 우스텍

런던 기반 비평가 및 독립큐레이터이며 영국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현대미술이론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이후 스웨덴 Linkopings Universitet 출강, 리서치 프로젝트 La Duree, INFRA 참여, 미술 전문지 Art Review, Camera Austria, RES Art World 정기 기고 등 이론 기반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이스탄불, 런던을 오가며 다양한 프로젝트와 전시를 기획하였다.

▶협력큐레이터 : 배은아

킴킴갤러리(서울) 매니저 및 독립큐레이터이다. 성심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프랑스 Ecole des Metier de la Culture, Universite Paris IX Duaphine 문화예술경영 석사. 2010년 제8회 광주비엔날레 티노세갈 퍼포먼스 프로덕션을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서울시립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중국 상해 현대미술관, 중국 민생 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보조큐레이터 테레사 키틀러(영국)

UCL 미술사 박사로 옥스퍼드대학교에 출강하였다. UCL 매거진 Object 편집위원 및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Art Journal 보조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테이트 모던 큐레이토리얼 인턴십, 영국 에스토릭 컬렉션 오브 모던 이탈리안 아트, 갤러리 슈퍼바이저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기획경력을 바탕으로 예술총감독과 협력큐레이터를 보좌하였다.

3) 전시 내용

전시 주제 '터전을 불태우라'는 1980년대 초 미국의 팝그룹 토킹 헤즈(Talking Heads)가 발표한 동명의, 아주 뜻밖의 팝송을 단순히 참조하고 있긴 하지만, 비엔날레의 기본 구상에 깃든 이중의 의미를 반영한다. 토킹 헤즈의 이 노래는 밴드의 멤버가 펑카델릭(Funkadelic) 콘서트 장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태어났다.

당시 무대에 선 조지 클린턴(George Clinton)은 청중과 "집을 불태우라"는 외침을 주고받았고, 펑크(P-funk) 장르의 팬들이 느낀 그 환희를 뉴욕의 밴드 토킹 헤즈는 부르주아 계급의 불안을 담은 송가(頌歌)로 변모시켰다. 환희와 개입이라는 이중의 의미야말로 제10회 광주비엔날레의 정신을 정확히 대변하는 것이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역사에서 되풀이되는 불태움과 변형, 말소와 혁신의 순환을 탐구하고, 자신이 사는 터전을 불태우는 행위, 그런 파괴 또는 자기파괴에 이어 새로운 약속과 변화의 희망이 뒤따르는 과정은, 미학과 역사는 물론 정리해고와 쇄신이 점점 빨리 일어나는 기업 문화에서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그 과정이 암시하는 부정과 부활의 소용돌이를 전서로 드러내는 시도이다.

제10회 광주비엔날레는 미술이 지닌 비판적 역량을 부각하고, 동시에 미술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얼마나 가능하거나 불가능한지를 인식하는 장이다. 예로부터 불의 에너지와 물질성, 불꽃이 물질을 파괴하고 극적인 개입의 흔적 또는 환희의 잔재로 변형하는 모습은 예술에 깊은 영감을 주곤 하였다. 2014광주비엔날레는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의 힘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4) 전시공간

전시공간 기획

'터전을 불태우라_Burning down the House'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전시공간의 실현을 위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야외 광장, 그리고 광주 중외공원에 집중하고 전시관의 다섯 개 전시장은 비엔날레 주제의 여러 측면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실현을 위해 전시기획자들과 공간 디자이너들이 비엔날레관의 최초 어프로치 단계에서부터 공간의 구성과 동선 연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수차례 실시했으며, 적재적소에 주제에 맞은 작품들을 배치하였다.

건축가 니콜라이 델벤달이 공간디자이너로서 10여 차례에 걸쳐 전시공간 디자인을 완성하고, 스페인 출신의 엘 우티모 그리토가 전체 전시공간을 아우르는 벽지를 디자인해 '화이트큐브'형 공간을 탈피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람동선의 효과적인 처리, 단체관람 시 작품 보호를 고려한 충분한 주동선 확보 및 편리한 휴게공간의 조성을 통한 관람의 질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2014광주비엔날레는 시각과 청각, 운동, 공연 등의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모습을 통해 참여작가들의 작품이 역동적이며 정치적인 주제를 표현하고 물질적 생산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개념에 충실한 공간을 이루어 내었다. 사운드, 댄스, 퍼포먼스를 강조하며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전시를 통해, 운동으로서 미술의 잠재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전시실 내부에 나누어진 방들과 전시실 사이 연결통로 등 전시공간 전반에 걸친 세밀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 작가별 전시공간은 작품의 장르, 성향, 인접작품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전시장 안에 세밀하게 배치되었고, 제1전시실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벽지 디자인은 각각의 작품의 개성이 돋보이게 하였으며 전시공간 내 전반적인 통일된 시각효과 연출에 기여하였다. 이를 위해 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사전 구성해 시뮬레이션하는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복잡한 설치과정을 간소화하고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변경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작품의 설치를 위한 파티션 및 영상작품 상영을 위한 암실부스 등 대부분의 목공사는 개별공간의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연출하고 설계하였는데, 각 전시별 특성상 많은 파티션으로 세분된 공간 구성이 있었는가 하면, 전체 전시실이 가벽에 의한 분할 없이 하나의 열린 공간으로 연출된 곳도 있었다. 이에 반해 옥외공간을 포함한 공용공간의 설계는 전시관 외벽, 대형설치작품 등에 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염두에 두고 수차에 걸친 검토를 거쳐 설계 보완을 하였다.

5) 작품의 설치

2014광주비엔날레 작품설치는 전시공간 구성단계에서부터 작품의 상세분석을 통해 재단의 직접 설치와 분야별 용역업체로 선정된 전문업체를 통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회화 등 평면작품과 조각 등 입체작품의 경우 전문미술품 운송사를 통해 운송부터 해포, 설치까지 일괄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고, 전시구성 물품의 제작이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 인스톨레이션 작품은 전문업체를 통하거나 재단에서 테크니션이 직접 설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전시작품의 안전한 설치와 설치 시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각 작품설치에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하여 설치일정을 단축시키고, 전문적인 설치방법 등을 작가에게 제공하여 작품설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다. 전시구성 및 작품 설치 시 매우 중요한 목재 제작 기자재의 수급방안으로는 작품분석표를 통해 조사된 제작기자재를 전시공간 공사 시공 시 포함해 예산을 절감했고 전문 목공인력을 고용하여 직접 필요한 제작기자재를 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달하였다.

과거 전시에서 작가가 직접 설치에 참여하면서 요구사항이 수시로 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작품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현장에서 작가와 함께 직접 확인한 뒤 제작함으로써 재제작, 폐기 등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였다.

6) 학술행사

국제학술심포지엄(런던 테이트모던 연계 컨퍼런스)	
일 시	2014년 6월 11일 18:30~20:20
장 소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 Starr 오디토리움
주 제	작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엔날레 효과 'The Biennial Effect : Artists' Perspectives'
참여자	- 사 회 : 제시카 모건, 2014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 발 제 :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5인 (한스하케, 서도호, 쉴라 가우다, 카미유 앙로, 로만 온닥) - 전시기획자, 미술비평·문화 연구, 이론가 등 관련 전문가 - 대표이사 및 협력큐레이터2인, 보조큐레이터 1인, 재단 관계자 등
내 용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 5인의 다양한 강연과 공개진행 토론

7) 펀드레이징 및 전시협조기관

국가명	후원기관	지원내역	참여작가
영국(7)	영국 문화 예술 진흥위원회	영국 국적 및 영국활동작가 초청 경비	제레미 델러, 엘 울티모 그리또, 엔시아 헤밀턴, 루마이나 히미드, 코넬리아 파커, 제임스 리차드, 프렘 사히브, 실리아 헴튼, 제인 알렉산더
	영국대사관	영국 국적 및 영국 활동작가 제작지원비	
	야나 필	제인 알렉산더 세실리아 벵골라 & 프랑수아 섀누 초청 경비 및 제작 지원비	
	OUTSET-UK	작가만찬	
	세이디 콜스 갤러리	작가만찬	
	리슨 갤러리	작가만찬	
	마리아& 말렉슈커르	도록용 사진촬영	
프랑스(1)	프랑스 문화원	프랑스 국적 작가 및 프랑스 활동 작가 초청경비	세실리아 벵골라 & 프랑수아 섀누, 카미유 앙로, 조아킴, 피에르 위그,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
미국(4)	OUTSET-USA	미국 국적 및 미국활동작가 초청경비 및 제작지원비	로만 온닥, 알로라&칼사디야
	로스 새펜필드	미국 국적 및 미국 활동작가 초청경비	샤론 헤이즈
	리먼 머핀 갤러리	오프닝 파티	
	미국대사관	미국 국적 및 미국 활동작가 초청경비	스털링 루비
터키(1)	SAHA 재단	협력 큐레이터 리서치 및 초청 경비	파토스 우스텍(협력큐레이터)

국가명	후원기관	지원내역	참여작가
그리스(3)	코스탄티노스 파파죠지우	제작지원비	에이에이 브론슨
	다키스 제이	제작지원비	엘 울티모 그리또
	이리네 파나고폴로스	도록용 사진촬영	
오스트리아(1)	페어분트 컬렉션	오스트리아 국적 및 오스트리아 활동작가 초청경비	로만온닥
캐나다(1)	캐나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캐나다국적 및 캐나다활동작가 초청경비	나우푸스 라미레즈 피구에로아
멕시코(1)	쿠리맨뚜또 갤러리	작가만찬	
싱가폴(1)	싱가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싱가폴 국적 및 싱가폴 활동작가 초청경비	히만 청
독일(1)	에스테쉬퍼 갤러리	작가만찬	
스페인(1)	스페인 정부	스페인국적 및 스페인활동작가 초청경비	엘 우티모 그리또
레바논(1)	사라다 재단	제작지원비	아크람 자타리
일본(1)	일본국제교류센터	일본국적 및 일본활동작가 초청경비	에이 아라카와, 토모코 요네다 히데미 니시다 , 테츠야 이시다 야마시타 키쿠지

8) 전시도록 및 해설서, 자료집

제시카 모건 예술총감독은 콘텐츠 면에서 기존의 출판물과의 차별성을 꾀하고자 해외 유명 디자인사 및 출판사와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기본 틀을 구상하고 전시 내용 관련 감독 에세이와 이미지 중심의 도록을 제작하였다. 예술 총감독과 큐레이터진이 작성한 텍스트를 재단과 함께 검토해 확정하고 디자인은 런던 소재의 디자인사 '미차 와이드만 스튜디오'가 맡아 진행 하였다. 예술총감독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전시 콘셉트를 살리고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감각적 디자인이 시도됐고 다미아니와의 출판 및 배급 협약에 의거, 제작되었으며 인쇄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하고 재단은 이를 구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해설서에는 일반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동선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하고 예술총감독의 전체적인 설명이 담긴 텍스트와 큐레이터들이 작성한 작품, 작가 정보 그리고 작품 및 콘셉트 이미지를 담았다. 인쇄용지 협찬(한솔제지)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효율화 하였다.

전시준비 과정에 2010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 및 실행의 일환으로 아시아 현대미술 주요작가 200여 명을 리서치한 결과물을 담아 '자료집- I AM NOT THERE'를 사전 홍보자료 성격으로 제작하였다. 2010광주비엔날레 EIP 구축 업체인 TEXT를 제작업체로 선정하고 국내 유통은 현실문화연구, 해외 유통은 D.A.P가 맡았다.

종류	출판사	부수	가격
도록	다미아니	2,500	32,000($45)
해설집	발해그래픽스	10,000(국 8,000 / 영 2,000)	10,000
자료집	TEXT	2,000	45,000

9) 전시추진일정

2013. 8. 23 ~ 12. 14 전시기획회의 및 리서치

2013. 12. 13 전시주제발표

2014. 5. 26 참여작가 발표

2014. 6. 3 작품운송통합업체 및 보험사 선정

2014. 7. 5 ~31 전시공간 파티션 공사

2014. 7. 10 ~ 11. 30 보세구역설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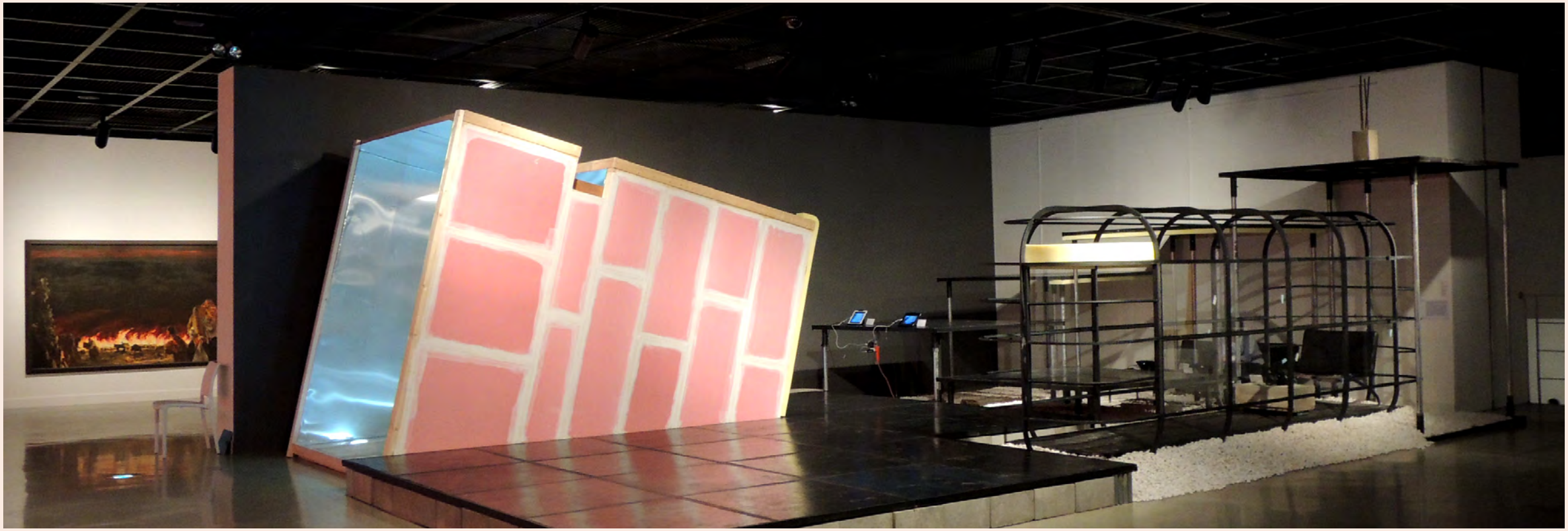
2014. 7. 26 ~ 8. 30 운송작품 전시장 반입

2014. 8. 보조기획자협약

2014. 8. 1 ~ 9. 2 전시작품 설치

2014. 9. 4 개막식

2014. 11. 9 폐막식



2014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특별프로젝트

2014년은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재단은 광주민중항쟁의 시대정신과 예향광주를 포괄적으로 세계 시민사회에 알리는 광주 발 메시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행동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달콤한 이슬, 1980 그 후」를 주제와 부제로 설정한 프로젝트는 제10회 광주비엔날레와는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그 목표가 '광주정신'의 구현과 그 세계화를 목표로 하며 광주민중항쟁을 포함한 광주의 근현대사를 시대의 기록이 아닌 거시적 가치로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이를 세계시민사회에 알리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특히 비엔날레와 시민들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강연회와 거리축제, 퍼포먼스 등 지난 33년의 시대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이벤트가 행사의 주를 이루게 함으로써 광주의 문화예술을 세계 속에 선보이는 광주 발 메시지를 강조를 의도하였다.

기념특별전 '달콤한 이슬 – 1980 그 후'는 8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94일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었으며. 14개국 47작가 300작품이 참여한 특별전은 민중미술을 한 눈에 조망하며 동시대 삶까지 끌어들이며 사회에 대한 증언과 치유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였다. 세계적인 석학과 인권단체, 문화행동 시민단체 등 70여 명이 참여해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인류 사회의 현재와 시대적 화두를 모색하고 세계 시민과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로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취지를 둔 강연 시리즈는 연초부터 '광주정신'탐색을 위한 3차례 원탁 토론회와 팔레 드 도쿄 관장 장 드 르와지 명사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심포지엄, 초청 강연, 퍼포먼스, 자유 집담회 등의 형식으로 13회 개최되면서 문화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열띤 지적 교감들이 생성되고 확산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11월 9일 2014광주비엔날레 폐막식과 맞춰 각계각층 전문가의 인문학적 토론을 통해 얻어진 동시대 진단과 시대적 화두는 광주발 마니페스토로 발표되었다. 나아가 금남로, 전남대 등 광주 시내 일원 등 1980년 오월 현장과 동시대 삶과 일상적 장소들이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국제 퍼포먼스 네트워크, 오월 단체, 젊은 기획자, 작가, 공연 예술가 등 452명이 참여하는 퍼포먼스의 무대가 되었다.

특별프로젝트의 기획은 가천대학교 윤범모 교수가 책임 큐레이터로 프로젝트를 총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전시협력 큐레이터로 미셸 현 캘리포니아대 샌디에고 캠퍼스 미술관 학예연구원, 장경화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 정연심 홍익대 예술학과 교수, 강연시리즈 협력 큐레이터로는 김상윤 광주창의시민포럼 공동대표, 김남시 이화여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마우리치오 보르톨로티 베니스 주에카 프로젝트스페이스 큐레이터며, 퍼포먼스 협력 큐레이터로는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강연시리즈의 원탁토론회 공동주관으로 광주연구소 이사장 나간채가 참여하였다.

기획 전시 '달콤한 이슬 – 1980(Sweet Dew – Since 1980)'

8월 8일 ~ 11월 9일 /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슬 – 1980 그 후'전시는 8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94일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14개국 47작가가 참여한 특별전은 현실주의 참여미술을 한 눈에 조망하면서 동시대 삶까지 끌어들여 우리 사회에 대한 증언과 치유의 메시지를 제안코자 하였다. 주제 '달콤한 이슬(甘露)'은 망자나 고통 받는 자들을 위로와 구원을 염원하던 불교의 감로도에서 따온 말이다. 즉, 조선 후기에 사찰에서 유행했던 독특한 불화양식을 일컫는 감로도에서 치유의 메시지를 차용한 것이다.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광주를 비롯해 세계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민간 신앙적 해석과 승화의 의미가 담겨있다.

전시관 입구에 설치된 경상남도 양산의 국내 최대 사찰박물관인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감로도는 이 같은 전체 주제로 인도하는 상징적인 작품이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오키나와, 타이완, 광주가 지닌 국가 폭력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사의 담론으로 끌어들였다. 먼저 광주 작가인 임남진의 '오월 장막도–님을 위한 행진곡', 오일 작가의 '광주 A', '광주 B', 김석출 작가의 넼. 5.27', 도미야마 다에코의 '광주의 피에타', 강연균의 '하늘과 땅 사이 Ⅱ', 고삼권의 '슬픔'(광주), 송영옥의 '5.17–80'광주'등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중들의 자유를 향한 외침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조형적으로 승화한 작품들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 제주 지역에서는 1980년대 대표적 민중미술작가로 제주 4·3항쟁의 아픈 역사를 드러낸 강요배의 작품 '동백꽃지다', 임흥순의 제주 4·3항쟁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비념'이 출품되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 주둔을 반대하는 사진 작업을 해온 히가 토요미츠의 '전군노·오키나와 투쟁', 오우라 노부유키는 일본 천황체제를 비판하는 작품 'Holding Perspective', 1950년대 타이완 백색테러 때 희생됐던 황 중트란의 '공포의 검사'가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아울러 나치시절 저항작가 케테 콜비츠(1867~1945)의 작품과 1930년대 루쉰(1881~1936)에 의한 항일 목판화운동 작품 58점, 미국 사회주의 리얼리즘 화가 벤 샨의 '노동자에게 예방접종하는 의사'등 22점이 전시되면서 20세기 미술 운동과 21세기로 이어지는 '광주정신'의 재조명하였다. 또한 현대 미술계에서 사회성 짙은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들도 합류했다. 뉴욕 미술계가 주목하는 에티오피아 출신 여류화가 줄리 메레투의 'Auguries', 2001베니스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캐나다의 커플 자넷 카디프와 조지 뷰레스 밀러의 '40성부의 성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인류 폭력에 대한 연작주제를 다뤄온 윌리엄 켄트리지의 애니메이션 필름 'Felix in Exile'(펠릭스의 유배) 등도 현대사회에 묵직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그러나 전시작품으로 준비된 시민참여형 걸개그림 '세월오월'의 풍자이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전시불가 결정이 나면서 개막식은 물론 이후 전시 진행과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참여작가 : 47명(국외 20 국내 27)

수도사 감로탱 / 강요배/ 김동희 / 오원배 / 나눔의 집 / 박대성 / 윤광조 / 이윤엽 / 이세현 / 이준석 / 이이남 / 임흥순 / 임남진 / 정영창 / 주재환 / 최병수 / 홍성민 / 조용준 / 강연균 / 전정호 / 홍성담 / 박불똥 / 김석출 / 송영옥 / 오일 / 고삼권 / 강운 / 오우라 노부유키 / 킨조 미노루 / 킨조 미츠루 / 히가 토요미츠 / 도미야마 다에코 / 장 후안 / 저우 시아오후 / 루쉰 목판화 운동 / 아마르 칸와르 / 안나 예르몰라에바 / 이고르 그루비치 / 타오 G. 브로벡 삼볼렉 / 케테 콜비츠 / 벤 샨 / 자넷 카디프 / 멜라니 길리건 / 루노 라고마르시노 / 마리암 가니 / 줄리 메레투 / 윌리엄 켄트리지

강연 시리즈

2014. 1월 ~ 11월 / 서울·광주

'광주정신'은 1980년 5·18광주 민중항쟁 이후 익숙하게 사용해 온 용어이면서 동시에 광주비엔날레 창설의 모태이기도 하다. '라운드 테이블'(원탁토록회)에서는 학계와 문화예술계, 시민사회계의 토론을 통해 21세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광주정신'이 갖는 의미와 그 현재성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일련의 초청강연과 심포지엄 시리즈는 국내외 사회, 정치, 문화현장의 증언과 토론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것이 당대 시각문화 속에서 어떻게 재현, 표상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참여패널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최영태(전남대 역사학 교수) / 박구용(전남대 철학과 교수) / 은우근(광주대 철학과 교수) / G. 카치아피카스(미국 웬트워스공대 인문학부 교수) / 박해광(전남대 사회학 교수) / 이재의(광주나노바이오연구원장) / 이용우(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 김준태(시인) / 홍성담(작가) / 윤만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광역시지회장) / 전용호(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 / 박문옥(오월음악 이사장) / 임진택(창작12바탕추진위원회 예술총감독) / 윤범모(20주년특별전 책임큐레이터) / 이무용(20주년특별전 협력큐레이터) / 나상옥(광주미술협회장 / 박병기(전남대 철학과 연구교수) / 김영정(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최지현(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 박봉주(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장) / 이기훈(광주문화도시협의회 공동대표) / 안평환(광주YMCA 사무총장) / 정영일(동강대 사회복지학 교수) / 최은순(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정책실장) / 백희정(광주여성민우회 대표) / 김태헌(5·18부상자 / 정치학 박사) 오쿠이 엔위저(2015베니스비엔날레 예술감독) / 카스퍼 쾨니히(뮌스터조각프로젝트 예술감독) / 후 한루(로마 MAXXI 감독) / 위르겐 E. 뮐러(독일 바이로이트대학 교수) /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남궁협(동신대 교수) 강철수(고구려대 교수) / 한선(전남대 5·18연구교수) / 주정민(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윤석년(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월러스 창(홍콩 중문대 건축학과 교수) / 마가렛 슈(대만 밤부커튼스튜디오 설립자) / 하마구치 마리코(일본 피스시드 대표) / 김준한(밀양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은진(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연구위원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스웨덴 언어학자/ 환경운동가) / 김은진(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터 보머(미국 에버그린주립대학 교수) / 미칼리스 스포르달라키스(그리스 아테네대학 정치학 교수) / 레닌 라구반시 / (인도 의사 / 인도빈민운동가)(일본 지바대학 국제정치사 교수) / 임지현(한양대 사학과 교수) / 안병억(대구대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 마이클 김(연세대 국제학부 부교수) 에라 푸나마 사리(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 변호사) / 푸앙송 파와카판(태국 출랄롱코른대학 교수) 안병욱(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램 찬드라 포크렐(네팔개발위원회협회 설립자 / 대변인) 박동훈(중국 연변대 교수) 도아트 아힘(독일 부루더하우스디아코니아 대표) 기누요 쿠로카와(일본 국립나루토교육대학 교수) / 민형배(광주 광산구청장) / 김미경(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홍주민(한국디아코니아 상임이사) / 이정화(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프로그램

구분	날짜	장소	주제
원탁 토론회	2014. 1. 18	5·18연구소	광주정신의 현재적 성찰
	2014. 3. 14	제문헌 컨퍼런스룸	
	2014. 5. 28		
초청강연	2014. 3. 21	홍익대 홍문관	예술의 사회적 변화
	2014. 8. 29	전시관 거시기홀	군사정부에 대항한 온라인 저항활동: 강점과 약점
	2014. 9. 15		알프레도 자_참 힘들군
	2014. 10. 7		문화유산다양성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
심포지엄	2014. 8. 8	전시관 거시기홀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2014. 8. 29		매체와 미래정치
	2014. 9. 5		문명의 생태적 전환
	2014. 9. 19		세계화와 민주주의 위기
	2014. 9. 26	전시관거시기홀	국가폭력
	2014. 10. 7		대안적 가치와 삶
5·18순례	2014. 9. 25	광주518유적지	518유적지순례
포럼·퍼포먼스	2014.10.9	전시관 거시기홀	전환도시 : 해킹더시티(점거의 기예)
	2014.10.19	창천교회 맑은내홀(서울)	전환도시 : 해킹더시티(독립의 기예)
	2014.10.20	서울 신촌 차없는거리	전환도시 : 해킹더시티(퍼포먼스)
종합토론	2014.10.27	제문헌 컨퍼런스룸	강연시리즈 종합토론

퍼포먼스

2014. 8. 8 ~ 11. 9 /

광주 금남로, 양림동 오월어머니집, 다형다방, 518아트버스 등 오월길 코스일대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의 일환인 8개의 퍼포먼스를 금남로, 전남대 등 광주 시내 일원 곳곳에서 8월과 9월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되었다. '달콤길, 다섯 개의 정'(五甘정=애정+열정+공정+우정+긍정)을 주제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에서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국제 퍼포먼스 네트워크, 오월 단체, 젊은 기획자, 작가, 공연 예술가 등이 참여를 이루어 내었다. 프로젝트 개막식 당일 선보이는 첫 기념 퍼포먼스 '오월길을 여는 100인의 518 릴레이 아트'는 8월 8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1박 2일간 일본, 대만 등지에서 온 해외작가들과 국내작가 시사만화가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100인이 밤새도록 길 위의 작업실을 연출하였다. 100인 예술가에게 지급된 각각 가로 90cmx세로 259cm 광목천에 표현된 작업의 결과물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전시와 연계되어 선보여졌다. 개막일에 맞춰 8일부터 10일까지 선보였던 '국제퍼포먼스아트 LOOK TOGETHER'는 안토니 크라와우스키(폴란드)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금남로 일원에서 신체 미술 퍼포먼스를 펼쳤다.

20주년 특별프로젝트 폐막일인 11월 9일까지 오월사적지 코스로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를 예술 작품으로 변신시킨 '518아트버스' 안에서는 집단 신체퍼포먼스와 즉흥공연을 펼치는 '광주버스 일상 프로젝트'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민족극운동협회가 주도해 광주, 보은, 울산, 안산 등지에서 온 전통 민중마당극 팀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광주역과 광천터미널 등 오월현장 5곳에서 독창적인 민중마당극 작품들을 선보였다. 광주 양림동 일원에서 펼쳐진 '오월가족 해원 퍼포먼스'는 오월어머니집, 5·18부상자회 회원들이 참여한 사진전과 함께 도보퍼포먼스가 진행되었고, 지난 34년 세월의 아픈 여행길을 마무리하고 진정한 평화를 갖기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외에도 청년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오월정신에 대한 재해석을 보여주는 '518 백주년 프로젝트 미래코스', '오월길 길콘 퍼포먼스', '인디언 캠핑' 등이 열렸다.

행사구분	횟수	날짜	장소	참여	인원
계	45				452
100인의 <518릴레이아트>	1	2014. 8. 8	광주 금남로 일대	강남구 등 100여명	100
오월가족 해원퍼포먼스	1	2014. 8. 8~10	광주 양림동 오월어머니집	오월 어머니 부상자 회원	50
오월가족해원전시	1	2014. 8. 8~22	다형다방 등	오월 어머니 부상자 회원	50
518아트버스	1	2014. 8. 8~11. 9	518버스내	김온, 전미래, 조영주	3
	11			주먹밥 아주머니 주옥	1
	12			김영빈, 신준섭	2
	4			고근호, 주홍	2
518 백주년 프로젝트 <미래코스>	1	2014. 8. 16	광주중앙초교 및 예술의거리	강민형, 이동석, 정세영	3
광주 518버스/ 광주 버스 일상 프로젝트	2	2014. 8. 22 2014. 9. 14	광주폴리 등	김온, 유비호 전미래, 조영주	4
오월길 길콘 퍼포먼스 달콤수레빠 인디언 캠핑	1	2014. 8. 23	오월길 횃불코스 전남대학교 봉지	야마가타트윅스터 아프리카타악그룹 '아냐포' 데블스, 소리마실,전남대관현악반 청년문화허브무한 아시아외국인근로자센터 '캄보디아'	70
마당극퍼포먼스 보트피플	1	2014. 9. 2	광주역 대합실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	30
마당극퍼포먼스 고추관아 게 섯거라	1	2014. 9. 2	지하철4가역 간이무대	극단결	30
마당극퍼포먼스 눈자라기	1	2014. 9. 3	광주역 대합실	극단꼭두광대	30
마당극퍼포먼스 언젠가 봄날에	1	2014. 9. 4	빛고을시민 문화관 계단	놀이패 신명	30
마당극퍼포먼스 글러브와 스틱 그리고 찐찌버거	1	2014. 9. 4	민들레 소극장	극단 토박이	30
국제 퍼포먼스 아트 <LOOK TOGETHER>	1	2014. 8. 8	금남로	안토니크라와우스키(폴란드) 아티그라보스키(폴란드) 로시오볼리버(멕시코) 넌그라타(에스토니아) 리카르도말라카스(이탈리아) 성능경, 박경화, 김광철 임동창(한국)	9
	1	2014. 8. 9	전남대 홍도		2
	1	2014. 8. 9	조선대미대		2
	1	2014. 8. 10	구시청사거리		2
	1	2014. 8. 10	폴리사랑방		2

4장

동반행사

광주비엔날레는 미술행사뿐만 아니라 무용·음악·퍼포먼스 등
각 분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종합문화예술축제의 장이기도 했다.
전야제, 개·폐막식 등 의식행사와 개성있는 공연행사들은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동반행사는 관객들의 예술적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무대가 되었다.

제 1회. 종합예술 축제의 장

미술행사뿐만 아니라 무용·음악 등 전통과 현대예술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한 문화예술올림픽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종합예술축제의 장으로써 세대·계층·이념·지역 등을 초월한 세계인의 축제로 승화시킬 것을 지향하였다.

구성	프로그램	기간/장소	주요 내용
공식 행사	전야제	9. 19 / 금남로	수창국교~도청앞 행진 길놀이, 고싸움놀이, 축원제, 축하공연, 거리축제
	개막식 및 축하공연	9. 20 / 야외공연장	식전행사, 의식행사, 식후행사, 경축공연
	폐막식	11. 20 / 야외공연장	식전행사, 의식행사, 식후행사
공연 행사	국립예술단체	9. 22~11. 25 / 문예대극장	국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국악원 5개 단체
	시·도 예술단체	9. 23~11. 5 / 야외공연장	서울시립가무단 등의 12개 시·도 예술단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9. 22~11. 11 / 문예소극장	무대와 마당종목의 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등 19개 단체
	해외민속예술단	9. 29~11. 20 / 야외공연장	인도 Kinnaur 공연단 등 7개국
	소공연 및 마당극	9. 21~11. 14 / 문예대극장	국악 등의 소공연 13개 단체와 놀이패 신명 등의 마당극 3개 단체
	광주·전남 민속놀이	9. 22~11. 20 / 야외공연장	광산우도농악 등 8개 단체
	광주시립예술단체	9. 28~11. 17 / 문예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등 6개 단체
관람객 참여 행사	천인의 탑 만들기	9. 20~11. 20 / 중외공원	관람객들이 생일, 이름, 국적 등을 새긴 인물상을 제작, 상징적인 탑으로 조형 (높이 11.5m 폭 6m)
	전국 레크레이션 대회	10. 7~8 / 문예소극장	건전놀이, 생활체조, 풍물놀이 경연대회 등
기타 동반 행사	국제탈전시회	9. 20~11. 20 / 중외공원	한국의 탈과 세계 20개국의 민속탈을 전시
	국제열기구대회	9. 19~24 / 광주첨단	9개국 열기구 13대로 참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등에서 경기
	패션행사	9. 19~11. 20 / 문예소극장	한국전통의상발표회, 미술의상 페스티벌, 패션퍼포먼스 등
	미술관련 영화상영	9. 20~11. 20 / 중외공원강당	관람객들이 미술과 관련된 영화를 비교, 감상
	불꽃축제	9. 19, 11. 20 / 광주, 중외공원	광주공원과 전남교육청에서 전야제행사와 종료를 경축하는 행사
	학생미술실기대회	9. 20~10. 31 / 중외공원	세계적 수준의 미술인 양성을 지원
	국제사진공모전	9. 20~12. 20 / 중외공원	행사의 기록성과 사진예술의 발전에 기여

제2회. 상설공연과 다양한 참여 이벤트 확대

축제행사 기본계획은 공식행사, 공연행사, 특별행사로 크게 구분하고, 이를 다시 전야제(길놀이, 축하공연, 거리축제), 개·폐막제(식전·후행사), 예술단체공연(개막 경축공연, 해외민속예술단, 시·도예술단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광주시립예술단체, 민간예술단체 등), 특별행사(학생미술 실기대회, 꽃으로 만나는 광주비엔날레 등) 16개 범주로 나누었으며, 공연성격에 따라 일정별, 장소별로 적정 배분하여 축제행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구성	프로그램	기간/장소	주요내용
공식 행사	전야제	8. 31 금남로	길놀이, 축하공연, 불꽃놀이
	개막제	9. 1 야외공연장	식전행사, 의식행사, 식후행사
	폐막제	11. 27 야외공연장	식전행사, 의식행사, 식후행사, 불꽃축제
공연 행사	해외민속공연단	8. 31~11. 23 야외공연장	호주 국립민속공연예술단 등 9개국
	개막경축	9. 1~2 문예대극장	국립무용단 등 2회 공연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9. 2~11. 11 야외공연장	무형문화재 등 15개 단체
	시·도 예술단체	9. 3~11. 1 야외공연장	경기도 도립국악단 등 11개 시·도 13개 단체
	광주시립예술단체	9. 1~30 야외공연장	광주시립국극단 등 5개 단체
	시지정무형문화재	9. 1~11. 27 야외공연장	무형문화재와 민간예술단체공연 등 47개 단체
	대학동아리	9. 10~11. 26 야외공연장	부산대학교 동아리 등 10개 대학 동아리단
	전국 레크레이션 공연	9. 21~1 0. 29 야외공연장	건전놀이, 생활체조 등
특별 행사	학생미술실기대회	9. 1~11. 27 중외공원	미술꿈나무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유망한 미술인 양성
	비엔날레사진공모전	8. 31~11. 27 중외공원	기록 보존과 관람객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꽃으로 만나는 광주비엔날레	9. 1~11. 27 전시관로비	꽃전시를 통해 대중적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
	국제미술의상전	10. 7~8 문예대극장	광주를 새로운 예술과 패션의 중심도시로 발전

제3회. 1일 2회 공연 즐거움의 릴레이

2000광주비엔날레 축제행사 기본계획은 의식행사, 공연행사, 특별공연, 특별행사로 크게 구분하고 의식행사는 전야제, 개막제, 폐막제, 공연행사는 개막경축공연(전통국악공연, 패션페스티벌), 본공연(국내, 국외), 특별공연(워터스크린 영상쇼), 특별행사로는 전국학생미술 실기대회, 광주비엔날레 전국사진 공모전, 꽃으로 만나는 광주비엔날레, 국제미술 의상전, 미술과 문학의 만남, 한일친선교류 2000, 전국휘호대회 등 15개 분야로 나누어 행사기간 동안 1일 2회 공연을 원칙으로 성격에 따라 일정별, 장소별로 배분하여 행사에 차질 없도록 기획하였다.

행사구성	프로그램	기간/장소	주요내용
영상 프로그램	전시- '광주에서 25시간'	민속박물관	▶ 음악과 이미지 : 유행가에 작가들이 세상에 대한 비평을 담아 재구성한 예술가와 뮤직밴드의 뮤직비디오를 제시한 것 ▶ 개김이방 : 일반인들이 쉽게 보고싶은 내용의 비디오를 자신만의 공간에서 대여하여 볼 수 있게 구성 ▶ 사진전-광주에서 살기 : 작가와 시민이 촬영한 사진 5천여점으로 구성
	강좌- '영상으로 세상읽기'	1999. 11. 22 ~ 2000. 5. 13 YMCA	▶ 시민강좌 : 영상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하고 영상매체를 통해 우리의 삶과 생활방식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 영상 워크샵 : 광주 일원의 비디오저널리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 고,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실전적인 교육프로그램 ▶ 심포지엄 : 영상문화가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며 어떤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것인지, 그러한 경향과 광주비엔날레와의 관계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
	웹- '가상의 진실'		인터넷과 웹사이트을 이용하여 쌍방간 상호교환이 가능하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양방간 교환형식의 영상예술을 소개
	상영- '보고, 읽고, 생각하기'		영상이미지를 다양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에 관심을 집중해 영상문화, 영상매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터전을 확장, 관객과 공유
	Access Channel- '우리 이야기를 들어 보소!'	민속박물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중파방송을 통해 방송
이벤트	의식행사	3. 28 도청앞	전야제 : 고싸움놀이, 축원행사, 불꽃놀이 등 축하공연
		3. 29 야외공연장	개막식 : 식전행사, 식후행사
		6. 7 야외공연장	폐막식 :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등 8개 단체 공연
	개막 경축공연	3. 29 문예대극장	국립국악원 주관, 광주패션협회 주관으로 패션퍼포먼스
	공연행사		해외예술단체 : 일본 치치부야다이바야시보존회 공연 등 5개국
			국내예술단체 :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공연 등 83개 단체
	특별행사	3. 28~6. 7 중외공원	학생미술실기대회 : 잠재고객인 학생들의 미술 문화적 관심도를 촉진
		3. 28~6. 7 중외공원	전국사진공모전 : 기록 보존과 관람객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3. 29~4. 29 중외대강당	꽃으로 만나는 광주비엔날레:한일친선교류 2000 병행
		교육홍보관	국제미술의상전 : 미술의상 전시
		5. 20 중외공원앞	문학과 미술의 만남 : 김남주시비건립을 중심으로 광주문학정신 계승
		5. 28 중외공원앞	전국휘호대회 : 서예인들의 솜씨 자랑
		상무지구	워터스크린쇼 : 상무지구에서 실시 지역경제 활성화

제4회. 공연작품으로 완성도 높인 의식행사

의식행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축제의 범주에 속하기보다는 의전행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제4회 축제행사는 의례적인 의식행사의 수준에서 벗어나 공연과 의식행사가 하나로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축제행사의 성격을 띠도록 하였다.

행사구성	프로그램	기간/장소	주요내용
의식 행사	전야제	3. 28 문예대극장	시민들과 함께 하는 비엔날레 개막축하잔치 (김연자 축하콘서트)
	개막식	3. 29	새로운 주제공연을 창작하고 의식행사에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 제시
	폐막식	6. 28	짧으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행사로 기획, 연출
공연 행사	공식 초청공연		해외우수 : 춘천마임축제와 공동으로 나쿠펠레 등 세 작품 초청
			해외민속 : 에쿠아도르 민속공연 등 5개국
		야외공연장	국내우수 : 공모선정하여 7개 단체
	한밤의 비엔날레		음악 등 매주 토요일에 8회 공연
이벤트 행사	씨네 비엔날레	3. 20~6. 28 교육홍보관	매주 1회씩 국내외 영화 중 화제작 선정. 35mm 영화를 상영
	렛츠고 비엔날레	4. 1~6. 28 야외공연장	청소년을 위한 상설 프로그램, 수준 높은 레크리에이션 진행
	컬러피플 퍼포먼스	3. 30~6. 23 중외공원	주중(매주 화~토) 컬러 피플 공연은 42일간, 일요특별공연은 11회 공연
이벤트 행사	국제미술의상전	3. 29~5. 20 교육홍보관	신진작가 발굴과 육성에 초점
	전국수석회원전 및 국제애석전	4. 28~5. 20 민속박물관	전국애석인 친선교류와 저변확대
	꽃으로 만나는 광주비엔날레	5. 21~6. 29 교육홍보관	꽃 예술로 축제분위기 조성
기타 행사	해외교류주간	4. 16~22 교육홍보관	일본문화 교류 주간 한일간의 문화교류행사를 추진
		6. 1~7 교육홍보관	중국문화 교류 주간 한중간의 문화교류와 관광객 유치
	전국학생 미술실기대회	3. 29~6. 29 교육홍보관	미술꿈나무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수 학생을 발굴 육성하는 교육의 장
	캐릭터 애니메이션 체험관	3. 29~6. 29 교육홍보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단위임을 고려 즐거움이 있는 축제분위기 유도

제5회. 의식과 주제 퍼포먼스 결합, 창설 10주년 개막식

의식행사는 개막식, 테이프 커팅, 폐막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개막식은 개막의식과 주제 퍼포먼스의 조화를 통해 국제적인 현대미술축제의 개막을 알리도록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야제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형식적인 전야제보다 강한 이미지의 개막식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친 개막축하 콘서트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창설 10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축하하였다.

행사구성	프로그램	기간/장소	주요내용
의식 행사	개막식	9. 10 문예대극장	개막의식과 주제퍼포먼스의 조화를 통해 국제적인 현대미술축제의 개막
	테이프 커팅	9. 10 비엔날레관	주전시관 입구에서 사전공연을 가진 뒤 귀빈도착에 맞추어 타악연주로 개관
	폐막식	11. 13 비엔날레관	의식행사와 공연, 자원봉사자와 도슨트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
공연 행사	배달 퍼포먼스	8. 9~20 광주시내	시민들이 공연장소와 시간을 신청하는 방식의 맞춤형 공연형태(사전홍보효과)
	개막 축하 콘서트	9. 10~11 야외공연장	야간 무료 콘서트를 기획하여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 선사
	비엔날레 오픈스테이지		스트리트 비엔날레 : 야외가설무대에서 매일(11시, 14시). 주중 28일간 공연
			비엔날레 가족극장 : 매주 토요일(14시), 가족단위 관람객
			재즈비엔날레 : 매주 일요일(14시), 재즈 상설프로그램 기획

행사구성	프로그램	기간/장소	주요내용
공연 행사	남도예술 무대		남도소리열전: 판소리 다섯마당과 시립국극단의 육자배기 한마당, 6개 단체 남도무대열전 : 오페라 '가면무도회' 등 16개 단체
	해외초청공연		홍콩의 현대무용가 앤디윙 등 5개 단체
특별 행사	어린이를 위한 비엔날레		애니페스티벌 :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가을밤의 가족영화제를 중심으로 운영 가을밤의 가족영화제 : 어린이영화 상영 어린이 깃발미술체험 : 작가와 함께 만드는 깃발미술작품 체험이벤트
	청소년을 위한 비엔날레		청소년 '끼'페스티벌 : 청소년 참여이벤트 빛고을 인디樂 콘서트 : 2일간 총 20개 단체 2회 공연 뷰티 페스티벌 인 비엔날레 : 총 4일간 16개 미용관련 대학교 및 학원단체
	가족들을 위한 비엔날레		자치구의 날 :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 28개 단체 시민 열린 무대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공연예술단체, 13개 단체 결혼식을 이벤트화한 '비엔날레에서 결혼합시다'
이벤트 전시	국제미술의상전, 일본 사가고류 꽃꽂이 전시회, 중국서화전, 꽃으로 만나는 광주비엔날레		

제 6회. 시민 문화향유의 장으로 발전

광주비엔날레를 열린 공간으로 확대하여 관람객 문화체험 및 시민문화향수 기능으로서 오락과 휴식 공간을 마련하며 '열풍변주곡(烈風變奏曲, Fever Variation)'이라는 전체 주제와 전시주제인 '뿌리와 길'에 부합하는 시민 문화 향유의 장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전체주제·전시주제와 일관성 있는 컨셉 설정 및 공간 운영으로 광주비엔날레 전시 주제와 내용에 대한 홍보기능을 수행 했다.

행사구성	프로그램	기간/장소	주요내용
전야제	전야제	9. 7 구 도청앞	'빛의 도시'광주에 어울리도록 7가지 무지개 색깔(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보라색, 남색, 초록색, 주황색)을 주제, 식전, 공연행사
의식행사	개막식	9. 8 야외공연장	식전행사, 개막식(주제퍼포먼스) 및 시상식, 전시관 개관식
	폐막식	11. 11 테마파크	비엔날레를 함께 해 온 스태프, 자원 활동가, 전시참여 시민작가 등 자축
열린 비엔날레	미드나이트 피버파티	9. 8 빛카페	참석자 교류 및 홍보 행사, 미디어 아트 및 전통공연, DJ
	빛카페·빛가든		테마 스테이지 공연, 오픈 스테이지 공연, 플랫폼 스테이지 공연, 한가위 축제, 빛카페, 빛가든 상설프로그램
	열린아트마켓	민속박물관	작가와 시민참여 아트마켓
	미술놀이터	10. 10~11. 5 민속박물관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과 체험, 놀이 결합 미술교육프로그램
	광주별곡	중외공원	시민참여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생활아트전시		생활아트 전시행사
	프린지 및 야외공연		국내외 우수 공연단체 초청
미술 오케스트라	시간이 자라는 땅	9. 7~10. 25 시립미술관	광주미술의 유전자적인 뿌리와 전통의 맥을 더듬어 보는 전시구성
	빛과 희망의 연금술		광주미술의 오늘을 조명하는 전시
	화끈한 소통!! 아름다운 망각		타 지역까지 청년세대의 창작활동을 소개하는 장

제7회. 시민참여 문화프로젝트와 테마공연

제7회 광주비엔날레 행사는 당초 전시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위해 축제행사를 제외하였으나 제107차 이사회(2008. 6. 9)에서 공연 등 부대행사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광주비엔날레와 방문객 사이의 매개적 프로그램이자 광주비엔날레가 방문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인 대중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민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행사구성	프로그램	기간/장소	주요내용
의식 행사	개막식	9. 5 문예대극장	사전공연, 개막식, 개막퍼포먼스
	개관식 및 작품 관람	9. 5 비엔날레관	축원메시지 작성, 개관 세리머니 '비엔날레 연날리기', 전시관람
의식 행사	리셉션	9. 5 민속박물관	식전공연, 축하와 격려 말씀, 건배제의, 오찬
	개막식 참석인사 감사서한 발송		행사지원 및 관람해 주신 분들께 감사서한 및 도록 발송
	폐막식	11. 9 테마파크	식전공연, 명예시민증 수여 등 기념식과 열린 파티
시민 프로 그램	개막축하페스티벌	9. 5 금남로	사전공연, 현장 즉석 참여 시민퍼포먼스, '봄' 퍼레이드로 연결
	참여전시(1)-관객들의 이정표 보고서	9. 5~11. 9 테마광장	관객들이 비엔날레 후기를 이정표에 남기는 시각적 참여퍼포먼스
	참여전시(2)-비엔날레 인연복덕방	9. 5~11. 9 바람개비	책을 나누며 인연을 맺어가는 책 기증 참여프로그램
	참여전시(3)-축제메이커 프로젝트		바람나무 프로젝트, 함께 하고픈 나만의 미니북 프로젝트, 월례보고/두 달 동안의 전시 프로젝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방금생긴 합창단	10. 11~26 테마광장	어린이들이 비엔날레 전시작품을 탐험하고 느낀 감상을 노래가사로 만들어 비엔날레현장에서 발표
	시민자발프로그램-떼떼이	9. 5~11. 9	사진·영상분야의 시민작가들이 비엔날레를 스케치하고, 테마공연 프로그램을 소재로 작품 제작
	테마공연 프로그램		비엔날레 콘서트, 광주를 여행하는 공연, 추석특집-비엔날레 콘서트, 세계로부터의 안내-월드뮤직, 비엔날레 여행자 공연-브런치 공연

제 8회. 전시 주제를 만끽하는 시민체험 행사

제8회 광주비엔날레는 고은 시인의 연작시집 '만인보(10000 LIVES)'를 주제로, 인물에 초점을 맞춘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영역과 형식의 작품들을 망라하여 이미지에 대한 사랑,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대체물과 모형들, 아바타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창조물 등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66일간 펼쳐지는 전시의 시작점이라는 의미가 있는 개막식의 컨셉을 「광인보」로, 폐막식의 컨셉을 「만인보 만보…」로 설정하고 전시목표 구현과 국제행사로서 품격을 유지하는데 기획력을 집중하였다.

행사구성	프로그램	기간/장소	주요내용
의식 행사	개막식	9. 2 / 야외무대	식 퍼포먼스, 식전, 축하, 개막공연, 시상식 등
	개관식	9. 2 비엔날레관	테이프 커팅 방식을 지양하여 '대나무 심기'로 차별화 시도
	만인 주말콘서트	9. 3~11. 7 야외무대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된 행사
	폐막식	11. 7/시립미술관	식전공연, 폐막식, 축하공연, 만찬 등
시민 프로 그램	나도 비엔날레 작가 : 만인보+1	9. 2~11. 7 광주 시내 일원	시민들의 삶속에서 만들어가는 문화축제의 이미지. 광주 전역 25군데에서 펼쳐지는 문화의 장으로서 시민들의 참여프로그램
	양동시장 프로젝트	9. 3~11. 7 양동 문화센터	예술적 문화담론의 장을 시민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 운영. 양동야상곡-프리젠테이션 나이트
	청소년 눈예술상 미술실기대회	10. 23 중외공원	세계 미술문화의 미래 주역이 될 꿈나무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전국의 초·중·고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창작활성화 사업
	관람후기 및 포토에세이 공모	10. 1~31 중외공원	전시를 감상하면서 느꼈던 감동이나 경험을 글과 사진으로 표현

제 9회. 소통하는 공연, 예술만찬 등 마련

개막행사는 2012광주비엔날레의 주제인 '라운드 테이블'의 유기성과 소통의 상호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즉흥적으로 진행하고 점층적인 소통을 시각화하는 안무를 중심으로 실행하였다. 폐막식은 재단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도슨트·운영요원 등이 서로를 격려하며 후원 협력기관·단체·기업 등에게 감사를 표하고, 시민참여프로그램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 및 전체 축하 만찬의 자리로 마련하였다.

행사구성	프로그램	기간/장소	주요내용
의식 행사	개막식	9. 6 야외광장	식퍼포먼스, 식전공연, 주제공연, 개막선언, 환영사, 축사 1, 2, 전시개요설명, 눈 예술상 심사평과 시상식
	개관 이벤트 및 관람	9. 5/비엔날레관	장관 등 50여 명 개관식과 전시관람
	프린지공연	9. 5/개막식무대	
의식 행사	폐막식	11. 11 시립미술관	식전공연 영상파노라마, 경과보고, 시민의 편지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감사패 수여, 시민참여프로그램 입상자 시상, 김범작가 치킨 기부 및 인사말씀, 주요성과 및 감사인사, 축하공연과 만찬
시민 프로 그램	나도 비엔날레 작가 : 마실	9. 3~11. 11 시내일원	참여팀 공모 및 심사, 선정 참여팀 워크숍, 작품제작 및 설치 전시연계 프로그램 실행, 우수작 심사 및 시상식
	주말예술만찬	9. 8~11. 11 중정 및 광장	주말콘서트 마셔라 예술 주말예술난장 맛보자 예술
	전국 학생미술실기 대회	9. 18~21 중외공원	청소년들의 창의적 발상과 미술 표현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함
	관람후기 공모	9. 7~10. 25 중외공원	온라인과 SNS를 이용한 자유로운 글쓰기와 소통방식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의 주체적 참여의 장 마련
	기념전 1 고베서예전	10. 28~11. 1 민속박물관	'고베의 날'을 지정하고 광주·고베 양 비엔날레 간 우의를 다지는 국제문화교류의 장 마련
	기념전 2 전국수석전	11. 3~6 민속박물관	문화취미 활동가와 일반 시민들의 전국적인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는 장 마련

제 10회. 개막식서 복합장르 공연으로 전시주제 부각

2014광주비엔날레 주제인 '터전을 불태우라'에 담긴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고자 개막식은 사회적 환경으로의 억압, 저항, 탄생을 다양한 복합장르로 표현하였다. 폐막식은 2014광주비엔날레의 폐막을 알리고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등 행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후원협력체에 대한 감사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 및 전체 축하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행사구성	프로그램	기간/장소	주요내용
의식행사	개막식	9. 4 비엔날레관	음식나눔행사, 축하공연, 개막선언, 환영사, 축사, 전시개요설명, 눈 예술상 심사평 및 시상식,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주제공연
	개관 퍼포먼스	9. 4 비엔날레관	장관 등 50명
	전시관 관람	9. 4 비엔날레관	예술총감독 작품해설
	폐막식	11. 11 거시기홀	식전공연 영상파노라마, 경과보고, 소중한 만남의 추억, 감사패수여, 시민참여프로그램 입상자 시상 격려사, 주요 성과 및 감사인사, 광주 마니페스토 발표 축하공연과 만찬
시민 프로그램	나도 비엔날레 작가 : 쓸 데 있는 궁리	7. 5~11. 9 시내일원	쓸 데 없다고 여겨지는 일상 문제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궁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커뮤니티 예술작업을 통해 일상의 지평을 넓히고자 함
	주말콘서트 : 즐길-나드으리	6. 13~11. 9 야외무대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전시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기획
	아트마켓 : 가질-나드으리	6. 13~11. 9 중정	행사기간동안 현대미술 축제에 어울리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예술성이 빛나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일환
	아트체험 : 함께-나드으리		관람객에게 예술행사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쉽고 재미있는 작품제작 참여의 장 마련 지역 뷰티미용관련학과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으로 문화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

5장

홍보

국제현대미술제인 광주비엔날레의 홍보는 국내외 언론홍보,
전문가 네트워크 홍보, 이벤트형 행사 홍보,
자체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홍보대사 활동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광주비엔날레가 매회 제시해온
예술적 담론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세계적인 비엔날레로서
광주비엔날레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도 꾸준히 전개되어왔다.

GWANGJU BIENNALE
광주비엔날레

1995년 창설 당시 CIP

GWANGJU BIENNALE
광주비엔날레

2003년 디자인 일부 리뉴얼된 CIP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2015년 리뉴얼된 CIP

광주비엔날레는 전시 주제를 형상화한 EIP를 3회부터 만들었다.
창설 당시 만들어졌던 첫 CIP를 창설 20주년을 맞아
시대적 감성과 변화를 담아 리뉴얼하였다.

人+間
KWANGJU BIENNALE
2000광주비엔날레

제3회 2000광주비엔날레 EIP

멈_춤, P_A_U_S_E, _止_

제4회 2002광주비엔날레 EIP

물 먼지 한 톨 방울
A Grain of Dust A Drop of Water
一塵一滴
GWANGJU BIENNALE
광주비엔날레

제5회 2004광주비엔날레 EIP

열풍변주곡
Fever Variations

제6회 2006광주비엔날레 EIP

07 연례 보고 Annual Report 08

제7회 2008광주비엔날레 EIP

제8회 2010광주비엔날레 EIP

RoundTable

제9회 2012광주비엔날레 EIP

터전을 불태우라
BURNING DOWN THE HOUSE

제10회 2014광주비엔날레 EIP

전시를 이끌어가는 전시감독들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매회 뜨겁다.
2004년 광주비엔날레 오쿠이 엔위저 감독을 인터뷰하는 기자들(좌).
광주비엔날레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등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전시를 홍보해왔다.
2012년 광주신세계백화점에 설치된 홍보관.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만의 행사가 아닌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행사다.
2010년 전시장을 찾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좌).
2008광주비엔날레 전시 주제를 알리는 대형광고판.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로 위촉된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들은
자신의 활동분야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광주비엔날레를 알렸다.
9회 홍보대사 배우 임수정과 이병헌(좌).

1. 광주비엔날레 아이덴티티(통합이미지)

1) 광주비엔날레 시그니처 개발과 리뉴얼

광주비엔날레의 CIP(기업이미지통합전략, Corporate Identity Program)는 광주비엔날레 창설과 함께 제1회 1995광주비엔날레 행사부터 2014년까지 광주비엔날레 재단 및 매회 행사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기존 광주비엔날레 시그니처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이 된 2014년에 기존 사용해 오던 CI에 대한 전면적인 리뉴얼 작업을 하게 되었다.

1994년 CIP 개발 이후 2015년 현재까지 2번의 리뉴얼 디자인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장동훈 교수가 초기 CI 개발을 진행하였다. 기존 광주비엔날레 심벌에 대한 디자인 콘셉트는 재단 심벌마크의 경우 광주비엔날레의 이념과 의의를 함축한 것으로서 대내외에 표출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상징체이다. 이는 빛고을이라는 지명에 착안하여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여기서 뻗어 나오는 빛을 소재로 하여 디자인하였다. 기본 형태인 산의 완만한 덩어리는 온 국민의 화합을 상징할 만큼 여유 있고 친근하며, 여기에서 발산하는 빛은 세계로 뻗는 광주의 저력과 축제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한글 로고타입은 민족적이면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어 조선 후기부터 남도지방을 중심으로 인쇄에 사용되었던 완판본 소설의 목판글자체를 재구성 적용하였고, 영문 로고타입은 국문로고체인 목판글자와 조화를 이루면서 범세계적인 느낌과 현대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스톤산스레귤러(Stone Sans Regular)체를 사용함으로써 국·영문 로고타입과 함께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약 8년 동안 대내외적 각종 홍보매체에 적용되어 온 광주비엔날레 CI는 행사준비 및 운영 시 제기되어 왔던 응용컬러, 마스코트, 기타 여러 가지 조형적 요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들을 보완하여 보다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함으로써 당시의 여건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단 CIP와는 별개로 매 행사때마다 광주비엔날레 EIP(Event Identity Program)를 개발해 광주비엔날레 CI와 함께 병행하여 사용해 왔다. 그러나 재단 고유의 시그니처와 매회 EIP 시그니처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광주비엔날레의 시각적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혼선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2014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기존 CIP의 적용성, 활용성 등 한계성이 제기되어 새로운 CIP 개발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어 2014년 4월 개발작업을 시작하여 2015년 1월에 개발을 완료했고, 2월말 CIP 리뉴얼 개발 선포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됐다.

새로 개발된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CIP는 디자인전문가 선임 후 직무수행방식 협약 방식으로 이나미 교수(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부교수, studio BAF 대표)가 개발을 담당하였다. 새 CIP는 20년 동안 현대미술의 담론을 이끌었던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개발 콘셉트로 틀이 깨지는 '파격'을 형상화하는 광주의 'ㄱ'에 해당하는 최소 단위의 조형 요소를 이용해 '열린 틀'을 제안한다.

2) 각 회별 EIP 개발

광주비엔날레는 제3회 때부터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대한 콘셉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통합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EIP를 개발해 왔다. 1, 2회는 별도의 EIP 없이 재단 고유의 시그니처를 통합이미지로 사용했는데 매회 다른 주제의 전시기획에 부합하는 EIP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3회 대회가 치러진 2000년부터 매회 국내외의 역량 있는 디자이너나 디자인 전문업체가 개발에 참여하였다. 광주비엔날레의 행사 이미지 아이덴티티(EIP) 개발은 인쇄매체 및 사인매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언급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EIP 개발은 예술총감독이 주제를 선정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전시 관련 프로세스로 주제를 상징적인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EIP는 홍보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시각이미지로, EIP가 개발된 후 매체제작 및 홍보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가 본격화된다. 일반적인 EIP개발시스템의 기본 항목은 매회 행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심벌마크(Symbol Mark), 로고타입(Logotype), 시그니처(Signature), 전용색상(Main Color), 타이프페이스(Typeface), 그래픽 모티브(Graphic Motif), 픽토그램(Pictogram) 등이다. 이와 함께 응용시스템은 기업이나, 기관의 업무 및 추진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발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광주비엔날레의 경우는 출판 및 업무서식(Publication & Office Forms), 옥외용 사인물(Outdoor Signage), 프로모션 아이템(Promotion Items) 등을 개발하였다.

제3회 2000광주비엔날레, 개발자 : 글씨미디어(대표 이정주)

전시주제인 '인+간'이 갖는 의미에 부합되는 즉, 사람과 주변·상황·조건 등을 함축된 시각언어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2000광주비엔날레 시그니처는 전시주제를 시각적으로 함축하여 표현하는 대표적 상징물로서 주제 의미에 대한 객관적 표현과 차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지역 문화전통을 살리면서 조형성 및 기호성이 높은 고산 윤선도의 '시권(試券)'과 '영모첩(永摹帖)'에서 채집한 한자서체를 조합 완성하였다.

제4회 2002광주비엔날레, 개발자 : 이정혜(2002광주비엔날레 디자인 전문위원) / 재단 자체개발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도시속의 축제, 또 다른 문화체험'을 구현하며, 쉼·멈춤·비어있음·중립성으로서의 주제해석을 시도했다. 또한, 과도한 표현 요소를 탈피하고, 문화와 생활양식 제안으로서 디자인 논리를 갖추고자 시도하였다.

제5회 2004광주비엔날레, 개발자 : 김수정(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디자인학부)

주제(먼지 한 톨 물 한 방울)의 핵심어인 '하나'를 상징하는 한자 '한 일(一)'모양으로, 무생물인 먼지와 물이 결합해 새로운 생명의 파장을 일으키며 무한히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한 공식포스터는 중앙에 위치한 엠블럼을 '말풍선'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다양한 미의식과 의견을 가진 관객을 피동적 소비자가 아닌 주체적 생산자로 전시기획에 참여시킨다는 전시기획 의도를 담고 있다.

제6회 2006광주비엔날레, 개발자 : (주)601비상(대표 박금준)

아시아를 진원지로 새롭게 퍼져나가는 변화 에너지로서 무한한 팽창, 확산의 의미를 내포하며, 생명력과 움직임이 있는 가변적인 형태로 '열풍 변주곡'을 상징화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유동적인 또 다른 파장을 연출 하였다. 심벌의 의미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의 융합과 상호 영향, 아시아문화의 전 세계적 파급과 변화에너지를 막대들의 교차를 통해 역동성 있게 표현하였다. 시각적 두 축은 열 – 풍, 정체성 – 움직임, 팽창 – 융합, 음 – 양의 서로 대조되는 의미로서 이들의 조화로 문화적, 물질적 이동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적 비전을 실현한다. 6개의 막대가 의미하는 것은 제6회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문화적 울림을 그림자처럼 나타내었다.

제7회 2008광주비엔날레, 개발자 : BASE(뉴욕 소재)

2008광주비엔날레의 전체적인 개발 콘셉트는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 대신 광

주비엔날레의 아이덴티티는 전체 이미지 타이틀이 말해 주듯이 2007년부터 2008년 한 해 동안의 전시 및 이벤트를 재조명해 보는 '연례보고' 형식으로 치러지는 것을 표현해보고자 한 것이다. 개발자가 제안하는 광주비엔날레 아이덴티티는, 숫자 '07'과 '08'이라는 간결하고 명료한 그래픽 언어를 바탕으로 한다. 07-08 아이덴티티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비엔날레가 특정 시간적 공간 안에서 일어난 콘텐츠를 담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제8회 2010광주비엔날레, 개발자 : TEXT

주제인 '만인보(萬人譜)'가 내포하고 있는 만인의 삶, 그리고 예술 속에 등장하는 무수한 이미지의 형상을 아이덴티티 시스템 내에 반영하여, 한 가지의 특정한 형태로 이루어진 아이덴티티를 지양하고 본 행사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이미지(컬러)와 광주의 다양한 삶의 이미지들(2도 컬러)을 서로 연결하여 다채롭고 유동적인 현대의 삶 자체를 보여주는 창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디자인되었다.

제9회 2012광주비엔날레,
개발자 : 기본시스템_케이지 테라이(일본 디자이너), 응용시스템_(주)안그라픽스

디자인 콘셉트의 모태가 되는 라운드테이블에 대한 개발방향은 그래픽 시각효과를 감안하되 주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보다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형상화하여 담아내는 것을 기본 콘셉트로 설정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형상화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라운드테이블의 기본 로고는 9회 전시주제인 라운드테이블을 직접적으로 발음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주제를 일반 관람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어를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10회 2014광주비엔날레, 개발자 : 슬기(계원조형예술학교)와 민

전시주제에 있어서 기존의 기반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고 조합할지'를 아이덴티티화하여 '터전의 파괴와 재조합'으로 이를 우회하여 나타내는 데 역점을 두었다. 2014광주비엔날레의 EIP 워드마크 서체는 전통적으로 긴박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쓰이는 포스터 서체에 바탕을 두고 만들고자 하였다. 한글 서체는 과거에 정치·건설·계몽 등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는 슬로건에 쓰이곤 하던 기하학적 글자형태에서 디자인 작업을 시도하고자 하였고, 일반적인 네모 틀 형식을 탈피하고 글자의 구조에 따라 너비가 달라지는 가변 폭 체계를 취함으로써 역동적 리듬감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세부적 타이포는 한글과 영문 주제어가 조화를 이루도록 섬세하게 디자인하되, 일부 한글 자모는 파격적인 형태를 시도함으로써 주제에 담긴 진취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2. 언론 홍보

광주비엔날레 언론 홍보는 20년 동안 기본에 충실하되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화 발전해왔다. 1994년 11월 14일 강운태 광주시장이 광주비엔날레의 개최 계획을 발표할 당시는 국민들의 비엔날레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언론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1회 때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언론 홍보 전략을 펼쳤고, 이후 10회 행사까지 국내 언론 홍보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언론 전략을 세우면서 진행해 왔다. 지난 20년 동안 외부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소통 폭을 넓히는 데 직접적인 매개체가 되는 방송 언론매체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취재 지원에 우선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내·외신기자 초청설명회, 보도자료 배포, 프레스센터 운영 등이 진행되어 왔다.

5회 때부터는 교육홍보관에 설치·운영해왔던 프레스센터를 재단 사무처 내에 위치한 기자실로 옮겨 보도 지원을 강화했고 2006년 인터넷 웹하드 및 메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1) 기자회견

기자회견은 전시 구성 및 주제 발표, 참여 작가 발표 등으로 나누어 사안에 따라 진행되었다. 초창기에는 국내 홍보에 주력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기자회견을 많이 개최했으나, 해가 갈수록 기자회견은 참여작가 윤곽이 나온 시점에 서울과 광주에서 나눠 개최하는 형식을 띠게 되었다.

공식적인 기자회견 이외에도 수시로 언론사와 만나는 간담회를 통해 국내 언론사와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20년 간 광주비엔날레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대회	일시	장소	초청자	비고(주제)
제1회	95년 2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중앙언론사기자, 관광회사, 재경향우회원, 광고협회 임원 등	강운태 시장 주재
	3일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한국 주재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	
	3월 26일			백남준 내광
	4월 22일	시청 상황실		강운태 시장 발표 (한국참여작가선정)
	5월 24일		중앙 언론사 담당기자 14명과 시청 출입기자, 지역 문화부 기자 대상	(2차 커미셔너회의) 참가국가와 작가가 선정 발표
	8월 11일		언론사 문화부 기자 100명 초청	조직위원회 사무차장발표 (기자간담회)
제2회	97년 8월 12일		지방언론사 문화부장, 문화담당기자 초청	언론인 초청 행사 18회 개최
제3회				
제4회				행사관련 특별 발표 등 필요할 때 마다 시행
제5회	2003년 7월 25일	회의실		제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구성 및 주제 발표
	2004년 3월 17일	서울 태평로 클럽		전시 추진 현황 소개 및 주요 참여작가 발표
	7월 15일	일본 동경 재팬 파운데이션		전시주제 및 전시구성 현황, 일본참여작가소개
제6회		광주 히딩크 호텔 서울 프레스센터	주요언론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기자회견	주제 및 전시방향, 큐레이터가 선정되고 전시실행 마스터플렌
제7회	5월 22일	서울	60여 개 언론사	전시 개요, 마스터 플렌
제8회	4월 29일	프레스 센터		전시 개요, 마스터 플랜
제9회	7월 29일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서울)		참여작가 선정
		히딩크 호텔(광주)	14개 언론사 미술담당 기자	

대회	일시	장소	초청자	비고(주제)
제10회	5월 23일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서울)	유력 중앙지 언론 17곳 (종합지10, 경제지4, 통신사1, 잡지2)	참여작가 선정
		라마다 호텔(광주)	지역 언론사 (신문사7, 방송5, 통신2)	

2) 프레스오픈(내외신 기자 초청 설명회)

내외신 기자 초청 설명회 즉 프레스오픈은 개막 전 언론인들을 초청해 감독의 전시에 대한 설명, 전시관 투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막전 언론에 먼저 전시를 공개해 관심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보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다. 광주비엔날레 초기에는 재단과 한국프레스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나 6회 행사부터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주최하였다.

국내외 언론사를 광주로 초청하는 내외신 기자 초청 설명회는 재단 홍보 업무에서 가장 큰 행사로 통상 개막 두 달 전부터 준비된다. 1회 때는 기자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미술대학 교수, 미술인, 각급 학교 교장, 교육감, 미술교사 등도 초청했으나 2회 대회부터 대상을 언론인으로 한정하였다. 감독의 동반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를 관람하는 이 행사는 언론인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었다. 특히 7회 때에는 사상 첫 외국인 감독인 오쿠이 엔위저의 영향력과 브랜드로 인해 해외 언론 매체의 방문이 크게 늘었다.

내외신 기자 초청 설명회에는 평균 국내외 언론인 180명(카메라 기자, 사진기자 등 포함)이 참석하며 타지에서 온 언론인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에서 1박을 묵으면서 광주비엔날레와 더불어 광주의 멋과 맛을 체험한다. 개막 전날 메인행사인 전시관 투어를 갖는데 9회와 10회 때는 각 갤러리에서 참여 작가들의 퍼포먼스가 진행돼 프레스오픈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프레스오픈 때는 언론사 종사자 및 방송 관계자에게 프레스카드를 발급했으며 전시에 대한 보도자료 및 이미지가 담긴 국·영·일 프레스키트를 제공하였다.

대회	일시	장소	참석자
제1회	9월 18일	·	국내기자 54개사 356인 (중앙지 42개사, 지방지 12개사)과 외신기자 12개사 28인 기타, 조직위원, 미술대학 교수, 미술인, 각급학교 교장, 교육감, 미술교사 등 1,848인 ※해외홍보관(공보처) 협조로 제 1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전 행사기간인 1995년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상주 외신기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pre open 초청 관람
제2회	8월 29~30일	·	119명(외신 36, 내신 80, 기타 3)
제3회	3월 28일	프레스센터	100여명
제4회	3월 28~29일	프레스센터 (교육홍보관)	111명(내신 69명, 외신 42명)
제5회	9월 9~10일	1층 클럽 전시실	국내외 92개 언론사 130명
제6회	9월 7~8일	회의실	200명(내신 150명, 외신 50)
제7회	9월 4~5일	회의실	200여 명
제8회	9월 2일	회의실	200여 명
제9회	9월 6일	회의실	200명 내신 140여 명, 외신 60여
제10회	9월 3일	다목적회의실 (거시기룸)	170여 명 기자(내신 160, 외신 12)

3) 주관방송사 운영

20년 동안 광주비엔날레는 개막식을 비롯해 행사 기간 원활한 보도를 위해 주관방송사를 선정해 운영하였다. 주관방송사에서 주로 Spot광고, 뉴스보도, 기본방송, 특집방송 등이 이뤄졌지만 주관 방송사 외의 방송사에서도 뉴스보도, 특집방송 등을 통해 광주비엔날레를 보도하였다.

초창기 대회인 1회와 2회 때는 전국 방송사를 유치해 전국 홍보에 주력했고, 3회 부터는 지역 방송사와 협업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5회와 6회 때는 별도의 주관방송사를 운영하지 않고, 방송매체의 다변화를 통해 여러 방송사들의 적극적인 현장 취재를 유도했다. 그동안 주관방송사는 방송 3사가 매년 차례로 참여해 광주비엔날레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해 왔다.

대회	주관방송사	비고
제1회	문화방송	
제2회	한국방송공사(KBS)	
제3회	한국방송공사(KBS) 광주총국	
제4회	(주)문화방송, (주)광주문화방송 공동	전국망 연계 기초
제5회	운영하지 않음	
제6회	운영하지 않음	
제7회	KBC광주방송(개막식 생중계)	
제8회	광주문화방송(개막식 녹화방송)	
제9회	KBC광주방송	
제10회	KBS광주총국(개막식 생중계)	

4) 보도지원

광주비엔날레는 중앙 및 지방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지역 20여 개 신문·방송·통신사, 광주에 주재하고 있는 중앙일간지 11개 매체, 서울지역 15개 주요 매체, 그밖에 예술전문지, 인터넷 언론 매체 30여 개 등 총 80여 개 매체를 대상으로 보도 활동을 펴왔다.

특히 보도자료는 광주지역 주요 매체 14개(신문·방송·통신)를 비롯해 중앙 일간지 광주 주재 11개 매체에 중점 배포됐으며, 중앙의 경우에는 주요 매체 15개(일간지·경제전문지·통신)를 비롯해 미술 등 예술 관련 잡지 20여 개, 온라인 매체 등에 사안에 따라 전체 혹은 일부 매체에 배포해 왔다.

광주비엔날레는 1회부터 교육홍보관 2층에 프레스센터를 개설하고 보도 사무실을 두어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지원하면서 개막 전부터 폐막까지 운영했다. 5회 때부터 프레스센터를 재단 사무처 내에 위치한 기자실로 옮겨 보다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폈다. 이때부터 인터넷상에 광주비엔날레 보도용 웹하드를 개설해 보도자료와 이미지 자료를 제공했는데 프레스키트와 웹하드 운용은 기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도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6회 2006광주비엔날레부터 웹 기반을 통해 보도자료 등이 제공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인터넷 정보 유통망 활성화로 대부분의 자료들은 웹하드 및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한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자료제공에 관한 한 2006광주비엔날레는 국내외 어느 기관, 행사에 못지않은 체계를 갖춰 업무가 추진되었다.

보도자료 1차 자료는 전시부서에서 제공하고 홍보부서에서는 이를 보도매체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가공해 각 언론매체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였다.

언론사들의 보도 지원을 위해 개막 직후에 집중된 각종 인터뷰 지원, 개막 중 전시작품 촬영 등 보도에 필요한 편의를 홍보부가 주축이 되어 제공하였다.

이런 홍보활동은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내 언론들의 관심과 보도를 이끌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10회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 언론들은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를 대표하면서 세계 미술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술 축제로 자리매김되는 과정을 보도로 함께 해왔다.

5) 해외 언론 취재와 보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해외 유력 언론들의 관심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트인아메리카, 르몽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아사히신문 등의 해외언론들이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했고 의미 있는 보도들이 이어졌다.

1회 광주비엔날레를 지켜본 언론들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보도와 함께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광주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특히 1995년 첫 행사 당시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광주는 세계 어느 비엔날레에 못지않은 훌륭한 행사를 마련하고, 극동에서는 유일한 비엔날레를 창설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적 선두주자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해외 언론들은 회를 거듭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의 외형적 성장과 높은 전시 수준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대회	유력 언론 매체
제1회	·
제2회	·
제3회	미국 LA타임즈, 일본 마이니치신문, NHK, 아사히신문,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프랑스 르몽드,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지, 서일본신문 등
제4회	·
제5회	·
제6회	아트인아메리카, 프래시아트, 아트잇, 아트먼슬리, 아트포럼, 르몽드, 뉴욕타임즈, 아사히신문
제7회	아트인아메리카, 아트인아시아, 아트바스, 아트프라이스, 르몽드, 아사히신문 등
제8회	아트 인 아메리카, 아트 잇, 아트 프라이스, 르몽드, 아사히 신문
제9회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플래시 아트, 아트 포럼 등
제10회	태그 자이퉁, 도이치란드 라디오, 쿤스트포럼, 가디언, 아트 리뷰, 아트 포럼, 프리즈, 아트 인 아메리카, 프랑크 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3. 해외 홍보

해외 홍보 초반에는 국내홍보와 전략을 같이하면서 해외명예홍보위원 · 해외통신원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과 비엔날레 개최국, 참여 작가 해당국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해외 홍보 초반인 1997년의 경우 특히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행사기간 동안 한국을 찾는 외래 관람객 100만 명의 5%인 5만명을 해외 관람객 유치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0년 해외홍보는 국제공항·특급호텔·대규모 면세점 등의 부재라는 열악한 관광 인프라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국제미술계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 욕구를 유도해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전체 관람객 61만4231명의 5.1%인 3만1300명의 외국인이 비엔날레 행사장을 방문, 전체 관람객수에 대한 외국인 관람객수의 비율이 늘었다.

2002광주비엔날레 해외 홍보의 기본 방향은 전시기획 활동과 맥락을 같이한 해외 전문 홍보를 높이는 데 두었으며 49회 베니스비엔날레 현지 홍보, 2001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계기 홍보, 해외의 행사 연계 계기홍보를 통한 해외관람객 유치활동도 전개하였다.

2004광주비엔날레에는 해외후원회가 해외 네트워크 거점 조직의 역할을 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실제 관람객 유치 및 현지 홍보, 나아가 문화 간 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하였다. 2006광주비엔날레 해외홍보는 싱가포르 및 상하이 비엔날레 등 아시아권 타 비엔날레와의 공동 홍보가 두드러졌다.

2008년도는 광주비엔날레 창설 이래 최초로 외국인 오쿠이 엔위저(Okwui Enwezor)가 예술감독으로 선정되면서 해외 홍보가 강화되는 시기이다. 또한 2008년부터 싱가포르와 상하이, 요코하마 등 동아시아권 비엔날레의 급부상에 따른 세계비엔날레들의 홍수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내부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계 현대미술 정세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 전략을 세우고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후 2010광주비엔날레는 미국 뉴욕 뉴뮤지엄 특별전 디렉터인 마시밀리아노 지오니(Massimiliano Gioni)가 예술총감독으로 선정됐으며 2012년, 2014년 제시카 모건까지 외국인 감독의 활동으로 인해 광주비엔날레는 더욱 해외 홍보 설명회 등에 주력하게 됐다. 2012광주비엔날레의 경우 미술시장이 급진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외홍보설명회를 개최해 아시아 기반의 많은 미술단체와 전문가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특히 2002년부터 e-flux.com(뉴욕 소재)의 메일링 광고를 이용하여 전 세계 미술인사 3만3000여명에게 2002광주비엔날레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 역대 해외 홍보 에이전트 현황

2006광주비엔날레부터 20014광주비엔날레까지 총 5회에 거쳐 해외 홍보 에이전트를 운영하면서 해외 홍보 기반을 확보해나갔다. 2006광주비엔날레는 베를린 기반 전문홍보대행사 PR-Netzwerk(대표 Annette Schaefer)와 협약을 체결 후 운영했다. PR-Netzwerk는 뉴욕 아모리 쇼(Amory Show)에 맞춰 3월 10일 타임워너센터와 베를린비엔날레 개막 시점에 맞추어 3월 24일 베를린 미술아카데미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기타 전문 미술기자, 저널리스트 600여 명을 대상으로 단계별 홍보를 진행했다.

2008광주비엔날레 전문홍보대행인 마커스 뮐러(Markus Muller)와 2010광주비엔날레의 플라비오(Flavio Del Monte), 앤디(Andy Dyer Cushman)는 미술전문가, 저널리스트 21만 명을 대상으로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단계별 홍보를 진행하였다.

대회	홍보에이전트
제6회	베를린 기반 PR-Netzwerk
제7회	마커스 뮐러(Markus Muller)
제8회	플라비오(Flavio Del Monte) / 미주지역 앤디(Andy Dyer Cushman)
제9회	Katrina Weber Ashour(유럽 및 미주 기반)
제10회	서튼 피알(Sutton PR)(런던, 홍콩, 뉴욕 지사)

2) 주요 해외 홍보 설명회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창설부터 베니스비엔날레를 시작으로 해외 주요 비엔날레 현장에서 해외 홍보를 전개하였다. 이는 세계 미술계 거물급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엔날레에서 해외 홍보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저비용으로 보다 높은 홍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사상 최초로 외국인 감독이 선임됨에 따라 해외 홍보 설명회가 보다 전문성을 띠게 됐다. 당시 세계 각국의 미술전문가와 언론인 등을 상대로 총 5회의 해외홍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상하

이비엔날레, 요코하마트리엔날레 관계자, 영국 'Tate Liverpool' 큐레이터, 폴란드 'San Art' 큐레이터, 아트포럼 수석 편집장 팀 그리핀(Tim Griffin)과 그의 팀 에디터 나이트 랜즈맨(Knight Landsman), 우테 메타 바우어(Ute Meta Bauer, MIT예술대학 학장), 조아킴 피사로(Joaquim Pissaro, MoMA 큐레이터, 뉴욕), 필 리(Phil Lee, 베이징 갤러리 큐레이터) 등이다.

특히 6명의 여성 공동감독제가 실시된 2012년의 경우에는 해외 홍보가 보다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 3월 22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 아트 두바이(2012. 3. 20~24) 기간 마디나 주메이라 호텔에서 해외 홍보 설명회가 개최 됐는데 하난 세야드 워렐(구겐하임 아부다비 부대표), 탄 분 후이(싱가포르 미술관 관장), 에마누엘 페로틴(Galerie Perrotin 대표), 이리나 스타크(Pilar Corrias Gallery 대표) 등 세계 유명 갤러리 및 미술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런던 테이트모던 토론회(2012. 5. 30~6. 10, 벨기에,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는 테이트모던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 판매를 실시하고 유료 행사로 진행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광주비엔날레의 이용우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김선정, 낸시 아다자냐, 마미 카타오카, 캐롤 잉화 루 감독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2012리버풀 비엔날레 국제 전시 큐레이터이자 비평가인 로렌조 푸지(Lorenzo Fusi)가 진행을 맡았다.

2014광주비엔날레의 경우에는 프리즈아트페어와 휘트니비엔날레 기간에 현지에서 해외홍보 설명회를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누렸다. 특히 런던서 열린 아티스트 토크(2014. 6. 11)의 경우 2014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제시카 모건의 소속 미술관인 테이트모던과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패널로는 2014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쉴라 가우다, 카미유 앙로, 로만 온닥, 서도호, 한스 하케 등이 참여하였다.

대회	기간	내용	비고
제1회	1995. 4. 10	일본	방문단 파견설명회 개최
	1995. 6. 7 (6월 4일부터 11일까지/파리, 로마, 베니스 파견)	100주년 베니스비엔날레 개막식 홍보단 파견 호텔 모나코 컨벤션센터	세계 유명 언론사와 미술전문 기자 52명 참석
제2회	1996. 10. 1~12	브라질 상파울로비엔날레	행정부시장 단장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 카셀도큐멘타	광주광역시장 참여
제3회	1999. 9	베니스비엔날레 방문	사무차장 일행
	2000. 2~3	동경, 오사카, 파리, 뉴욕 등 4개 도시 방문 초청 설명회	전시총감독, 사무차장 전시기획실장 등
제4회		제 49회 베니스비엔날레 현지 홍보	
		2001요코하마 트리엔날레 및 오사카 김치축제 계기홍보	
제5회	2003. 2. 29~3. 8	일본 주요 도시 방문 홍보 (일본 센다이, 도쿄, 고베, 오사카)	
	2003. 6. 8~6. 25	제 50회 베니스비엔날레 현지 홍보 (베니스, 밀라노 등)	
	2003. 9. 18~9. 21	2003광주김치대축제 연계 센다이 홍보(일본 센다이)	
	2004. 5. 11~5. 22	미주 지역 방문 홍보(미국 뉴욕, LA)	
	2004. 7. 15	일본 지역 기자 간담회 초청 설명회 (일본 동경 파운데이션) ※ 광주비엔날레 대회 최초로 해외에서 기자 간담회 개최	이사장·총감독 주재 하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 주요 일간지, 미술전문지, 평론가 등 참석
제6회	2006. 3. 24	베를린 미술아카데미서 기자설명회	뉴욕 아모리 쇼 연계
	2006. 4. 21	도쿄재팬파운데이션	싱가폴, 상하이 비엔날레 3개국 공동 기자회견 1차 도쿄재팬파운데이션 2차 서울프레스센터 비엔날레 협력 여행사 통해 3개 비엔날레 여행 패키지 마련
제7회	2008. 4. 3~4. 7	독일, 베를린비엔날레	
	2008. 6. 4~6. 7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2008. 7. 17~7. 20	이태리, 마니페스타2008	
	2008. 6. 18~6. 24	상하이비엔날레	
	2008. 6. 11~6. 16	미국 주요 도시 방문 홍보 (미국 뉴욕 괴테아트인스티튜트)	
제8회	2010. 4. 20	뉴욕, 뉴 뮤지엄(New Museum)	미국(뉴욕) 홍보설명회
	2010. 6. 10	베이징, 올렌스 센터	중국(베이징)홍보설명회
	2010. 6. 14~6. 16	밀라노 트루사루디재단 회의실, 스위스 바젤 시티비치	유럽(밀라노,바젤)홍보설명회
제9회	2012.3 . 20~24	두바이, 아부다비 등 마디나 주메이라 호텔	2012년 3월 22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 아트 두바이 (2012. 3. 20~24) 기간
	2012. 5. 30~6. 10	벨기에,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	런던 테이트모던 토론회
제 10회	2014. 5. 1	유럽(런던) 해외 홍보 설명회	아트 아젠다, 프리즈, 아트포럼, 디 아트 뉴스페이퍼, 아트리뷰 등 약 15매체 언론인 참석
	2014. 5. 7	미국(뉴욕) 해외 홍보 설명회	프리즈 아트페어와 휘트니 비엔날레 기간 시너지 효과
	2014. 6. 11	런던 아티스트 토크 개최	

3) 해외 유관 단체 및 기관협조 연계 홍보

해외 홍보에 있어서 국내외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는 등의 계기홍보를 하거나 유관 기관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주로 대회 초창기에 진행되었다. 1997광주비엔날레의 경우 세계치과연맹 제85차 총회(97. 9. 5~9. 9), 세계가정의학회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97. 8. 30~9. 3), 제16회 국제 교회성장대회(97. 9. 30~10. 6),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총회(97. 10. 20), 제22차 세계 제대군인연맹총회(97. 11. 9~11. 5) 등의 계기홍보를 실시하였다.

4회 2002광주비엔날레의 경우 국정홍보처 해외공보관장회의와 연계홍보(워싱턴, 베를린)를 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외교통상부 등의 관련 기관과 연계한 홍보를 진행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2002월드컵 개최와 관련 중국과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일·미 주재 한국공관 및 민단, 한국인 학교, 한인회에 집중 홍보를 하였다.

또한 4회 2002광주비엔날레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영문사이트, 월드컵추진위원회 영문사이트, 한일문화교류기금과 등 웹을 통한 세계 29개 사이트에 기사게재 및 링크를 하였다.

2004광주비엔날레에서는 일본 효고현, 고베시후원회와 미국의 동부지구(뉴욕·뉴저지·워싱턴 등) 후원회, 남가주(LA, 샌프란시스코)후원회 등을 결성하여 해외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였으며 2004광주비엔날레에는 광주시의 중국 북경(중국국제판덴업 박람회 2004. 5. 15~18) 등 해외 홍보 활

동에서 홍보부스를 지원하였다. 이와함께 2004서울세계박물관대회(ICOM 2004 SEOUL, 10. 2~10. 8) 참가자 중 CIMAM(국제근현대미술박물관위원회) 위원 70여 명을 광주비엔날레에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2008광주비엔날레에는 '아트콤파스 2008'이 운영되었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 5개 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 시드니비엔날레, 상하이 비엔날레, 싱가포르비엔날레, 요코하마트리엔날레) 연합체를 구성해 아시아권 비엔날레의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4) 해외통신원 운용 및 해외 명예위원

효과적인 해외 홍보를 위해 현지 유학 중이거나 2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외 통신원의 역할을 부여해왔다. 제1회 대회에서는 1995년 6월부터 1997년 12월 6개 지역에서 11명이 위촉받아 활동했다. 1회부터 3회 대회까지 해외 명예위원을 위촉해 해외 홍보에 주력했다.

대회	해외 조력자	운영기간
제1회	지연태(북미지역), 임명진(서유럽), 노재원(아시아), 오재희(일본), 재일한국민단의 하정웅, 이근, 장두희, 홍성인, 윤치상, 김현수, 박재춘과 박정구(오사카), 고영련, 박재우(LA,샌안토니오), 정성군(아랍에미리트), 임동길(홍콩), 전남 광주 지역의 관광여행사 대표 7인과 이오시프 코프존(가수, 러시아), 공훈의(광주일보 워싱턴 특파원) 등	1995. 3. 24~12. 31 26명 위촉
제2회	김태지(일본), 하정웅(일본), 김세택(일본), 정찬대(파나마), 문기열(미국), 공훈의(미국), 임동길(홍콩), 김대용(대만), 정성근(아랍에미리트), 이정빈(러시아), 민형기(인도네시아), 선동열(일본야구선수) 등	
제3회	하정웅(재일한국인 문화예술협의회장), 김애령(주불한국대사관 문화자문위원 및 큐레이터), 양은희(뉴욕시립대 미술사 박사과정), 서유진(아시아 인권위원회 고문), 로버트 할리(국제변호사,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 등	1999. 12~2000. 6. 7

4. 홍보 행사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내의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대중홍보를 실시하였다. 초창기에는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국적인 홍보가 많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비엔날레 기간 동안 타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편지쓰기를 한다든지, 주제가를 만들고 유명 가수가 이를 불러 소개하는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전국의 국제행사 등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홍보문건을 비치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D-100 및 D-30 행사를 개최하였다. 후반에는 신세계 백화점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들을 비롯하여 신세계 대표이사가 참석해서 홍보관 오픈식 및 후원금 전달식 등을 진행했다. 2000광주비엔날레 때 전문 홍보단을 꾸려 활동하기도 했으나, 이후 대부분 재단 직원들이 직접 다중집합장소를 찾아가 홍보부스를 설치한 뒤, 홍보인쇄물을 배포하며 알리는 계기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역축제 및 대학생들의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입장권 할인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대회	행사명	내용
제1회	기공식, 준공식, D-200일, D-180일, D-150일, D-50일 행사, 청와대 대통령 내외분 입장권 증정	단계별 다양한 홍보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마스코트인 비두리를 제작하여 대중의 흥미를 높임
제2회	1997광주비엔날레 D-100 행사	97. 5. 24 중외공원에서 참가국기 게양식
	1997광주비엔날레 D-30 행사	97. 8. 2 중외공원 잔디밭에서 KBS특집 '토요마당' 생방송
제3회	번개홍보단, 차량홍보단	의욕있는 계기홍보단을 직접 두어 다중집합장소 방문 홍보활동
제4회	미술인과 함께하는 오픈-카페	2001. 9. 21, 80여명의 미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2002광주비엔날레에 지역 청년작가 참여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비엔날레와 함께하는 가을밤 콘서트	2001. 10. 21 지역시민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공연장에서 개최
	2002광주비엔날레의 밤	- 2001. 10. 30 미술계, 학계, 문화계, 저명인사 등 초청하여 개최 - D-150 기자회견
	시민 사회단체 초청 설명회	2002. 1. 30 시민과 함께하는 2002광주비엔날레를 주제로 시민단체, 언론사 등 200여 명 참석
	캐치프레이즈 공모	각종 홍보에 활용할 캐치프레이즈 공모
제5회	2004광주비엔날레 D-100	각계각층 인사를 초청하여 행사 추진상황을 알리고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
	2004광주비엔날레 서울 지역 초청 설명회	2004. 6. 28 서울 프레스 클럽에서 진행
	비엔날레 현장 테마파크 개장 기념 이벤트	2004.8. 31 비엔날레 앞마당에서 비엔날레 테마파크 개장행사 개최
제6회	2006광주비엔날레 사전설명회	2006. 6. 22 각계각층 인사 초청, 행사 추진상황을 알리고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
제7회	2008광주비엔날레 D-100	2008. 6. 10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
제8회	2010광주비엔날레 D-10 기념 기아타이거즈 시구	2010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행사로 지역연고구단인 기아타이거즈 홈경기때 진행
	고은 시인의 날 기념행사	2010광주비엔날레 주제가 '만인보'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
제9회	D-30 2012광주비엔날레 : 라운드테이블 광주신세계 홍보관	2012. 8. 7~9. 6 시민 참여 이벤트 진행
제10회	2014광주비엔날레 홍보관 운영	2014. 8. 6~9. 5 시민 참여 이벤트 진행

회별 주요 홍보 행사

제1회 광주비엔날레(1995) 전시관의 기공식, 준공식과 더불어 D-200일, D-180일, D-150일, D-50일 행사, 청와대 대통령 내외분 입장권 증정 등 큰 규모의 계기성 홍보를 하였다.

또한,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스코트 '비두리'를 제작하여 홍보에 이용하였다. 광주지역 연고 야구단인 해태구단의 협조를 얻어 헬멧에 스티커를 부착, 야구 중계 시 전국에 방영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행사 등을 마련하여 관심을 유도하였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타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편지쓰기 대회를 개최하고, 포항에서 열린 전국체전 등에서 27차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마스코트에 이어 '마음의 문 열고'라는 주제가를 만들고 가수 신형원이 불러 붐 조성에 노력하였다.

1997년 제2회 대회 당시에는 광주첨단전자, 세계광고대회, 재외공관,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에 행사 안내 서한을 발송하고, 전국 국제행사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홍보문건을 비치하는 등 전국단위의 오

프라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국내의 계기 홍보 강화측면에서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97. 1. 24~2. 2), 국제문화관광교역전(97. 3. 27~3. 30), 인터넷월드 코리아 행사(97. 5. 7~5. 10), 97부산동아시아대회(97. 5. 10~5. 19), 한국국제문화관광교류전(97. 7. 30~8. 6)등에 참가하여 홍보를 하였다. D-100 행사로는 1997년 5월 24일 중외공원에서 참가국기 게양식을 진행하였다. 또 그 행사의 일환으로 버스터미널에서 시장을 비롯한 조직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량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D-30일인 1997년 8월 2일에는 중외공원 잔디밭에서 KBS특집 '토요마당' 생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환기했다.

제3회 광주비엔날레(2000)는 이전 대회와는 달리 광고·홍보·관광 분야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광고·홍보 전문회사에 주요 업무를 위탁, 대행시키는 등 새로운 운영체제를 도입하였다.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현장 연계망을 갖춘 전문가 3인(임정훈, 이원형, 전고필)을 홍보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홍보·보도·광고·관광 등 유관기관 및 업계와의 효과적 제휴를 꾀하면서 홍보업무의 기획 실행 및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광고·홍보전문대행사 운영으로 전문 업체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성·추진력·집중력을 확보하였다.

계기홍보 전담 '번개홍보단'(김정삼 외 2명)을 운영하였으며, 계기홍보 전담요원과 전용차량을 운용, 전국의 다양한 기관 단체 행사 및 다중 집합지역에 대한 방문 홍보활동을 계속하여 홍보의 역동성과 일관성, 현장 밀착도를 높였다.

홍보전문위원, 번개홍보단에 이어 홍보지원의 차량홍보단과 항공홍보단(좋은친구들, 한양항공)도 운영했다. 멀트트론 9조를 탑재한 차량 2대를 이용한 전국순회 영상물 상영과 홍보물 배포, 2000광주비엔날레 로고와 행사기간을 날개에 걸어 붙인 경비행기 비행 등 외부 유관업체의 자발적인 홍보지원 참여로 민간주도 행사운영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협력 확대라는 고무적인 선례를 남겼다. 관광정보안내소(전고필 외 자원봉사자)에는 여행관광분야 유경험자인 홍보전문위원을 책임자로 자원봉사자 4~5인과 함께 외지인의 관람유도 및 현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였다.

제4회 광주비엔날레(2002)는 미술인과 함께 하는 오픈-카페(Open-Cafe)를 열었다. 이 행사는 2002광주비엔날레 준비상황에 대한 지역미술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증진을 위해 2001년 9월 21일 광주청년미술작가회 등 80여 명의 미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중외공원 모정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제, 행사구성 소개, 지역미술계 여론수렴, 상호 협조체제 구성 등 향후 2002광주비엔날레에 지역청년작가 참여와 발전방안에 대한 작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엔날레와 함께 하는 가을밤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2광주비엔날레 주제 '멈춤'의 대중적인 확산과 지역 시민사회와 연계한 비엔날레 이미지를 높이고자 2001년 10월 12일 오후 6시부터 지역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중외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하였다. 지역기반 유통업체인 (주)빅마트에서 협찬하였으며, 공연과 연주, 시낭송 등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비엔날레 준비단계의 관심과 기대를 높였다. 2002광주비엔날레의 밤 행사를 준비하여, 2002광주비엔날레 개막 150일을 남겨두고 서울지역 사전 붐 조성을 위해 미술계, 학계, 문화계, 저명인사 150여 명을 초청하여 2001년 10월 30일 서울 63빌딩 연회장에서 개최하였다. D-150기자회견(예술감독, 공동큐레이터 등 참석)에 이어 별도로 진행된 이 행사는 2002광주비엔날레 주제 '멈춤'과 관련된 판소리 한마당, 고문·운영자문위원·명예홍보대사 위촉소개, 행사개요 소개와 참석자들의 조언과 의견교환 등으로 진행하였다.

시민 사회단체 초청 설명회도 준비하였다. 2002년 1월 30일, 개막 2개월을 앞두고 분야별, 직능별 지역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개최한 '시민과 함께 하는 2002광주비엔날레'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320개 단체 150명, 언론사 50여 명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프린스호텔 연회장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2002광주비엔날레 홍보영상물 상영과 주요 행사내용 소개, 의견수렴 등으로 이어졌는데, 명예홍보대사 고두심 씨가 참석하여 붐 조성에 기여하였다. 캐치프레이즈 공모사업을 통해 2002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보다 친밀한 행사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사의 성격을 집약하여 각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식표어(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해 각종 홍보에 활용하기로 하고 전국 공모 실시하였다. 응모자는 총 118명이었고, 당선작 '멈춤, 새로운 시작입니다'(최정웅)외 우수작 2편, 가작 5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2004년 제 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홍보를 위해 '광주비엔날레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총 5회 개최하였고, 지역미술인, 문화예술인, 유관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전남대 이문한 연구원, 조선대 미대 등 대학 및 관련 외부 기관 등과 연계를 통한 공동 주최로 '전문가 초청 토론의 장'이 되도록 기획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광주비엔날레 해외 네트워크이자 후원조직으로 일본 효고현 고베시, 센다이시와 미국 동부지역(뉴욕, 뉴저지, 워싱턴)후원회, 남가주 지역(LA, 샌프란시스코) 후원회 등 4개 조직이 결성되어, 창설 10주년을 기념하고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국제적 홍보거점을 구축하였다.

해외 네트워크 결성 현황 및 내용

후원조직	결성	구성	주요활동
일본 효고현고베시 후원회	2004. 3	효고현 예술가	- D-100일 행사참여 - 행사 기간 중 '효고현 고베시의 날' 및 '사가고류 꽃꽂이 전시회' 개최
일본 센다이후원회	2004. 3	센다이 시장, 시의회 의장, 시의원, 의사회, 장애자협회 등	- 광주 김치축제 연계 제5회 행사 방문
미국 동부지역 후원회 (뉴욕, 뉴저지, 워싱턴)	2004. 5	각 지역 향우회, 여행사, 교회 등 교포사회 중심으로 결성	- D-100일 행사 참여
미국 남가주지역 후원회 (LA, 샌프란시스코)	2004. 5	각 지역 향우회, 여행사, 교회 등 교포사회 중심으로 결성	- D-100일 행사 참여 - 'LA의 날' 개최, 결연소년소녀가장 30명과 비엔날레 행사장 방문

제5회 행사에서는 전국 및 지역의 예술관련 인사들을 무보수 명예직의 '홍보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각 분야에서 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함으로써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대상은 지역 미술계의 (사)광주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광주연합, 한국미술협의회 광주지부, 광주민족미술인총연합회, 전국 16개 시·도 예총, 시·구청 직장협의회장 및 시·도 교육감 등 총 230명을 추천받아 위촉장과 명함을 증정하고, 행사기간 동안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제공하였으며 설명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토록 유도하였다. 위촉식은 제5회 행사를 100일 앞둔 6월 2일 광주센트럴호텔에서 가진 'D-100일 행사'에서 거행되었으며, 개막 전인 8월 27일 민속박물관 시청각 실에서 홍보자문위원 초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홍보이벤트의 일환으로 D-100, D-10 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2004광주비엔날레 D-100일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행사 추진상황을 알리고 사전 붐 조성으로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4년 6월 2일 광주 센트럴관광호텔 연회장에서 행사를 개최하였다. 광주광역시 관계자 및 자치구청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명예홍보대사 조영남씨와 예총·민예총·미협 등의 홍보자문위원, 참여작가와 참여관객, 언론계 및 재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광주비엔날레의 행사 소개, 명예홍보대사 및 홍보자문위원의 위촉장 수여, 입장권 예매 등의 행사

를 진행하였다.

개최지인 광주에서의 D-100일 행사와는 별도로 개막을 70여일 앞두고 서울지역의 여론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미술관련 인사, 언론사, 정관계인사 등을 대상으로 2004년 6월 28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프레스클럽에서 서울지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광주광역시 관계자 및 국회의원, 원로 미술인, 기업인, 언론계인사 및 재단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행사의 구성 및 추진상황을 설명하였다.

2004광주비엔날레 D-10일 앞두고 2004년 8월 31일 비엔날레 앞마당(발자국 테마파크)에서 2004광주비엔날레 현장 I : 비엔날레 테마파크 개장행사를 겸한 '즐거운 발자국들의 향연'을 개최하였다. 테마파크 오픈점등행사와 초청공연, 2004광주비엔날레 성공기원 촛불의식, 주민·자원봉사자·도슨트·재단직원 등이 참여한 장기자랑으로 진행된 축제의 한마당으로,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홍보자문위원, 자원봉사자·도슨트·재단직원, 일반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하여 개막 10일을 앞두고 막바지 사전 붐 조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2월에는 구정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계기홍보를 펼쳤으며, 지역별 축제행사가 집중된 4~5월 중에는 녹동바다불꽃축제(전남 고흥군), 함평나비축제(전남 함평군), 보성 다향제(전남 보성군), 낙안민속문화축제(전남 순천시), 전주국제영화제(전북 전주시)를 비롯하여 2004전국국민생활대축전(광주 월드컵 경기장), 제 2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5·18기념공원)에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월부터 개막직전까지는 제1회 지방자치경연대전(광주 월드컵 경기장), 정부혁신국제박람회(서울 코엑스), 한국국제관광전(서울 코엑스), 시·도 공무원친선체육대회(광주 월드컵 경기장), 정부혁신국제박람회(서울 코엑스), 지역 음악콘서트(무등산 증심사, 광주 영상미술센터), 대한감리교전국선교대회(염주종합체육관), 7080빅콘서트(시청사 문화광장) 등에서 홍보 및 관람객 유치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시와 연계하여 홍콩국제관광박람회(홍콩컨벤션센터)와 광주김치대축제 북경행사(중국 북경 국제 전람센터) 등 해외 계기 홍보도 실시하였다.

제6회 광주비엔날레(2006) 때에는 광주비엔날레의 개막 2개월을 앞두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인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 행사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2006년 6월 22일 광주 프라도호텔 연회장에서 '세계로 퍼져가는 열풍변주곡(2006광주비엔날레 사전설명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8년 제7회 대회 당시 6월 10일 오전 10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D-100일 행사를 개최하였다. 3천여 명의 유치원 어린이들을 초청, 대형 현수막에 미래의 꿈을 그리는 이벤트로 치러진 D-100일 행사는 '광주비엔날레 D-100 기념행사 : 네 꿈을 펼쳐라'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고, 광주시내 유치원생들은 간단한 축하공연 관람 후 대형 현수막(38×14m)의 빈칸에 물감으로 색칠을 하며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을 기원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대형 현수막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벽에 전시하고 참여 어린이들에게는 전원 입장권을 증정하였다.

제8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붐 조성 행사로 프로야구 지역 연고구단인 기아 타이거즈 홈경기 때 광주비엔날레 D-10일 기념행사를 실시했는데 8월 21일 무등경기장 입구에서 2010광주비엔날레 주제와 로고가 찍힌 2000여개의 풍선을 제작, 입장객들에 배포하였다. 이 행사는 초청인사와 일반시민, 야구팬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타이거즈와 삼성 경기 시작 전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홍보영상물과 함께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강운태 이사장과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예술총감독이 시구행사에 참여하여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제8회 광주비엔날레 주제가 '만인보'로 선정된 것과 더불어 고은시인이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면서 축하와 감사의 의미로 '고은시인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고은시인 사인회'와 함께 당일관람객 입장권 특별할인, 시집 '만인보' 100권을 증정하는 등 고은시인과 관람객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2010노벨문학상 후보에 고은시인이 거론되면서 '만인보'를 주제로 한 이번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국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미술관계자, 다양한 관람객 층의 관심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유관행사와 장소에 행사 주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소식지 및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주요 장소에 플래카드와 포스터, X-배너 등을 설치하였다. 9월에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계기홍보를 진행하였고, 또 국립 현대미술관, 한국중등협회 하계연수회, 경기도 호남향우회 총 연합회, 빛고을시민문화관 부녀회협회, 인천문학경기장 민주당전당대회 등 홍보 및 관람객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광주 신세계백화점 내에 홍보관을 설치하였다.

2012년 제 9회 광주비엔날레 당시 '2012광주비엔날레 : 라운드테이블 광주신세계 홍보관'을 29일(8. 7~9. 6) 동안 설치하였다. 8월 8일에 열린 홍보관 오프닝 행사에서는 이용우 재단 대표이사, 광주신세계 조창현 대표, 2012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 김선정, 와싼 알쿠다하리, 알리야 스와디카, 2012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계 인사 등이 홍보관 오프닝에 참석하였다. 광주신세계에서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1억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하였다. 그 당시 시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 중 80여 명의 시민들에게 총 160여 장의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이 배포되었다. 행사 주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광주시청에서 운영하는 광주시내전광판 4곳과 40여 곳이 넘는 빛고을TV와 광주역 앞 대형전광판 등에 홍보영상물을 상영하였다.

2012광주비엔날레 계기홍보로는 광주관광컨벤션뷰로에 해외 홍보용 리플릿 200부 제공(4월), 김대중센터, 광주문화재단, 광주건축사회 일문 리플릿 발송(6월), 김치축제, 충장축제, 정율성음악제 등 광주시내에서 진행되는 지역축제에 리플릿 배포 및 스탠딩배너 등을 설치하였으며, 광주관광안내센터, 광주역, 터미널, 송정리역, 광주공항, 예술의 거리에 리플릿과 홍보전단 및 포스터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였다. 9월 10, 14일 두 차례 광주·전남 미술교사 워크숍을 진행하여 미술교사들에게 학생들의 광주비엔날레 전시 관람 독려를 요청하였다.

추석을 전후해 5일 동안 한복입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을 무료입장 시키는가 하면, 광주비엔날레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은 관람객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행사기간 중 10월 3일 개천절에는 태극기를 소지하는 관람객에 할인혜택을 주었고 지역축제인 김치축제(10. 15~17)와 정율성음악제(10. 8~10. 28)와도 연계하여 할인혜택 제공, 수험생 할인 이벤트(11. 9~11) 등을 진행하였다.

제 10회 광주비엔날레(2014) 붐 조성을 위해 신세계 백화점 1층 로비에서 2014광주비엔날레 홍보관을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운영하였다. 2014광주비엔날레 홍보 영상물과 전시 작품 등 전시 소개에서부터 '불꽃속에 ( )를 불태우라'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형 비엔날레라는 인식을 높였다.

'불꽃속에 ( )를 불태우라' 이벤트에는 총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 중 매주 10명에게 2014광주비엔날레 입장권(1인/2매)이 지급되었다. 홍보관 오픈식에는 당시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이용우), 광주신세계 대표(유신열), 2014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제시카 모건), 한국미술협회 광주지사장(나상옥),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정금희), 변호사(임선숙),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프로젝트 책임 큐레이터(윤범모), 20주년 특별프로젝트 큐레이터(마우리치오 보르톨로티, 정연심)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진행된 오픈식에서 광주신세계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2014광주비엔날레 전시 후원금 1억2000만원을 전달하였다.

다양한 지역축제에 참가하여,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찾아가는 홍보 활동 또한 많았다. 물총축제, 세계김

치축제, 충장축제, 전남대학교 및 조선대학교 축제,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행사 등 광주시내에서 진행되는 지역축제에 가이드맵, 리플릿, 홍보용 전단지 배포 및 스탠딩배너 등을 설치하였다.

특히, 광주 지역 주요 대학 축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2014광주비엔날레의 주제 '터전을 불태우라'를 소재로 제작한 '타투스티커'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다. 각 학교마다 2~3일간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벤트에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입장권을 총 700장 판매하였다.

최초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였으며, 광주지역 남자 2인, 여자 2인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계기홍보 시 스티커 타투부착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광주관광안내센터, 광주역 여행상담센터, 터미널 등에 리플릿과 가이드맵, 홍보전단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였다. 추석을 전후해 3일 동안 전통의상을 입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을 무료입장시키는가 하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이벤트로 야간개장(9월 8시까지 개방, 10월 9시 30분까지 개방), 입장권 특별할인, 특별공연, 전시장 내 북카페 밀레에서 아메리카노 1+1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청춘데이' 이벤트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학생증 제시 시 입장료 특별할인 등을 진행하였다. SNS를 활용하여 '전시 관람 인증샷 이벤트'를 10월말부터 2주간 진행하여 20인에게 온라인 상품권(2만원 선)을 증정했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역주민 특별할인 이벤트와 65세 이상 무료입장 이벤트도 병행하였다.

9월 19일에는 광주·전남 미술교사 워크숍을 갖고 미술교사들의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5. 매체 활용 홍보

광주비엔날레의 역대 홍보매체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인쇄매체, 영상매체, 홍보조형 매체, 인터넷매체가 이에 해당된다.

1995년 제1회 행사부터 2014년 제10회 행사까지 매체별 제작현황을 분석해 보면 인쇄매체의 경우 제4회 광주비엔날레까지는 인쇄홍보물의 숫자는 적은 반면 대량 인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와 반대로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한 반면 예측되는 관람객 수요에 맞게 제작함으로써 인쇄물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작되었다. 대체적으로 리플릿, 전단지, 가이드북, 봉투, 쇼핑백, 홀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상매체의 큰 변화는 2012년도 제9회 광주비엔날레를 들 수 있다. 대체적으로 '홍보영상물, TV광고용 CF, 라디오광고용 CM, TV SPOT'으로 구분되지만 제9회 행사에는 영상물의 전달방식이 공중파나 광고판의 형식만이 아닌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영상물을 노출시키는 효과적인 광고홍보의 방법을 선보였다는 점이다. 광주비엔날레의 현실적 여건이나 효과에 비추어 '라디오 CM, TV 하단광고'는 점차 배제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홍보조형 매체는 광주비엔날레 개최 초기에는 육교현판, 선전탑, 아치, 현수막, 가로등 배너, 애드벌룬, 상징 가로기, 게양기, 홍보탑 등 매우 다양한 종류로 제작되었지만 제5회 행사부터 평균 5~6종류로 점차 그 종류를 축소하여 홍보를 진행하였다. 제8회와 제9회 행사 때에는 스크린도어나 플렉스와 같은 광고방식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인터넷 매체는 제1회 행사부터 제10회 행사까지 주로 한글과 영어 2개 국어로 서비스를 진행해오고 있고 '전시홈페이지'와 '재단홈페이지'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른 큰 변화는 2012년도 제9회 행사부터 2014년도 제10회 행사까지 홈페이지를 이용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사이트를 이용한 홍보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 전시음성 해설 개발에 따른 운영으로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과 웹페이지 개발은 정보기술의 변화에 맞춘 최적의 홍보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인쇄매체

광주비엔날레의 인쇄매체는 행사디자인 통합시스템(EIP)의 개발을 통해 전체 행사의 시각매체에 이를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대회별 행사의 특징을 통일성 있게 담아내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운용하였다.

대회	제작종류 및 수량
제1회	팸플릿 4만6000부, 표어 5만매, 스티커 3만5050매, 포스터 6종 1만8000매 등 5종
제2회	리플릿 27만5000부(국·영·일), 팸플릿 8만8000부(국·영·일), 스티커 10만매(대형 버스용), 포스터 5만1000매, 뉴스레터 4만부 제작(3회), 홍보엽서 3만매 제작(2회), 안내지도 20만부(국·영·일), 상징기 2000여개
제3회	- 행사에서 처음으로 도입 개발한 'EIP'(시각이미지표준안)를 상징이미지로 적용 - 제작물도 개개인 배포중심인 홍보인쇄물과 다중집합지 옥외 홍보조형물, 광고CF와 홍보영상물 등 여러 소재들을 제작·설치·배포
제4회	리플릿, 포스터, 엽서, 팸플릿, 가이드북, 전단 등
제5회	리플릿 1, 2차(국·영·일) 22만4000매, 포스터 4000매, 소식지 신년·봄·여름호 6만부, 전단지 21만6000매, 봉투 5500매, 차량용 스티커 9500매
제6회	리플릿(국·영 혼용) 11만6800매, 포스터(국·영 혼용) 3만1000매, 소식지 1만1000부, 주간 소식지 2만부, 가이드북 16만매
제7회	리플릿(국·영·중·일) 12만1800부, 포스터(국·영 혼용) 3000매, 소식지(봄·여름·겨울호) 1만부, 가이드맵(국·영 혼용) 10만부
제8회	리플릿(국·영·일) 10만600부, 포스터(5종 대·소) 5500매, 쇼핑백 6000개, 홀더 1300, 가이드맵 8만, 특별판 소식지 7000부
제9회	리플릿(국·영·일·중) 12만9000부, 포스터(국·영) 1500매, 가이드맵 9만부, 봉투(대·소) 7000매, 홀더 1500매
제10회	봉투(대·소) 6000매, 리플릿(국·영) 1만매, 홀더 1300개, 쇼핑백 1300개, 가이드북 6만부, 전단지 1만매

2) 영상매체

영상매체는 전시의 성격 및 주제, 일정, 전시 내용 등을 효과적으로 요약 전달하고, 차별화된 영상 연출 기법과 내용구성으로 광고·홍보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목적으로 제작이 추진되었다.

대회	종류	내용
제1회	시민홍보용	개최배경, 행사내용, 준비상황, 기대효과, 시민협조사항
	대외용	행사개요, 행사준비상황, 커미셔너 및 작가소개, 관광안내, 교통숙박 안내
	해외홍보용	비엔날레 개념, 개최목적, 준비상황, 전시내용, 축제행사 내용, 개최지 광주의 역사와 정신, 문화소개 및 주변관광지 소개
제2회	홍보용 VTR	95광주비엔날레 성과, 미리 보는 97광주비엔날레 (5개 소주제별 전시구성 내용), 다채로운 특별전과 부대행사, 주변의 지역문화 관광지 소개, 광주광역시장 인터뷰 등
	TV CF	사전홍보용 : 행사내용 및 특성을 부각 행사기간용 : 가을여행을 주제로 전시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관람객 유치에 중점을 둠 상업광고용 : 97광주비엔날레의 이미지 중심
	다큐멘터리	광주비엔날레의 역사를 기록하여 향 후 행사개최에 참고자료로 활용

대회	종류	내용
제3회	홍보용 VTR	무대를 주요 이미지로 설정하여 200광주비엔날레 주제 및 본전시 소개, 다채로운 특별전과 부대행사, 주변의 자연문화 관광지 소개 등 전체 맥을 유지하면서 간결하고 역동감 있는 내용으로 구성
	TV CF	행사내용을 부각시키고, 국제미술전람회인 광주비엔날레의 특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마임극 형태의 예술성 짙은 내용으로 제작
제4회	TV광고용 CF 라디오광고용 CM 일반 홍보영상물 (Video Tape)	저예산 대비 고효율을 위해 전문업체에 일괄 제작 주문하였고, 방송광고에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관람객 창출에 기여
제5회	TV광고용 CF 라디오광고용 CM 홍보영상물(Video Tape)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를 VHS 및 CD로 제작
제6회	TV CF / 라디오 CM TV하단자막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를 VHS 및 CD로 제작
제7회	TV광고용 CF TV하단 자막	20초 분량은 방송광고 이외에도 광주광역시 시정홍보용 전광판, 전남지방 경찰청 교통안내 전광판, 각급 구청 관할전광판 등에 노출
	라디오광고용 CM	
	홍보영상물 (Video Tape)	DVD, 베타테이프 등 두 종류를 한국어(내레이션, 자막처리)와 영어(자막처리), 중국어(자막처리)와 일본어(자막처리) 등 4개 국어로 제작
제8회	TV광고용 CF TV SPOT 라디오광고용 CM 홍보영상물 (DVD, 동영상파일)	광주광역시와 유관기관, 전국주요대학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용으로 제작, 유튜브(youtube) 등에 업로드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게 제작
제9회	홍보영상물	교육적이거나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 보다는 시선을 끌고 집중도를 높이면서 시선을 끌 수 있는 콘셉트로 제작
	네이버 온라인광고	임팩트 강한 구성으로 주의를 끌게 하고 각 섹션별 전시소개 및 감독소개를 통해서 신뢰도를 높임
10회	홍보 영상 TV CF	명예홍보대사인 배우 정우성을 활용하여 대중적인 관심을 확대 하도록 함 교육적이거나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을 제작하기 보다는 시선을 끌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콘셉트로 제작

3) 홍보조형매체

대회	설치지역	제작물 종류
제1회	광주시가지	육교현판(20개소), 현수막(25개소), 가로등 깃발(가로등 배너/10,000개소)
	서울지역	대형홍보탑(시청광장 1개소), 육교현판(10개소), 현수막(20개소)
	전국 주요 도시	대형홍보탑(부산 10개소, 대구 8개소, 인천 8개소, 대전 8개소, 전주 5개소)
제2회	광주시가지	육교현판(21개), 홍보탑(12개소), 현수막(110개소), 카운트다운 입간판(20개소), 지주이용간판(8개소), 가로등 배너(850조), 아치(11개소), 애드벌룬(12개소)
	전국 주요 도시	전남 육교현판(23개소), 현수막(5개소), 서울지역 홍보탑(2개소), 육교현판(18개소), 전주 육교현판(1개소)

대회	설치지역	제작물 종류
제3회	광주시가지	야립간판, 육교현판, 선전탑, 아치, 현수막, 가로등 배너, 고속도로 전광판과 휴게소 현수막 설치, 언론사·공항 등은 자체 전광판 ※ 수익사업팀의 광고협찬사업과 연계
	광주시 관내 고속도로변, 공항 터미널, 광주역, 주요 교차로	야립간판, 육교현판, 선전탑, 아치, 현수막, 가로등 배너, 고속도로 전광판과 휴게소 현수막 설치, 언론사·공항 등은 자체 전광판 ※ 수익사업팀의 광고협찬사업과 연계
	서울시와 전국 주요도시	홍보탑, 육교현판
제5회	서울지역	홍보탑(6), 육교현수막(20), 애드벌룬(4), 비엔날레기(500), 참가국기(50), 아치(3), 배너기(200), 대형플래카드(4)
	광주지역	홍보탑(2), 육교현판(8)
제6회	서울지역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홍보탑(4), 강남구 양재육교 등에 육교현판(16)
	광주지역	홍보탑(13), 육교현판(40), 애드벌룬(2), 플래카드(50), 참가국기(40), 배너기(1,700), 대형플래카드(2), 기타(전광판)
제7회	서울지역	서울 종로 낙원빌딩 LED광고, 대구 윤암빌딩 LED광고
	광주지역	광주공항, 시청앞광장, 시청사 안 로비, 전남체신청앞, 광산IC-하남산단9번로, 상무주공아파트-서울차체, 신가지구입구-동배마을, 중외공원-운암4거리, 신안3거리-전대입구4거리, 문흥지구입구-무등도서관, 월암마을-종축장입구, 풍암4거리-풍암저수지, 항암교차로-인성고, 용산초교-무등중, 동곡파출소-송정역, 광주시5개구청, 도시철도공사역사, 광주역송정역
제8회	서울지역	여의도 MBC앞 등 홍보탑(4), 서울 고려빌딩, 다보빌딩 전광판(6종), 강남구 능인 육교현판(10종)
	광주지역	홍보탑(4), 육교현판(10), 애드벌룬(2), 플래카드(162), 참가국기(31), 배너기(740), 대형플래카드(1), 플렉스광고(2)
제10회	광주지역	육교현판, 배너기, 현수막, 전광판

4) 인터넷매체

홈페이지, SNS 등 인터넷매체는 광주비엔날레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관람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됐다. 초기 홈페이지는 행사의 취지, 조직과 운영, 전시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 광주를 찾아오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광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정보제공 뿐 아니라 행사기간 중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위는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3회 광주비엔날레에 호남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념광주비엔날레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는 네티즌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창설 10주년을 맞은 5회 광주비엔날레 때는 그 의미를 살려 10년 동안의 행사결과를 모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네티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또 메일링 발송시스템을 구축해 행사소식을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정보전달의 홈페이지에서 소통하는 홈페이지로서 역할을 모색하였다.

인터넷 매체는 대회를 거듭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와 소통의 창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6회 때는 이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었던 검색기능을 강화시켜 원하는 작가나 작품을 직접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9회 때는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지적되었던 해외 접근성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문과 동일한 구조의 영문 사이트를 구축해 해외에서도 행사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SNS와 연동하여 2중 홍보효과를 내는 등 국제적 행사 이미지에 부합하는 해외 접근성을 고려해 UI를 설계 했다. 2014년에는 모바일 웹페이지와 전시음성 해설시스템을 개발하였다.

5) 명예홍보대사

1997년 제 2회 광주비엔날레부터 각계각층의 명망 높은 유명인들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광주비엔날레를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초창기에는 많은 수의 명예홍보위원을 두었고, 해가 갈수록 1~2인 정도의 유명 연예인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또한 초창기에 단순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위촉식 참석 이외에 홍보영상메시지 제작 및 SNS 홍보 등에도 참여하는 등 점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명예홍보대사는 개막식 및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참석, 전시 참여 및 전시 주제 연계 아트 상품 제작, 홍보 영상 메시지 제작 참여, 기타 야구 시구, 팬 사인회, SNS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광주비엔날레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2년부터 광주비엔날레의 명예홍보대사에 톱스타들이 대거 선정되면서 세계 5대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회	성 명	약 력	활동사항
제3회	로버트 할리	전 부산미상공회의소회장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	국내외 연예계 홍보
제4회	고두심	탤런트	'장애인들과 함께 관람하기' 1일 봉사활동 등으로 홍보
	김연자	재일 대중가수	책갈피 등 제작, 일본공연 시 관람객에 배부
	로버트 할리	전 부산미상공회의소회장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	광주비엔날레 소개 등 홍보지원
	린슈썬 (Lin Shu Sen)	중국 廣州市 시장	광주비엔날레 소개 등 홍보지원
	아사노 유코	일본탤런트, 연극배우	광주비엔날레 소개 등 홍보지원
	안성기	영화배우	광주비엔날레 소개 등 홍보지원
	유인촌	연극인, 문광부 장관	행사현장에서 시민과의 만남 통해 비엔날레 관심도 높임
	후지이 하지무	일본 센다이시 시장	광주비엔날레 소개 등 홍보지원
제5회	조영남	대중가수 및 화가	KBS '체험 삶의 현장', '조영남이 만난 사람' 유치 및 일간지 기고
	김미숙	탤런트	KBS라디오 '세상의 모든 음악' 유치 및 진행
	박상원	탤런트	KBS라디오 '세상의 모든 음악' 유치 및 진행
	앙드레 김	디자이너	패션판타지아 개최 및 행사장 방문
	요시다 히로미	예술가	참관단 결성 및 비엔날레 기간 꽃꽂이 전시회
	아사노 유코	일본탤런트, 연극배우	광주비엔날레 소개 등 홍보지원
	김연자	재일 대중가수	광주비엔날레 소개 등 홍보지원
	후지이 하지무	일본 센다이시 시장	광주비엔날레 소개 등 홍보지원
제6회	도올 김용옥	학자	사전홍보이벤트 MBC 신년특집 '도올특강' 개최
	김장훈	가수	D-100 행사 참석 인터뷰 비엔날레 열풍콘서트 개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D-100 행사시 홍보영상물 통한 메시지 비엔날레 개막식 참석 지역 미대생과의 리셉션 개최
제7회	최수종	탤런트	개막식 및 위촉식 참석
	하희라	탤런트	
	장폴로	- 건국대 교수 - 아카데미 사운드 트랙부분 수상 등	
제8회	천정명	영화배우	광주비엔날레 소개 등 홍보지원
	로즈장	재미교포 팝페라 가수	광주비엔날레 소개 등 홍보지원
제9회	이병헌	영화배우	개막전 시민과 함께하는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참석, 개막식 참석
	임수정	영화배우	
	에바 차우	패션디자이너, 미술컬렉터	별도 위촉식 참석, 활동 중 홍보지원
제10회	정우성	영화배우	개막식 참석, 홍보영상물을 통한 영상 메시지 전달, 소속사 운영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 참여

6장

마케팅

광주비엔날레의 마케팅은 입장권 수입뿐 아니라
광주비엔날레를 통한 기업들의 문화적 공헌과
예술 마케팅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왔다.
휘장사업은 세계적 비엔날레로서 광주비엔날레의 가치를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왔고 아트상품 판매사업,
행사장내 임대사업 등도 예술행사의 이미지에 맞는
사업방향과 효과적인 수익 구조를 모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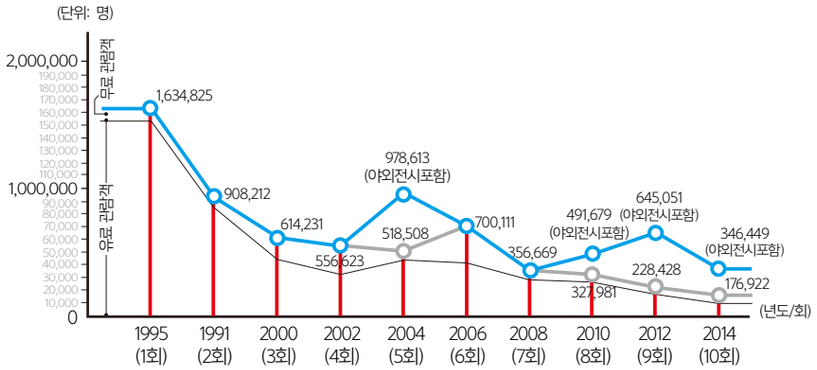
다양한 디자인의 광주비엔날레 역대 입장권들.

1. 관람객 유치

제1회 광주비엔날레의 관람객 수는 163만여 명으로 국제 미술행사로서는 경이로운 실적이었다. 이후 관람객수는 줄어들어 평균 5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1995년에는 대회 창설의 에너지와 대회 성공을 위해 단체관람객 유치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뤄졌고 그런 노력들이 많은 관람객수로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하향추세를 보이면서 단체관람 중심에서 개별, 전문가 관람의 비중이 높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공간이 한정된 실내행사이고 주제에 관한 메시지의 교감이 필요하면서 대형 설치작품이 많아 작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적정관람객을 유치하여야 하면서 한편으로 관람객 수는 마케팅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적정 관객유치와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1회 대회 이후 가장 많은 관람객수(97만8천여 명)를 기록한 2004년 제5회 광주비엔날레는 전시에 대한 호응이 관람객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요한 사례로 여겨진다. 제5회 비엔날레는 세계비엔날레 사상 최초로 관객이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관객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숱한 문화적 담론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현대미술과 관객이 의미 있게 만나는 이른바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비엔날레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시공간도 도시공간 곳곳을 연결하면서 여기에 미술교사 워크숍, 미술교사 현장설명회, 관객유치팀 운영, 단체관람 인솔자 운영, 교장단 협의회 방문 홍보, 전국 시·도 장학사 초청 간담회, 초등학생 관람 편의 제공, 인근지역 먹거리 지도 제작 활용, DM발송 등을 통한 관람객 유치, 전국 시·군·구 방문, 광역시·도청 방문, 학생 관람을 위한 전국 초·중·고교 방문, 광주·전남지역 직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종교단체 및 직능단체 유치 등의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활동을 벌였다.



<역대 광주비엔날레 관람객 변화 추이>

2. 역대 관람객 유치활동

10회 이상의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하게 지속되었다.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관람객 유치 방법과 이에 따른 프로그램도 변화하였다. 일례로 광주비엔날레 초기에는 재단 직원과 광주광역시청 과·계장의 전국적인 시·도청 직접 방문 홍보가 이루어졌으나, 2000년 후반부터 직접 방문 홍보보다는 홍보패키지 DM(우편)발송과 온라인 홍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관람객유치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관람객유치는 곧 입장권 수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익사업 구상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관람객유치 목표 책정은 수익사업 기본계획안 수립 시 이루어지며, 보통 전 행사 목표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2010년도 후반부터는 관람객유치 목표를 전 행사 관람객 유치 실적에 기준을 두어 책정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관람객유치 활동은 앞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대표적인 관람객유치 프로그램을 손꼽자면 공동마케팅 운영, 우편(DM)홍보, 관람객유치팀 운영, 여행사 운영(여행상품 판매), 미술교사워크숍 진행, 단체예약서비스 운영, 단체 사전교육 운영, 야간개장 운영 등이 있다.

공동마케팅은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타 기업(기관)이 함께 홍보 및 상품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호 윈윈(win-win)하는 전략을 마련한다. 부문별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데, 예를 들어 카드 부분에서는 재단은 30% 입장료 할인을 제공하고 카드사는 자체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한다. 특히 신한카드는 '광주비엔날레-신한카드 러브콘서트'를 개최하여 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해 주기도 하였다. 테마파크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광주비엔날레-광주패밀리랜드 패키지 입장권을 들 수 있는데, 상호 입장요금이 할인된 통합 입장권을 제작·판매함에 따라 단체관람객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광주비엔날레와 광주패밀리랜드에 입장할 수 있다. 이처럼 공동마케팅은 참여 기업과 협의에 따라 그 확장 범위가 무한히 넓어질 수 있으므로 관람객유치 사업의 핵심프로그램 중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관람객유치팀은 2인 1팀이 되어 총 2팀이 전국 주요 학교와 미술관련 단체를 방문하여 홍보 및 단체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매년 초 관람객유치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람객유치팀을 선발 후, 방문할 학교와 단체를 리서치하고 확정한다. 주로 수도권과 광주·전남권 초중고등학교와 미술관련 학과(대학교, 대학원)를 집중 방문하여 학교장 혹은 학과장과 같은 결정권자를 만나 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하고 단체관람을 권유한다.

이와 같은 홍보활동에 필요한 홍보물을 포함하여 입장요금과 공동마케팅 협약 내용 등을 담은 DM패키지를 제작하고 이를 전국 주요학교에 발송한다. 광주·전남권 미술교사를 초청하여 행사 소개와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교사들이 학교에서 광주비엔날레 관람을 유도하게 하고 있으며, 단체 관람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단체예약은 기존 전화예약에서 탈피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예약을 할 수 있게 구축하였으며, 실시간으로 일별 단체예약 수를 제공함에 따라 특정일에 단체관람이 몰리는 현상을 많이 해소하였고 쾌적한 관람을 유도할 수 있었다.

공식지정여행사를 선정하여 전국적인 관람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특히 여행사와 협력을 통하여 전남권 주요 관광지와 광주비엔날레를 묶은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철도공사 광주지부와 함께 광주비엔날레-KTX 상품을 운영하여 수도권 관람객 층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 2014년부터 시작된 야간 개장은 시간적 제약이 큰 직장인과 같은 유료관람객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야간개장 시 작은 콘서트와 이벤트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이외에도 셔틀버스 운영,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해외관람객유치 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단체관람객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재단은 광주·전남교육청과 MOU를 통하여 학사일정에 광주비엔날레 관람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학생단체 유치도 힘쓰고 있다.

행사 때마다 야외 전시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으며, 야외 전시장의 장소와 규모가 달라짐에 따라 전체 관람객 집계의 편차가 컸다. 안타까운 점은 행사가 거듭할수록 유료관람객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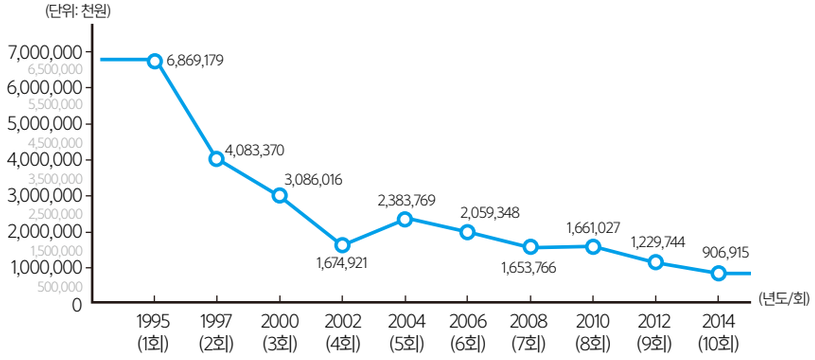
는 점이다.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주비엔날레를 벤치마킹한 비엔날레는 물론 다양한 축제들을 주관하면서 관람객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부터 시작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로 인해 광주에서 역시 매년 비엔날레가 개최됨에 따라 관람객 분산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비엔날레 충성고객 및 마니아층의 꾸준한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람객 유치 노력을 계속하며, 특히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함에 따라 문화전당과 함께 상호 입장권패키지 개발 등 외지 방문객을 확보하는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수익사업

1) 입장권 판매

입장권 수익은 관람객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추세를 보였다. 제1회 68억6천여만원이었던 것이 제10회에는 9억여원으로 약 7.5배 하락하였다. 입장권 판매수익의 급격한 하락요인은 학교나 단체관람보다는 가족 단위나 미술 분야의 전문가 단위로 관람층의 성향이 변화되면서 그 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의 입장권 판매 중 유관기관의 인적판매 시스템에 의지했던 부분이 파견공무원 감소, 공동 주최자인 광주시를 비롯 유관기관 부담 완화 요구 등으로 인해 쉽지 않게 된 것도 실적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역대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수익 현황>

(1) 제1회 입장권 판매

30인 이상 단체관람객을 위해서는 일·공휴일을 제외한 주말과 평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반단체할인입장권을 별도로 제작하였다. 학생단체입장권 역시 일·공휴일을 제외한 주말과 평일에 학생 30인 이상을 교사가 인솔한 경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벽지학교 등 전체 학생수가 30인 미만의 학교에서는 단체적용기준인 30인 미만의 학생으로 단체입장할 수 있는 학교단체할인요금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행사 전 기간 동안 회장 수시관람을 희망하는 경우를 위하여 전 기간 통용입장권을 제작하였다.

입장권 판매 결과, 1995년 11월 20일까지 예매판매를 포함하여 총 152만 5345매를 판매했고 입장객은 어른 78만 207명(51.1%), 청소년 48만 4663명(31.7%), 어린이 26만 4475명(17.3%)으로, 어른 입장객은 당초 목표인 30%를 훨씬 초과했다. 청소년과 어린이 입장객은 당초목표 70%에 미달하는 49%에 그쳤으나 판매수익금은 어른 입장객의 증가로 인하여 당초목표액 35억원 대비 36억5539만5000원 초과한 68억6917만9000원(대행 및 판매수수료 제외)으로 목표액 대비 204%로 조기에 목표액을 달성했다.

(2) 제2회 입장권 판매

1996년 9월 97광주비엔날레 입장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국민적인 참여도를 높이고 입장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사전판매 수익의 확보를 위한 판매절차 간소화와 판매조직망을 확대하여 사전예매제를 적극 지향하였다. 아울러 관람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하여 비엔날레를 관람토록 알선한 여행사에 대하여 실질적 보상을 함으로써 외국인 관람객을 적극 유치하고, 입장객 편의도모와 입장객 분산을 위해 입장권 1매로 모든 전시관을 관람토록 하였다. 이와함께 입장권 보내기 운동을 실시하여 국내·외 친지에게 광주 방문을 권유하였다.

입장권 판매 결과, 1997년 11월 27일까지 예매판매를 포함하여 총 85만 1958매를 판매하였고 40억 8337만원(대행 및 판매수수료 제외)의 판매수입을 올렸다. 입장권 판매내용별로는 어른 35만 5938명(42%), 청소년 30만 2290명(35%), 어린이 19만 3730명(23%)으로 어른 입장객은 당초 목표액 50%에는 못미쳤으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요가 늘어났다.

(3) 제3회 입장권 판매

제3회 행사 역시 입장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판매 수익의 확보를 위한 판매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판매조직망을 확대하여 사전예매제를 적극 시행하였다. 범국민적 참여도를 높이고 입장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총 30억8601만6000원(대행 및 판매수수료 제외)의 입장권 판매 수입을 올렸다. 입장권 판매 내용은 어른 23만 4392매(52%) 21억6575만1000원(68%), 청소년 10만 6112매(23%) 6억4683만2,000원(20%), 어린이 11만 1,721매(25%) 3억5779만8000원(12%)으로 집계되었다.

(4) 제4회 입장권 판매

판매절차 간소화와 판매조직망 확대를 통한 사전예매제 등 통상적인 판촉활동과 더불어 범국민적 입장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학생단체 관람을 위한 단체수송용 차량제공 요구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31만 8470매를 판매하여 16억7492만1000원(대행 및 판매수수료 제외)의 입장권 판매 수입을 올렸다. 당초 목표액 20억원에 86.5% 근접한 성과다. 입장권 판매비를 살펴보면 청소년과 어린이의 입장권 구입 점유율이 54%를 차지했고 본 판매는 71%인 12억2700만원을 기록했다.

(5) 제5회 입장권 판매

입장권 판매 대행기관인 광주은행의 본점 및 전국 110개 지점에서 판매하였으며, 행사기간 중 현장판매는 국내 최대 전문티켓발매 서비스 회사인 (주)티켓링크가 매표소별 발권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입장권 예매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임직원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전남 전북 지역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직 학교장과 교육위원 출신으로 구성된 2개 팀 4명을 입장권 특별판매팀으로 조직하여 학교 유치활동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4회 대비 28일이나 단축된 개최기간과 유치원생의 무료관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장권은 예매권을 포함 41만 7083매 판매에 23억8376만9000원(대행 및 판매수수료 제외)의 수입으로 당초 목표

액 18억3000만원 대비 133.8%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사전 입장권 예매는 20만 761매 판매에 13억2,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본 판매는 45.7%인 11억1900만원을 기록했다. 입장권 판매구성비에서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점유율이 50.4%를 차지했지만, 수입 규모가 전체 53.9%로 전기 32% 대비 21.9% 증가한 것은 일반 예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판단된다.

(6) 제6회 입장권 판매

입장권 사업은 관람객 유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매권 판매 및 홍보에 주력하였다. 제5회 대회와는 달리 유치원생(만 4~6세)의 입장요금 및 4인 기준의 가족입장권을 신설하여 관람객 저변 확대 및 가족단위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입장료 수입은 예매권 판매에서 17만 477매를 판매하여 11억93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전체 입장권은 예매권을 포함 41만 6591매를 판매하여 20억5934만8000원(대행 및 판매수수료 제외)의 실적을 올렸다. 본 판매는 전체 수입대비 44.1%인 9억3800만원을 기록했다.

(7) 제7회 입장권 판매

관람객 유치를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매권 판매 및 홍보에 주력하였다. 입장료는 제6회 대회와 동일한 요금체계로 운영하되 대인시장을 제외한 4개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는 통합입장권으로 운영하였다. 유치원생 입장료가 삭제되고 전체적으로 제6회 광주비엔날레와 동일하게 운영하였다. 행사기간 중 입장권 판매는 3개 전시장소(중외공원내, 의재미술관, 광주극장)와 패밀리랜드 등에서 이루어졌고, 본 판매 입장권의 전체 실적은 16만 1823매, 7억6800만원이었다. 중외공원내는 15만 9193매, 7억2900만원을, 의재미술관은 787매, 600만원, 광주극장은 32매, 35만원, 패밀리랜드는 1256매, 400만원, 기타 555매, 2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전체입장권은 예매권을 포함 29만 1870매를 판매하여 16억5376만6000원(대행 및 판매수수료 제외)의 실적을 올렸고 이중 예매입장권과 본판매입장권의 판매매수 비율은 45:55이며 판매금액 비율은 55:45로 나타났다.

(8) 제8회 입장권 판매

입장권 사업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매권 판매 및 유관업체들과 공동마케팅 등 홍보에 주력하였다. 입장료는 중외공원 내부 전시에 대해 유료전시로 운영하였으며, 중외공원 외부 전시는 무료전시로 운영하였다. 행사기간 중 현장판매는 중외공원 전시장소에서 이루어지고 패밀리랜드, 금호고속, 광주은행 각 점포, 온라인상 티켓링크 등에서 이루어졌다. 전체 입장권은 예매권 판매와 행사기간 중 교환분을 포함해, 29만 4290매를 판매하여 16억6102만7000원(대행 및 판매수수료 제외)의 실적을 올렸다. 예매권 판매는 7회 대회의 판매실적 13만 130매, 9억5300만원보다 상향된 14만 438매, 10억59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본 판매 입장권의 전체 실적은 15만 1524매, 6억5700만원의 실적을 거뒀다. 장소별 입장권 판매실적은 중외공원 내 14만 8433매, 6억4000만원을, 패밀리랜드는 1985매, 600만원, 기타 1106매, 1100만원 등이다.

(9) 제9회 입장권 판매

예매 및 본판매 입장권 판매활동에 역점을 두었고, 입장권 판매는 국내 입장권 전문 판매업체인 맥스무비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9회 대회 전체 입장권은 예매권 판매와 행사기간 중 교환분을 포함, 19만 3371매를 판매하여 12억2974만4000원(대행 및 판매수수료 제외)의 실적을 올렸다. 예매입장권 판매는 8회 행사의 판매실적 14만 438매, 10억5900만원보다 하향된 7만 1177매, 5억6692만7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본 판매 입장권의 전체 실적은 12만 5123매, 6억5700만원으로 중외공원 내 11만 7921매, 수수료를 포함한 6억7700만원을, 티켓링크 온라인 판매는 404매로 수수료를 포한한 4800만원, 광주은행 지점판매는 109매로 1300만원을, 패밀리랜드는 5372매, 1200만원, 기타 1317매, 13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10) 제10회 입장권 판매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처음 시도되어 호평을 받은 온라인 입장권 판매(스마틱스 협력)과 OK캐쉬백 포인트 차감 할인을 지속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특히 처음 도입된 예매입장권 발권 시스템으로 기존 계좌이체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예매입장권을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제, 무통장입금 등의 결제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점이 달라진 판매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입장권이 판매됨에 따라 검표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QR코드를 제시하고 입장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매표소에서 본판매권으로 교환하여 입장하였다. 입장권 판매 실적은 9회 대회보다 4만 7500명이 줄어든 14만 8726명이 관람하였고 입장권 수입은 9억691만5000원(대행 및 판매수수료 제외)으로 제9회 대회보다 2억4400만원 줄어들었다. 예매입장권은 5만 8000매(3억7500만원), 본판매권은 9만 매(6억1100만원)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광주비엔날레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관람객수	유료 관람객수(%)	무료관람객수(%)	비 고
제1회	1,634,825	1,525,345(93%)	109,480(7%)	
제2회	908,212	851,958(93%)	56,254(7%)	
제3회	614,231	452,225(73%)	162,006(27%)	
제4회	556,623	318,470(57%)	238,153(43%)	
제5회	518,508	417,083(80%)	101,425(20%)	978,613(야외포함)
제6회	700,111	416,591(59%)	283,520(41%)	
제7회	356,669	291,870(81%)	64,799(19%)	
제8회	327,981	294,290(89%)	33,691(11%)	491,679(야외포함)
제9회	228,428	193,371(85%)	35,057(15%)	645,051(야외포함)
제10회	176,922	148,726(84%)	28,196(16%)	346,449(야외포함)

2) 휘장사업

휘장사업은 단순한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업체는 광주비엔날레에 물품, 용역, 현금 등을 제공하고 대신 공식마크, 로고,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기업의 마케팅, 광고, 상품 홍보와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휘장사업은 품목별로 적정시기를 선택하여 추진하는데 유사제품의 권리상충을 방지하고 적정업체가 참여하도록, 소재와 제조공정이 유사한 품목을 적절하게 그룹화하여 추진해왔다. 광주비엔날레는 휘장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문광고, 품목별 대상업체에 대한 안내서 발송, 참여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다.

초기에 성격별로 구분되었던 휘장사업 분야는 공식후원자, 공식상품화권자, 공식공급자로 구분되었으나, 광주비엔날레 행사가 거듭 할수록 이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이 구분들은 휘장사업보다 더 큰 범위인 공식후원사로 통합 되었으며, 기존 휘장사업을 강화하여 공식후원사 유치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014

년에는 재단 최초로 마케팅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신규 후원 유치 관련 자문을 받았다. 또한 광고 등으로 후원기업을 유치하던 방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직접 마케팅의 노력을 기울였다. 체계적인 후원유치를 위해 마케팅 소책자를 제작하고 후원 시 재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 및 홍보 효과 등을 알리는 한편 더불어 기업별로 맞춤후원제안서와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휘장사업은 보통 상반기인 3월 및 4월에 세부시행계획과 공식후원은행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제안 모집을 실시했다. 역대 비엔날레 행사 참여기업에 대한 직접 방문과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지역연고기업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을 통해 사업을 소개했다. 역대 행사를 지원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했고 (주)광주은행, (주)광주신세계, 벽산엔지니어링, 프리마호텔, 금호,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포스코, 대한항공, 현대건설, 롯데쇼핑(주), LG전자, SK텔레콤, KT, 한국전력공사 등이 여러 차례 후원에 참여하였다. 역대 대회 중 3회 대회의 실적이 가장 우수해 총 29억3100만원의 후원금이 모아졌다. 광주은행, 금호아시아나, 광주신세계 등은 1회부터 10회까지 꾸준히 광주비엔날레에 후원·협찬을 해주는 등 문화·예술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광주은행은 입장권 판매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왔다.

초창기에는 후반기보다 많은 후원을 유치하기는 했으나, 매회 어려움이 있었다. 1997년 대회 당시에도 국내경기침체와 지역 중소기업 부도발생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최선을 다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다. 공식상품화권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의 업체가 손실을 감수하거나 기대수익에 못 미쳤음에도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2000년 행사에서는 수익사업을 위한 특판팀을 가동하여 1, 2회 대회 협찬처 외의 신규 협찬처와 공기업의 후원을 개척함으로써 차기대회의 수익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2년 행사 당시에는 공식후원자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기업의 날'을 지정하여 임직원 무료관람과 기업인과 관람객이 하나 되는 비엔날레 즐기기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 (주)진로에서는 매주 토·일요일에는 관람객이 참여하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공식공급자였던 보해양조(주)는 지속적으로 주류를 지원해주었고, 한국코카콜라, 한국후지필름(주)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휘장사용 상품의 경우 초반에는 20~30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품목의 기념품이 선보였다. 하지만 2002년 대회 이후에는 행사장 내의 기념품 판매가 저조해 새로운 사업방식으로의 개선 등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상품화권자 분야는 없어지고 공식후원자와 공식공급자 분야만 운영되었다.

2012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건설사의 재정 악화, 기업의 합병, 여수세계엑스포로 인한 후원유치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과 지역의 경기불황으로 참여업체가 대폭 감소하였다.

2014년에는 재단 최초로 휘장사업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문화예술기관의 후원기업 유치 전략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스폰서십 팩을 구성하여 프레스티지(5억원 이상), 프리미어(2억원 이상), 골드(1억원 이상), 실버(1억원 미만)의 4등급으로 차등 구분하여 특화권리를 제공함을 명시하였다.

신규 후원 유치에서 어려운 점은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미술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이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광주비엔날레를 지역 축제로 분류하고 본사에서 검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역 축제의 이미지를 넘어 글로벌 행사의 이미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리고 및 세계적 마케팅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또 기업 담당자들의 비엔날레 현장에서의 기업 활동 요청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맞춤화 권리를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3) 판매사업

대회 초반에는 주로 도록과 아트상품, 포스터, 기념엽서 등을 판매하며 수익을 냈다.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안내 책자도 판매하였으며, 기타 출판업계에서 위탁판매를 진행함으로써 수익창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재고 도록 판매도 꾸준히 이뤄졌다.

제1회의 경우 도록은 종류별로 4개종을 본전시관과 시립미술관 아트숍에 위탁하여 판매하고, 아트포스터, 기념엽서, 남도기행 CD-ROM, '그곳에 가봤으면' 전남권 관광안내책자, 기타 관광안내 소책자 등도 함께 판매하였다. 제2회에는 목표판매액을 3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공식기념품 판매사업이 휘장사업으로 포함되고 여러 품목의 제작판매가 취소되어 전반적으로 판매실적이 부진해 목표액대비 67%의 실적을 거두는 데 그쳤다. 제3회 때는 1·2회 대회 중 수익사업팀 재고잔량을 활용 기존 판매가격의 50% 할인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수익 사업팀에서 행사장내 비엔날레관 로비 아트숍, 교육홍보관 로비 아트숍, 시립미술관 로비 아트숍, 도서전시장, 비엔날레전시관 안내데스크를 통해 판매하였다.

또한 학문당, 사랑방문고, 아트타운예술도서, 이태리 밀라노 에이플러스엠북스토어(A+Mbookstore), 일본 동경 마이북 서비스(mybook service inc.) 등의 행사장외 위탁판매를 추진하였고 비엔날레 홈페이지를 이용한 우편판매를 실시하고, 2000 비엔날레전시 참여작가를 대상으로 할인판매를 하였다.

제4회 대회 기간에는 본 전시도록 5종과 1~2회 도록류에 50% 할인판매 가격을 책정해 행사장안, 비엔날레관 로비, 기념품판매점, 도서전시장, 비엔날레전시관 안내데스크, 프로젝트3, 4 전시장을 통해 판매하였다.

행사장 밖에서는 비엔날레 도록 제작 제휴업체인 정디자인에서 국내서점 영업망을 구축, 해외 유통업체와의 위탁판매,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향의 판매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도록의 경우, 출고가 늦어져 정상적인 판매가 되지 않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저조하였다.

제5회의 경우 본 전시 도록과 작품해설집을 주로 판매하였으며, 1~4회 재고도록은 50% 할인가로 비엔날레관 로비, 기념품판매점, 도서판매점, 비엔날레전시관, 현장3(5·18자유공원)에서 판매하였다. 그 결과 행사장 내에서 주제전 1095권 2712만원, 현장들 421권 753만원, 작품해설집 7988권 2396만4000원, 1~4회 재고 도록 302권 362만9000원 어치를 판매하여 총 6224만3000원의 판매수입을 달성하였다.

제6회 대회 판매사업은 2006광주비엔날레 전시도록 3종을 주로 판매하였으며, 제1회 대회부터 제5회 대회까지의 재고 도록 18종은 50%~80% 할인가로 기념품판매점과 도서판매점을 통해 판매하였다.

제7회 때는 도록 608권 1960만7000원, 전시해설서 2056권, 823만5000원과 지난 대회 재고도록 347권 225만5000원을 판매하여 총 3011권 3009만7000원의 판매수입 달성하였다.

직영 기념품점의 기념품 판매는 금년도 상설홍보관 개관에 맞추어 상설기념품점을 직영으로 약 4개월 운영하면서 15만9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판매하였고 이후에는 위탁으로 전환하였다.

제8회 대회에 행사기간 중에 도록 665권 2415만4000원, 전시해설서 2160권, 692만3000원과 지난 대회 재고도록 239권 348만4000원을 판매하여 총 3064권 3456만1000원의 판매수입을 거두었다. 2010광주비엔날레 행사개최 이전 판매분 157만원을 합산하면 총 3613만1000원의 판매수입을 올려서 판매사업 목표액 3500만원보다 113만1000원 초과하는 등 큰 실적이 있었다.

2010년의 경우 전시도록과 해설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별도 제작하고 판매용 영문 도록 수량을 적게 배정하여 행사 초기에 영문도록이 품절되었다.

2012년에는 광주비엔날레 당해연도 도록을 포함한 역대 도록들이 총 1741권이 판매되었다. 괄목할만한 성과는 (주)밀레21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비엔날레 도록을 유통시켰다는 점이다. (주)밀레21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과 덕수궁관의 아트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곳에 광주비엔날레 도록을 비치함으로써 서

울과 수도권 관람객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0회 대회 도록은 도록 2종(국·영문)과 전시해설서 2종(국·영문)의 저작물로 구성되어 제작되었다. 판매는 크게 자체판매와 위탁판매로 추진하였고 자체판매는 재단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주문을 받아 우편판매로 시행하였다.

주된 위탁판매 판로는 '밀레21'이었으며 밀레21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내 위치한 북카페와 출구 쪽에 별도 기념품숍을 운영하여 관람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기념품숍을 지나가도록 하였다.

기존 판매사업은 주로 도록판매 위주였으나, 2014년에는 이동식 키오스크를 제작하여 임대료를 받고, 먹거리 사업을 진행했다. 라프레스코 및 밀레21에서 참여하였고, 평소 먹거리가 제공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다양하지만 먹기에 번거롭지 않은 메뉴를 선정하여 각 업체에서 판매하였다. 츄러스, 소시지, 핫도그, 음료수 등을 판매하였고 학생 관람객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이 사업은 최종 정산을 판매수익으로 하였으나 임대사업의 성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임대사업으로 편입하거나, 자체판매를 통한 판매사업으로 그 성격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4) 임대사업

영업시설 임대사업은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재단의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비엔날레는 매년 초 판매품목 및 임대방법 등을 포함하는 임대사업 기본(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임차인을 모집하였다. 북구청에 행사기간 중 임시가설물 축조신고와 더불어 시립미술관에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였다.

임대부적격자 참여, 음식의 질 저하, 바가지요금 책정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영업시설별 판매품목을 지정하고, 우수업소 유치를 위해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유치하였다. 영업 참가자들에 대한 참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토대로 한 부지사용료, 실 건축비, 위치별로 집객요인의 다소를 가늠하여 위치별로 영업권을 차등화하였다. 또한,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는 영업자가 득하여 안전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임대시설은 크게 레스토랑, 페스트푸드점, 팝업스토어, 비어펍, 음료자판기 등의 식음시설과 기념품숍, 공예품점 등의 판매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초기 45~66개의 영업시설(점포수 기준)을 임대하였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영업시설 수보다 운영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느끼고 영업시설의 고급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사업을 지속 운영한 결과 수익성과 관람객 편익은 공존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관람객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영업시설을 감축하였다. 영업시설 감축은 행사 초기 중외공원의 전반을 임대시설 공간으로 책정했던 것과는 달리 점진적으로 임대시설 공간이 전시관 주변으로 한정돼 사용공간이 줄어든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4~5개의 영업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외부 부스형태(노상시설)를 탈피하여 건물 임대 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였다. 전시관람 시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관 안으로 임대시설이 들어 갈 수는 없었으나, 별도의 외부 공간이 아닌 전시관 외부의 일부를 임대시설로 할애하였다.

2014년 10회 때는 전시관 입구에 소형 도록판매대를, 출구에는 기념품숍을 임대 운영하였다. 아울러 2012년 9회 광주비엔날레까지 운영되었던 컨테이너 패스트푸드점은 소형 팝업스토어로 변형·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비엔날레에 어울리는 격 있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대영업시설 수를 감축함에 따라 임대수익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잦은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행정적 낭비가 줄어들었으며 임대업체 관리가 원활하게 되었다.

임대시설의 업종 변화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진행되었다. 광주비엔날레 초기에는 외부 부스형태가 집중되었으나 2004년 비엔날레 제5 전시관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할애하여 북카페를 운영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임대형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제안심사를 거쳐 재단은 2011년 7월 17일 (주)밀레21을 임차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밀레21은 코엑스몰 복합문화공간의 코엑스밀레21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과천관)의 아트숍을 운영한 노하우를 살려 광주비엔날레 아트숍 & 북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디자인비엔날레를 거치면서 임대시설도 디자인적으로 한층 발전되었으며, 2011년에는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사무동 1층과 지하1층 임대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외부 부스임대(공간임대)에서 건물(시설)임대로 주력 임대형태가 변화되었다.

2012년 8월부터 라프레스코는 재단 사무동(제문헌) 1층 일부와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있다. 라프레스코는 1층은 레스토랑과 지하 1층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소규모 전시회도 개최한다.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 때문에 주요 인사가 재단을 방문할 경우 맞이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재단은 임대시설은 지속적으로 줄여 최소한의 그리고 고효율 임대시설만을 유지해왔다. 다수의 임대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핵심 임대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관람객 편의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임대수입은 초기 비엔날레 임대수입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최근 5번의 행사 평균 5,9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다.

임대수익은 총 수익사업 대비(기부금 제외) 약 5%를 차지하여 수익사업 중 큰 비중은 아니지만 수익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고정됨에 따라 임대수익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임대사업은 후원유치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재단에 후원하는 후원사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행사장 일부를 무상 사용하도록 한 때문이다. 이는 후원유치를 강화하면 임대사업이 약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임대사업을 강화하면 후원기업에게 제공할 메리트가 약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기존 영업시설과 후원사 품목이 겹쳐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

광주비엔날레 임대시설

대회	합계	식음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	자판기 운영
제1회	66	48	14	4	
제2회	40	27	13		44
제3회	17	14	3		22
제4회	17	6	6	5	20
제5회	17	7	6	4	10
제6회	14	4	5	5	10
제7회	10	4	4	2	
제8회	5	3	2		
제9회	4	3	1		
제10회	6	2	2	2	팝업스토어 운영

5)광고사업

광고사업은 기금용(수익성)광고와 홍보용(홍보성)광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금용(수익성)광고는 옥상간판, 지주이용, 벽면이용, 현수막걸이 등으로 1995년부터 계약되어 있는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에 따른 연장계약과 신규계약을 말한다. 홍보용 광고는 선전탑, 아치, 육교현판, 비엔날레기, 폴 배너, 애드벌룬, 비행선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광고사업이 수익사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옥외광고의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제가 엄격하여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광주비엔날레에서는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광고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장이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광고물의 표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 수량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별 장소와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광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했다. 추후에는 관계법이 엄격해짐에 따라 7회 대회인 2008년까지 광고사업을 진행하였고 2010년 대회부터는 재단 홍보예산으로 가로등 배너, 현수막 등의 단순 옥외광고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창설 때부터 광고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추진되어 왔고 광주비엔날레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광고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광고주 유치가 쉽지 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1회 대회기간 광고수익사업으로 5억3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1997년 1월경 중앙과 지방 주요일간지를 통하여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의식을 높여 줄 옥외광고 사업제안과 대행사업자를 전국적으로 공고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997년에는 1995년도 설치 추진한 광고물 중 지주이용간판 8개소의 광고표시 비율은 계약서 규정에 따라 광고물에는 상업광고 1/4, 공익광고 3/4의 비율로 교체 표시하였다.

당초 계획은 옥외광고, 행사장내 광고, 기타 부대광고로 분류하였으나 사업추진 편의상 기금조성용과 홍보와 축제분위기 조성용으로 구분하였으며 국내경기 불황과 기업부도여파 등으로 광고시장이 위축되어 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2000년 및 2002년의 경우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서울과 광주시에 선전탑, 아치 등 8종 2317개의 홍보물을 설치하여 1억7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지주이용 광고 12개소는 비엔날레 행사 중점 홍보화면으로 이용하였고, 개막일에는 무인비행선을 띄워 홍보했다. 광고사업용으로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 도로인 전남대 사거리부터 신안교 사이에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0개를 협찬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홍보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보였다.

2004년 5회 대회 당시 당초 사업목표액은 5억원이었으나 장기간 광고주가 유치되지 않은 옥상간판 3개소에 대한 재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고물의 난립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엄격한 광고물관련법규준수로 신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광고사업의 목표액에 미달하였다.

그리고 다시 2004년 3월에 계약한 홍보와 축제분위기 조성용 광고물 설치는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외 허가기관의 승인과 유관기관에 대한 장소사용 협조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설치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2009년 9월 30일 이후 비엔날레 광고물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광고물 연장불허방침에 따라 2008년에 만료되는 옥상광고 2건(한국시멘트빌딩, 데이콤빌딩)의 계약이 자사광고라는 사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목표액이 미달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광주비엔날레 광고 사업은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관계법령상 설치가 불허된 지역과 표시방법 등을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고시를 통하여 완화고시를 받은 광고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자체가 제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광고사업은 광주비엔날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나 2009년 9월 30일 이후 광고사업 연장 불허로 중단되었다.

대회	기금용 광고 수익			홍보용 광고 수익
	옥상간판	지주 이용	기타 광고물	
제1회	384,000,000원	121,000,000원	530,000,000원	-
제2회	187,670,000원	84,000,000원	20,010,000원	44,930,000원
제3회	372,970,000원	106,000,000원	14,000,000원	22,500,000원
제4회			531,000,000원	172,000,000원
제5회			-	413,982,000원
제6회			440,000,000원	-
제7회			406,000,000원	-

7장

행사장 운영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출발과 성장에는 많은 이들의 노고와 참여가 있었다.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는 광주비엔날레는 전문인, 공무원,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행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재단직원, 광주시청 파견공무원(광주 시립미술관 겸직 포함) 등만으로는 대규모의 행사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 전시도우미, 도슨트 제도를 활용하고, 운영요원·안전요원· 기타 한시인력 등을 활용해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였다.

1. 운영인력과 전시안내

1) 공무원과 시민들의 화음

163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제1회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약 400여 명이 넘는 재단직원과 광주광역시 파견 공무원, 이 외에도 전시도우미 등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도 400여 명이 넘게 참여하였다. 경찰, 공무원 등을 포함한 기타 인력도 300여 명에 육박해 행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도왔다. 1997년 제2회와 2000년 제3회 행사까지는 총 참여인력이 800여 명에 달했지만 파견 공무원 수가 급감한 2002년 4회 이후부터는 그간 대회를 통해 축적된 인력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줄어든 인력으로 대회를 치러낼 수 있었다.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사전 수요조사와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통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제8회부터는 평균적으로 200여 명이 조금 넘는 인력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 운영과 도슨트 제도 등을 강화해 효율적이면서 편의성을 높이는 대회 운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인력의 적극적인 파견은 초기 광주비엔날레 운영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됐다. 광주광역시에서는 1995년, 1997년, 2000년에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71만평의 넓은 행사장 운영과 효율적인 회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지구별로 지구책임관과 부책임관 그리고 각 구역별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각 구역은 시구지원공무원이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다. 지구책임관으로는 시청 계장급 공무원이, 지구 내 운영의 총괄관리를 하고 지구부책임관은 시지원 6급 공무원으로 지구책임관을 보좌하며 각 구역별 책임관은 근무지별 현장업무에 책임을 수행토록 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에서 '광주비엔날레 지원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상황실은 각 지원부서별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갔다. 광주비엔날레에 파견 공무원 숫자가 점차 감소하여서 행사장 운영의 어려움이 다소 있었지만 지원상황실이 시와 재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원활한 운영을 이끌었다.

당시 각 부서별 주요 지원업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과는 입장권 예매 지원,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지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119구조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각 구청에서는 가로환경정비와 관람객 유치홍보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관내 소관인 북구청에서는 매주 1회 이상 행사장 일원 방역소독과 교통 질서유지에 협조하였다.

광주비엔날레 운용인력 비교

(단위 : 명)

구 분	계	재단직원	공무원	자원 봉사자	전시 도우미	일용 및 한시	기타 (구급 등)
제1회	1,122	37	387	353	24	51	270
제2회	895	34	210	341	96	130	84
제3회	846	35	121	456	74	50	110
제4회	504	22	65	300	41	22	54
제5회	365	20	49	200	62	22	12
제6회	327	23	37	128	105	22	12
제7회	305	17	20	160	75	23	10
제8회	250	18	13	110	80	19	10
제9회	228	20	13	100	75	10	10
제10회	217	23	12	90	75	12	5

2) 자원봉사자

광주비엔날레의 역사를 만든 이면의 주역들은 자원봉사자들이다. 광주비엔날레는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만들고 부족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첫 대회부터 자원봉사자제를 운영했다.

자원봉사자는 만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주한 외국인으로서 최소 1개월 이상 전시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모집·선발하였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TV 자막방송 및 일간지 공고 등 대중매체 홍보, 시 및 자치구 등 유관기관, 대학, 민간 시민단체 홍보를 통해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를 폭넓게 모집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광주비엔날레 행사기간 동안 활동하였던 자원봉사자는 총 2238명으로 제4회 행사 때까지는 30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였고 제5회 이후 200여명, 그 후에는 약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운용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부족인력 해소와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역안내, 회장운영, 홍보, 축제, 전시행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으며 단계별 절차(서류심사, 교육, 면접)를 통한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였다.

최종 선발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광주비엔날레 전시소개 등 전시관련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김미희 ㈜하이마트 친절강사, 금은희 문화강좌 강사 등을 초청해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고객감동훈련, 인사예절, 친절봉사 등을 내용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응급처치 등 소방안전교육과 개별 임무부여를 통한 참가 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3) 도슨트 제도 운영

도슨트 제도는 전문적인 전시 해설과 전시장 안내로 관람객들에게 뜻 깊은 관람체험을 제공하는 광주비엔날레의 대표적 관객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도슨트 제도는 제4회 행사 기간에 문화자원봉사 제도로 실시된 시범사업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광주·전남 미술관련 대학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학과장 간담회에서 추천받은 13명이 관람객들에게 전시작품 해설을 하였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이후 행사부터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제5회부터는 도슨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전시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도를 높이는 관람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일반관람객, 학생단체, 외국인 및 주요 인사 안내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제6회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일반관람객, 학생단체, 그리고 광주여대 유아교육과와 아동미술학과 산학협력 도슨트인 유아 도슨트를 두어 유치원 단체 관람 시 눈높이 전시해설을 하기도 하였다. 제7회 광주비엔날레 행사기간에는 30분 단위로 일반관람객들을 위한 일반 도슨트, VIP를 위한 시니어 도슨트, 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도슨트 등으로 도슨트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였으나, 제8회 광주비엔날레 행사기간부터 전시부문 예산 동결로 도슨트 인원수를 줄여감에 따라 정기해설과 예약으로 진행되는 도슨트 해설로 진행되어왔다.

도슨트 제도는 회를 거듭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미술관련 전문인력 양성 코스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역거주 작가, 미술교사, 미술관계자· 애호가들의 참여가 활발했고, 타 미술관 도슨트 양성 과정과의 제휴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기도 하였다.

역대 도슨트 양성 및 운영현황

(단위 : 명)

회 차	신청자수	선발인원	교육기간
제5회	200	56	2004. 5. 22~8. 21
제6회	181	72	2006. 3. 31~9. 1
제7회	120	58	2008. 5. 2~8. 29
제8회	109	40	2010. 6. 28~8. 6
제9회	83	36	2012. 6. 25~8. 6
제10회	80	40	2014. 6. 23~8. 7

2. 행사장 운영

1) 종합상황실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 운영을 총괄 관리, 지휘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다. 종합상황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일상황보고서의 작성과 보고체계 유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와 상황 처리, 주요 인사의 방문동향 관리, 주요 상황에 대한 정보교류와 대내외 전파, 그리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지원하는 기능을 가졌다. 종합상황실은 관람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는 주차장 혼잡, 전시관 혼잡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였다. 관람객 입장상황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체크하여 현장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대처가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상황실 근무자와 타부서 인력을 지원하고 혼잡한 전시관의 분산관람을 유도하는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전시관 혼잡상황을 해소하는 등 행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귀빈실(손님맞이 본부)

제4회 2002광주비엔날레부터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한 국내외 귀빈 영접을 위한 의전 업무가 신설 운영되었다. 의전 업무는 손님맞이 본부 혹은 귀빈실에서 주관하였다. 귀빈실에서는 국내외 주요 방문인사의 영접 환송 등 손님맞이 의전수행을 위주로 하면서 외국인 방문인사에 대한 통역(영·일·중국어)지원 및 관람 안내, 일반 방문손님의 전시관 안내 등 비엔날레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제공과 관람 안내를 실시하였다.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0회의 행사 동안 정계, 재계, 문화예술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관람하였다. 2002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의전을 위한 별도의 손님맞이 본부를 운영하면서 개별적인 귀빈 영접을 위한 의전 업무가 제공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국무총리 등 1221여 국내 정·관계 인사를 영접하고 호암미술관장 등 370여 국내 예술계 주요 인사에 대한 영접과 안내를 했고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 등 470여 외국 손님에 대한 의전을 수행하였다.

2006년도 제6회 광주비엔날레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하여 정관계 500여 명,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주삼 리움미술관 총감독 등 300여 명의 문화계 인사,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Najibel – Khash 쿠웨이트 알자지라방송 PD 등 언론계 400여 명, 주한 미 대사 및 브라질 대사 등 교육계와 해외를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방문하였다.

제8회 행사기간 중에는 평소 비엔날레 행사에 관심이 적은 정·관·법조계 인사들의 많은 관람이 있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법원장, 5개 국정감사반,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관람하였다.

제9회 행사기간 중에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반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관람하였다.

2014광주비엔날레 또한 한-동남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세계김치축제 등 굵직한 국제행사들이 광주에서 개최되면서 행사에 참석한 해외 귀빈들과 주한외국대사들의 방문이 특히 많았으며,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등이 관람하였다.

3) 일반관람객 입·퇴장 관리

제1, 2회에는 관람객 입·퇴장 관리를 위해 비엔날레전시관 정문, 민속박물관 굴다리, 무지개다리, 중외공원정문, 중외공원 후문, 시립미술관 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출입구 질서유지를 위해 각 게이트 입구에 질서대를 설치하였다. 게이트 운영은 오전 8시 30분부터 폐관시간 1시간 30분전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관시간 전에 대기하는 외래 관람객을 위하여 각 게이트 근무자 중 2명씩은 오전 8시부터 근무케 하였고 오후 관람객 입장 상황에 따라 입장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관람 편의를 도모하였다.

제3회에는 입·퇴장 관리를 위해 행사장 입구 6개소에 게이트를 설치하여 관람객과 행사관계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였지만 오후 5시 이후에는 게이트를 개방해 행사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행사가 되도록 하였다.

제4회에는 전년도 행사들과는 다르게 게이트를 3개소로 축소했고 휴관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객 관리를 하고 오후 5시 이후에는 행사장을 개방, 주변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비엔날레관 외부에서 열린 프로젝트 3전시(5·18자유공원), 프로젝트 4전시(옛 남광주역)에는 관람객들을 무료 입장시켰다.

제7회에는 주 전시관이 소재한 중외공원 문화벨트 일원 행사장 출입구 3개소에 게이트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9시간 동안 운영하였다. 금~일요일은 직장인과 가족단위 관람객의 관람시간 편의도모를 위해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하였다. 연장 운영한 금~일요일의 경우 게이트는 평상시와 같이 오후 5시 30분에 개방을 한 가운데 주전시관 입구에서만 6시까지 입장권 판매 및 검표를 하였다.

제8회 비엔날레에는 관람객 검표의 경우 주 전시관 1 갤러리 입구와 시립미술관 입구 그리고 민속박물관 입구에 마련하였으며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였다.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마감시간은 5시 30분으로 제한하여 운영했다. 시민과 관람객 검표는 1전시관 입구와 5전시관 출구에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입장권 검표에는 자원봉사자 4명을 배치하여 원활한 입장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제9회 비엔날레는 1전시관 입구와 5전시관 출구에 관람객 검표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입장 마감시간은 5시 30분으로 제한하였다. 10회 역시 9회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질서를 유지한 가운데 신속하고 친절하게 입장 안내를 유도하였으며 오후 5시 이후 입장객에 대하여는 스스로 관람시간을 안배할 수 있도록 입장 시 폐관시간을 알려주었다. 이와 함께 입장한 관람객이 식사 등의 사유로 관람 도중에 퇴장하여 재 입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입장권에 날인하여 재입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단체관람객 예약이 많은 날(5000명 이상)에는 개관 시간을 30분 앞당겨 아침 8시 30분부터 개관을 하고, 도착 순서에 따라 번호표를 배부하여 입장순서를 사전에 인지토록 하는가 하면, 대기시간이 많은 단체관람객에게는 시립미술관, 민속박물관 등 주변시설을 관람토록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무료입장 대상자는 재단에서 발급한 행사관계자용 출입증 소지자, 단체인솔 및 안내교사, 학생단체 관람객 수의 5~10% 이내, 주요 방문인사와 그 수행자, 후원기관 대표, 단체관계자, 언론보도 기자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행사가 진행되면서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1~3급),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에 대하여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차량은 정문에서부터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방, 의료, 긴급복구, 행사물자 수송, 중계방송, 장애인, 청소, 축제연주자 등의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였다.

관람객 퇴장시간은 6시로 제한을 두고 다 관람하지 못한 관람객은 다음날 관람하고자 할 경우 입장권 뒷면에 재 입장 도장을 찍어서 재 입장토록 하였다.

4) 출입증 관리

행사관계자와 일반관람객을 구별하기 위하여 항상 행사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였으며, 외부인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할 경우 출입대장에 임시출입증을 교부받아 입장토록 하였다. 또한 출입구 근무자는 행사관계자의 입장 시 출입증 사용 상태를 점검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하였다. 출입증 관리의 경우에는 지난 20여 년간 출입증 발급 형태만 달라졌을 뿐 크게는 광주비엔날레 임직원, 참여 작가, 자원봉사자 등 행사 관계자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출입관리를 위하여 행사 관계 유형에 맞춰 출입증을 발급하였다.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출입증을 3원 체계(신분증, 출입증, 임시출입증)를 유지하였으나 2002년도 이후에는 이를 2원 체계(출입증, 임시출입증)로 단순화하고 다시 기능별로 임직원, 전시참여(작가, 큐레이터), 전시도우미, 자원봉사자, 운영요원, 영업요원, 프레스로 구분하였다. 별도로 임시출입증의 경우에는 작품설치 및 철거 담당자, 임시 방문자를 대상으로 필수 인력에게만 발급하였다. 출입증은 상시·임시출입증으로 구분 자체 3종류를 디자인하여 카드발급기를 통해 제작하였다.

3. 편의시설

1) 종합안내소·안내방송실

1995년도와 1997년, 2000년도 광주비엔날레에는 관람객 안내서비스를 위하여 회장 내에 8개의 종합안내소를 설치하여 개장시간 30분 전부터 폐장시간까지 운영하였다. 종합안내소는 관람안내와 외국인 관람객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다. 광주비엔날레 관람 종합안내, 팸플릿, 영어, 일어 등 외국어 안내 리플릿, 행사 관련 안내 자료를 비치 운영하였고 안내소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안내소별로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였다. 관람 안내 서비스 내용을 보면 관람 안내, 행사장 내 시설 위치 안내, 전시관 전시내용과 관람소요시간 안내, 기타 각종 문의사항(분실, 습득물보관, 의료서비스, 장애인·노약자 안내, 편의물품 대여 등)에 대한 행사장 연계 안내를 실시하였다.

관광 안내를 위한 휠체어,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미아보호 이동파출소 및 물품보관소를 운영하여 분실·습득물을 보관·인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2년 행사에는 각종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는 전시작가가 습득물센터를 작품으로 전시장에 설치 운영하여 전시효과를 거두면서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2006광주비엔날레에서는 관람객에 대한 행사안내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종합안내소(각 게이트 3개소)와 안내방송실을 운영하였다. 안내방송실은 자원봉사자 중에서 경험이 있는 자를 발탁하여 사전교육 후 배치하였으며 영어·일어 방송뿐만이 아니라 방송 중간에 비엔날레 주제가를 비롯해 배경음악을 방송함으로써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관람분위기도 고조시켰다. 제7회 이후부터는 종합안내소와 안내방송실 운영이 체계를 잡으면서 관람객 편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제8회 이후 안내방송의 경우 1시간 간격으로 전체 행사 안내와 전시관람 안내 2개 내용을 1회씩 행사안내를 하였으며 관람객에게 행사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시일정, 편의시설, 주말 콘서트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스케줄을 제공하였다.

2) 응급진료소

제1회와 2회 광주비엔날레에는 개최기간 중 약 100만 명으로 예상되는 관람객, 운영요원 등 회장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안전한 후송조치를 위해 보건의료 사업을 전개하였다. 진료시간은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 운영하였으며 외상치료와 투약서비스를 위주로 1주일씩 각 구청보건소별로 교대 근무하였다. 광주시내에 위치한 전남대학교 병원 등 4개 응급의료센터와 동광주병원 등 3개 응급의료병원과 하남 성심병원 등 2개 일반병원을 환자후송 병원으로 지정 운영하였다. 비엔날레 지원단의 예산지원을 받아 진료약품을 구입하고 회장 내 진료소에서의 치료는 무료로 하였으며 후송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진료소의 위치는 중외공원 어린이회관 건물 내와 시립미술관 내에 설치하여 간호사 4명을 각각 배치하여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119 구급차를 대기시켜 환자 후송조치에 힘썼다.

이후 비엔날레 행사 때에도 비엔날레관 1층 사무실 출입구 또는 비엔날레관 중정에 응급치료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에서 구급차 1대와 응급요원을 배치, 개장시간부터 폐장까지 상주하여 응급상황발생에 대처하였다.

3) 행사장 안내·입간판

2000년 제3회 광주비엔날레는 관람객의 관람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요 지점 동선과 간선로에 각종 행사안내 표지판 9종 206개를 설치하였다. 서광주 I.C와 동광주 I.C 사이에 10개의 대형 이정표를 광주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설치하였고 시내 주요 교차로의 기존 설치 비엔날레 이정표 외 행사장 주변에 대형 입간판 15개와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비엔날레를 관람코자 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공항, 종합터미널, 광주역 등 시내 주요 지점에 30개의 셔틀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2006년도 이후에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람객들이 전시장과 편의시설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안내판을 제작하여 행사장 내외 주요위치에 설치하였다. 각종 안내판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디자인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였다.

4) 주차장

1995년도와 1997년도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조직위원회는 행사장 주변의 교통소통과 주차대책으로 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열차 또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광주의 도시구조 특수성과 열악한 도로여건으로 기간 중 시내교통은 기존의 도로와 교통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며 교통체제 변경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관람객의 주차 수요는 평시에는 2000면 내외, 공휴일에는 2450면으로 예상되어 기존 주차시설인 비엔

날레주차장 600면, 문예회관주차장 700면, 국립박물관 주차장 400면, 전남도교육청 300면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임시주차장(용봉임시주차장)을 신설하고 무등경기장, 행사장 주변 학교운동장, 인접 관공서의 운동장 등 예비주차시설 1510면을 확보하였으며 공휴일과 주차첨두시에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행사장 주변에 500대 정도의 노상주차를 허용하였다.

1995광주비엔날레 때는 북구 매곡동 399-7번지 일대 6268제곱미터 부지에 600면의 비엔날레 주차장을 사업비 3430만원을 투입하여 신설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지구 1887평을 임차하여 240면의 주차장을 신설하였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사와 한국기능대학의 주차장 각각 200면, 70면을 무상 이용하도록 하였다.

2000년도에는 주차장 관리요원들의 휴식처를 위해 비엔날레주차장과 용봉임시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였고 특히 외래 관람객 수송 관광버스 기사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비엔날레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관람하는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외공원 정문 앞 도로 5개소에 광주시 모범운전자회 소속회원이 교통통제요원을 구성,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 안내를 하였고 행사장 내외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을 위해 도시공사, 북구청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무단 주정차로 인한 무질서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2002년도에는 제3회까지 사용되었던 용봉동 임시주차장(250면)이 민간인에 매각되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비엔날레 정문 옆 신설도로 양면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함에 따라 많은 관람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2006년 이후에는 비엔날레 주차장이 그동안 주간에는 야외 등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야간에는 대형트럭 등의 노숙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실제 행사기간 동안에 주차 공간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간에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주차차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행사 20일 전에 미리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주차된 노숙차량에 부착, 계도하는 한편 행사 기간 중 폐장 이후에는 '차량진입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비엔날레전시관이 가까운 정문으로 도착하여 주차장을 찾거나 물어보는 경우 지난 행사는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 주민 및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2012년도 이후 비엔날레 행사부터는 용봉초록습지공원주차장과 정문 주변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관계기관 구청과 협의하여 관람객 차량을 분산시켜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5) 청소

1995, 1997광주비엔날레의 청소는 일상청소와 특별청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개최기간 동안 회장청소에 1일 기준 용역업체,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시립민속박물관, 중외공원, 조직위 사무실관리, 청소차 운행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였으며 행사장 인근의 국립박물관 청소를 위해 북구청에 추가 지원인력의 배치를 요구하였다. 개장준비 청소에는 전시관, 각 화장실, 도로, 광장 등 일제청소로 쓰레기 봉지수거와 교체 등의 작업을 주로 하였고 특히 진공흡입차를 이용하여 관람객 주요동선의 흙, 먼지를 제거하였다. 개장 중에는 화장실에 전담자를 배치하여 집중 관리하면서 순회청소원으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진 폐기물을 수거하였다. 폐장청소는 전시관 일제청소와 각 쓰레기통의 쓰레기 봉지수거, 도로청소 등의 작업을 주로 하였다. 특별청소는 비엔날레전시관과 회장 내의 일상 청소 시 미비한 곳을 주로 하였는데 이는 매주 휴관일(월)에 실시하였다.

2000년 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관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상의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는 목표로 청소실시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준비단계, 실시단계, 정리단계의 3단계를 거쳤다.

또한 부족한 화장실을 보충하기 위해 회장 내에 40개의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쇄원에서 열린 Pre Opening 기간에는 3개의 간이화장실을 소쇄원에 설치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비엔날레전시관 및 주변 행사장 청소는 평상시 시립미술관과 시립민속박물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기관 시설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비엔날레 행사 기간 중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청소 관련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행사 개막전에는 건물외벽·중정 유리창·현관간판 약품청소, 전시관 중정 물청소, 오물수거, 쓰레기통 물청소, 화장실 락스 청소 등 개장에 대비한 일제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행사기간 동안에는 행사장 전역에 대한 순회 청소와 개장 전과 폐장 후 시간을 이용하여 전시관, 녹지주변, 화장실 등 관람객 이용이 많은 장소와 각종 시설에 대한 청소를 하였으며, 행사기간에는 4명씩 행사장에 배치하여 화장실 청소관리, 공원 주변, 주차장 2곳, 환경정비 및 재활용 분리,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8장

언론평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엔날레로서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내 외 언론의 관심은 대회가 성숙되어가면서 한층 뜨거워졌다. 국내 언론의 경우 창설 당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공식 발족한 1994년 12월 13일을 기점으로 제1회 광주비엔날레 폐막일인 1995년 11월 20일까지 352일 간 지방지 1850회, 중앙지 1080회 등 2962회가 보도될 정도였다. 해외 언론들은 매회 비중있는 국제 미술행사로 성장하는 광주비엔날레를 주목하면서 국제미술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 국내 언론 평가

1) 제1회 1995광주비엔날레

국내 언론의 보도 시각은 광주비엔날레 개최 발표를 한 초기부터 대부분의 언론이 개최의 타당성,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심지어는 지방에서 무슨 국제행사냐는 논조도 제기되는 등 비판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개최지 광주의 언론들은 지역 개발의 좋은 계기라는 판단과 민주성지 광주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세계 속의 예향으로 거듭나고자하는 조직위원회의 창설 배경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지만 중앙 언론들의 시각은 달랐다. 하지만 1995년 5월 24일 제 2차 커미셔너회의를 통해 참가국가와 작가가 선정 발표되고 전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도를 선회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개막 2개월 전부터는 홍보 활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문화면 전면을 할애하는 등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개막식과 일반 공개 첫날 관람객이 장사진을 이룬 후 1995년 10월 19일 관람객이 100만을 넘어서자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와 함께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한 쾌거라는 평가를 내렸고, 조직위원회가 소기의 창설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연일 세계 문화 예술 행사 중 초유의 관람객이 쇄도하자 개발도상국가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과시한 행사라는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성원 속에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호평을 내놓았다. 대회 종반에 들어서는 제1회 광주비엔날레는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앞다퉈 보도하였다.

2) 제2회 1997광주비엔날레

중앙언론들의 경우 개막 직후에 집중적인 보도를 했고, 준비기간과 과정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 전시 중반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다. 1995광주비엔날레에 비해 중앙지들의 관심이 줄어든 것은 큰 특징 중의 하나다. 반면 지역 언론은 건설적인 제언이나 충실한 행사 소개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개막 이전의 준비기간은 물론이거니와 전시 기간 내내 지역신문들은 비엔날레의 각 전시들과 행사들,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조직위의 보도 자료나 전시내용, 작품과 작가에 대한 단순 접근 등에 그쳤기 때문에 매체별로 기사의 차이를 그리 크게 보이지 않았다.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는 칼럼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와 한국 미술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지방지인 광주일보에서는 제1회 때의 '경계를 넘어서'보다는 이번에 내건 '지구의 여백'은 지구촌 문화 환경 전체를 아우르며 음양오행을 전시 소주제에 대입시켜 우리 문화의 장점을 부각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날짜	매체	내용
1997년 9월 18일	중앙일보	이용우씨의 '세련된 연출… 차별화 미흡'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제2회 광주비엔날레는 전시연출에서의 세련미와 비엔날레 문화에 한층 다가가는 진행으로 향후 비엔날레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
1997년 9월 2일	광주일보	박용숙(동덕여대교수, 미술평론)의 글 '지구의 여백 가득 음양오행 관류'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미술의 정황을 특색 있게 효과적으로 포장하는 일은 비엔날레의 성패를 저울질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제1회 때의 '경계를 넘어서'보다는 이번에 내건 '지구의 여백'은 훨씬 더 묵직하고 세련된 느낌이다"며 "음양오행을 도입하여 볼거리를 효과적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것도 찬사를 받을 만 하다"고 평가

3) 제3회 2000광주비엔날레

2000광주비엔날레와 관련된 보도물은 1998년부터 1999년 초까지 계속된 민영화 진통과 전시총감독 및 전시기획위원 교체, 행사기획 급변경 등 광주비엔날레 안팎의 파장 확산에 따른 행사 외적인 부분들부터 쏟아지기 시작하여 본전시 한국작가 사퇴 파동, 실무 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홍보부족 등 우려와 비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행사개막을 전후로 특별취재반 구성 등을 통해 분야별 행사내용들이 소개되면서 매일 보도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보도내용은 홍보팀에서 매일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특별한 의견반영 없이 각 매체의 성격이나 독자층에 어울리도록 구성 보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미술전문행사에 걸맞는 심도 있는 분석 기사나 기획 취재는 드물었다.

일간지들은 대개 단순 보도내용과 현장스케치와 함께 리뷰 형식의 평가기사나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 등을 싣기도 했고, 미술 쪽의 심도 있는 취재나 평가기사는 『월간미술』, 『가나아트』, 『미술세계』, 『아트』 등 주로 미술전문지와 해외 신문들에 게재되었다. 주로 개막 이후 다양한 언론 매체의 보도내용 가운데 수합 정리가 가능한 범위의 것들 중심으로 보도현황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날짜	매체	내용
2000년 3월 29일	세계일보	'설왕설래 –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세기 관심 밖으로 밀려난 인간과 인간의 조건을 형성하는 역사적-사회적 공간에 대해 새 천년의 개막과 함께 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언하겠다는 광주비엔날레 주제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2000년 3월 27일	경향신문	전시총감독 오광수와 인터뷰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엔날레가 서양미술의 들러리만 설 수는 없다. 이제 아시아 미술도 지구촌 어떤 형태의 미술과도 견줄 수 있고 또 그 이상의 평가를 받는 현실을 수용했을 뿐이다.
2000년 4월 12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미술평론가이자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를 지낸 다테하타 아키라의 기고문 통해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전인 광주 비엔날레의 출발은 그와 같은 환상을 최종적으로 극복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 4월4일	문화일보	문화일보는 2000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권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축제로서 광주비엔날레는 일단 그 존재 자체가 한국미술계의 자부심이라고 판단한다.
2000년 3월 26일	동아일보	광주비엔날레는 '세계화'의 시각에서 출발해 '새롭고 구체적인 시각'을 갖고자 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왔다고 보면서 그러나 이번 전시주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 제4회 2002광주비엔날레

전시 분야의 경우, 전시구성 및 프로젝트별 성격, 참여작가 작품 특징, 평론가 등 비평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축제 분야는 일일 공연 이벤트 일정 및 프로그램 특징에 대한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고, 기타 회장 운영·사업 관련, 주요 방문인사 동정 등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전반적인 보도 동향을 분석해 보면, 전시 공간 파티션·작품설치·프레오픈 등 진척도가 노출되는 추진과정, 특히 프레오픈 당시 전체 공정률이 크게 지연되면서 비판적 부정적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행사기간 중 프로젝트별 테마별 작품·작가 관련 소개기사와 공연 이벤트 일정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행사 중반기 이후 관람객 저조, 전시작품 관리부실·참여형 작품의 통제, 편의시설 미흡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기사들이 늘어났다. 특히 행사 종반 부정적 평가기사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냉소적 여론이 형성되었고, 전반적으로 중앙지의 취재 보도가 극히 저조하여 범국가적 국제행사로서 국내 언론의 지원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서 이전의 한계를 크게 줄이지 못했다.

5) 제5회 2004광주비엔날레

전반적인 보도 동향을 분석해보면 제5회 2004광주비엔날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인 '참여관객제'에 대하여 개막전에는 긍정적·부정적인 해석이 상반되었으나 개막 이후에는 예술과 대중, 예술과 관객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참신하다'라는 기사가 주류를 이뤘다. 행사주제에 대해 시적 사유의 세계와 문화정치적 함수 관계를 풀어내는 미학적 해석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었다. 축제행사는 개막전 배달 퍼포먼스 공연을 통해 사전 붐 조성 계기 마련이라는 긍정적 보도와 함께 진행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홍보분야는 목표 관람객 초과 달성 등 전반적인 호평 속에서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낮고 학생 단체 관람객이 감소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6) 제6회 2006광주비엔날레

2006광주비엔날레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내 언론 평가를 보면 아시아성에 대한 강조는 돋보였으나 전시가 다소 미적지근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즉 동서 현대미술에서 증폭되고 있는 아시아 미술문화에 대한 관심, 아시아 신흥 도시들의 개발 및 일반 문화 흐름에서 일고 있는 여러 열풍 현상들에 대한 진단과 그 상징적 함축, 팽창·확장하는 아시아의 내적 에너지와 비전을 담아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제에 너무 짓눌려 지나치게 무겁고 개념적인 전시가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부대시설의 미숙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7) 제7회 2008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감독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국내 언론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스 하케 등 2008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유명 작가들의 인터뷰가 신문 지상에 실렸으며, 오쿠이 엔위저 총감독의 전시운영에 관한 내용이 언론을 장식하였다. 특히 화제가 됐던 장외 사이트인 대인시장 프로젝트가 광주비엔날레와 지역 사회와의 매개 부분 차원에서 많이 언급됐으며 2008광주비엔날레의 주요 성과로 국내 언론에서 평가하였다. 일부 매체에서는 부산, 싱가포르, 상하이, 타이베이 등 아시아권의 여타 비엔날레들과의 차별화 전략 및 경쟁우위 선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8) 제8회 2010광주비엔날레

2010광주비엔날레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이미지로 얽혀진 사람들 간의 관계를 고찰한 마시밀리아노 지오니의 기획력에 대해 호평을 했으며, 전시의 흐름과 맥락이 훌륭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또한 고정관념을 탈피해 유물, 소장품 등 역사적 맥락을 지닌 오브제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미학을 선보인 점도 조명 받았다.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매일경제 등 주요 매체들이 다양한 보도물을 내보냈다. 광주지역의 언론매체들은 여느 매체보다 가장 중심적으로 2010광주비엔날레의 전시·행사 진행 내용을 보도하였다.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남일보, 무등일보, 남도일보, 광주매일신문, 전남매일 등의 지역신문은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행사 기간 중에 오늘의 비엔날레 작품과 주요소식을, 개막 전후에는 개막특집과 결산기사 등을 내보냈다. 나아가 광주의 주요 언론들은 단순히 행사의 내용을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시구성, 시민참여 등의 내용에서부터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심층 취재해 소개하고, 참여 작가는 물론 참여시민들과 관람객들의 동향 등 상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게 취재, 보도하였다.

특히 미술잡지들은 같은 기간에 열린 부산비엔날레와 비교 취재를 싣는 등 열성적으로 광주비엔날레의 소식을 게재했으며 유력 미술잡지 중 하나인 『월간 미술』과 『아트인컬처』 등에서 광주비엔날레 소개와 작품 사진을 싣는 등 국내 현대미술 행사 가운데 광주비엔날레가 가장 큰 규모임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9) 제9회 2012광주비엔날레

2012광주비엔날레 개막 전부터 아시아 여성 6인의 공동 감독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 2012광주비엔날레에는 광주폴리Ⅱ 프로젝트의 하나인 서도호의 틈새호텔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 광주-고베비엔날레 MOU 체결 등 굵직한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열려 언론사들의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비엔날레대회는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열려 세계적인 정치석학인 샹탈 무페의 기조강연과 관련한 경향신문과 경향아티클의 취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작가인 서도호 작가의 탁본 프로젝트 등 여러 레지던시 작업이 진행된 것과 관련 언론들의 관심이 높았고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광주비엔날레에는 지역작가 참여비율이 높고, 신작이 많으며 대학생들의 전시 참여가 이뤄진 점, 외부전시장의 활발한 운영 등이 주로 매체에 언급되었다. 특히 시민참여프로그램인 '나도 비엔날레 작가, 마실'의 전시장을 자전거로 둘러보는 '달리는 마실' 프로그램 진행에 맞춰, 전남일보에서 6번의 글을 시리즈로 실었다. 행사 기획자나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소소한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시민참여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부분을 알렸고, 연속적인 보도로 광주비엔날레의 중요한 축인 시민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10) 제10회 2014광주비엔날레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은 20주년을 맞은 제 10회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가 파격적인 주제 아래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제3세계와 여성, 소수자 등 소외계층을 전시의 맥락으로 가져온 전시였다고 호평한 반면, 다소 작품 별 수준 편차가 있었다는 평가도 다소 있었다. 2014광주비엔날레 전시의 두드러진 특징인 퍼포먼스를 활용한 것과 관련 국내 언론에서 참신한 시도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현대 미술관인 런던 소재 테이트 모던의 수석 큐레이터인 제시카 모건의 스타성을 부각하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

2. 해외 언론 평가

1회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해외 언론의 평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광주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후 제 10회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외 언론은 광주비엔날레의 외형적 성장과 높은 전시수준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1) 제1회 1995광주비엔날레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세계 어느 비엔날레 못지않은 훌륭한 행사를 마련하고, 극동에서는 유일한 비엔날레를 창설한 광주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적 선두주자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의지를 과시하고 있고, 이번 비엔날레는 국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많은 개발 도상 국가들의 경제 개발의 모델이 되고 있는 한국이 또 다른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도무스(DOMUS)(96년 2월호), 플래시 아트(Flash Art)(96년 3월 호) 등 해외 잡지의 경우 전체적인 논조는 한국의 지방도시에서 국제적인 미술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 사실이 경이로우며, 특히 짧은 시간 내에 전시 내용에서 타 비엔날레와 비교하여 손색없는 독창적인 전시 기획과 그 수행을 위한 미술 행정력과 외교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해외 유명 일간지 및 미술 전문지 주요 보도

날짜	매체	내용	비고
1995년 11월 4일	아사히	예술로의 관객 참가 체험 가능, 정보예술전 본격 미디어 아트의 총집결	일본 일간지
1995년 11월 9일	요미우리	문화전략으로서의 현대미술진흥 아시아의 주 미술조류를 대표 한국미술의 세계 진출 추구	일본 일간지
1995년 11월 10일	마이니찌	열려진 자기 추구-비엔날레 출품작 성격 분석	일본 일간지
1996년 2월호	도무스	95광주비엔날레 추진 과정 및 본전시와 특별전 소개 및 다양한 민족적 양식을 구체화시킨 성공적인 전시	이탈리아 미술전문지
1996년 3월호	플래시 아트	전시기획실장 이용우 인터뷰 창설 배경	이탈리아 미술전문지
1996년 5월호	아트 인 아메리카	국제 무대로 약진하는 광주비엔날레와 한국의 미술계 등	
1996년 여름호	Art Asia Pacific	광주비엔날레의 성과, 예산 및 관람객, 각종 전시회 내용 소개 등	호주

2) 제2회 1997광주비엔날레

1997광주비엔날레는 일본 마이니찌 등 20개 매체, 미국 월드아트(World Art) 등 4개 매체, 프랑스 르 피가로지 등 5개 매체, 이태리 플래시 아트(Flash Art), 멕시코 폴리에스터(Poliester), 독일 쿤스트 포럼(Kunst forum), 태국 더 엔젤스 인터네셔널 서비스(The Angels International Services) 등 아프리카와 남미를 제외한 세계 전 지역에 행사 내용이 보도되어 세계 미술계 이목을 광주로 집중시키는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

해외방송으로서 일본 NHK는 2차례에 걸친 취재활동을 통해 일본과 세계 전역에 위성방송으로 특집프로그램을 송출했고, 미국의 CNN도 1997광주비엔날레를 취재 보도하였다. 유럽 지역의 경우는 덴마크의 방송이 전시기간 중에 광주비엔날레를 직접 방문해 취재 보도하였다. 해외 언론매체들도 아시아, 호주, 미주, 유럽 등지에서 활발한 취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중 특히 일본의 미술계와 언론에서 보이는 관심은 국내 미술계와 언론에서 보이는 관심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요미우리, 마이니찌 등 일간지에 9월 말까지 40여 회에 달하는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날짜	매체	내용
1997년 9월 6일	마이니찌신문 <일본 3대 일간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비엔날레 미술전-97광주비엔날레 개막'을 머리기사로 게재하고 17일자에도 사진평론가 이이자와 고우타로우씨의 '영상화된 도시의 생성-광주비엔날레에서도 눈에 띄는 사진' 기사를 머리글로 해 사진작품에 대해 집중 조명 광주비엔날레와 여러 국제전에 많이 등장하는 영상 장르의 중요성 언급
1997년 9월 16일	르 피가로 <프랑스 3대 일간지>	'광주(한국)-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신생 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는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활기찬 조직의 단단한 구성으로 관람객을 놀라게 한다. 비엔날레가 창설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세계의 다른 중요한 비엔날레들인 베니스, 상파울로, 시드니, 이스탄불, 리용과 대등한 위치에 도달했다"
1997년 9월호	미술수첩 <일본>	'세계의 대형 국제전 데이터 뱅크-제2회 광주비엔날레' "한국은 지난 95년 광주비엔날레의 창설을 통해 한국의 현대미술이 세계미술계에 폭넓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비엔날레 홀(중외공원 문화벨트), 비엔날레기금의 설립 등으로 보아 현대미술을 나라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 확실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날짜	매체	내용
1997년 9월호	아트포럼	미술평론가 마리 앤 스타니제프스키의 '경로 그리기(Charting of Course)'라는 기고문을 통해 1997년 열린 수많은 국제 규모의 전시들 중 광주와 요하네스버그가 "특색 있는 전시이며, 의심할 바 없이 올 해의 가장 중요한 전시로 기록될 것"이라고 꼽음
	폴리에스터 <멕시코 발행 진보적 성향 미술잡지>	1996년 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단계에서의 보도를 통해 현재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비엔날레의 공과 분석 광주비엔날레를 베니스, 휘트니, 요하네스버그, 리옹, 이스탄불, 아바나, 상파울로 등과 함께 세계 8대 빅 비엔날레로 분류

3)제3회 2000광주비엔날레

일본 아사히 신문과 프랑스 르몽드지 등 세계 유수 언론 등은 제3세계 문화를 비롯한 아시아성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중국시보(中國時報)는 1995년 이래 3회째를 맞는 2000광주비엔날레가 베니스,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미술제로 발돋움할 것이라 논평하고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만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행사장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는 광주광역시장의 말을 인용 보도하였다.

통일일보는 2000광주비엔날레는 서양과 아시아, 중심과 주변이라는 구도를 깨뜨리고 서양의 유형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광수 전시총감독의 사진과 함께 2000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와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2000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르 휘가로지의 미셸 누리자니 씨는 2000년 4월 4일자 신문에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풍부한 햇살'이라는 제목으로 1, 2회 비엔날레 관람객 수(1회 160만, 2회 90만)를 언급하며 이같은 관람 인파는 전체 아시아의 비슷한 행사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것이며 가을에 상해에서 또 다른 비엔날레가 열리는데 광주에서와 같이 그렇게 신속하고 활기찬 전시를 꿈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르몽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비엔날레가 라틴아메리카 브라질의 상파울로 비엔날레처럼 아시아 예술의 산파역을 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하면서 지역, 국가, 국제사회의 요구의 충족 문제, 가족단위 관람객과 전문적 예술가들과의 접점 문제 등이 차기 광주비엔날레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평하였다.

날짜	매체	내용
2000년 2월 11일	중국시보	1995년 이래 3회째를 맞는 2000광주비엔날레가 베니스,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미술제로 발돋음할 것
2000년 2월 22일	통일일보	2000광주비엔날레는 서양과 아시아, 중심과 주변이라는 구도를 깨뜨리고 서양의 유형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광수 전시총감독의 사진과 함께 2000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와 내용 등 소개
2000년 3월 3일	동양경제일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술전인 광주비엔날레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돼 가고 있으며, 2000광주비엔날레에는 216명의 세계 작가가 참여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이라며 본전시, 특별전, 후원전, 영상전, 심포지움 등 소개
2000년 4월 4일	휘가로지	아시아의 성공적인 행사로서 광주비엔날레의 의미와 빠른 성장 주목
2000년 4월 17일	아사히 신문	'광주 비엔날레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2000 광주비엔날레에서 아시아 작가의 부상과 3회 비엔날레가 2000년도에 열리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설명

날짜	매체	내용
2000년 4월 17일	요미우리 신문	미술평론가 치바 시게오(千葉成夫)씨의 '예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소제목: 한국 "광주비엔날레"를 보고 나서) 라는 제목의 3회 비엔날레를 보고 난 후의 소감 게재

4) 제4회 2002광주비엔날레

세계 유수의 언론 및 잡지사에서 2002광주비엔날레에 대한 호평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광주비엔날레의 세계적 위상을 다지는 데 일조하였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와 르 휘가로, 일본의 아사히 신문, 주니찌 신문 19건이 있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미술잡지 아트 인 아메리카(Art in America), BT 미술수첩, 플래시 아트(Flash Art), 아트 아시아 퍼시픽(Art Asia Pacific) 등 취재 및 기사 게재를 위한 프레스 관련 요청이 쇄도하였다.

특히 독일의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도이칠란드 라디오의 '세계화는 광주비엔날레가 책임진다'(2002. 4. 2), 프랑스 르몽드의 '광주비엔날레의 혁신적 담론'(4. 19), 르 휘가로의 '광주 비엔날레 상승 또 상승하다'(4. 19)를 비롯해 일본 마이니찌 신문의 '한국 광주비엔날레를 보고- 관객 참가형이 특징'(4. 30), 쥬니찌 신문 '눈에 띄는 네트워크 예술'(4. 13), 아사히신문 '4회를 맞이한 광주비엔날레 '일시정지'로 사색을 부른다', 미국 뉴스위크지의 '지금 필요한 것은 멈춤'(5. 15) 등이 전시구성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곁들여 보도를 하였다.

날짜	매체	내용
2002년 4월 2일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도이칠란트 라디오	'세계화는 광주가 책임진다' 한국의 광주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제 4회 광주비엔날레는 특별한 형식의 전시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생존 경쟁의 시기에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소위 공식적으로 숙고와 반성을 먼저 제시하는 내용을 한국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단한 한국 예술축제의 주제는 '멈춤'이다.
2002년 4월 13일	쥬니찌 신문	'눈에 띄는 예술네트워크' 이번 전람회는 '포즈'로 지금과는 조금 다른 테마이다… '일시정지'의 의미로, 정보와 사람, 물건이 세계 규모로 왕래하는 글로벌제이션(세계화) 시대에 일부러 멈춰서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깊이 생각해보자는 하나의 제안을 던지고 있다. 개발의 물결 속에서 가속적으로 모습이 변해온 아시아의 현대적 이미지를 뒤집어, 의외의 키워드를 울린다.
2002년 4월 17일	아사히 신문	4회를 맞이한 광주비엔날레 일시정지로 사색을 부른다.

5) 제5회 2004광주비엔날레

창설 10주년을 맞은 제 5회 광주비엔날레는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이라는 주제 이외에도 '참여 관객제'라는 획기적인 시도로 해외 언론계에서 호평을 받았다.

날짜	매체	내용	비고
2004년 9월 29일	아사히	미술과 시민의 거리 극복을 목표로 하는 시도	일본 일간지
2004년 11월 호	일본 미술수첩	작가와 관객 대표의 대화가 낳은 미술전람회	일본
2004년 9월 25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모두를 위한 뻥튀기	독일
2004년 9월 24일	일 솔레 24	광주의 크리에이티브	이탈리아
2004년 여름	플래시 아트	관객들이 만들어가는 2004광주비엔날레	이탈리아 미술전문지
2004년 봄	아트 아시아 퍼시픽	동양성 다시 보기- 동서 축을 따라 예술을 다시 생각한다	호주

6) 제6회 2006광주비엔날레

대부분의 해외 미술전문 매체들과 평론가들은 광주비엔날레의 안정된 전시 운영,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성'을 전면에 내세운 전시내용에 대해 호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상하이·싱가포르 3개 비엔날레 공동협력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아트 포럼(Art Forum)(미국), 아트 먼스리(Art Monthly)(미국) 등 3개 비엔날레를 비교 관람한 미술 전문매체 기고가들은 뛰어난 전시 큐레이팅과 작품 설치 역량, 행사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호응도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광주비엔날레의 강점으로 꼽았다.

14명의 전문 미술기자와 저널리스트가 총 27건의 프리뷰·리뷰 기사를 유력 전문지인 아트 인 아메리카(Art in America)(11월호), 아트 포럼(Art Forum)(9월호, 11월호), 플래시 아트(Flash Art)(9월호, 11월호), 프리즈(Frieze)(2007년 1월호), 유럽권 주요 일간지인 르몽드(Le Monde)(2006. 11. 6일자) 등에 보도했다.

7) 제7회 2008광주비엔날레

대부분의 해외 전문매체들과 평론가들은 광주비엔날레의 안정된 전시 운영의 주제와 같은 특정한 분류나 틀 안에서 벗어나 경험과 다양한 예술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단순히 주제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전시형태를 탈피 정치·사회적인 다양한 개념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선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트 포럼(Art Forum), 도무스(Domus),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아트 아시아 퍼시픽(Art Asia Pacific) 등 개막 전 온-오프라인 전문매체가 7회 광주비엔날레를 소개했으며, 이밖에도 아트 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 10월호, 플래시 아트(Flash Art) 11월호, NY 아트 매거진(NY Arts Magazine) 11월호 등 30여개 매체에서 전시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었다.

온라인 매체명	주요내용
샤프론 아트 (SAFFRONART)	작가 및 작품의 소개와 동시에 5·18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광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와 중요성을 부각
이씨플라자 (ECPLAZA)	광주비엔날레 일정과 연례보고라는 주제의 의미를 다룸 길 위에서, 제안, 끼워 넣기 등 가지 소주제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아시아트 아카이브 Asiart Archive	광주 국제 비엔날레의 3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행사 일정과 장소, 작가들에 대해서 설명함
아트 팩스 네트 (Art Facts Net)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의 문화 예술의 중심지이며 아시아의 중심이 될 것이다. 특히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한국의 광주라는 도시는 1980년에 군부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하였던 곳으로 이것은 전례 없던 운동으로 다른 세계의 시민사회에 새로운 인식을 만들었음을 상기시킴
플래시 아트 온라인 (Flash art on line.com)	광주비엔날레의 세 가지 소주제 및 참여한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컬쳐/문화 대만 (Culture.tw.taiwan)	대만의 TAV(대만예술마을)가 한국과 대만의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한 내용을 실음
레이더 네트워크 (Radar Network)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한국의 광주는 군부정권에 대항하여 1980년에 민주화를 이룩한 곳으로 한국의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하였고 세계의 시민사회의 형성을 이끄는 본보기가 되는 전시배경 설명을 제시
아트 데일리 (ARTdaily.org)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기본으로 한 예술 문화의 빠른 발전에 대하여 다루었음.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3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민주화의 도시인 광주의 의의와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사회의 본보기가 된 것과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 앞으로 세계의 열쇠를 쥐게 될 광주비엔날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음

8) 제8회 2010광주비엔날레

대부분의 해외 언론들은 마시밀리아노가 기획한 2010광주비엔날레 '만인보'의 접근에 대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아트넷과 플래시 아트, 아트포럼 등 세계적인 미술잡지들이 '만인보(萬人譜)'를 주제로 내건 제8회 광주비엔날레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한데 이어 이탈리아의 파노라마 뉴스, 보그(Vogue), 레이(Lei) 등이 전시 '만인보(萬人譜)'를 앞 다퉈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아트 인 아메리카는 예년에 비해 관람 포인트가 넘쳐날 정도로 흥미진진한 전시였으며 유독 사진작품이 많지만 우리가 역사와 세계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사진이라며 뚜얼 슬랭교도소의 초상화 사진들을 가장 인상 깊은 작품으로 꼽았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규모와 내용에 놀랐으며 국가적으로도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한국의 현실이 부러울 뿐이며 문화적 역량에서 일본도 분발해야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평하였다.

9) 제9회 2012광주비엔날레

2012광주비엔날레는 개막 전부터 해외언론에 큰 관심을 받은 대회였다.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유럽 전역에 올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는데 일조했고, 또 비엔날레 역사상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인 6명 공동감독체제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개막 직후부터 독일의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아트아시아퍼시픽(ArtAsiaPacific), 플래시아트(Flash Art) 등 해외 유력 신문과 미술 전문 매체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 유수 언론들은 "2012광주비엔날레는 과거 서구 중심의 미술무대가 아시아로 이동하는 주요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광주비엔날레는 전시가 생산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담론을 볼 때 전 세계가 주목해야할 전시", "2012광주비엔날레는 한국현대사에서 민주화의 발단이 된 광주의 역할을 환기시킨다."등의 다양한 평가들을 내놓으며 크게 호평하였다.

날짜	매체	내 용
2012년 9월 27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독일)	광주비엔날레 전반 및 역사
2012년 9월 25일	가디언지(영국)	광주민주항쟁 등 광주 역사 소개, 비판적 작품 소개
2012년 10월 6일	더 힌두(인도)	광주비엔날레 전반
2012년 9월 17일	아트포럼(미국)	광주비엔날레 전반
2012년 9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미국)	마미카타오카 감독 인터뷰 및 전반
2012년 9월 21일	아트아시아퍼시픽(미국)	광주비엔날레 전반
2012년 9월 28일	알 아람(이집트)	와싼 알쿠다이리 감독 인터뷰 및 전시 전반
2012년 10월 3일	프리즈 블로그(영국)	캐롤 잉화 루 감독의 광주비엔날레 기획 소감
2012년 8.9월호	플래시아트(이탈리아/미국)	공동감독 인터뷰 및 소주제 소개
2012년 10월호	아트포럼(미국)	광주비엔날레 전반
2012년 10월호	도무스(이탈리아)	작가 페드로 레예스 기사 및 비엔날레 오프닝 소개
2012년 10월호	아트 뉴스페이퍼	광주비엔날레 전반
2012년 10월호	플래시 아트(이탈리아/미국)	광주비엔날레 전시 소개
2012년 11, 12월호	아트 아시아 퍼시픽(미국)	광주비엔날레 전반
2012년 12월호	아트포럼(미국)	광주비엔날레 전반

10) 제10회 2014광주비엔날레

2014광주비엔날레는 광주 정신과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조화롭게 표현하는 국제 주요 미술 행사로 부각되었다. 특히 임민욱의 <내비게이션 아이디> 퍼포먼스 작품은 많이 보도됐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브라질, 그리고 중국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뉴욕타임즈(9월 17일 자)는 2014광주비엔날레가 세계 비엔날레 현장에서 꼭 들려야 할 중요한 정착지가 됐다고 평가했으며, 프랑스 대표 일간지 르몽드(9월 13일 자)에서는 사회의 가치와 역사를 잘 반영한 국제 미술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독일에서 가장 큰 일간지인 FAZ(9월 8일 자)는 올해 비엔날레의 출품작들이 수준이 높았으며 감격적이라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영국의 대표 일간지인 가디언지(9월 9일 자)는 2014광주비엔날레 심층 리뷰를 통해 동양에서 아주 활발하고 정력적인 비엔날레라고 소개하며, 류 샤오동의 '시간'과 그림패 둥지의 작품에 극찬을 하는 등 한국과 아시아 미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9월 8일 자)는 인상적인 전시회이며, 관람객들이 한국 역사와 아픔을 다시 생각하게 될 거라 보도하였다.

특히 올해 광주비엔날레만의 차별점인 퍼포먼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도 두드러졌다. 온라인 미술 전문 사이트인 아트 아젠다(9월 8일 자)와 아트넷 뉴스(9월 8일 자)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다룬 임민욱 작가의 <내비게이션 아이디>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날짜	매체	내 용
2014년 9월 17일	뉴욕타임즈	세계적 비엔날레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
2014년 9월 13일	르몽드	사회, 역사적 의미 잘살린 광주비엔날레
2014년 9월 8일	FAZ	수준높은 출품작 조명
2014년 9월 9일	가디언지	광주비엔날레 심층 리뷰
2014년 9월 8일	이코노미스트지	인상적 전시들,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 조명
2014년 9월 8일	아트아젠다	임민욱의 <내비게이션 아이디> 호평
2014년 9월 8일	아트넷 뉴스	임민욱의 <내비게이션 아이디> 호평

3부

창조의 에너지,
국제예술도시
전망을 열다

1장

광주비엔날레의 확장

국제예술행사 & 프로젝트

광주비엔날레 주도로 창설돼 2013년 5회째 행사를 치룬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가 축적한 국제적 미술역량을 활용해 국제디자인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로젝트로 시작된 광주폴리프로젝트는 건축예술가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모아 광주에 새로운 예술적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

2004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레

2004. 6. 18 ~ 6. 27
18개국 718명의 디자이너
관객 8만6000여명 참여

2005

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삶을 비추는 디자인

2005. 10. 18 ~ 11. 3
33개국 1278점
관객 28만8513명

2007

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빛_L.I.G.H.T

2007. 10. 3 ~ 11. 5
45개국 2007작품
관객 251,220명

2009

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The Clue_ 더할 나위 없는

2009. 9. 18 ~ 11. 4
48개국 1951작품
관객 20만2053명

2011

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가도비상도

2011. 9. 2 ~ 10. 23
159작품
관람객 25만6800여명(폴리포함)

2013

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거시기, 머시기

2013. 9. 6 ~ 11. 3
총 24개국 600여 작품
관객 21만151명

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21세기 디자인시대를 맞아 광주의 디자인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은 물론 세계의 디자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가 2005년 창설하였다. 국제행사로 자리잡은 광주비엔날레의 형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각문화를 토대로 한 디자인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이를 위해 2004년 프레비엔날레(6. 18~27)를 개최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이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공식 출범하였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가 주관을 맡아 2년마다 매 홀수년도 9~10월에 열려왔다. 제1, 2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제3회부터는 중외공원 내 비엔날레전시관을 주 전시공간으로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도시의 공공장소 또는 시민들의 삶의 공간 속 별도의 사이트를 전시공간으로 연결해 왔다. 총괄 기획자인 디자인총감독이 설정한 주제와 기획의도에 따라 국내외 디자이너 및 작품들을 선정해 시각문화의 장을 펼쳐내는 전시와 더불어, 우리시대 디자인문화의 생산적 가치와 창의성을 심화 확장시키기 위한 국제학술회의, 시민 또는 관객들의 관심과 소통을 넓히기 위한 특별프로젝트나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 주관으로 5회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의 토대를 구축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2015년부터 주관처를 광주디자인센터로 이관해 진행하고 있다.

지역과 밀착하고 일상속에 파고 들어가려 노력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들은 관람객들이 즐기고
소통하는 전시연출을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된 <한글숲 2>(좌)와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거시기, 머시기> 배너 휘장.

구 분	주제 / 기간	행사 구성
프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04. 6. 18~6. 27 비엔날레전시관	디자인브랜드관, 세계우수디자인초청전 등 7개 섹션과 국제회의, 대학생 디자인페스티벌 등 18개국 718디자이너 참여, 관객 8만6천 명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삶을 비추는 디자인 2005. 10. 18~11. 3 김대중컨벤션센터	본전시(미래의 삶, 아시아디자인), 7개 특별전, 워크숍, 축제·공연 등 33개국 530디자이너 177기업 참여, 관객 28만 명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빛_L.I.G.H.T 2007. 10. 3~11. 5 김대중컨벤션센터	본전시(생활·정체성·환경·감성·진화), 2개 특별전, 디자인평화선언, 컨퍼런스 등 45개국 930디자이너 103기업 참여, 관객 25만명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The Clue_ 더할 나위 없는 2009. 9. 18~11. 4 비엔날레관, 양림동	주제전(의·식·주·학·락), 특별프로젝트(유니버설·에코디자인·스트리트 전시), 국제디자인워크숍 등 48개국 519디자이너 376기업 참여, 관객 20만 명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가도비상도 2011. 9. 2~10. 23 비엔날레관, 시내일원	유명·무명 디자인, 장소·비장소성 디자인, 커뮤니티, 비엔날레 시티, 아카데미, 광주폴리 등 44개국 146명 디자이너 86개 기업 참여, 25만 명 (광주폴리 포함 89만 명)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거시기, 머시기 2013. 9. 6~11. 3 비엔날레관, 의재미술관	주제전, 본전시, 특별전1·2, 국제학술회의 등 24개국 299디자이너 33기업, 관객 21만 명

1. 2004광주디자인프레-비엔날레

2004. 6. 18 ~ 27(10일간), 중외공원일원(광주비엔날레전시관) 및 시내중심거리

18개국, 718명의 디자이너, 관객 8만6000여명

2004광주디자인프레-비엔날레는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창설을 위한 당위성 확보와 경험축적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주)금강기획, (주)씨컴이 주관한 행사로 15억원(국비 5억원, 시비 7억원, 민자 3억원)의 예산이 투여됐다. 2004광주디자인프레-비엔날레 개막식에서 '21세기디자인도시광주선언' 선포식을 갖고 디자인도시 광주의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절대적 준비기간 부족에도 다양한 전시구성 등 긍정적 평가를 얻었고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방향 설정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디자인도시로서 광주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전시	전시장소	전시규모(참여)	전시구성
디자인 브랜드관	비엔날레전시관 (제1갤러리)	· 총면적 : 1,700㎡(500평) · 국내디자인 우수기업 9개참가	일류디자인 선도기업대상 참가기업의 자체전시
세계우수디자인 특별초청전	비엔날레전시관 (제2갤러리)	· 총면적 : 1,700㎡(500평) · 세계디자인 상품95점	프랑스 58점, 독일15점, 벨기에22점
우수산업디자인 (GD)상품전	비엔날레전시관 (제3갤러리)	· 총면적 : 1,700㎡(500평) · GD선정상품 91점	실물전시
디자인 전문회사관	비엔날레전시관 (제4갤러리)	· 총면적 : 1,700㎡(500평) · 국내외디자인전문회사	지역디자인전문회사 교류전, 해외영디자이너 트랜드전
대한민국산업 디자인전람회	교육홍보관 1,2,3관	· 총면적 : 900㎡(250평) · 39회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수상작품 전시(309점)
코리아 국제포스터 비엔날레	비엔날레전시관 (제5갤러리)	· 총면적 : 900㎡(250평) · 2002코리아국제포스터 비엔날레전	수상작품전시

전시	전시장소	전시규모(참여)	전시구성
명품디자인 배너전	금남로 일원	· 세계우수디자인특별초청전 전시상품 실사배너설치	실사배너 전시
광주·전남 디자이너협회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 특별주제전 : 남도문화의 향기전 시각·영상, 공예, 제품, 환경 등	협회회원작품 전시

학술, 이벤트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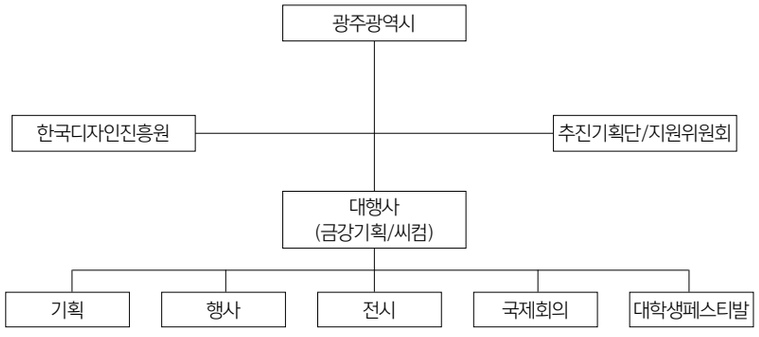
국제회의

'세계디자인단체협의회' 창설 준비위원회(6.17)를 갖고 14개국 16명(발제자)의 전문가와 900여 명의 참석자가 함께 하는 '지역디자인의 세계화와 지방화'를 주제로 한 '2004광주국제디자인컨퍼런스'(6. 18~19)를 가졌다.

대학생 디자인 페스티벌

차세대 디자이너들의 디자인도시 광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행사로 전국대학생디자인캠프·전국대학디자인동아리전·광주디자인비엔날레열차 등 참여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이버Recruit프로그램·사이버포스터공모전·세계문화예술제, 전국대학동아리페스티벌·전국대학생패션디자인페스티벌도 이어졌다.

행사운영 조직



광주광역시 경제통상국장 등 지역전문가 8명이 참여한 추진기획단이 행사의 성격, 규모, 개최시기 등 행사의 전반적인 구상 및 기획조정 역할을 했고 한국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장 등 30명(중앙19, 지역11)으로 이뤄진 지원위원회는 행사자문 및 관련기관 등 상호협조 및 교류를 담당하였다. 전시 운영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행사전반에 대한 총괄 서비스 및 행사운영, 회의실, Press Room, 휴게실 등을 운영했다. 진행요원 39명과 자원봉사자 26명이 대회운영에 참여하였다.

2.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삶을 비추는 디자인 Light into Life

2005. 10. 18 ~ 11. 3(17일간) /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시청

33개국, 1278점(기업 : 177 / 디자이너 : 530), 관객 28만8513명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삶을 비추는 디자인'을 주제로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7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을 비롯한 안팎의 공간에서 열렸다. 무엇보다 창설준비과정부터 논의의 핵심이 됐던 행사 성격과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디자인 페어와는 다른 기획과 담론을 적극 부각시키는 비엔날레 형식의 전시행사로서 특성을 명확히 하고, 전시환경 면에서도 거칠고 실험적인 연출을 주로 펼쳐내는 현대미술비엔날레와 분위기를 달리하기 위해 전시장소 또한 비엔날레관이 아닌 김대중컨벤션센터로 택하였다. 이순종(서울대학교 교수) 디자인총감독의 총괄기획으로 주제 '삶을 비추는 디자인 / Light into Life'는 '빛(Light) 고을' 광주에서 바라 본 21세기형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기본방향과 함께 보통사람들의 삶(Life)과 디자인의 관계에 관한 담론의 유추, 일상을 교화(enlighten)하는 디자인의 존재방식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59억2100만원(국비20억원, 시비20억원, 민자(재단)19억2000만원)을 투입해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주관해 치러진 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아시아디자인 메카 후보지로 광주가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시기획자

디자인 총감독 : 이순종(李舜鍾)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원 및 핀란드 국립헬싱키대학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굿디자인전, LG국제디자인 공모전 등 심사위원, 프랑스 생티엔느 디자인페어 한국대표디자인 선정위원(2000) 등을 역임하고, Hewlett packard 논문상, 대한민국 산업포장 등을 수상하였다.

본전시1 큐레이터: 이주명 연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카즈오 스기야마(Kazuo Sugiyama)일본 치바대 교수, 테오 그루트하우젠(Theo Groothuizen) KAIST 산업디자인과 교수

본전시2 큐레이터 : 은병수(은카운슬 대표)

특별전1 큐레이터 : 김상규(서울디자인미술관 큐레이터)

특별전2 큐레이터 : 구성회(서울대 제품디자인전공)

특별전3 큐레이터 : 한선주(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특별전4 큐레이터 : 고영란(한성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특별전5 큐레이터 : 신지희(디자인 이즈 대표)

전시기획

주 제

Light : 광주, 빛, 밝음, 등불, 희망, 광원, 진리, 지성 / Life : 삶, 생활, 생명

디자인은 인간의 삶과 생활을 바르게 인도해 가는 등불의 역할을 한다. 디자인의 주체는 인간(Human)이고, 대상은 삶(Life)이며, 그 방향성은 바른 길(正道, Light Way)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의 디자인은 정보지식사회의 물결에 발맞춤과 동시에, 지식경제로부터의 소외계층, 세대간·지역간의

갈등, 인간 욕구와 환경보존과의 마찰문제 등을 인식하고 이 시대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삶을 비추는 디자인(Light into Life)'을 주제로 설정, 21세기의 바람직한 인간의 삶을 탐색하고, 일상생활에 빛을 밝히기 위한 국제적인 디자인의 탐험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전시 개념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행사는 전시, 회의, 워크숍, 이벤트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관람객들은 전시를 통하여 생활속의 디자인을 관찰하며(Look), 회의를 통해 디자인의 가치를 느끼고(Feel), 워크숍을 통해서 디자인에 참여하고 디자인을 배우는 계기가 조성되며(Join),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은 디자인을 즐길 수(Enjoy)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다.

전시 내용

본전시

▶인트로 : 행사 배경과 전체의 행사를 한 곳에서 조망할 수 있고 주제와 각 전시별 특성에 접근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전시로 구성하였다.

▶미래의 삶 : 바람직한 '미래의 삶'을 제시하는 실험적인 디자인 전시로 세계적인 디자이너, 단체, 기업 디자인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아시아 디자인 : 아시아 각 국가의 고유한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전통과 현대의 대표적인 디자인을 선정하여 전시하였다.

특별전

▶한국의 디자인 : 산업, 문화, 역사_한국의 디자인 산업과 디자인 문화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명하여 한국 디자인의 가능성과 긍정적인 가치를 모색해 보는 전시로 구성하였다.

▶미래도시 광주 : 기원_광주를 세계적인 문화·예술·생활이 어우러진 디자인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국내·외 유명디자이너가 참여한 디자인 작품을 도시 주요 지점에 적용하였다.

▶광주의 디자인 : 광주지역의 전통소재, 산업, 문화 등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적인 디자인 콘텐츠를 창조하는 실험적 전시로 구성하였다.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 디자인 역사발전에 공헌한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선정하여 전 생애를 통한 디자인 철학과 활동, 작품 등을 전시하였다.

▶뉴 웨이브 인 디자인 : 세계 각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미래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실험적 전시였다.

▶GD상품전/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 2005 한국 GD마크를 획득한 우수상품과 대한민국산업디자인의 미래를 조망하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품을 전시하였다.

전시 공간 및 행사장 운영

전시 공간

전시공간디자인은 전시의 기획의도를 충실히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공간의 모습으로 일체감을 주고 그것이 작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기획되었다. 총 7개의 전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 단일 공간 3000평 내에 펼쳐지고 7개의 전시를 하나의 테두리로 묶는 전체적인 전시디자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가 하나의 동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고 60cm에 이르는 고저의 변화와 부분마다 파티션의 경계를 짓는 방식은 전시 관람에 생동감을 주었고. 다이내믹한 동선을 유도하였다.

행사장 운영

행사전반에 대한 총괄 서비스 및 행사 관리를 위해 종합상황실운영 및 회의실, Press Room,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도슨트(전문 해설요원 40명)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VIP의전 및 전시관람 안내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10월 30일에는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일일 명예 도슨트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학술회의

구분/일시	주제 및 발제자
DAY1, 개회식 및 기조연설 10. 18 14:00~16:00	사회 : 이건표(카이스트 산업디자인과) 발제 – '정보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들' : 윤종용(삼성전자 부회장) – '이태리 디자인의 예술' : Alessandro Mendini (이태리 멘디니아틀리에 대표) –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 : Peter Zec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ICSID 회장)
DAY2, 세계디자인도시협력회의 10. 18 16:00~18:30	사회 : YrjöSotamaa(핀란드 헬싱키산업예술대학(UIAH) 총장) 발제 – Kunihiro Uchida(나고야국제디자인센터 소장, 일본) – Kari Raina(헬싱키 예술디자인도시코퍼레이션 CEO, 핀란드) – Tin Pui Leung(홍콩디자인센터 디렉터, 중국) – Gianni Rossetti(토리노시 경제개발국 국장, 이탈리아) – 정남준(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한국)
DAY3, 미래의 삶과 디자인 10. 19 09:00~17:30	사회 : 박인석(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한국) 발제 – 미래의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에 대한 전망 : Mervyn Kurlansky(전 국제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ICOGRADA) 회장) – 공간이 중요하다 : Bill Moggridge(미국 IDEO 대표)

문화행사

의식행사로 개막식과 개관식, 폐막식 이외에 전야제 형식의 점등행사를 포함해 총 4종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내외 귀빈, 광주시민이 참석한 개막식은 전국으로 생방송되면서 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을 예감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KBS아나운서 황수정씨의 사회로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삶을 비추는 디자인'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는 디자인과 삶의 관계와 함께 디자인의 미래를 넌버벌(non-verbal)퍼포먼스로 보여주었다. 10월 18일(09:40~11:20)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한갑수 이사장, 박광태 광주시장, 디자인총감독(이순종), 피터젝 ICSID회장 및 참여작가와 시민들이 함께하여 개회사 및 개막선언,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영상, 환영사, 축사, 주제퍼포먼스, 명예의 전당 시상식, 주제설명 및 작가 소개, 테이프커팅, 축하공연, 내빈 전시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막 하루 전에 열린 점등행사는 전야제 성격으로 광주시청 광장에 들어선 광주의 상징 조형물 '기원'에 불을 밝히는 특별전2 '미래도시: 광주'전시 오픈 행사로 진행되었다.

한편 폐막식은 17일간의 행사를 마치고 관계자와 참여자들이 함께 나누는 자축의 한마당으로 진행되었다. 11월 3일(17:00)김대중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도슨트, 자원봉사자, 재단 임원들, 큐레이터, 작가 등이 자리를 함께 하여 경과보고, 17일간의 다큐영상, 축하공연, 폐막선언, 만찬, 도슨트 및 자원봉사자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연행사로는 연극, 춤, 음악, 마임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팀 12팀이 참여해 '광장에서 즐기는 디자인비엔날레'라는 주제로 Design Performance(몸), Dynamic Dance(짓), Date Music(소리), Desire Magic(감각) 등의 공연을 했다. '영화로 즐기는 비엔날레'를 마련,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족을 대상

으로 13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인터렉티브 한 전시체험인 '미디어아트로 즐기는 디자인비엔날레'와 전국의 디자이너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체험 중심의 '난장에서 즐기는 디자인 비엔날레'도 많은 호응 속에 개최됐다. 특별행사로 마련된 '장광효 패션쇼'도 '웰빙과 자기표현에의 욕구'라는 테마로 진행됐다.

추진일정

2004. 12 디자인총감독 후보추천소위원회 구성(제70차 이사회)
2005. 1 총감독 추천 자문위원(7인) 1차 및 2차 회의(1차 추천된 7명중 5명으로 압축)
2005. 1 디자인총감독 선임(제72차 이사회)
2005. 2 전시자문위원회 구성(30명, 제72차 이사회)
2005. 3 디자인비엔날레 행사기본계획 확정(제73차 이사회)
2005. 4 디자인비엔날레 주제 및 개최기간 등 확정(76차 이사회), EIP 확정
2005. 6 전시기획안 확정
2005. 8 출품작 확정(32개국 1,038점)
2005. 9 1차 작품 반입(비엔날레전시관)
2005. 10 전시 공간 공사 및 작품 설치
2005. 10 행사 개막(10. 18~11. 3)
2005. 11 폐막 및 작품 반송 및 공간 철거

3.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빛_L.I.G.H.T'

2007. 10. 3 ~ 11. 5(30일간) / 김대중컨벤션센터
45개국, 2007작품(디자이너 : 930 / 기업 및 기관 103), 관객 251,220명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빛_L.I.G.H.T'를 주제로 2007년 10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0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전 한국디자인진흥원 본부장을 역임했던 이순인 디자인총감독(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교수)의 총괄기획 아래 주제는 '빛의 도시' 광주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Life·Identity·Green·Human·Technology 등 현대사회의 주요 키워드들을 소주제로 삼고 그 이니셜들을 조합하여 큰 주제하에(LIGHT) 구체적인 삶에 디자인적 본질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전시는 크게 본전시와 특별전, 이벤트 전시로 나뉘었는데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발달에 따른 삶의 변화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 두 번째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라는 개최지의 배경을 적극 부각시켜 세계 평화를 위한 디자인의 매개 역할을 천명하는 '세계디자인평화선언'을 발표하고 기념조형물이 건립되었으며 2007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계기로 '디자인이 인간을 위한 디자인, 사회를 위한 디자인, 자연과 공존하는 디자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는 디자인 선언은 디자인계의 또 다른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게 하였다.
54억8,700만원(국비20억원, 시비24억5천만원, 민자10억3,700만원)을 투입해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주관해 치러진 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주제중심의 디자인비엔날레의 새 모델을 제시 했다. 2회를 치르면서 행사의 양적, 질적 성장을 꾀하였으며 세계적 관심확보와 디자인도시 광주 이미지 선점을 통해 '문화수도 광주'라는 이미지 제고와 위상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시기획자

디자인 총감독 : 이순인

홍익대와 동 대학원, 미국 Pratt대학원을 졸업하고 핀란드 헬싱키 경영대학원(EMBA) 석사, University of Twente(aSSIST) 디자인경영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97~2004. 한국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장, 1999~2003. 세계산업디자인총연합회(ICSID) 회계감사 집행위원, 2001~2002. 한일 월드컵 디자인자문위원, 2003~2005. 한국디자인브랜드경영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2007년 현재 홍익대학원 교수. (재)서울디자인센터 기획관리실장, 세계 산업디자인연합회(ICSID) 자문위원이다.
본전시 큐레이터 : 최익서(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강현주(인하대학교 교수)
특별전 큐레이터 : 강인호(목포과학대학교 교수)
국제컨퍼런스&이벤트 : 백종원((주)네이트시스템 대표)

전시기획

주제

주제인 빛_'L·I·G·H·T'는 빛고을 광주의 정체성과 함께 확장된 디자인 개념을 살펴보기 위한 동시대 디자인계의 세부 의제들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이 주제를 통해 21세기 확장된 개념의 디자인,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세계와 일상과 관련된 동시대 디자인 트렌드를 조명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실천의 핵심 주체로서의 디자인을 살펴본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디자인 문화 정착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생활(Life), 정체성(Identity), 환경(Green), 감성(Human), 기술(Technology) 각각의 세부 주제전시를 통하여 '이 시대의 빛'을 디자인으로 이야기하고자 했으며 이 다섯 가지 빛과 디자인은 조화롭게 상응하며 평등하게 비추는 빛의 융합과 소통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된다.

전시개념

거시적 관점에서 20세기 산업 디자인 패러다임에서 21세기 디자인산업으로 이행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동시대 산업 디자인은 물론 디지털, 영상, 도시 디자인 등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 융합되는 영역의 디자인 산업을 조망하여 미래 디자인 산업의 비전을 탐색하였다. 전시 관람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또한, 세계디자인계에 '디자인을 통한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시 내용

인트로

▶빛의 터널 : 어두운 터널로 구성된 빛의 광장으로 향하는 통로로 구성하고 바닥과 벽면, 천정에 LED 조명 효과 및 영상물 중심의 인트로로 구성하였다.
▶빛의 광장 : 각 섹션으로 향하는 게이트 역할의 관문 설치 및 각각의 섹션 소개 및 관람 맵 설치와 동심원의 중심부에 원형광장을 두어 쉼터를 조성하였다.

본전시

▶Life_생활의 빛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제품 디자인 개발 사례와 체험을 통해 유익성과 디자인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Identity_정체성의 빛 : 세계적 범주의 개인, 기업 Identity를 표현한 디자인 작품과 한중일포스터전으로 국가적 이데올로기의 아이덴티티 등 사례 작품을 전시하였다.

▶Green_환경의 빛 : 자연과 인간의 산업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자연/인간, 아날로그/디지털, 하이테크/하이터치를 통합하는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Human_감성의 빛 : 인간의 5감 체험, 제품, 서비스 혹은 시스템의 조직적 상호 교감적인 디자인으로 시, 청, 후, 미, 촉감 기반의 디자인사례 및 체험코너를 구성하였다.

▶Technology_진화의 빛 : 뉴미디어 사회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보여 주는 디자인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특별전

▶명예의 전당 : '20세기 디자인발자취' 지난 20세기의 대표적 디자인제품들로 구성, 디자인 역사를 시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평화선언과 연계성을 가지는 '인류를 위한 디자인'을 대표하는 전시물로 구성하였다.

▶광주 디자인 자산 100선 : 전국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의 디자인 발전상의 구체적인 비교와 광주디자인 관련 기업관 및 문화상품관(우수 디자인 전시)으로 꾸몄다.

특별기념행사

▶세계디자인평화선언 : 개막식에서 발신한 '세계디자인평화선언'은 디자인이 인간과 사회를 위하고, 자연과 공존하고, 평화에 기여하는 디자인으로 새 지평을 열어가기를 희망하는 실천적 메시지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념메시지를 통해 민주와 인권으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이 디자인의 기본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그 바탕에는 평화와 공존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디자인평화선언'의 발신지가 광주인 까닭을 천명하였다.

▶상징조형물 : 동 행사를 통한 국제적 의미 부여와 개막식과 관련한 상징조형물 점등식으로 익시드 50주년 총회 시 영상 메시지를 전송, 전 세계에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발신기지로서의 광주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코자하였다.

전시공간 및 전시장 운영

전시공간

'빛_L·I·G·H·T'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5개의 세부 주제들 간의 응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출하였다. 콘텐츠를 활용하여 동시대 디자인계의 의제들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5개의 세부전시의 이미지가 무엇보다도 중심주제로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시연출이 필수적이었다.

전시장 운영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장 운영은 전시 의도 및 참여 작품들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표출함과 동시에 관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장내 휴게시설 확보 및 다양한 작품설명 서비스 등을 기획단계에서부터 반영하였고, 작품 보호 및 안전관리 체제를 탄탄하게 정비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장내 관리 인력 전원이 안전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였다. 관람객 우선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전시장 운영 인력은 세 분야로 구분하여 작품설명을 위한 도슨트와 전시작품 관리 및 동선유도를 위한 안전·운영요원, 작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작품관리요원으로 배치 운영하였다.

부대행사

2007GDB 국제디자인공모전

차세대 디자이너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빛, 거리를 비추다'를 주제로 실시한 국제디자인공모전에 90개국 3359명의 디자이너들이 3431점의 작품을 접수하였다.

구분	시상 명칭	금 액	시상자
1등	광주시장상 1명	미화 3,000달러	윌리엄 헤일리앙 첸 외 2인, 영국
2등	GDB 재단이사장상 1명	미화 1,500달러	니클라스 로프버그, 핀란드
3등	미화 각 500달러	미화 각 500달러	타마스 스자칼, 헝가리
			라파엘 모르간, 브라질

기념초대전

▶빛의시인 잉고마우러전 : 잉고 마우러의 새로운 상상을 통해 본 조명기기 작품을 전시하였다.

▶디자이너의 빛 : 주제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작품을 전시하였다.

▶모바일폰 디자인 역사 : 휴대폰 디자인의 흐름을 살펴보고 과거의 트렌드를 통한 미래를 예견해보는 장으로 구성하였다.

학술회의 : 평화디자인(Peace Design) 부제 : 융합과 소통(Convergence & Communication)

구분/일시	주제 및 발제자
DAY1 개회 및 컨퍼런스 10. 5	사회 : 백종원(네이트대표) 발제 - 평화의 빛과 광주 :잉고 마우러(잉고마우러스튜디오대표), 이순인감독) - U-디자인 : 인간을 위한 디자인:피터젝(ICSID회장) - 디자인은 나의 모든 것이다 : 김영세(이노디자인 대표)
DAY2 국제디자인컨퍼런스 10. 6	사회 : 이순인 감독 발제 - U-디자인시대의 생활과 문화 : 박영순(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 융합과 소통 :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의 역할과방향 : 자크랭(ICOGRADA회장) - 통섭적 디자인의 소고 : 우흥룡(한국디자인학회회장) - 평화와 디자인 : 에쿠안 켄지(일본GK디자인그룹회장) 토론 - 론나바로(이스라엘과학대학교수) - 아드리엔느 빌조엔(남아공디자인연구소 소장
어울림디자인인통합학회 학술대회 : 한국미학미술사학회, 한국공간디자인협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참여	

문화행사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인간을 위한 디자인, 사회를 위한 디자인, 자연과 공존하는 디자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세계디자인평화선언을 마련하였다. 10월 4일(19:00~19:40)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김대중 前대통령, 광주시장, 이순인 디자인총감독, 시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야제에서는 음악공연, 주제퍼포먼스, 축하공연, 작품설명, 세계디자인평화선언기념 조형물 점등 행사가 진행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계디자인평화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독일작가 잉고 마우러가 제작한 '세계디자인평화선언 기념 상징조형물' 점등식의 의미가 컸던 전야제였다.

10월 5일(10:00~11:20)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참석으로 국내·외 미디어 매체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었으며, '세계디자인평화선언'의 정신을 세계의 디자이너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효과를 증폭시켰다. 세계 양대 디자인협회장인 피터 젝(세계산업디자인 협회장)과 자크랭(세계그래픽디자인단체장)에게 '평화의 빛'을 상징하는 청사초롱을 증정하기도 했다.

11월 3일 폐막식에는 재단이사, 스텝, 자원봉사자, 전시관계자 등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자축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즐거운 전통의 한마당을 벌였다.

추진일정

2006. 5 디자인총감독 선정절차 결정(소위원회 구성 7명 : 제87차 이사회 서면심의)
2006. 5 디자인총감독 추천 소위원회 1차 회의
2006. 6 디자인총감독 추천 소위원회 2차 회의(총감독 후보 제안서 발표순서 및 방식 결정 등)
2006. 6 디자인총감독 선정(제88차 이사회)
2006. 8 자문위원회 구성(30명, 이사회)
2007. 2 전시기본계획 확정
2007. 3 국내 큐레이터(4명)선임, EIP 개발완료
2007. 6 전시기획안 최종 확정, D-100 행사(무등경기장야구장)
2007. 상징조형물(세계디자인평화선언기념) '평화의 빛' 작가 선정
2007. 8 전시공간 설계 확정
2007. 8 출품작 확정(45개국 2,007점)
2007. 10 전시공간 공사 및 작품 설치(9. 21~10. 3)
2007. 10 상징조형물 '평화의 빛' 준공
2007. 10 프레스 오픈 및 전야제(10. 4)
2007. 10 행사 개막 및 국제학술회의(10.5~11. 3)
2007. 11 폐막 및 작품 반송 및 공간 철거

4.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The Clue_더할 나위 없는'

2009. 9. 18 ~ 11. 4(48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내 양림동 일원

48개국, 1951작품(519명의 디자이너 / 376개 기업 및 기관), 관객 20만2053명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세계 디자인의 가치를 선도하기 위한 실마리와 비전을 제시하고, 개최지의 문화·산업기반 육성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2009년 9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48일 동안 'The Clue_더할 나위 없는'을 주제로 열렸다. 제1·2회 행사는 광주비엔날레와 장소를 구분할 겸 디자인분야의 특성을 살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나 광주세계광엑스포(2009. 10. 9~11. 5) 행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처음으로 비엔날레전시관으로 옮겨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주 행사장 외에 시민 삶의 현장인 양림동 일원을 행사장으로 연결 확대하였다. 은병수(은카운슬 대표) 디자인총감독의 총괄기획으로 전시는 우리 문화자산 내부로부터 현대디자인의 대안을 찾고, 아울러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환경생태에 관한 디자이너들의 관심과 활동들을 적극 유도하고 소개하면서, 현대미술과 디자인 또는 미술과 음악·문학 등의 장르구분 없이 시각적 요소들을 재구성하고, 폐품 재활용과 배려의 디자인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전시의 구성은 주제전과 프로젝트전, 특별프로젝트로 구성하였는데, 주제전은 한국 문화원형으로부터 세계 디자인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한다는 기획취지에 따라 '옷(衣)·맛(食)·집(住)·글(學)·소리(樂)'등 5개 섹션으로, 프로젝트전은 '살림(救, Save)·살핌(慮, Care)·어울림(交, Share)'등 3개, 특별프로젝트로 기획하였다.

58억9200만원(국비20억원, 시비28억1300만원, 민자10억1600만원)을 투입해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주관해 치러진 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생활 속 디자인의 의미를 환기하는 등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시기획자

디자인총감독 은병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후 미국 Pratt Institute에서 산업디자인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1 <버내큘러 미러 : 20세기 세계디자인전>(서울) 총괄 디렉터, 2006 <크리에이티브 아시아전> 큐레이터를 역임하였고, 서울 광화문 티샘, 2001 디자인문화 컨설팅그룹 EUNcouncil을 설립하여 대표직을 맡고 있다.

큐레이터 각 섹션별 전시를 이끌게 될 큐레이터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었고 주제전 9명, 프로젝트전 4명으로 총 13명의 국내·외 큐레이터를 선임하였으며 처음으로 도입된 기획큐레이터와 비즈니스 큐레이터 2명을 별도 선임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구 분			성 명	국적	현 직
기획 큐레이터			이나미	한국	Studio BAF 대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부교수
비즈니스 큐레이터			Sei. Park	미국	'The Pacific Group' 대표
주제전 9명	의(衣)	큐레이터	배영진	한국	꼬세르(패션) 대표
		협력큐레이터	Sean Mooney	미국	SMAK(실내건축디자인) Project 대표
	식(食)	큐레이터	오정미	한국	푸드아트인스티튜트 소장
		협력큐레이터	Susumu Yonaguni	일본	'Oh kitchen' 대표
	주(住)	큐레이터	조병수	한국	봄 조병수건축연구소 대표
		협력큐레이터	Mohsen Mostafavi	미국	하버드대학교 학장(건축학)
	학(學)	큐레이터	한재준	한국	서울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락(樂)	큐레이터	김영일	한국	(주)악당이반 대표
		협력큐레이터	Laurent Guanzini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 학과장
프로젝트 4명	살림(救)	협력큐레이터	Aric Chen	미국	100% Design Shanghai : Creative Director
	살핌(慮)	협력큐레이터	Satoshi Nakagawa	일본	'Tripod design' 대표
	어울림(交)	큐레이터	박유복	한국	(주)인스나인 기업부설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협력큐레이터	규랑	한국	다겸문화예술공간기획 대표

전시기획

주제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인 'The Clue_더할 나위 없는'은 이례적으로 영문과 한글이 조합을 이루어 만들어진 주제이다. 영문 'The Clue'는 실마리, 단서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글로벌 디자인계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더할 나위 없는'은 더할 수 있는 여지나 더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디자인을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순수한 우리말 표현이다. 'The Clue'가 '질문'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은 '이상적 솔루션'을 찾아본다는 '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디자인계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시개념

본전시는 'The Clue-더할 나위 없는'을 주제로 5개 테마의 주제전과 3개의 프로젝트전, 2개의 특별프로젝트와 1개의 특별전으로 구성하였으며, 본전시관 이외의 시내 주요 사이트까지 활용하여 전시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디자인의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틀인 '의(衣). 식(食). 주(住). 학(學). 락(樂)'으로 구분한 다섯 개의 주제로 구성, '옷. 맛. 집. 글. 소리'라는 순수 우리말 표현으로 정립하였다.

전시 내용

주제전

▶옷_衣 : 한국의 옷을 전형적인 이미지와 형상에서 탈피, 다양한 콘텐츠로 전시하되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전시가 아닌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하는 전시로 4개의 섹션(디자이너스 스튜디오, 다시 태어난 우리 저고리, 경계를 넘어, 천개의 인형-천개의 옷)으로 진행하였다.

▶맛_食 : 한국의 식문화가 가진 디자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재창조해 크게 3개의 섹션(의례음식과 오방색, 어린이책, Cook's Kitchen)으로 구성하였다.

▶집_住 : '住'전시에서는, 전체적인 주제인 'The Clue'와 관련하여, 빛을 다룬 글로벌한 Clue와 소쇄원이라는 정원을 '유기적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Clue의 두 개의 섹션(Clue One : 'One Earth, One Sun', Clue Two : Box of 'Rest')으로 전개하고 구성했다.

▶글_學 : 560여 년 전에 디자인된 한글의 보편성과 지속가능한 특성, 우주질서, 사람을 생각하는 깊은 배려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과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비롯해 모든 이들이 그 가치를 나누고 공유해보고자 5개의 섹션(소리와 글자, 훈민정음과 한글, 세계 속의 한글, 오늘의 한글, 한글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전시구성 하였다.

▶소리_樂 : '디자인으로 즐기는 소리의 맛'으로, 디자인과 소리는 서로의 존재를 완성시켜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 것임을 전시를 통해 체험해보고 즐겨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개의 섹션('에디슨부터 IT'', '영화음악의 방', '게임음악의 방', '창작음악의 방', '죽파의 방')을 통해 소리를 매개로 한 디자인의 태동과 변화를 펼쳐놓았다.

프로젝트전

▶살림(救)_Design to Save : 살림전은 크게 세 가지 맥락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재활 재생을 의미하는 살리고(re-vital)이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환경적 이슈에 부합하는 살리고(substantiality)이고 마지막은 살림살이, 삶, 일상과 연계 되는 살리고(living)이다.

▶살핌(慮)_Design to Care : Universal Design을 중심으로 연령이나 성별, 언어,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및 환경적 디자인을 삶의 새로운 해석과 함께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디자인의 궁극적 목표로 '배려의 디자인'을 제안한다.

▶어울림(交)_Design to Share : 광주의 근대문화 흔적들이 산재한 골목을 통해 다양한 만남의 변주곡을 형성하고 광주 도심 속에 숨겨진 양림동 일대와 광주 구도심의 거리에서 어울림을 테마로 전시와 행사를 통해 '어울림'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특별프로젝트

▶싱싱노래방 : 시민의 문화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작품세계와 시민참여형 디자인놀이 공간을 설치운영하여 시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기획의도로 싱싱노래방을 설치운영 하였으며 세계적인 아티스트 최정화를 선정하여 제작케 하였다.

▶상징조형물(리모델링) : 제1, 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징조형물 조성사업과 연결하면서도 방치되고 슬럼화되는 제3의 장소를 탈바꿈시키고 디자인적 도시와 친환경 문화공간으로서 건축개념을 구현하고자 했다. 작가로는 조병수 건축가와 색채컨설팅 분야 전문가인 질 필라로시아(미국, Jill Pilaroscia)를 공동 협업자로 선정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국제학술회의

'실.마.리.찾.기 Searching for the Clue'

구분/일시		주제 및 발제자
국제디자인워크샵 5. 22~23 비엔날레전시관 회의실	사회 : 은병수 (총감독)	① 배영진 : 저고리 속에 숨은 '창의적 도전을 위한 한계' / Sean Mooney : 전통의 형태를 유지하며 깨뜨리다 ② 오정미 : 한국의 의례음식 속 오방색의 의미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 / 요나구니 스스무 : 세계 여러 나라 음식에서의 '색'이 주는 의미 ③ 조병수 : 소쇄원- 한국의 정원 디자인 / Moshen Mostafavi : 프랑스/영국/이란의 정원 ④ 한재준 : 한글에 담긴 지속가능한 디자인적 가치 / Werner Sasse : 한글의 언어학적, 철학적 원리와 디자인 ⑤ 김영일 : '산조'를 통해 발견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 Laurent Guanzini: 현대음악 안에 발생하는 새로운 흐름 ⑥ 최미경 : '살리고(revital) 살리고(sustainable) 살리는(living) 디자인'우리 전 / Aric chen : 지속가능한 적극적 연계망으로서의 '뜨개질' ⑦ 박유복_소통 : '골목길과 장바닥 연결하기' / 마르코 부르노 : 계의 스트리트 전시 디자인
국제디자인포럼 9. 18~9. 19 비엔날레전시관 회의실	DAY 1 사회 : 은병수 (총감독)	1부 : Clue with vision & responsibilities - 광주, 디자인을 말하다(정국현) - 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함 쉘튼)
	DAY 2 사회 : 은병수 (총감독)	2부 : Clue beyond the boundaries 카리스마적인 태국디자인 정체성을 통한 환경보존(이가랏 움차릿) 한국적 스타일(클락 르웰린) 3부 : Clue with Creativities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문자들(마시모 피티스) 친환경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스완콩쿤티안) 4부: Clue Talk on 2009 Gwangju Design Biennale - 종합토론(발제자)

전시공간 및 전시장 운영

전시공간

주제전과 프로젝트전을 상호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는 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공간의 교차, 병렬 등 차별화된 연출기법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전시실 별 이동통로 및 옥외공간도 최대한 활용하여 전시기획의 의도와 적절한 주제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공용 공간 디자인을 하였다.

전시운영

작품의 도난 또는 파손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시장 내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안내요원과 전시장 내 경비업무를 위한 안전요원을 두어 운영하였다. 안내요원은 총 50명이 각 전시실별로 배치되었고, 총 10명이 각 전시실별로 배치되어 안내요원과 협력하여 실별 안전관리 대응과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작품이 있는 위치에 배치해 고객안전 및 전시물 보호, 도난방지 등에 주력하였다.
또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인 58명의 도슨트를 투입 관객들의 전시관람을 도왔다. 주요 외빈 및 미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체 전시를 순회하여 설명할 수 있는 시니어 도슨트, 각 전시실별로 담당 전시실 전체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전시실별 도슨트, 정기해설투어에 따라 1전시관부터 5전시관까지 관람객을 안내하는 정기해설 도슨트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전시기간 동안 각 지역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전시 관계자 및 참여 디자이너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리고 지역기업인들과 상담을 통해 디자인비엔날레와 산업간 연계를 모색하였다. 비즈니스라운지 운영에 총 4명의 전문인력(비즈니스큐레이터 1명, 코디네이터 1명, 보조인력 2명)을 투입해 서울사무소에서 유수기업 섭외, 현장 관람 지원, 상담 자료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전시기간 내에 단순히 관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디자인과 산업간 가교역할을 하였고 기업체, 학계와 유관기관 등에서 약 100여 기업이 비즈니스라운지를 방문한 것은 지역에서 열리는 장소적 제한을 극복한 적극적인 산업화 마케팅 방법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비즈니스데이 참가자

· 제1차(9. 23) : 무아쏘니에 최덕환 대표, 세이브더칠드런 최혜정 부장 외 12명
· 제2차(10. 10) : (주)시냅시스 유진숙 대표, 다올 부동산신탁 박동수 회장 외 12명
· 제3차(10. 16) : 훈민정음학회 이기남 이사장, 스카이벽지 왕장흡 대표 외 22명
· 제4차(10. 17) : 노인·소아과의사협회 정승기 회장, SK네트워크사업전략본부 외 8명
· 제5차(10. 29) : 순천사랑 구충림 대표이사, (주)인아렉스 백희종 대표이사 등 지역 중소기업인 대표 38명

문화행사

2009년 9월 17일 광주 남구의 이장우 가옥에서 진행된 전야제는 '즐거운 축제와 즐거운 디자인이 접목된다'는 컨셉으로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체 주제를 부각시키고 이를 위해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관련 인사를 초청해 행사를 설명하고 전통가옥을 무대로 전통음악과 재즈밴드 공연을 했다.
2009년 9월 18일(09:30~13:30) 비엔날레전시관 앞 테마파크 광장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재단이사장, 상임부이사장, 디자인총감독(은병수), 국내·외 주요인사 및 시민 등 약 700명이 참여했다. 개막선언, 환영사, 전시개요설명, 개관식(깃발퍼포먼스), 작품관람, 리셉션(행사진행 : 김학실 KBC 아나운서, 영어 순차통역)등이 이어졌다. 개막 축하공연(황지우 작, 이상우 연출, 문성근 등이 출연)을 개막당일과 이튿날(9월 18일, 19일) 총 2회 진행했다. 처음으로 야외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주제공연 및 행사장 후면에는 30m 밥상을 제작 국수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개관식은 주요 인사들의 소원이 적힌 깃발을 전시관 입구에 꽂아두는 '깃발 퍼포먼스'를 시도하여 기존의 테이프 커팅 방식과 차별화 했다. 2009년 11월 4일(18:25~20:30) 폐막식을 갖고 행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자축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15:30~18:00) 해외민속공연, 국악, 무용, 클래식, 퓨전재즈, 비보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2~3회 공연을 가져 시민들에게 문화의 즐거움을 전했다.

추진일정

2008. 4 디자인총감독 선정절차 근거방침 결정(정관 시행규칙 제4조의2항)
2008. 7~8 후보추천 자문위원회의(총감독 선임 관련 자문 및 의견 수렴)
2008.10 후보선정 예술소위원회 개최(추천후보 압축 1명 : 은병수)
2009. 2 전시기본계획 확정
2009. 3 큐레이터선임 및 워크숍, EIP 매뉴얼 최종 확정
2009. 6 참여 디자이너 및 기업 최종 확정
2009. 7 도슨트 선발, 전시참여자 최종확정(48개국 1951점)
2009. 9 작품 설치 및 공사
2009. 9 프레스오픈 및 전야제(9. 17)
2009. 9 행사 개막 및 국제디자인포럼(9. 18~19)
2009. 11 행사 폐막(11. 4)
2009. 12 작품반송 및 철거 복구

5.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가도비상도 圖可圖非常圖'

2011. 9. 2 ~ 11. 23(52일간)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 광주시내 일원
44개국, 159작품(작가 : 146명–폴리 포함 / 기업 86), 관람객 25만6800여명(폴리 포함)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_Design is design is not design)를 주제로 2011년 9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52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내(옛읍성터)일원에서 열렸다. 승효상(건축사무소 이로재 대표)·아이 웨이웨이(중국 작가 겸 건축가) 공동감독에 의해 설정된 전시 주제는 '디자인이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아니다'는 정형과 관념에 대한 탈피의 뜻을 담고 있다. 디자인에 관한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디자인 문화와 미학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기획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본 행사는 디자인에서 이름과 장소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담론으로 확장시켜 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즉, 디자이너 이름이나 브랜드 가치가 널리 알려진 디자인의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내는 <유명 Named>전, 디자이너나 브랜드 가치를 떠나 세상에 널리 통용되고 있거나 묻혀 있는 <무명 Unnamed>전, 특정장소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공동체 개념에서 벗어나 도시·음식·녹색 등을 테마로 사회적 네트워크나 현장진행형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서 <커뮤니티 Communities>, 광주의 도심 속 옛 읍성터와 폐선부지 구간인 푸른 길에 도시의 역사와 흔적, 현재의 일

상과 만나는 소규모 기능성 도시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광주폴리 Gwangju Folly>, 전시장을 중성적 복합 도시공간으로 특성을 부여하며 각 섹션을 엮어 가상의 디자인시티로 공간을 구성하는 <비엔날레 시티 Biennale City>, 이번 비엔날레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내면서 전체 섹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전시와 참여가 혼합된 설치·미디어·그래픽·조경·건축·공연 등을 연출해내는 <주제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기획 준비과정을 디자인해 나가며 학술적으로 심화시키고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 릴레이 워크숍과 심포지엄으로 이루어지는 <아카데미>가 행사개막 때까지 총 8번 진행되었다.

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50억4100만원(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자체 10억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주관해 치러졌다.

전시기획자

공동감독(국내) : 승효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비엔나 공과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지혜의 도시, 지혜의 건축』, 『Works 10x2』, 『비움의 구축』,『지문-땅 위에 새겨진 자연과 삶의 기록들』 등을 저술하였고 서울대학교 강사, 북런던대학교 객원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이다.

공동감독(국외) : 아이 웨이웨이(중국)

베이징 영화학교에 입학한 후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수학하였고, 벨기에 University of Gent에서 정치사회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China Art Archives & Warehouse(CAAW)공동설립자이자 예술감독이었으며 2008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공동설계(Herzog & de Meuron), 2008 '오르도스 100(Orods 100)'건축프로젝트 큐레이터를 역임하였고 현재 건축스튜디오 FAKE Design 대표이다.

큐레이터 본 주제에 맞는 각 섹션별로 큐레이터가 담당해야 할 전시항목은 유명, 무명, 광주폴리, 커뮤니티와 같은 총 4개의 섹션으로 구분하여 큐레이터를 선임하게 되었다. 규모에 따라 1인 큐레이터가 2개의 전시를 담당하게 하였다.

구 분		성 명	국 적	현 직
수석 큐레이터		배형민	한국	서울시립대 교수
주제전(intro)		배형민	한국	서울시립대 교수
섹션전	Section_1 유명(Named)	조민석	한국	매스 스터디스 대표
		안토니 폰테노	미국	건축가
	Section_2 무명(Unnamed)	브렌단 맥게트릭	미국	건축기획 및 자유 기고가
	Section_3 광주폴리(Gwangju Folly)	김영준	한국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라몬프렛	스페인	ActarBirkhäuser Managing Director
	Section_4 디자인공동체(Community)	비아트리스 갈릴리	영국	큐레이터
		최혜정	한국	국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시기획

주제

2500년 전 중국의 노자 도덕경의 '도가도비상도'(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라는 잠언은 오랫동안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21세기 철학적 사유와 예술적 실천의 주요 흐름인 이질성, 혼종성 그리고 불확실성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는 한자어 표기인 '디자인이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아니다'에서부터, 영문 표현 'design is design is not design'까지 표현은 일정한 언어의 놀이로 구성된 것이다. 리듬이 있는 후렴구처럼 들릴 수 있어 뜻이 쉽게 새겨지지 않더라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시개념

'이름'과 '장소'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서 도출되었다. 예전부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름 있는 디자인'과 일상적으로 디자인이라 부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름 없는 디자인'을 구분하였다. 마찬가지로 '장소성을 가진 디자인', '장소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본 전시를 통해 광주의 구체적인 장소성과 도시적인 성격에 착안하여 '광주 폴리'라는 도시공공시설물을 디자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다루는 '커뮤니티'를 추가해 전체를 네 개의 전시 섹션으로 구성하고 전시실 자체가 하나의 특별한 도시가 되며, 이 디자인 도시를 소요하면서 방문객들이 '장소'를 경험하도록 하고자 했다. 이로써 주제전, 유명, 무명, 광주폴리, 커뮤니티에 비엔날레시티까지 총 6개의 전시가 구성되었다.

전시구성 및 내용

▶주제전 Thematic, 아카데미academyc : 주제전은 비엔날레의 전체 주제를 해석하고 풀어내며, 각 섹션들을 큰 주제 아래 묶는 역할을 한다. 아카데미의 존재 이유는 '디자인비엔날레를 디자인한다'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비엔날레의 개념이 학술적으로 드러나며, 주제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유명 named : 우선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 있는 디자이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으나 무명과 유명 사이의 관계, 과연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을 전시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유명의 전시는 무명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기획된 전시로 구성하였다.

▶무명 unnamed : 우리의 주변의 일상 속에서 디자이너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감각, 이성,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로 사물, 공간에서부터 사회·제도·정치에 이르기까지 무명 디자인의 개념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커뮤니티 community : 오늘날 이념과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커뮤니티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지향하는 장소성과 이념적 동질성을 전시하고자 했다.

▶광주 폴리 Gwangju folly : 광주 도시환경의 질적 전환을 이루게 하고 디자인비엔날레가 담론적 차원을 넘어 시민과 사회에 남기는 기억체가 되고, 디자인에서 장소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개념적 접근방식이었다.

▶비엔날레 시티 biennale city : 디자인이 근본적으로 삶의 문제라면 비엔날레 전시관은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여기에 가상의 디자인시티가 구축된다. 이 도시는 '유명의 디자인', '무명의 디자인', '광주 폴리', '커뮤니티' 그리고 '주제전'으로 이루어지는 다층 레이어를 갖게 됨으로써 디자인의 생태계이자 구체적인 도시처럼 엮이게 하였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삶의 모든 영역이 펼쳐지는 하나의 도시를 여행하는 공간이자 시티가 되도록 하였다.

국제학술프로그램

아카데미는 주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논의를 심화하며 이를 기록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적인 포럼으로 기획되었다.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된 아카데미는 비엔날레 각 섹션의 큐레이터들이 큰 주제를 이해하고 전시를 준비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다양한 예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학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일정	주제	장소	참가자
1차 2011. 4. 8	디자인에서의 오리지날, 표절, 카피	T-Art 센터, 798예술지구베이징	브렌던 맥게트릭, 잔 칩체이스, 제레미 골드콘
2차 5. 17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2011GDB메니페스토	스토어프론트, 뉴욕	앤서니 폰테노, 조민석, 쇼헤이 시게마츠, 야콥 빌트쉬외츠, 로살리에 즈네브로, 프렘 크리슈나머시, 배리 버그돌, 브렌던 맥게트릭, 크리스 앤 도미닉 레옹, 펠리시티 D. 스코트, 배형민, 앨리스 S.김, 에바 프란치 이질라베르트
3차 5. 31	어번 폴리: 공적 공간에 개입하기	DHUB(바르셀로나)	김영준, 라몬 프랏, 후안 헤레로스, 플로리안 베이겔,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필립 크리스투
4차 6. 6	커뮤니티, 정치, 디자인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 고퍼 홀, 런던	비아트리스 갈릴리, 프란시스코 산인, 플로리안 베이겔, 요한나 애저먼, 인디 요하르, 제레미 틸, 토니 프레튼, 캐롤라인 홉킨스, 블랜치 & 쇼크
5차 9. 1	아카데미 라운드테이블	갤러리2, 현장허브, 광주	인디 요하르, 배리 버그돌, 로살리에 즈네브로, 크리스 앤 도미닉 레옹, 펠리시티 D. 스코트, 요한나 애저먼, 프렘 크리슈나머시, 야콥 빌트쉬외츠, 에바 프란치 이 질라베르트, 데얀 주디치, 앤 해밀튼, 테오 도이팅거, 요제프 그리마, 폴 스미스, 비엔날레 큐레이터들

전시공간 및 운영

전시공간 연출(비엔날레 시티)

전시 공간을 하나의 도시로 구성한다는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 각 개별 전시실의 공간디자인에 실제 도시의 구조를 차용하여 그 구조와 형태를 적용하였다.

전시실에 들어서면서 관람객은 각기 다른 도시를 여행하듯 5개의 전시실을 방문하게 된다. 우리 앞에 놓인 낯선 도시의 지도처럼 전시실은 유명, 무명의 작품과 커뮤니티와 광주 폴리,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펼쳐내었다.

경직된 화이트 박스 대신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개입하고 새로운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도시를 여행하는 여행자의 입장에 서게 한다. 이는 수동적인 관람 형태를 벗어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와 발견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도슨트 운영 및 전시장 운영

22명의 도슨트를 선발해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후 역할별로 도슨트 매니저 2명, VIP대응 도슨트 3명, 예약 및 정기해설 담당 도슨트 15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비엔날레를 방문하는 주요 외빈 및 미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VIP해설,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와 작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정기해설, 학생,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 운영하는 예약해설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한편 장내 질서 유지, 관람객 안내, 작품 보호 등의 임무를 맡은 안내요원과 전시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그리고 장내 청결유지를 위한 미화요원을 두어 운영하였다. 단체관람객이 집중되는 평일 오전 시간대에는 안내요원이 입장관객 인솔 및 동선유도까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전시장 내 혼잡을 방지하고 동선의 흐름을 조절하였다.

문화행사

주제인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를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을 넘어 자연과 상생하고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개막행사로 관심을 모았다. 9월 1일(19:00~22:00) 광주비엔날레관 앞 광장 임시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무대 전체를 액자틀과 스크린으로 장식하여 빈 공간을 상상의 퍼포먼스로 채워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디자인을 연출하고 행사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의 삶 자체가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부각시켰다. 개막식에는 광주광역시장, 대표이사, 전라남도지사 및 광주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개막선언, 전시개요 설명, 개관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

10월 23일(19:20~21:00) 광주시립미술관 1층 로비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임직원, 자원봉사자, 도슨트, 후원사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 행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참여자, 진행자들을 위로하고 자축하는 공연과 행사를 가졌다.

시민참여프로그램

'시민참여 및 소통 확대'라는 재단의 행사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이전의 역대행사에 비해 훨씬 다양하게 확대된 참여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하여 시민사회와 보다 가까이 밀착하고 관람객들에게 전시와 더불어 즐길 거리 및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사용자에게 직접 묻고 그 제안으로 공공디자인물을 개선해가는 '나도 디자이너 : 도시를 누비는 디자인', 전문작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뷰티 미용체험, 주말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주요추진일정

2010. 1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감독선정 기초회의
2010. 2 디자인비엔날레 감독선정 관련 이사회 예술소위원회 개최
2010. 3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감독선정 국제자문회의 개최
제116차 이사회 : 국내 공동감독 선임(승효상 이로재 대표)
2010. 7 제118차 이사회 : 국외 공동감독 선임(아이 웨이웨이)
전시기획 관련 자문회의 및 기획회의(전시방향 및 주제 설정)
2010. 10 주제 및 전시기본계획 발표, 1차 국제아카데미(광주)
2010. 12 2차 국제아카데미(광주)
2011. 1~2 전시기획자 워크숍(북경, 광주)
2011. 2 광주폴리 시민보고회, 3차 국제아카데미(광주)
2011. 3 전시실행 마스터플랜 수립 및 EIP 개발 완료
2011. 4 제4차 국제아카데미 및 해외홍보 리셉션(북경)
2011. 5 제5차 국제아카데미개최(뉴욕), 제6차 국제아카데미개최(바르셀로나)
광주폴리 착공식 및 참여작가 전시회(쿤스트할레광주)
2011. 6 제7차 국제아카데미 개최(런던)
2011. 7 참여디자이너 및 작가 발표. 전시장 공간공사
2011. 8 전시작품 설치
2011. 9 프레스 오픈 및 개막식, 제8차 국제아카데미 개최, 광주폴리 준공식
2011. 10 폐막식, 전시작품 반출 및 철거
2011. 12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행사개최 결과보고

6.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거시기, 머시기(Anything, Something)'

2013. 9. 6 ~ 11. 3(59일간)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의재 미술관

총 24개국, 600여 작품(디자이너 299명 / 33개 기업), 관객 21만151명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거시기, 머시기(Anything, Something)'를 주제로 2013년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의재미술관 등지에서 열렸다. 이영혜(디자인하우스 대표) 총감독은 주제를 '거시기, 머시기'로 설정하고 그 의미를 '것이기, 멋이기'로 확장했다. 일상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에 사용자의 취향과 특성을 감안하여 창의적인 '멋'을 만들어내는 것, 그 과정에서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의 힘을 보여주는 전시들을 보여줬다.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주제전, 본전시, 특별전1, 특별전2, 국제학술회의로 구성되었다. 주제전은 'OLD & NEW' 라는 명제로 '우리문화박물지(저자 이어령)'에 실린 64개 사물에 담겨 있는 한국인의 문화 DNA 중 일부를 간추렸다. 또한 책 속 사물의 이름 뒤에 붙여진 시적인 함축성을 내포한 제목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실용성, 미의식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기획하였다.

본전시의 경우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예술성 있는 디자인은 미래창조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업의 생산품, 지역성,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가장 강력한 밑바탕이 되는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였다. 특별전1에서는 전 세계 화두인 에너지 절약, 착한 디자인을, 또한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시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미래 지향적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특별전2에서는 시민들과 디자이너가 협동 작업을 하고, 디자이너가 광주를 살펴보기도 하고, 관람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디자인을 선정하기도 하며, 광주 출신 유명 가수가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정을 담은 공간을 마련하였다. 모두가 생각하는 광주를 만날 수 있게 접근하였으며, 새로운 지역디자인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는 전시로 기획하였다.

5회 광주비엔날레는 광주광역시 주최, 광주비엔날레 주관으로 50억원(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자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러졌다.

전시기획자

디자인총감독 : 이영혜

홍익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및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IDAS) 뉴밀레니엄 과정을 수료하였다. 94년부터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을 기획 및 개최해왔으며 7개 월간매체와 단행본 출판 발행인이다. 동덕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초빙교수, 서울시 창의서울포럼 전략사업부문 부대표를 역임하였고 2005 노동부 주최 남녀고용평등 국무총리상 수상, 2008이태리 정부 최고 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현(주)디자인하우스 대표이사이다.

큐레이터

수석 전시기획자(디자인카운셀러)

데얀수딕(Deyan Sudjic) : 1952 영국 런던 출생, 런던디자인뮤지엄 관장

주제전 전시기획자(디자인카운셀러)

김백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김백선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전시기획

주제

'거시기, 머시기'라는 어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언어로써, 의미로써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다. 어쩌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단어보다 더 적절히 상황과 뜻을 전달하는 묘한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이다. 다만 이것은 '문맥(文脈, Context)'이 통할 때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살아온 문화적 습관과 특성을 알기 때문에 서로의 공감된 정서로 상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상대를 내 앞으로 한 발 더 당겨놓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거시기, 머시기'는 시대의 욕구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할 디자이너들이 주목해야 할 말이기도 하다. '거시기, 머시기'는 디자이너에게 '것이기, 멋이기'로 읽힐 수 있는데, 일상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에 사용자의 취향과 특성을 감안하여 창의적인 '멋'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며 디자이너의 힘과 역할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개념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산업화를 키워드로 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담고 있다. '광주 發 디자인'은 우리 일상에서 보편적인 디자인을 재인식,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을 제안하였다. 우리의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디자인을 품어 안는 매개도시로 '디자인抱 광주'를 선포하는 전시목표와 방향을 정립하는데 두었다. 또한 산업화를 통한 '광주 디자인'을 재발견하고 제품, 공간, 서비스디자인 내용으로 접목하여 디자인도시 광주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디자이너 창의성 제고와 디자인이 주도하는 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로 디자인 산업화 주도형 전시를 구현하는 데 힘썼다.

전시내용

주제전

<주제전시> 'Old & New'를 컨셉으로 주제전 로고타입, '우리문화박물지'에서 발췌하여 만든 배너, 책 속의 이미지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만든 패턴북 등 크게 3개로 구성하였다.

<해외초청전>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1개국 가구의 원형과 현대의 디자인을 한 자리에 모았다. 자신들의 국기를 생활 디자인에 적용해 친근감 있게 국가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것은 물론이고, 스포츠 분야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조산업을 가장 성공시키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 디자인의 현 주소와 아시아 주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내고자 하였다.

본전시(디자인정체성)

본 전시에서는 '디자인과 예술, 그리고 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술과 디자인, 산업의 경계를 구분 짓기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는 세 가지의 개념 중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예술과 산업 사이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떠한 예가 있는지 다루었다.

특별전

특별전1(디자인산업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 속의 디자인,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고자 하였다.

특별전2(지역서비스디자인, 장외전시)

시민들과 디자인을 통해 협동 작업을 하고, 디자이너가 광주를 살펴보기도 하고, 관람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디자인을 선정해보는 전시다.

국제학술프로그램

'디자인 가치에 대한 모든 관점(Any perspective on design values)' 9. 6 / 13

기획 : 나 건(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교수)

구분/일시		주제 및 발제자
DAY1, 국제컨퍼런스 9. 6	기조발언 : 이영혜 (것이기, 멋이기)	Design Transformation / 디자인 변화(브랜든 기언) Creativity : Imagination in the business / 창조 : 일에서의 상상력(알피오 포조니- 데얀 수딕) Design Values /디자인 가치(데얀 수딕) RE-THINK, RE-INVENT, RE-PURPOSE / 재고, 재개발, 용도 변경(벤자민 롤린스 콜드웰)
DAY2 초청강연 및 세미나 9. 13	초청강연 : 쿠마 켄코 (Body and Space -신체와 공간)	농사와 디자인(최덕림) 디자인에 의한 농업의 가치 혁신(김선아) 한라수(Hallasu) 용기디자인 사례 탐구(정수) 디지털 프린팅 기술의 다양성(하인원) 농산물과 디자인(박재범)

전시공간·행사장 운영

전시공간 연출

공간구성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최대화하여 전시 종료 후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방안을 연구하여 공간을 나누는 벽체의 파티션을 천으로 만들어 구성하였으며, 전시가구는 재생이 가능한 골판지 재질로 제작하여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고 재활용하였다.

이전의 전시관 출구를 입구로 사용하는 역동선을 채택하여 비엔날레 전시관의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입구로 바꾸고 중외공원 산책로로 이어지는 출구를 채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시관람 후 중외공원으로 관람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인접한 시립미술관 및 민속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도슨트 및 전시장 운영

33명의 도슨트를 선발해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위촉된 26명의 도슨트가 비엔날레를 방문하는 주요 외빈 및 미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전해설, 일반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와 작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정기해설, 학생,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 운영하는 예약해설 등을 담당했다. 역할별로는 도슨트 매니저 2명, 귀빈 의전 도슨트 3명, 예약 및 정기해설 담당 도슨트 21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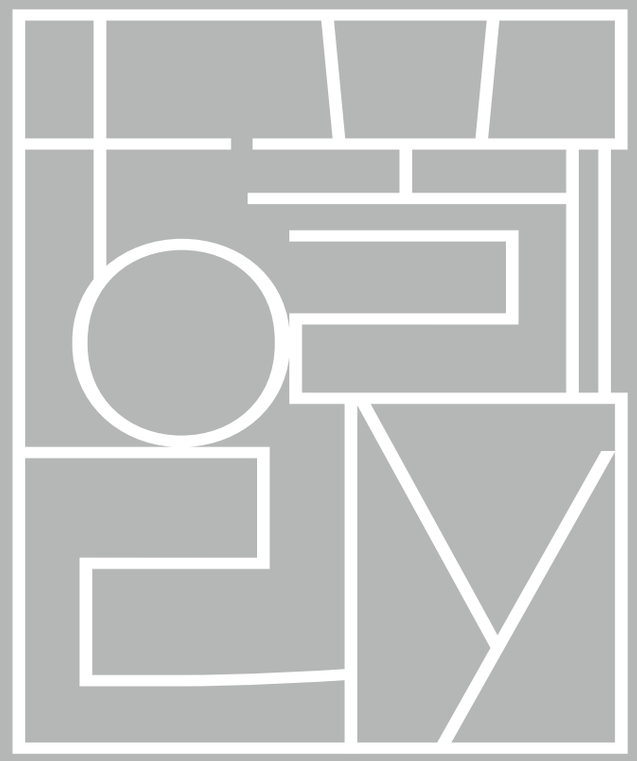
한편 전시장은 장내 질서 유지, 안전관리, 관람객 안내, 작품 보호 등의 임무를 맡은 운영요원과 장내 청결유지를 위한 미화요원을 두어 운영하였다. 단체관람객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운영요원이 전시장 입구에서 검표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와 협조하여 입장객 인솔 및 동선유도까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전시장 내 혼잡을 방지하고 동선의 흐름을 조절하였다.

문화행사

'거시기 머시기'에 담긴 소통의 미학을 '공감과 동감'으로 풀어내는 개막식을 선보였다. 행사장 벽면을 다차원적, 입체적 공간 창출 및 무빙큐브를 활용한 시각적 스펙터클 극대화해내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9월 5일(19:00~22:00) 광주비엔날레관 앞 광장 임시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광주광역시장, 대표이사, 디자인총감독(이영혜) 등 1500여 명이 참석했고 개막선언, 전시설명, 개관퍼포먼스, 작품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11월 3일(18:30~20:20) 광주비엔날레관 거시기홀(1층)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시민, 도슨트, 자원봉사자, 후원사,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영상으로 행사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성과와 아쉬움을 나누며 자축의 한마당을 열었다.

주요 추진일정

2012. 3 총감독 선임(제125차 이사회 12. 3. 28)
2012. 5 총감독 해외리서치(영국, 독일)
2012. 9 해외홍보설명회(영국)
2012. 12 주제 설정 및 전시기본계획 수립(제128차 이사회)
2013. 3 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대상 전시설명회
2013. 4 총감독 해외리서치 및 해외홍보 설명회(이탈리아), 전시기획회의 8차
2013. 6 전시참여 작가 최종선정
2013. 7 전시공간공사
2013. 8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 종합계획 수립 및 전시작품 설치
2013. 9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레스 오픈 및 개막
2013. 11 폐막식, 전시작품 반출 및 철거
2013. 12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2.
광주폴리

광주폴리 I

광주의 사라진 역사 복원

2010. 10 ~ 2011. 12
6개국 11개팀 12명의 참여작가
승효상 총감독

광주폴리 II

인권과 공공공간

2012. 2 ~ 2013. 11
9개국 8개팀 15명의 참여작가
니콜라우스 히르쉬 총감독

폴리(Folly)의 사전적 의미는 어리석은 행동, 기능 없이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폴리는 광주라는 도시(Place)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담아 도시 공공영역으로서 시민들(People)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실용성과 조형성의 기능을 갖춘 건축물을 만들어 도심의 재생에 기여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 재생 수단과 접목, 도심 내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심거점을 구축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를 활용, 광주만의 명소를 만들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문화적 자산 창조를 목표로 하였다.

1차 광주폴리는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특별프로젝트로 추진되어 '광주읍성, 광주의 사라진 역사의 복원'을 주제로 총 11개 작품이 탄생되었고, 2차 광주폴리는 독자적 프로젝트로 '인권과 공공공간'이라는 주제 아래 8개의 작품이 설치되어 총 19개 작품이 광주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타시도 문화·예술·건축 단체 및 기관의 벤치마킹을 위한 연이은 방문을 포함하여 연간 1500여 명이 공식적으로 폴리투어를 하는 등 그 인지도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치된 폴리를 통해 2012년부터 광주비엔날레재단은 폴리도슨트와 함께하는 투어프로그램, 지역청소년, 문화예술 단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의 꾸준한 운영으로 시민의 일상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폴리를 통한 시민들과의 접점 다각화에 대한 노력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14대한민국경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들은 지역사회로부터 폴리에서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등을 이끌어 낸다. 즉, 도시 공공공간과 함께하는 폴리로 시민의 일상적 비일상적 행위를 유발하고 도시의 새로운 활력 제공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1) 광주폴리 I

2010. 10 ~ 2011. 12 / 사업비 : 33억원

광주 옛 읍성터 복원, 역사와 현재를 잇는 광주폴리

2011년에 광주시내에 등장한 '광주폴리'는 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일환으로 기획된 도시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었다. 당시 '도가도비상도'라는 주제 아래 추진된 4회 행사의 두 개의 키워드- 이름과 장소- 중 특별집단과 장소성이 가지는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커뮤니티 디자인과 한 장소성에 입각한 디자인인 어반폴리(urban folly)를 전시하기로 하였다.

광주폴리 마스터플랜에서는 도시의 구성요소들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임 도심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론인 광주폴리를 제안하였다. 이 요소들은 바로 공간과 장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민의 행위들이다. 광주읍성은 그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현대의 광주에서 사라졌지만 그 도시적 윤곽은 현재에도 길로서 남아있었으며, 그 길을 따라 꼭짓점과 성내출입을 위한 대문의 위치에 폴리를 세우게 되면 자연스레 역사성도 회복할 수 있으며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찾게 하는 일도 기대하였다. 광주도심의 구 광주읍성터를 따라 폴리를 제안하고 도심 공동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구도심에 새로운 문화적 힘을 불어넣으려 하였다. 대상 부지는 5·18로 기억되는 광주의 과거와 광주 도심으로서의 현재 그리고 광주의 미래를 상징할 아시아 문화전당을 모두 품고 있는 지역으로 과거 광주 읍성의 존재와 5·18의 가치를 새로이 일깨우는 곳들이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이 취지에 동의하여 작은 대가와 짧은 기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참여하였으며, 2011년 9월 1일 '광주폴리'가 세계에 소개되었다.

기획자

1차 프로젝트가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승효상 공동총감독이 감독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전시 주제에 맞는 전시기획, 공간 디자인 및 연출, 작품선정 및 전시 콘텐츠 기획 등 전시추진에 따른 디자인 및 건축전문 인력으로 큐레이터를 선임·운영하였다. 2인의 큐레이터 및 4인의 보조 큐레이터로 구성되었다.

▶총감독 : 승효상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승효상 감독은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비엔나 공과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우리나라 현대 건축사 1세대로 꼽히는 김수근 문하에서 15년간 일하며 '공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1989년 건축사무소 '이로재'를 설립, 현재까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업으로 수졸당, 수백당, 웰컴시티, 파주 출판도시, 베이징 장성호텔, 아부다비 문화지구 전시관, 쿠알라룸푸르 복합빌딩 등이 있으며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하였다.

▶큐레이터 : 김영준

AA School 건축대학원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및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였다. (주)김영준도시건축 대표(1998~현재)를 맡고 있고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으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의(2001~09)와 유러피안 스페인 마드리드대학 강의(2008), 서울대학교 강의(2002),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로테르담(1996~97),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1990~95), 공간사와 공간연구소(1983~89), 중앙일보 '제1회 홍진기창조인상/문화부문'(2010) 등이 있다.

▶큐레이터 : 라몬 프랏(Ramon Prat)

EINA대학 그래픽디자인 학위를 취득했고 ETSAB(바르셀로나 건축학교)에서 건축연구를 했으며, Universitat바르셀로나에서 경영학을 연구하였다.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으로는 ActarBirkhauser Group 감독 역임, 바르셀로나 디자인허브(DHUB) 수석 큐레이터(2006), RAS북스토어 갤러리 감독, ADG-FAD사장(2002~05),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재단의 창립자 및 이사회 멤버, 시민 협회 Metapolis의 설립 등이 있다.

보조큐레이터 : 김호민(폴리머), 고기웅(고기웅사무소), 오영욱(오기사디자인), 이영석(어반 인덱스랩)

참여작가와 작품(6개국 12명 건축가 참여, 11개 작품)

작품명	건축가 및 작가명	국적	설치장소
1. 소통의 오두막	후안 헤레로스	스페인	장동 사거리
2. 서원문제등	플로리안 베이겔	독일	김재규 경찰학원 앞
3. 광주사람들	나데르 테라니	미국	한화생명 사거리
4. 유동성조절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스페인	금남로 공원
5. 99칸	피터 아이젠만	미국	충장치안센터 앞
6. 열린장벽	정세훈 & 김세진(공모당선작)	대한민국	광주세무서 앞
7. 기억의 현재화	조성룡	대한민국	황금로 사거리
8. 열린공간	도미니크 페로	프랑스	구 시청 사거리
9. 광주사랑방	프란시스코 산인	미국	광산길 아시아문화전당 옆
10. 잠망경과 정자	요시하루 츠카모토	일본	대성학원 앞
11. 푸른길문화샘터	승효상	대한민국	푸른길 농장다리

작품 내용

소통의 오두막(Communication Hut) | 장동 사거리

후안 헤레로스는 장동 사거리의 교통섬을 작지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화시키는 폴리를 제안하였다. 소쇄원과 한옥의 굴뚝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과의 공존과 열린 공간에 중점을 둔 이 작품은 나무 윤곽이 가지는 패턴을 차용하였다. 나무 사이사이를 넘나드는 유기적 형태의 조형물이 아시아문화의전당 주변과 역동적인 장동 사거리에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해 준다. 낮에는 조형물로, 밤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비추어 주는 조명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소통을 위한 오두막이 되도록 하였다.

후안 헤레로스(Juan Herreros) | 스페인

Escuela Tecnica Superior de Arquitectura de Madrid 건축학박사 / 2004 마드리드 공공도서관(Inaki Abalos 협업) / 2008 파나마 중앙은행 타워 / 2009 노르웨이 뭉크미술관 현상설계 당선

서원문 제등(Seowonmoon Lantern) | 김재규 경찰학원 앞

서원문 제등은 서원문의 장소가 갖는 역사성과 제봉로 주변 상황을 함께 연결한 작품이다. 고전적 건축양식과 문이라는 상징적 형태를 병합한 이 폴리는 광주 읍성의 동쪽 문이었던 서원문을 상징함과 동시에 지역적 주변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제봉로 학원거리 인도 앞에서 벌어지는 시민 상호간의 교류와 소통에 주목하고 있다. 이 건축물의 아래쪽에는 5·18 기념비가 위치하고 있으며, 계단을 올라가면 경찰학원 앞의 작은 광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경찰학원 앞의 휴식공간과 버스승강장처럼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이 폴리는 시민들이 일상을 공유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크다.

플로리안 베이겔(Florian Beigel) | 독일

1979~현 ARU(Architecture Research Unit) 디렉터 / 2002 RIBA Tutor 상 / 2004 열화당 / 2003 런던 햄스테트 아파트 / 2009 새만금설계경기 1등

광주 사람들(Gwangju Swarms) | 한화생명 사거리

광주사람들이 놓인 주변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횡단보도, 건물들이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좁은 도로 폭에다 곳곳에 설치된 전신주, 하수관 연결부, 가로등, 그리고 기타 설비장치들 때문에 이 장소를 건축적으로 해석하기란 쉽지 않다. 반면 도로 가장자리에는 가로수들이 세심하게 줄지어 서서 거리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 건축가 나데르 테라니는 나무가 있는 지면과 하늘 사이의 자연공간을 파고드는 작품을 제안하였다. 이 작품은 불규칙적으로 교차하는 강철봉이 기둥모양으로 세워졌으며, 이 강철봉은 공중에 떠 있는 수평구조물로 변모한다. 작가는 살아 움직이는 나뭇가지, 즉 광주사람들과 빛을 함께 공존시키면서 광주와 광주사람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나데르 테라니(Nader Tehrani) | 미국

1991~현 Office dA 대표, 2010~현 MIT 건축과 학장 / 2006 RISD 플리트 도서관 / 2007 뉴욕 쿠퍼휴이트(Cooper-Hewitt) 건축디자인상

유동성 조절(Flow Control) | 금남로공원

금남로 공원의 북쪽 모서리에 위치한 이 폴리는 공원과 인도, 지하도 상가가 상호 유기적으로 공존하게 하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는 금남로 사거리와 금남공원 사이에 존재하는 수직적, 수평적 장벽들을 해체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공간에 대한 그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태극기의 태극문양을 연상시키는데, 광주의 역사와 기억이 요동치는 현장성과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Alejandro Zaera-Polo) | 스페인

1992~현 Foreign Office Architects 대표, 현 프린스턴대학, 예일대학 노먼포스터 초빙교수 / 2002 요코하마 국제 여객터미널 / 2007 Architectural Digest 올해의 건축상 / 2008 바오안 공항

99칸(99Kan) | 충장치안센터 앞

전통적으로 한국의 주택이나 건축물은 칸수로 소유주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었다. 1910년 조선왕조가 막을 내릴 때까지 왕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99칸을 넘는 건물을 세우지 못하였다. 미국의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은 그러한 한옥의 공간과 그것에서 드러나는 사회 위계질서를 하나의 건축적 요소로 활용하고 재해석한다. 광주 읍성의 북문 터에 위치한 이 폴리는 과거 읍성의 북문이 그러하였듯이 상징적인 오브제가 되어 광주시민들에게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억될 것이다.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 미국

1980~현 Eisenman Architects 대표, 현 예일대학교 Charles Gwathmey 교수 / 2006~현 쿠퍼유니언 Irwin S. Chanin 석좌교수 / 2005 베를린 유태인추모공원 / 2006 피닉스대학 스타디움

열린장벽(Open Wall) | 광주세무서 앞 ※현상설계공모당선작

정세훈, 김세진은 광주 세무서 사거리에 도시의 현재적 삶을 담아내는 동시에 광주 읍성의 기억을 간직한 '열린 장벽'을 제안하였다. 길 위의 수많은 조각들과 이로부터 4.5m 위에 떠있는 사물들은 과거 읍성의 일부였으나 현재 어딘가에 묻혀있거나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 읍성의 재료인 돌을 암시한다. 바닥과 천장의 두 층위가 만들어내는 공간적 범위는 광주의 옛 읍성이 존재했던 영역과 일치하며 이는 광주 읍성 전체 중 일부분이기도 하다. 이로써 광주 읍성은 과거 내·외부를 엄격하게 구분하던 닫힌 장벽에서 벗어나 삶이 투영되고 현재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열린 장벽으로 복원됐다.

정세훈 & 김세진 | 대한민국

오우재 건축사사무소

기억의 현재화(Threshold for Intimate Recollections) | 황금로 사거리

조성룡은 강철과 코르텐스틸 판이 사용된 격자무늬의 콘크리트 언덕을 황금로에 설치해 광주의 잊혀진 기억을 회상하도록 유도한다. 황금로는 도시 성벽의 흔적을 따라 옛 서문까지 이어지는 도로이다. 상징적인 대형 기념물들이 공식 역사를 나타낸다면, 이 폴리는 개인의 기억을 위한 것으로 거대한 기념비에 반대하는 성격을 지닌다. 작가는 이 폴리를 통해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묻혀있던 추억을 회상하고 황금로의 잊혀진 역사를 기억하며, 거기에 또 다른 현재의 광주를 쌓을 수 있는 공간을 선사했다.

조성룡 | 대한민국

2001 광주 의재미술관 /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 2003 제14회 김수근문화상 / 2006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

열린공간(The Open Box) | 구 시청 사거리

이곳은 1973년 이전 광주의 구 시청이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주요 상업지구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도미니크 페로는 이 사거리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 낼 열린 공간으로서의 폴리를 제안하

였다. 한국 고전 건축물의 나무기둥이나 누각, 처마에서 그 콘셉트를 가져왔으며, 현대 상업지역과 그 거리 속 일상의 생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포장마차의 구조를 활용하였다. 작가는 전통건축의 현대적 접근과 함께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 폴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 프랑스

1981~현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 대표, 현 영국왕립건축가회의 특별 명예 회원 / 1995 프랑스 국립도서관 / 2008 이화여대 캠퍼스센터, 유럽공동체법원 / 2009 마드리드 올림픽 테니스 센터

광주사랑방(Public Room) | 광산길 아시아문화전당 옆

프란시스코 사닌은 시민들이 구 시가지에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바라볼 수 있으며 동시에 버스정류장의 기능도 할 수 있는 폴리를 계획하였다. 아시아문화전당 앞의 좁고 긴 땅을 활용하여 마련된 이 공간은 구시가와 새로운 문화전당이 만나는 접점이다. 그렇게 이곳의 폴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시간의 경계 위에 서 있고, 작가는 그러한 특성을 살리는 공간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둔다. 간단한 계단이 있는 구조로 구성된 이 장소는 시민들의 쉼터이자 전망대로써, 그리고 다양한 공연과 문화이벤트가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공공공간으로써 기능한다.

프란시스코 사닌(Francisco Sanin) | 미국

2004, 2006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 2005 New Chamver of Commerce in Prato / 2007 Master Plan Study in Medellin / 2008 발트하우스 주택설계

잠망경과 정자(Periscope Pergola) | 대성학원 앞

요시하루 츠카모토는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광주읍성의 성벽이 헐리고, 높은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광주 시민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런 시각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잠망경을 제시하였다. 대성학원 앞이라는 대지의 특성상 학생이용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작된 이 폴리는 지상 25m에서 내려다보는 탁 트인 시야를 선물하여 시민들과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의 하루에 활력소를 제공한다.

요시하루 츠카모토(Yoshiharu Tsukamoto) | 일본

아틀리에 바우와우 건축가 / 2010 마치야 타워 / 2008 이쿠시마도서관 / 2006 마도빌딩

푸른길 문화샘터(Ruined Steps and May Flower) | 푸른길 농장다리

푸른길의 농장다리는 지난 60년대까지 인근에 있었던 광주교도소의 재소자들이 농장사역을 하기 위해 건너던 일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이 다리에서 철로변에 형성된 동네로 내려가는 계단은 현재 주민들의 작은 집회장으로도 쓰이며, 다리 밑 공간도 거리의 전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문화시설로서의 움직임이 이미 있어왔다. 이 기능을 구체화하여 푸른길의 작은 문화샘터를 만드는 게 이 폴리의 목표였다. 재료는 관리하기가 용이한 내후성강판으로 폐선된 철로를 연상하게 하는 기억의 장치가 된다. 농장다리와 푸른길을 연결하는 계단은 객석과 쉼터가 되고, 그 공간은 푸른길에서 발생할 수많은 활동을 위한 문화적 하부 구조(cultural infrastructure)로써 기능한다.

승효상 | 대한민국

현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 2002년 미국건축가협회 'Honorary FAIA' / 2008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주요행사

- 시민보고회(2011. 2. 17)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광주광역시장, 총감독, 재단 대표이사 및 참여작가 등 시민 1000여명이 참여했고
  작품 진행상황 시민보고, 작품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시민공모 시상식 등이 진행되었다.
- 착공식 및 전시회(2011. 5. 12, 11:00) 쿤스트할레 광주 ※전시 5. 12~6. 12
  참여작가 작품모형 전시, 프로젝트 성공기원 축원식을 가졌다.
- 바르셀로나 디자인센터 워크숍(2011. 5. 31) 바르셀로나 디자인센터(DHUB)
  광주광역시장, 총감독, 재단 대표이사, 큐레이터 및 참여작가, 기자단 등이 참여했고
  광주광역시와 바르셀로나시 협약식, GDB 및 참여작가 작품PT,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 준공 행사(2011. 9. 1, 15:00) 금남로공원 등 9개 작품 설치장소
  시장, 시의장, 시·구의원, 자치위위원 참여건축가 및 시민 320여명이 참여하였고 시장 인사말,
  감독의 경과보고 등 준공식, 각 작품별 준공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추진일정

2010. 12 기본계획 수립

2010.12~2011. 2 현상설계공모 추진

2011. 1 참여건축가 기본디자인(안) 제출

2011. 2 현지답사 및 시민보고회 개최

2011. 3~4 실시설계 추진,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2011. 5 착공식 및 전시회(5. 12~6. 12)

2011. 9 준공식

2) 광주폴리 II

2012. 2 ~ 2013. 11 / 사업비 : 25억원

인권과 공공공간, 공간개입의 잠재력 맥락화

역사적으로 폴리는 가벼운 전환이나 자극의 일환으로, 사회적 규범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광기와 풍자를 담는 전략적인 장소로써 건축, 시각예술, 문학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져 왔다. 또한 폴리는 미학적 자율성과 사회정치적 잠재성 사이를 넘나들며, 비평적인 매체나 오브제로써 사용되어 왔고, 맥락적 조건과 탈맥락적 상태 사이의 장(field)에 위치하고 있다.

니콜라우스 히르쉬(감독), 필립 미셀비츠와 천의영(큐레이터)은 공공공간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는 도구로서 폴리가 가지는 다의성을 광주폴리II의 기획의도로 발전시켜 왔다. 공공공간이 가진 '변화시키는 잠재력'은 1980년 5월 광주의 광장과 거리에서 일어난 10일 간의 민주화 운동 이래로 공공의 의식 속에 새겨져 왔다. 그리고 광주도심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공공 시위를 위한 도시무대가 되었다.

광주폴리 II 는 광주의 역사적 장소들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새롭게 탄생될 일련의 폴리를 통해, 동시대 광주는 물론 전지구적 정치무대에서 오늘날 공공공간의 형성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폴리의 유형에 내재된 양면적 기능, 즉 시민들의 일상적 욕구충족과 함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다시 정치적 담론과 잠재적 행동을 촉발시키는 맥락과 탈맥락 사이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건축가, 저술가를 초청하였다.

폴리 부지의 선정을 위한 공간계획은 현재 광주의 공간·정치적 질서에 대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도시 리서치를 통해 광주의 정치적인 힘이 형성되고 나타나는 장소 즉, 시민들의 일상을 지원하는 시청, 구청과 같은 공식기관들부터 경찰서, 시민 사회 기관 등의 목록들이 산출되었다. 이 연구에는 광주대학들은 물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 공간적 결과들은 광주폴리의 위치확정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1차 프로젝트가 옛 읍성터의 성곽이 있었던 곳을 따라 설치되었다면 2차 프로젝트는 광주의 큰 축–광주천, 광주지하철, 푸른길–과 점–광주역, 광주공원–을 중심으로 확산된 형태로 정리되었다.

기획자

사업을 총괄 기획·실행할 총감독은 폴리의 가치 창출과 작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전문가,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하며 충분한 연구·집필 및 기획능력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가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임(2012. 5. 4)되었다. 큐레이터는 국내 큐레이터는 추진 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전임총감독(2011)의 추천에 따라 대표이사가 선임(2012. 4)하였으며, 국외 큐레이터는 광주폴리Ⅱ 총감독이 추천하여 대표이사가 선임(2012. 6)하였다.

▶총감독 : 니콜라우스 히르쉬(Nikolaus Hirsch)

현 프랑크푸르트 슈테델슐레(Städelschule) 건축대학장, 포르티쿠스(Portikus) 디렉터인 그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독일 Giessen 대학, 칼스루에 조형대학(HfG Karlsruhe)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주요경력으로는 2008유러피안 쿤스트할레/쾰른, Unitednationsplaza/베를린, 2005독일 Hinzert Document Center, 2001 독일 드레스덴 유대교 회당 등이 있다. 2002세계건축가상, 2001독일비평가상(German Critics Award) 등의 수상경력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경계에서(On Boundaries), 2007 등이 있다.

▶큐레이터 : 천의영

현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주임교수인 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석박사를 지내고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도시건축 및 설계학을 연구하였다. 현재 국토교통부 국토환경시범사업 광주폴리둘레길 총괄기획자(2014. 3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체평가위원(2013. 5~) 등을 지내고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는, 2009서울디자인올림픽 총감독, 서울시 개포3지구 재건축 공공건축가, 구의 행복주택 공공건축가(2015. 3 ~)등이 있다.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 수상(2011)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큐레이터 : 필립 미셸비츠(Philipp Misselwitz)

현 Technische Universität 베를린의 교수인 그는 건축가, 도시연구가, 큐레이터로 활동을 넓혀오고 있다. 캠브리지대학에서 건축학사 취득, Architecture Association London(AA)에서 석사, Stuttgart University에서 건축 도시학 박사를 지냈다. 주요 경력으로는 건축리서치그룹 'Urban Catalyst'창립, 영국건축대학원,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교수활동, 2012 'Space, Time, Dignity, Rights'공간, 시간, 존엄, 권리, German Architecture Centre Berlin전시 등이 있다.

참여작가와 작품(9개국 8팀 참여, 8개 작품)

작품명	건축가 및 작가명	국적	설치장소
1. 광주천독서실	데이비드 아자예 & 타이에 셀라시	가나 & 미국	광주천변 두물머리 공원
2. 포장마차	아이 웨이웨이	중국	이동식
3. 기억의 상자	고석홍 & 김미희	대한민국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옆
4. 투표	렘 쿨하스 & 잉고 니어만	네덜란드 & 독일	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옆 골목
5. 탐구자의 전철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	인도	이동식(광주지하철1호선 객차)
6. 틈새호텔	서도호	대한민국	이동식
7. 유네스코화장실	수퍼플렉스	덴마크	광주공원 입구
8. 혁명의 교차로	에얄 와이즈만	이스라엘	광주역 앞 교통섬

작품 내용

광주천독서실(Gwangju River Reading Room) | 광주천변 두물머리 공원

데이비드 아자예, 타이예 셀라시는 광주천변에 열린 독서공간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단순한 정자 구조물을 대신할 이 파빌리온은 광주천을 관통하는 징검다리와 천변 위 인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간으로써, 책과 휴식을 매개로 한 도시와 그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데이비드 아자예 (David Adjaye) | 가나, 영국

건축가, 아자예 어소시엇 대표, 현 프린스턴 대학 객원 교수 / 2010 Skolkovo 모스크바 경영학교 건축, 모스크바, 러시아 / 2006 Whitechapel 건축, 런던 / 노벨평화센터 (Nobel Peace Center) 건축, 오슬로, 노르웨이

타이예 셀라시 (Taiye Selasi) | 미국

소설가, 사진작가 / 2011 The Sex Lives of African Girls, Granta

포장마차(Cubic Meter Food Cart) | 이동식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은 포장마차를 기본 콘셉트로 한 것이다. 그는 광주의 포장마차가 가지는 기능적, 경제적, 역사적인 측면에서 영감을 얻어 이동식·조립식 푸드 카트(Cubic Meter Food Cart)를 제안하였다. 그의 폴리는 가볍게는 친구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즐기는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포장마차라는 소재를 통해 공공공간이 가지는 가볍지만은 않은 담론을 제시했다.

아이 웨이웨이 (Ai Weiwei) | 중국

예술가, 설치미술작가, Fake Design 대표 / 2011 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 Herzog & de Meuron과 협업, 런던 / 2008 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 공동설계

기억의 상자(Memory Box) | 금남로지하상가 만남의광장 옆 ※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고석홍, 김미희는 광주 시민의 참여 의식을 그대로 재현하되, 과거를 불러오기보단 미래를 향한 기억을 환기시킬 한 상자가 될 메모리박스(Memory box)를 제안하였다. 시민들이 박스 안에 자신이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물건을 넣는 일종의 타임캡슐과 같은 작품으로 시민들의 박스분양으로 이루어지는 참여전시를 했다.

고석홍 | 대한민국

건축가, (주)아이아크건축사사무소 / 2010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졸업

김미희 | 대한민국

건축가,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2010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졸업

투표(Vote) | 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옆 골목

건축가 렘 쿨하스와 작가 잉고 니어만은 투표라는 대중적 정치참여 방식을 건축언어로 제안하고 해석한다. 10대가 주를 이루는 거리에 배치된 이 작품은 개인의 생각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투표행위야말로 표현을 위한 적극적 플랫폼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보행자들은 '예', '아니오', '중립' 등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도로를 통과하게 되며, 집계된 수치와 기록들은 온라인으로 바로 전송되어 새로운 형태의 직접국민투표를 생산한다.

렘 쿨하스 (Rem Koolhaas) | 네덜란드

건축가, OMA설계사무소 소장, 하버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2008 중국국영방송본사(CCTV)사옥 설계 / 2005 포르투갈 오페라 하우스 Casa da Musica 설계, 포르투, 포르투갈 / 1996 타임지 '디자인 베스트 10' 선정

잉고 니어만 (Ingo Niermann) | 독일

작가, 예술가 / 2011 The Future of Art: A Manual, 스턴버그 프레스

탐구자의 전철(Autodidact's Transport) | 이동식(광주지하철1호선 객차)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는 사람들의 일상을 상징하는, 이동하는 광주지하철 객차를 색다른 공간으로 변모시킨다. 일상적인 이동공간인 지하철에 특정적 테마 등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영상과 그래픽을 입혀 반복되는 습관이나 무의식을 떠나 특정테마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 (Raqs Media Collective) | 인도

사진, 뉴미디어 영상 아티스트 그룹(지베쉬 바그치/ 모니카나룰라/ 슈드하브라타 센굽타) / 2012 An Afternoon Unregistered on the Richter Scale, Photographers'Gallery, 런던 / 2008 <Manifesta 7> 공동 큐레이터, 이탈리아 전시 인디안 하이웨이 (Indian Highway), 서펜타인갤러리, 런던

틈새호텔(In-between Hotel) | 이동식

예술가 서도호의 틈새호텔은 특정지역에 고착된 호텔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공간의 틈새를 따라 여행하는 이동식 호텔이다. 낯설고도 친숙한 이 작은 틈새호텔은 거대 화두가 아닌 광주의 작고 아름다운 관점들을 노정시키는 일시적 주거공간이다.

서도호 | 대한민국

설치미술가 / 2012 서도호 – 사이에서, 히로시마 현대미술관, 일본 / 2012 집 속의 집 Home within Home, 리움, 서울 / 2010 틈새 집, 리버풀 비엔날레, 영국

유네스코화장실(Power Toilets/UNESCO) | 광주공원 입구

덴마크 예술가 그룹 수퍼플렉스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에 주목하였다. 수퍼플렉스는 기존의 낡은 공중화장실을 파리 유네스코 상임위원회 화장실로 탈바꿈시켰다. 외관은 평범한 공중화장실의 모습을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제된 화장실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복제품과 진품의 관계, 배타성과 포용성, 그리고 권력과 일상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수퍼플렉스 (Superflex) | 덴마크

예술가 / 2011 Superkilen 공원, 코펜하겐 / 2009 침수된 맥도날드(Flooded McDonalds), 사우스런던갤러리 / 2006 과라나 파워, 상파울루 비엔날레 / 2005 독일에서 만든 중국 소시지(Chinese Sausage made in Germany)

혁명의 교차로(Roundabout Revolution) | 광주역 앞 교통섬

에얄 와이즈만과 사마네 모아피는 시민혁명을 비롯한 정치적 변혁과 소요의 장소성에 주목하였다. 즉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비롯하여 중동지역을 뒤흔들었던 '아랍의 봄' 등 세계 각지의 민주혁명과 시민투쟁, 각종 혼란의 진원지였던 교차로나 원형광장의 맥락을 일컫는다. 이 작품은 시민정신의 발원지가 된 교차로에서부터 향후 후기혁명의 장소인 라운드테이블 정치학에 이르기까지의 크고 작은 맥락들을 표현하였다. 이 장소는 인권과 토론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사용된다.

에얄 와이즈만 (Eyal Weizman) | 이스라엘

건축가, 작가, 큐레이터 / 2012 팔레스타인 의회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ing Palestinian Parliament, DAAR) / 2007 비어있는 땅(Hollow Land)

주요행사와 추진사업

▶시민토론회

2012. 3. 29 / 광주폴리I 감독, 광주폴리II 큐레이터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 2011년 사업성과 및 2012년 사업계획 설명, 시민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

2012. 11. 17~18 (재)광주비엔날레 회의실, 광주시내 일원 / 총감독 및 큐레이터, 참여작가, 지역관계자 및 시민이 참여, 사업설명, 시민협의회와의 만남, 기획회의, 장소답사 및 작품별 미팅 등을 가졌다.

▶개막

2013. 11. 10 / 광주천독서실(구 보훈회관 옆 천변)

일 시	일 정 내 용
09:00~10:00	작가별 광주폴리I 작품 자율방문
10:30~11:00	기자간담회
11:00~11:50	렘 쿨하스 & 잉고 니어만 특강
13:00~14:30	폴리투어(작품별 준공행사) 투표 – 투표릴레이행사 / 틈새호텔 – 첫 투숙객 키 전달식
15:00~15:40	개막식 기념공연 / 기획진 경과보고 / 시장, 시의회의장 축사 / 광주천독서실 책기증식
15:00~19:00	폴리투어(작품별 준공행사) · 혁명의교차로 – 작품PT, 영상상영 · 탐구자의 전철 – 지하철객차 내 퍼포먼스 · 기억의 상자 – 미니전시공간 오픈 · 유네스코화장실 – 작품설명 및 화장실 사용 · 포장마차 – 라이브요리이벤트

▶국제회의

공공공간을 위한 개입(Interventions in Public Space)』 / 2013. 11. 11 /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

구분	일 시	일 정 내 용
Session 1	10:00~10:10	환영인사 _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10:10~10:30	광주폴리II 소개 _광주폴리 II 기획진
	10:30~11:00	발제1. 광기의 대가 _펠리시티 D.스콧
	11:15~11:45	발제2. 리얼 디엠지프로젝트: 한계와 가능성 _김선정
Session 2	13:15~13:45	발제3. 혁명의 교차로 : 아자디에서 타흐리르, 탁심광장까지 _하미드 다바시
	13:45~14:15	발제4. 혁명의 교차로 _에얄 와이즈만
	14:45~15:30	토론 폴리의 향방_ 재단대표이사, 광주폴리II 총감독, 김영준, 김상윤, 서영진, 천의영

▶광주폴리시민협의회 구성

2013. 1 ~사업종료 시까지 / 시민, 시민단체 대표 및 각 분야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광주폴리시민협의회를 구성해 폴리 주제 및 장소 선정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폴리 유지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시민참여 방안과 폴리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광주폴리시민참여단 운영

설계단계~준공 후 1년간 / 폴리사업에 대해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폴리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 후 운영과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작품별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였다. 작품 당 5~8명(설계자, 운영파트너, 전문가, 주민, 학생 등)이 참여해 작품별 실행과정 자문, 주요 내용 기록 및 관찰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도록 및 사진

광주폴리Ⅱ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 작가와 작품에 대한 소개, 설치장소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국내외적으로 광주폴리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도록(국, 영문 2000부)을 제작하였다. 광주폴리Ⅱ만의 정체성을 담은 키 비주얼(Key visual)을 바탕으로 도록 전체를 디자인하였다. 글로벌 전문성과 해외 유통망을 갖춘 국제적 출판사(핫티에칸츠)를 도록 제작업체로 선정하고 현지 글로벌 디자인작가 참여 및 출판사와 협업체계를 통해 해외유통망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글로벌 홍보와 광주폴리 위상 정립에 기여하였다.

독일 디자이너 마르쿠스 바이스벡(Markus Weisbeck)이 프로젝트 EI(Event Identity)를 개발하여 전반적인 도록을 디자인하였다. 타이포그래피 폴리로서의 키 비주얼(Key Visual)은 그 맥락적 연관성을 서양이나 한국의 타이포그래피 체제 자체에서 찾지 않고 건축에서 찾은 것이 특징이다.

주요 추진일정

2012. 3 시민공청회
2012. 5 총감독 선임
2012. 5 현상설계공모 공고
2012. 9 참여작가 선정
2012. 11 프로젝트 공청회 및 워크숍 개최
2013. 2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13. 11 개막 및 국제회의

3) 광주폴리 활성화 및 유지관리

광주폴리의 목적과 배경, 작품의 의미를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폴리를 통한 시민 소통과 자생적 교류의 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공공공간에 설치된 작품의 특성상,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다. 작가의 취지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살리며 시민들이 최적의 상태의 작품을 접하게 하기 위해 전담 전문직원 담당과 함께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폴리지기를 운영하고 있다.

투어프로그램

다양한 분야 및 층위로 구성된 투어대상자들을 감안하여, 미션투어, 야간투어, 도보투어, 차량투어 등 관람객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상시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폴리 스토리텔링이 강화된 시즌제 프로그램의 기획·진행으로 관람객과의 접점을 다각화하고자 하였다.

연도	폴리투어	방문인원	해설사 운영 인원	비고
2012	31회	965명	43명 중 6명 활동(폴리해설 23회)	2012. 8~12월 운영
2013	19회	565명	8명 중 6명 활동(폴리해설 28회)	종합, 미션투어 등
2014	61회	1,185명	12명 중 11명 활동(폴리해설 43회)	상시, 야간, 미션투어,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

폴리도슨트 교육 및 운영

도슨트는 생소한 폴리에 대해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작품 감상 조력자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갖추고 자원봉사 의지와 관광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하고, 현장을 투어 하는 특성 상 도보로 장시간 해설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이를 모집하였다. 2013년에는 투어해설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2014년부터 '도슨트'명칭과 기수제를 도입하여, 현재 2기를 운영하고 있다. 1기 선발은 서류심사로 2기 선발은 서류심사, 서류심사통과자 대상 기본교육, 심화교육, 최종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도슨트 양성 교육(연 2회 이상)은 폴리와 프로젝트에 대한 문화예술 및 건축적 이해, 문화도시 광주의 맥락 이해(타 관광자원), 현장 트레이닝 및 프레젠테이션 등을 위주로 실시했고 1회 3만5000원의 활동비 지급, 위촉장 수여, 피복 및 다이어리 제공, 활동증명서 발급 등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했다.

웹홍보

광주폴리 정보제공과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홍보를 위해 공식웹사이트(www.gwangjufolly.org)를 2013년 4월 개설, 각종 SNS(facebook, instagram)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프로그램

작품의 의미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폴리를 기반으로 시민 문화향유를 이끌어 내고 지역의 청소년, 문화, 예술 기관과 작품을 매칭, 협약하여 각종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프로그램운영 파트너 협약

매년 초, 광주폴리Ⅲ를 중심으로 프로그램기획 및 운영, 홍보 및 보도지원 협력, 기타 협약사업 운영에 필요한 협조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급하고, 연말에 결과보고 및 정산절차를 거친다.

작품명	2013파트너	2014파트너	2015파트너
투표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기억의 상자	광주YMCA		광주흥사단
틈새호텔	라마다호텔		
탐구자의 전철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포장마차	(사)푸른길		
광주천독서실	(사)교육문화공동체결		
혁명의교차로	(재)광주인권평화재단		아모틱협동조합

▶기획프로그램

광주폴리 I을 중심으로 예술가 그룹, 단체 및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시민참여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쉘위폴리 2013, 2015(클래식음악과 함께하는 한여름밤 폴리 순회 공연), 광주폴리로드 2013(다국적학생 폴리 미션 투어), 청소년심야길거리카페와이파이2013~14(거리청소년지원), 예술과 건축의 특별한 만남, 광주폴리 2014~15(청소년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폴리지기 운영

폴리 인근 주민과 연계해 작품 상시 관리체계 구축하고 상시 순찰과 점검 활동, 유지 보수 공사 추진 등에 협력하고 있다. 또 각종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탐방객 안내 등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10 아트광주 행사장

3.
아트광주 Art Gwangju

국제미술도시 광주의 미술마켓, '아트광주Art Gwangju'

광주비엔날레는 문화도시 광주의 내실을 갖춰가기 위한 의미있는 행사로 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 Art Gwangju'를 2010년 창설, 성공적인 개최의 첫 발을 뗐다.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위상으로 문화도시의 기반을 공고히 한 광주가 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아트광주'를 광주비엔날레의 자매 행사(sister event or tied event)로 치르면서 미술도시 광주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트광주Art Gwangju'는 광주비엔날레 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같은 시기에 개최돼 세계 미술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특별전 및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아트페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이 매년 크고 작은 아트 페어를 개최하며 시장 경쟁력을 확장시켜가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대표적 비엔날레 개최도시인 광주를 상징하는 아트페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입어 만들어진 아트페어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미술행사 노하우를 투입해 치러진 '2010아트광주 Art Gwangju'는 의미와 규모 면에서 주목받는 등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아트광주는 이후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미술협회 등으로 주관처가 바뀌어 격년으로 치러지고 있다.

'2010 아트광주' Art Gwangju 2010

9월 1일부터 5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전관(A-C전시실)에서 열린 '2010 아트광주'에는 8개국(한국, 대만,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54개 화랑(국내 31개 / 해외 23개)과 작가 245명이 참여했다. 특별전 3개 전시에 작가 56명이 참여하여 총 1,6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 행사는 관람객 1만 3,000여명에 42억원(150여점)의 작품 판매 실적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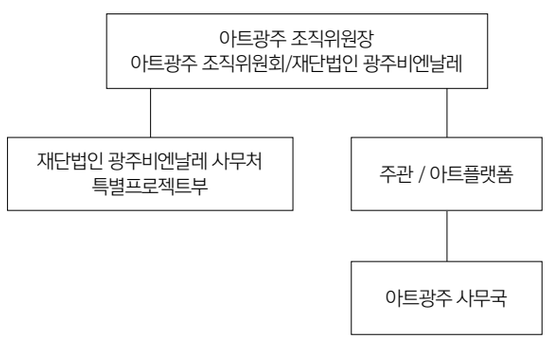
10억 2천 1백만원 (시 보조금 4억원, 자부담 6억2천1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행사는 아트광주조직위원회,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매일경제·mbn 공동 주최했고, ㈜아트플랫폼의 주관으로 치러졌다. 또 전망이 기대되는 국제아트페어에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기관과 기업, 미디어가 후원에 나섰다. ㈜크라운해태가 메인 후원사로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광주KBS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추진 과정

2010년 5월에 주관사를 공고하여 ㈜아트플랫폼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시비 지원과 주관사의 민자 유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곧이어 광주에 사무국이 설립이 되었다. 아트광주조직위원회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주최로 상업적인 성격의 아트페어가 공공적인 성격의 비엔날레의 자매이벤트로 부각되면서 광주시의 국제예술행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 이어서 7월 말 매일경제 MBN이 공동주최사로 추가 참여하게 되며 언론홍보 면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아트페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커미셔너 제도에 의해 해외의 저명한 비평가, 큐레이터, 디자이너, 편집장 등 6명의 커미셔너(알렉산드로 맨디니, 마우리치오 보르톨로티, 자니 워커, 김양수, 장영이 등)가 선정되었다. 또한 중국 지역의 갤러리 유치를 위하여 1명의 중국 커미셔너(캐롤 잉후아 루)가 추가로 선정되어 총 7명의 커미셔너가 해외 갤러리의 유치, 특별전 기획, 강연 프로그램 연사 초빙, 프로그램 참여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2010 아트광주'가 명실상부한 국제아트페어로서 첫 장을 여는데 기여하였다.

아트광주조직위원회에는 주요 갤러리 대표, 미술비평가, 지역 중진 작가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제3차 조직위원회의에서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와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광주,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인들을 포함한 주요 기업인들을 추가로 영입하여 새로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아트페어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전시내용

아트페어

유럽, 아시아 등지의 국내외 주요 갤러리들이 참여하여 전속 작가들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그룹전과 개인전을 포함하는 아트페어 전시는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갤러리 대표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자인 갤러리들도 함께 참여하여 현대미술과 디자인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차별적인 아트페어를 선보였다.

특별전 Ⅰ : 아시아 신진작가 초대전- EAA(Emerging Asian Artists)

서남아시아와 중동지역을 포괄 아시아 전역의 현대미술의 미래를 조감해보는 전시회로 40세 이하의 젊은 작가 23명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장르별 작가가 현장에 참가하여 전시를 구성하였다.

특별전 Ⅱ : 현대미술 & 디자인 거장전- Platform Project

과거 미술의 영역 속에서 언제나 분할되었던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시각문화라는 큰 틀에서 현대미술과 디자인의 만남을 시도하였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8명의 현대미술가와 유럽, 미주, 아시아의 다양한 장르의 16명의 디자이너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특별전 Ⅲ: 광주청년작가전- Gwangju Profile Artists

국제적 문화도시이자 창조도시 광주의 미술문화 현장 주역들인 청년작가들을 소개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작가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모과정을 거쳤으며, 아트페어라는 배경을 고려해 예술적 역량 및 성장 잠재력, 국제적 경쟁력을 측정, 9명의 작가를 선정하였다.

토크프로그램

시각문화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유입하고 시장과 연결시켜보는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단순히 미술내외적 문제를 클로즈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시장, 문화운동, 창작자와 소비자의 역할 등을 광범위하게 검증해보는 것으로 예술의 정치,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토론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아트광주 토크 프로그램은 저명한 작가, 컬렉터, 큐레이터, 딜러들의 대담과 강연 형식으로 현대미술과 디자인, 미술시장 동향 그리고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하여 논하였다.

추진일정

2010. 1. 제1차 조직위원회의 개최
2010. 3.~8. 아트광주 홍보(계기홍보, 매체홍보, 옥외광고 등)
2010. 4.~6. 아트광주 국·영문 홈페이지 구축
2010. 4.~8. 참여갤러리 신청접수 및 선정
2010. 5.~11 제2-5차 조직위원회의 개최
2010. 8. 전시장 공간구성 및 전시도록 제작
2010. 9. 아트광주 개최
2010. 9.~12. 결과정리 및 정산

2장

세계 현대미술의 구심점 형성

네트워크, 전문 포럼, 정론지 발간

성년이 된 광주비엔날레는 현대미술계의 담론 형성과 네트워크 강화, 교류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한 축을 담당하면서 새로운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대미술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비엔날레는 세계비엔날레대회를 이끌어내고 진지한 예술포럼의 장을 펼치는가 하면 이를 담아내기 위한 예술 담론지도 출간하고 있다.

1.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
World Biennial Forum No. 1
2012. 10. 27 ~ 31

중심의 이동
Shifting Gravity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는 비엔날레 기획자와 관계자들을 위한 국제적 플랫폼으로 제9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동안 포럼의 형태로 열렸다. 이 대회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운영 중인 150개가 넘는 예술, 디자인, 건축, 뉴미디어 비엔날레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기회와 함께 토론을 위한 만남의 장이 제공되었다. 광주비엔날레와 비엔날레재단(Biennial Foundation)은 비엔날레 역사상 최초로 세계 비엔날레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광주에서 마련하고자 2011년 6월 3일에 베니스에서 양해각서(MOU), 2012년 3월 13일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의 공동주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 현대미술과 비엔날레 문화에 관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대회를 광주에서 4일간 주최하였다.

양 재단은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총회와 함께 공개 토론, 참여형 워크숍, 출판,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대회의 기획, 시행을 위한 프로젝트 코디네이션, 의전, 홍보, 마케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행정사항 등을 포함한 일반 실무는 주관인 광주비엔날레가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는 급변하는 세계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많은 수의 문화적 중심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다양한 반향을 이루어내고 있는 비엔날레의 현실과 더불어 현대예술의 기획 및 작품생산에 불러일으킬 새로운 도전에 주목하고자 함을 그 의의로 두었다.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의 주제는 '중심의 이동(Shifting Gravity)' 으로, 지난 20년간 급속하게 확산되는 아시아 미술의 활동과 비엔날레의 수적 증가를 대변하며 비엔날레의 대안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였다. 이를 표현하는 로고는 지구본을 모티브로 세계를 상징하는 원과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의 문구가 합쳐진 모양으로 디자인되었다. 또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외 비엔날레 및 현대미술 전문가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진행내용의 자문과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자문위원은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관장), 심상용(동덕여자대학교교수), 유진상(계원조형예술대학교수), 이영철(아시아문화개발원장), 에리코 오사카(요코하마미술관장), 장 팡웨이(타이베이미술관 비엔날레 및 국제프로젝트 디렉터), 리야스 코무(코치비엔날레 창시자 및 프로그램 디렉터)이었다.

광주비엔날레가 주축이 된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는 세계 주요 비엔날레 관계자와 디렉터들이 대거 광주를 방문하여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비엔날레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포럼을 통해 세계비엔날레들과 관련자들의 담론을 이끌어내고, 현재 비엔날레의 이슈와 각 비엔날레간의 생각을 공유하였다. 또 행사를 통해 비엔날레 전문가와 관련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 세계 다양한 비엔날레의 역사, 성격, 특성을 사례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는 '중심의 이동'을 주제로 한 포럼(기조발제 및 비엔날레 사례발표), 비엔날레 대표자회의, 서울시립미술관 SeMA Day, 광주비엔날레 현장탐방 등 의미 있는 일정들도 이어졌다.

한편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와 글로벌 문화현상을 중심으로 발표한 3명의 주제 글과 39명의 발표를 엮은 포럼 결과자료집 '중심의 이동'(Shifting Gravity)을 발행, 발제자들의 글과 함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게재하였다. 질문은 포럼에 초청되었던 발제자들 외에도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한 비엔날레 전문가들의 대답까지 포함하여 최근 20여 년 간 급격한 질적, 양적 확장을 이룩한 비엔날레의 현장과 이슈, 담론을 다루었다. 더불어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오프닝에 맞춰 결과자료집의 출판기념회를 베니스대학에서 개최하였다.

1) 포럼 '중심의 이동 Shifting Gravity'

공동디렉터

우테 메타 바우어(Ute Meta Bauer) : 전 영국 왕립예술대학장, MIT 시각예술 프로그램의 디렉터. 제11회 카셀도큐멘타 공동큐레이터, 제3회 베를린비엔날레 총감독,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 큐레이터(2015)를 역임하였고, 현 싱가폴 난양공대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디렉터이다.

후 한루(Hou Hanru): 전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드의 전시 및 공공프로그램 디렉터, 상하이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광저우트리엔날레, 티라나비엔날레, 이스탄불비엔날레, 오클랜드트리엔날레 등의 기획에 참여하였으며, 현 이탈리아MAXXI미술관 예술감독이다.

기조발제

왕 후이(Wang Hui) : 북경 칭화대학 인문학부 석좌교수

니코스 파파스테르기아디스(Nikos Papastergiadis): 멜버른대학교 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샹탈 무프(Chantal Mouffe): 런던 웨스트민스터대학 정치이론 교수

특별 인터뷰 및 특별 초청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 공동 디렉터

르네 블록(Rene Block): 카셀 프리테리시아눔 미술관(Kunsthalle Museum Fridericianum) 관장(1997~2007)

사례발표

10. 28

	주제	기관	발제자
1	사례발표 1 Asia Pacific -Part a.	*사회자	우술라 젤러 Usulla Zeller
2		Asia-Pacific Triennial(호주)	캐롤라인 터너 Caroline Turner
3		Jogja Biennale(인도네시아)	알리아 스와스티카 Alia Swastika
4		Sydney Biennale(호주)	조나단 와킨스 Jonathan Watkins
5	사례발표.2 Asia Pacific -Part b.	*사회자	쟁 얀 Zheng Yan
6		Shanghai Biennale(중국)	장 칭 Zhang Qing
7		Taipei Biennale(대만)	팡웨이 장 Fang-wei Chang
8		Yokohama Triennale(일본)	에리코 오사카 Eriko Osaka
9		Kobe Biennale(일본)	리츠코 타호 Ritsuko Taho
10	사례발표.3 Architecture-Design - Infrastructure	*사회자	우테 메타 바우어 Ute Meta Bauer
11		Hong Kong & Shenzhen Bi-city Biennale of Urbanism(중국)	우닝 Ou Ning
12		Gwangju Design Biennale(한국)	배형민 Pai Hyungmin
13		Guangzhou Triennial(중국)	왕 황셩 Wang Huangsheng

10. 29

	주제	기관	발제자
14	사례발표.4 Emergent-Alternative Biennials	*사회자	마리 르 수르 Marie Le Sourd
15		Emergency Biennale(체첸공화국)	에블린 쥬아노 Evelyne Jouanno
16		Kochi-Muziris Biennale(인도)	리야스 코무 Riyas Komu
17		Land Art Biennial(몽골)	마크 슈미츠 Marc Schmitz
18		Tbilisi Triennial(그루지아)	와토 테레텔리 Wato Tsereteli
19			샤히둘 알람 Shahidul Alam
20	사례발표.5 South-Korea	*사회자	김홍희 Kim Hong-Hee
21		Gwangju Biennale(한국)	이용우 Yongwoo Lee
22		Media City, Seoul(한국)	유진상 Jinsang Yoo
23		Anyang Public Art Project(한국)	백지숙 Beck Jee-sook
24	사례발표.6 Asia and its Margins	*사회자	한루 후 Hanru Hou
25		Sharjah Biennale(아랍 에미레이트)	후르 알 콰시미 Sheikha Hoor Al Qasimi
26		Istanbul Biennale(터키)	비게 오레 Bige Orer
27		Ural Industrial Biennale of Contemporary Arts(러시아)	알리사 프루드니코바 Alisa Prudnikova
28		Meeting Points(중동)	타렉 엘 아부 페토우 Tarek El Abou Fetouh

2) 세계비엔날레대회 대표자회의

세계비엔날레 대표자회의는 비엔날레기관들이 120년의 비엔날레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의 목표와 역할을 토론하고, 보다 더 강력하고 전문적인 협력과 기대,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광주비엔날레, 세계비엔날레재단, IFA(독일) 공동주최로 2012년 10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국내외 비엔날레 대표·감독·큐레이터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는 상파울로비엔날레(브라질), 하바나비엔날레(쿠바), 리버풀비엔날레(영국), 이스탄불비엔날레(터키), 샤르자비엔날레(UAE), 베를린비엔날레(독일), 베르겐어셈블리(노르웨이), 상하이비엔날레(중국), 모스크바비엔날레(러시아) 등 39개 국외 비엔날레 관계자,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국제인천여성비엔날레, 대전시립미술관장 등 국내 7개 비엔날레 관계자 등이다.

3) 세계비엔날레협회(IBA) 창설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세계 비엔날레들 간의 강한 연대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과 공동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비엔날레협회가 창설되었다. 창설의 주축이었던 광주비엔날레의 대표이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되고 협회 정관에 의거 회장국에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광주시 '최초' 국제문화기구의 사무국이 신설되었다.

2.
광주비엔날레-삼성미술관 리움 포럼
2014. 9. 1 ~ 5

확장하는 예술경험
Expanding Experiences in Art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제10회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국내 권위 있는 사립미술관인 삼성미술관 리움과 공동프로젝트로 '확장하는 예술경험'을 주제로 한 '광주비엔날레-삼성미술관 리움 포럼'을 개최하였다.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20주년과 삼성미술관 리움의 개관 10주년 기념하는 행사로 마련된 포럼은 미술관과 비엔날레의 운영주체와 시각문화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자간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자리였다. 포럼은 2014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삼성미술관 리움 강당,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 등에서 진행됐는데 현대미술의 진화와 확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시각문화의 주요담론을 창출하는 열띤 토론들이 이어졌다.

전 세계 비엔날레 및 현대미술계 운영주체들이 대거 참석한 포럼은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주목받는 등 광주비엔날레의 위상과 인지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 최고 미술기관인 광주비엔날레와 삼성미술관 리움이 최초로 공동 진행한 프로젝트라는 점은 국내·외 미술계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좀처럼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미술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광주에 모였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참가자들은 포럼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주요 담론을 창출하였고, 사례발표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현대미술의 이슈와 경험을 공유하였다. 나아가 시각문화 현장리더들이 모여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외 미술관 및 시각문화 관계자, 학자, 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연령, 성별, 직업계층의 대중들이 직접 참여하여 미술 전문과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또한 발제자들의 발제문과 녹취를 텍스트로 변환 수록한 결과물인 자료집의도 발간하였다.
또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삼성미술관 리움과 광주비엔날레는 행사장소, 초청전반, 양 기관의 공동업무와 분담업무를 명기한 공동주최 협약을 2014년 5월 28일 체결하였으며, 8차에 걸친 추진회의와 실제행사와 같은 조건의 일정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청자들의 세부동선까지를 점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행사를 성공으로 이끌어내었다.

1) 포럼의 주제

'확장하는 예술경험 Expanding Experiences in Art'

포럼의 주제는 '확장하는 예술경험 Expanding Experiences in Art'으로 이는 지난 20년간 급진적으로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 현대미술과 그에 따라 변화하는 관람객들의 예술경험을 의미한다. 이 주제의 의미가 포럼 심벌에 형상화되어 있는데 미술관의 전통적 역할을 나타내는 사각형과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상징하는 원형이 겹겹이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확장해가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심벌은 필요에 따라 그 크기와 확장 하는 방향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이것은 포럼이 집중하는 확장의 다양한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심벌의 두 색상은 각각 삼성미술관 리움과 광주비엔날레를 상징하며 두 색상이 번갈아 교차되면서 확장하는 것은 이번 공동 주최의 의의와 파급을 뜻한다.

2) 세션 구성 및 발제자

'삼성미술관 리움–광주비엔날레 포럼: 확장하는 예술경험'은 4개의 소주제로 세션을 구분하였다. 세션별 소주제별로 전문가들의 진지한 발제와 뜨거운 토론이 이뤄졌다.

세션 1 : 진화하는 전시 & 미술관 Evolving Exhibitions and Transforming Museums

작품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전통적 기관에서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교육하는 사회적인 기관으로 변화되는 오늘날 미술관의 현주소와 함께 관람자의 체험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적 실험이 이루어지는 전시의 유동성을 살펴봤다. 세션 1에서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진화하고 있는 전시와 미술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찰하였다. 니콜라스 세로타(테이트미술관장), 리차드 암스트롱(뉴욕 구겐하임미술관장), 김영나(국립중앙박물관장), 오쿠이 엔위저(하우스 데어 쿤스트 관장)이 관련 내용을 발제하였다.

세션 2 : 디지털 시대의 새로워지는 미술관 경험 Redefining Museum Experiences in the Digital Era

최첨단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법들로 인해 미술관 경험의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세션으로 홍라영(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 피오나 로메오(뉴욕 현대미술관 디지털 컨텐츠&전략 총괄), 마틴 프롱크(네덜란드 국립미술관 출판부 총괄), 아밋 수드(구글 문화연구원 총괄)가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색다른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워지고 있는 미술관 경험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향후 미술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세션 3 : 비엔날레의 확장과 현대미술의 진화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Evolution of Contemporary Art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된 3세션에서는 격동하는 현대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그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비엔날레의 현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비엔날레 기획자와 관계자들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비엔날레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의 폭넓은 참여와 관계를 창출하는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제르마노 첼란트(프라다재단 관장), 바르토메오 마리(CIMAM 회장), 아네트 쿨렌캄프(카셀도큐멘타 대표이사), 정형민(국립현대미술관장), 샐리 탤런트(리버풀비엔날레 디렉터), 김선정(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예술감독), 압델라 카룸(아랍현대미술관장)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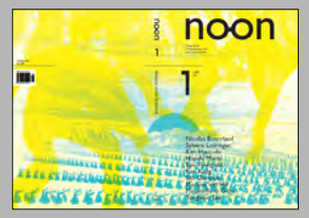
세션 4 : 예술가와의 동행 Walking with Artists

복잡한 사회적 조건이나 얼개 속에서 미술관이나 재단 등 미술기관을 만들어 예술을 후원하고 참여하는 후원자들의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을 사적 기호나 미학적 판단, 소유의 구조를 떠나 공공성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대에서 예술 후원자들의 가치판단과 예술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들어보았다. 이용우(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후르 알 카시미(샤르자예술재단 대표이사), 프란체스카 보르톨로토 포사티(바우어그룹 회장), 다이 지캉(상하이젠다이그룹 회장), 퓌순 엑자치바시(사하예술재단 이사장), 마야 호프만(루마재단 이사장)이 직접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한 경험과 생각들을 펼쳐놓았다.

3.
동시대 시각문화 담론 주도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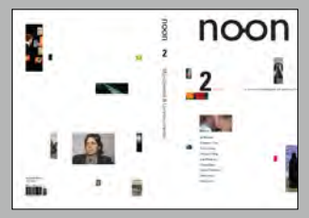
정론지 『눈Noon』 발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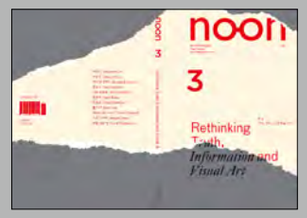
스펙터클의 폭력
Violence of the Spectacle

2010



기념화와 탈기념화
Monumental & Unmonumental

2011



진리, 정보, 시각예술 사이
Rethinking Truth,
Information and
Visual Art

2012

실패의 힘
The Power of Failure

2013

사회, 사회적인 것
Society & Social

현대미술정론지 『눈Noon』은 광주비엔날레가 단지 예술이벤트로서의 성격을 벗어나 시각문화현장의 확장된 담론들을 재생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에서 꾸준히 확장추세에 있는 '비엔날레'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동들과 인문 사회적 실천들에 관한 주요 이슈와 담론들을 깊이 있는 성찰과 공유로 이끌어 가기위한 전문지로서 성격에 비중을 두어왔다.

『눈Noon』은 광주비엔날레의 특성과 국제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특화시키기 위하여 세계 시각문화예술 현장과 인문사회 분야를 연계하며, 최근 연이어 창립되는 비엔날레들의 증가 추세 속에서 예술 내부적인 것들과 동시대 사회·문화와 비엔날레의 관계 등에 관한 총체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호인 '눈(Noon)'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서 '눈'과 영어의 'Noon'이 내포하는 전성기, 절정, 최고점의 뜻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 인간의 눈으로 지켜본 현대미술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담론을 시각문화 현장인 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절정의 장으로 이끌어가는 소통의 매개체이고자 하는 의미다. 매회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시각문화 현장의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과 담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시사적이고 시각적이며 지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제1호부터 4호(2009~2012)까지는 국·영문 합본호로 제작하다 제5호(2013)부터 국·영문판을 분리 발간하고 있으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프로젝트 및 그 와중에 맞게 된 광주비엔날레 개혁 작업 등으로 2014년 발간하지 못했다 다시 추진되고 있다.

『눈Noon』은 세계 시각문화와 담론의 매개체로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면서 비엔날레 전시 및 학술행사와는 또 다른 지식 문화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1) 편집위원

『눈Noon』편집위원은 국내·외 시각예술,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지향하는 대외적 역할과 기본 맥락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위원을 연임토록 하였다. 편집위원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 『눈』 성격 및 기본방향에 따른 출간 주안점 논의 정리
- 각 호별 출간 방향에 부합한 주제 및 논제 설정
- 논제별 필진 선정 및 섭외 협조
- 필요시 관련원고 집필 및 감수
- 기타 정론지 발행 관련 자문 및 지원

역대 편집위원(제1기~4기)

기 수	편집위원	분 야
제1기 (2009. 7~ 2011. 6)	김우창(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인문학
	김현도(전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미학
	윤수종(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심혜련(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과학
	윤동희(도서출판 북노마드 대표)	미학
	Sylvere Lotringer 실베르 로트랑제(철학가)	철학
	Christian Morgner 크리스티안 모그너(영국 레스터대학교 교수)	사회학
제2기 (2011. 7~ 2013. 6)	강수미(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 회화과 교수)	미술비평
	김우창(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인문학
	김형중(조선대학교 국문과 교수)	문학, 문예비평
	서동진(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	사회학, 문화비평
	이성훈(경성대학교 철학과 교수)	철학, 미술사
	Pelin Tan 펠린 탄(터키 Mardin Artuklu 대학 교수)	사회학
제3기 (2013. 7~ 2015. 6)	강수미(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 회화과 교수)	미술비평
	김수기(도서출판 현실문화연구대표)	미학
	서동진(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	사회학, 문화비평
	이택광(경희대학교 영미문화학과 교수)	문화비평
	Pelin Tan 펠린 탄(터키 Mardin Artuklu 대학 교수)	사회학
제4기 (2015. 11~ 2017. 10)	강수미(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 회화과 교수)	미술비평
	서동진(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	사회학, 문화비평
	김영호(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미술사, 미술평론
	김성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교수)	전시기획, 미술이론
	신형철(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문학평론, 문예비평

2) 편집 구성

▶특별대담 : 최근 현대미술의 주요 이슈, 미학적 쟁점에 관한 재단 대표이사와 세계적 기획자 및 작가와의 대담

▶특집 : 당회연도의 주된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 대한 현대미술과 인문사회학적 관점을 교차하며 담론을 확장시키는 논문 게재

▶비엔날레 리뷰 : 광주비엔날레·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비롯한 주요 비엔날레 리뷰 및 현장 소식

▶인터뷰 :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의 전시철학 및 현대미술에 대한 관점과 비전 등 인터뷰 정리

- 비엔날레 뉴스 : 광주비엔날레·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련 소식
- 편집위원 라운드테이블 : 주제심화를 위한 편집위원 기조 발표 및 토론

3) 호별 구성내용

구분	주제	목차	제목(집필자)
1호 (2009)	스펙터클의 폭력 (Violence of the Spectacle)	서문	스펙터클 버티고(권두언)
		특별대담	얼터 모던에 대한 이해와 오해(이용우&니콜라 부리요)
		특집	스팩터클의 폭력 · 스펙터클의 소비(실베르 로트랑제) · 오월의 전위(김현도) · 미디어 스펙터클(하사시 무로이) · 스팩터클의 폭력을 넘어서(배영달) · 실제 세계의 회복을 위한 노정(김강) · 포스트-스팩터클 시대의 미술의 문화적 논리(서동진) · 비엔날레 스펙터클에 대한 글로벌 논쟁(마리케 반 할)
		비엔날레리뷰	2009베니스비엔날레, 영웅과 신들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이용우)
		인터뷰	비엔날레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예술지형도 (2010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비엔날레뉴스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련 뉴스
2호 (2010)	기념화와 탈기념화 (Monumental & Unmonumental)	특별대담	예술, 정치, 그리고 현대미술(이용우&아이웨이웨이)
		특집	Monumental & Unmonumental · 기념비(김현도) · 기념비적 거대 건축과 담담한 자연(김우창) · 지문(승효상) · '5·18'의 기억공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정호기) · 이름에 헌정하는 기념비로서의 소셜 네트워크 (찰리 기어) · 기념성과 정치적 도상(요란 터본)
		비엔날레리뷰	예외의 편재, 비엔날레 예술의 향연 이후(강수미)
		비엔날레뉴스	2010광주비엔날레 관련 뉴스
3호 (2011)	진리, 정보, 시각예술 사이 (Rethinking Truth, Information and Visual Art)	편집인의 글	진리와 정보의 관계항(이용우)
		특집	진리, 정보, 시각예술 사이 · 서문 : 정보와 진리의 사이에서(서동진) · 분과학문들 사이에서 사유하기(자크 랑시에르) · 가시적인 것의 진리와 비진리(김남시) · 긴장과 충격(스벤 뤼티켄) · 센세이션의 권태로움(강수미) · 신마니주의를 향하여(이성훈) · 가시성의 양태들 : 반가치의 보급(펠린 탄)
		인터뷰	소셜미디어로서의 비엔날레(이용우&띠에리 라스파이)
		비엔날레리뷰	·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조셉 그리마) · 고아와 에이전트(캐롤 잉화 루)
		비엔날레소개	2011광주비엔날레
		필자소개	필자소개

구분	주제	목차	제목(집필자)
4호 (2012)	실패의 힘 (The Power of Failure)	편집인의 글	실패의 전복적 잠재성(이용우)
		특집	실패의 힘 · 실패 연구 : 결을 거슬러 솔질하기(강수미) · 아우라 : 하나의 접근법(잘랄 투픽) · 발터 벤야민, 그리고 실패의 부정성과 삶의 폐허성 (이택광) · 실패와 한국 현대미술(문영민) · 나를 실패시켜라(리사 르 페브르)
		인터뷰	이용우, 도나 데 살보
		비엔날레리뷰	· 세계를 교섭의 장으로 이끌다-2012광주비엔날레 (자비네 B. 포겔) · 2012년 세계 동향(리차드 바인)
		필자소개	필자소개
		비엔날레소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5호 (2013)	사회, 사회적인 것 (Society & Social)	편집인의 글	예술의 사회적 생산의 가치(이용우)
		편집위원 라운드테이블	사회적인 전환 이후의 현대미술
		특집	사회, 사회적인 것 · 사회적인 전환 이후의 미술 - 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불가능한 조우(서동진) · 참여와 스펙터클-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클레어 비숍) · 세 가지 단계에 따른 도시에서의 도시계획기술 (자크 동즐로) ·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세계-리얼리즘 역사에서의 다큐멘터리 미학(스테판 욘손) · 제도화의 변화-생산적 분쟁 공간으로서의 프로토콜 (마르쿠스 미이센) · 전환과 공회전(김장언)
		인터뷰	슬라보예 지젝 vs 이택광
		필자소개	필자소개
		비엔날레소개	2014광주비엔날레

3장

글로벌 예술교육의 현장

차세대 국제미술전문가 양성 & 시민 문화예술 교육

세계 현대미술과 사회문화의 첨예한 이슈와 담론의 장을 펼치는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년 동안 국제적 전시기획자의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차세대 현대미술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현장으로 주목받아 왔다. 역동적인 전시와 담론의 장을 결합하는 교육현장으로써 현대미술에 관한 전문가들의 강좌와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진행해 왔다. 2009년부터 재단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국제큐레이터코스를 비롯, 그 이전의 비엔날레미술영상대학과 글로벌인스티튜트, 비엔날레 포럼 등이 그것이다.

1.
글로벌 인스티튜트

2008광주비엔날레는 '글로벌 인스티튜트'를 통해 전시와 함께 학술적 성과 및 담론 확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세계 각국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한 대학 재학 이상의 학생들이 현대예술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론 및 역사적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 전시의 실무 지식 등을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 및 학자들과 교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세미나, 워크숍, 국제 심포지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부제 그대로 '다국적 교육의 실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오픈 스튜디오'와 '현장과 체제'등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의 및 워크숍 중심의 세션1과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의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세션1 : 강의 및 워크숍

2008. 8. 11 ~ 8. 16 한국예술종합학교 / 2008. 8. 18 ~ 8. 23 전남대학교

세션1은 비엔날레 참여작가들의 아이디어 및 작품 제작과정에 대한 워크숍인 '오픈 스튜디오'와 사회학자, 건축가, 전시 기획자 등 전문가를 초청한 '현장과 체제 part1'의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광주비엔날레와 광주광역시 주최, 한국예술종합학교(서울), 전남대학교(광주)가 주관하였고 강사 25명(국외5, 국내 10, 상임부이사장, 총감독 및 큐레이터 등)과 학생 52명(한국종합예술학교 13, 전남대학교 13, 쿠바 아르트 콘덕타 6,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외국학생 20), 재단 및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세션2 : 사전 세미나와 심포지엄(현장과 체제 part2)

2008. 9. 24 ~ 9. 27 전남대학교

세션2는 '현장과 체제의 Part2' 로서 '스펙터클의 정치학과 국제 미술전시'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 및 그 준비를 위한 이틀간의 사전 세미나로 이루어졌다. 사전 세미나에서는 감독과 학생들이 미리 주제를 놓고 토론시간을 가짐으로써 심포지엄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실제적 지식을 공유하였고, 각 분야의 학자, 전시 기획자, 미술전문가들이 참여한 심포지엄은 참여 학교 학생 이외에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진행되었다.
광주비엔날레와 광주광역시 주최, 한국예술종합학교(서울), 전남대학교(광주)가 주관했고 패널 14명(국외 7, 국내 2, 총감독 및 큐레이터 등) 학생 50명(한국예술종합학교 10, 전남대학교 15, 영국왕립미술학교 13, 샌프란시스코 아트인스티튜트 9, 이스라엘 바자렐대학 3 등), 상임부이사장 등 재단관계자, 학생,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하였다.

2.
국제큐레이터코스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Gwangju Biennale International Curator Course)는 (재)광주비엔날레가 2009년부터 전시기획 및 실행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08년 제7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운영했던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국제인력양성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광주비엔날레재단의 대외 역할 강화 정책사업으로 개설하였다. 이 코스는 젊은 큐레이터와 관련분야 활동가, 전공자들에게 광주비엔날레 및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직전 약 한 달간 집중적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현대미술 관련 전문지식과 큐레이터로서의 현장 경험 및 실행력을 높이는 플랫폼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1) 프로그램 성격

국제큐레이터코스는 비엔날레 준비현장과 연계한 전시기획 및 실행 관련 전문가 강의 및 토론 프로그램으로 동시대 현대미술 담론을 열어가는 광주비엔날레만의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교수진으로는 해당년도 총감독과 큐레이터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비엔날레 준비과정과 함께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오늘날 시각문화의 주된 이슈와 활동들에 관한 첨예하고도 다양한 담론들을 논제로 다룬다. 아울러 광주와 수도권 미술현장 및 작가 스튜디오 탐방, 참여자들의 워크숍, 그룹스터디,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공동 조사연구와 협업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다양한 주제 및 장르로 구성되는 시각문화예술 기획에 있어 보다 전문화된 개별능력 향상과 함께 동세대 기획자 간의 이해와 교류를 넓힘으로써 국제 전시기획자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코스를 통해 배출된 각 기별 25명 내외의 수료자들은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교류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광주비엔날레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활동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코스 등록금 면제와 숙소제공 등 혜택이 주어지고 본인들은 코스참여에 따른 항공료와 생활비 등을 부담한다. 신진큐레이터 양성과 연수코스로서 운영 취지에 따라 참가신청 자격은 만 33세 이하로 하며(모집기간 기준, 제1기부터 제4기까지는 만 35세 이하), 코스 전 과정은 영어를 공용어로 진행하고 있다.

2) 교육 활동

▶참가자 워크숍 : 코스 초기에 참가자간의 국제적 네트워킹과 친교를 넓히기 위한 개별 활동경험 및 성과물 등 발표와 토론 진행

▶초청강의 : 시각문화예술분야 전시기획 및 실행과 관련한 전문가의 강좌 및 우수전시 사례 소개, 최근 현장의 주요 이슈와 과제, 대안모색 등

▶현장방문 : 서울과 수도권, 광주의 주요 전시 및 작가 스튜디오 방문, 관련분야 전문가 미팅, 시각문화예술 관련 현장답사 등

▶광주비엔날레/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참여 : 비엔날레 전시구성 및 작품설치 등 전시준비과정, 프레오픈 및 개막식 등 현장참여

▶그룹스터디 : 그룹별 과제에 관하여 코스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자료 조사, 연구,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3) 코스 운영 및 교육내용

제1기 국제큐레이터코스

지도교수 : 바바라 반더린덴 Barbara Vanderlinden(2008브뤼셀비엔날레 창설자 겸 예술감독)

강사	강의주제
이용우	Globalization & Biennialization
Marieke Van Hal	Biennial Origins
Lu Jie	Independent Spaces and Models of Curating
Maurizio Bortolotti	Curating and Territory Dynamics
Barbara Vanderlinden	The Genealogy of the Identity Discourses and the EmergingDiscourses around Identity in Exhibitions, Two Points of View
은병수	Inserting New Forms of Design Between East and West
조병수	"ONE Earth, One Sun"(We, together as one community)
Nathalie Angles	Artist Residences : Geographic Mobility
김선정	Museum Topology, and the Will to Connect
Tahmineh Javanbakht	Artecnica(Past to Present)
Yuko Hasegawa	"Space for your Future" / "When Lives Become Form"
Massimiliano Gioni	Curatorial Attitude

제2기 국제큐레이터코스

지도교수 : 댄 캐머론 Dan Cameron(2008 U.S. 비엔날레 창설자)

강사	강의주제
Dan Cameron	Istanbul Biennale Prospect 1 New Orleans Taipei Biennale
Mami Kataoka	Sensing nature/According to what(Ai Weiwei)
Massimiliano Gioni	Various shows realized in Trussardi Foundation, Wrong Gallery, Manifesta, and etc.
이용우	Gwangju Biennale
승효상	Two different houses
Carol Yinghua Lu	Discussion
Ai Weiwei	Fuck off exhibition/ Rough ideas
Marieke van Hal	To biennial or not to biennial?

제3기 국제큐레이터코스

지도교수 : 우테 메타 바우어 Ute Meta Bauer(싱가폴 난양공과대학 컨템포러리아트센터 디렉터)

강사	강의주제
Ute Meta Bauer	Exhibition as Communicative Space 1-3
이용우	Gwangju Biennale
Anton Scholz	Hub City of Asian Culture- Gwangju
Francisco Sanin	Considerations on Contemporary Urbanism, Gwangju Design Biennale 2011: Biennale City
김희진	Alternatives in Motion – The Case of Contemporary Local Art Scene of Seoul from the 90s and the Art Space Pool
이솔	"How has korean art become contemporary?" Art as Social Practice in South Korea, 1970~2010
Jesi Khadivi	2nd GBICC and Curatorial Practice
Beatrice Galilee, 최혜정	Gwangju Design Biennale 2011 : Communities
Brendan McGetrick	The Editor as Curator / Gwangju Design Biennale 2011: Unnamed
배형민	Gwangju Design Biennale 2011: Thematic Exhibition, Positive Fragments
승효상	Two Different Houses
Reineke Otten	Gwangju Streetology
Anthony Fontenot, 조민석	2011 Gwangju Design Biennale: Named
June Yap	Curating Contemporary Art from Southeast Asia
Marina Pugliese	Museo Del Novecento
Eva Franch Gilabert	Instigation : Neutral Utopias

제4기 국제큐레이터코스

지도교수 : 옌스 호프만 Jens Hoffmann(뉴욕 유태인미술관 부디렉터)

캐롤 잉화 루 Carol Yinghua Lu(2012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

강사	강의주제
이용우	Gwangju Biennale
Jens Hoffmann	Remembering Istanbul : Biennials and their Discontent, The Exhibition as a Dramatic Construction, The Exhibitionist
Carol Yinghua Lu	Back to the Individual Experience: Some Thoughts on Research and Curatorial Practice in Contemporary Art, From Orphan to Agent: The Anarchical Structure of Exhibition Making
Wassan Al-Khudhairi	A Perspective on Curating in the Arab World
Nancy Adajania	Globalism before Globalisation: The Ambivalent Fate of Triennale India(1968)
정연심	Korean Contemporary Art in the Public Sphere: From Alternative Spaces to the Debates on Public Art/Community Art since Late 1990s
Mami Kataoka	Transient Encounters
Stephanie Sykes, Nancy Mayer	Multi-Disciplinary Curatorial Approaches at LACMA
Jun Yang	Models Protected Environment and Realities
이솔	The Curious Matrix of the Avant-Garde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South Korean Contemporary Art, 1960~2010
Abraham Cruzvillegas	Autoconstrucci: a definitely unfinished inefficient unstable affective emotional delirious joyful affirmative sweaty fragmentary empiric weak happy contradictory solidary indecent sensual amorphous warm and committed index
Tom Trevor	Curating Dialogues: On Context and Critique
Nikolaus Hirsch	Plans Are Nothing – Planning Is Everything

제5기 국제큐레이터코스

지도교수 : 마리아 린드 Maria Lind(스톡홀름 텐스타 쿤스트홀 디렉터)

강사	강의주제
Maria Lind	Toward a Typology of Funding, On Criticality, Minors and Majors, Abstract Possible : On Contemporary Art, Abstraction and Money
Anton Scholz	Gwangju a City in Change : Evolving into the cultural hotspot of Korea
Heidi Rebben	Infinite Distance Between... : Exhibition Typologies and Collaborative Curating
Tan Boon Hui	Late or In time? Reading Context and Content in art from Contemporary Southeast Asia
Jessica Morgan	Collecting and Curating : A Tale of Two Careers
Maurizio Bortolotti	AI WEI WEI. DISPOSITION
이 솔	The Double Meaning of Contemporaneity in South Korean Art, 1960–2010
Alice Kim	East Asian Modernization, Historical Memory, and the Gwangju biennale
이순인	Understanding Design in Motion
Nikolaus Hirsch	Curating as Timing
이용우	Why Biennale?

제6기 국제큐레이터코스

지도교수 : 루스 노악 Ruth Noack(전 카셀도큐멘타 큐레이터)

강사	강의주제
Ruth Noack	Dynamics of Thinking Through Art 1–3
Michelle Hyun	Sweet Dew Since 1980, 1994, 2014...
Jessica Morgan	Burning Down the House
Jelena Vesic	Administration of Aesthetics
정연심	Korean Contemporary Art inside and out
이용우	Gwangju Biennale
Sharon Hayes	We cannot leave this world to others
Ute Meta Bauer	the Center for Contemporary Art in Singapore

4) 역대 국제큐레이터코스 운영 현황

구분	주제	기간	참여자 모집 및 심사기간	지원자	합격자/수료자
제1기		2009년 8월 24일 ~ 9월 20일 (28일간)	모집기간 : 2009년 4월 23일~5월 15일 심사기간 : 2009년 5월 21일~5월 22일	28개국 114명	합격자 : 16개국 27명 수료자 : 14개국 23명
제2기		2010년 8월 9일~ 9월 5일(28일간)	모집기간 : 2010년 4월 15일~5월 4일 심사기간 : 2010년 5월 13일~5월 14일	26개국 76명	합격자 : 16개국 24명 수료자 : 14개국 22명 (개인사정으로 2인 불참)
제3기	The Exhibition as Communicative Space	2011년 8월 8일~ 9월 3일(27일간)	모집기간 : 2011년 4월 26일~5월 17일 심사기간 : 2011년 5월 18일~5월 28일	34개국 95명	합격자 : 19개국 24명 수료자 : 18개국 23명 (합격자 1명 중도포기)
제4기	Biennale as Social Media	2012년 8월 13일~ 9월 8일(27일간)	모집기간 : 2012년 4월 24일~5월 15일 심사기간 : 2012년 5월 21일~6월 2일	38개국 98명	18개국 23명
제5기	Art and Patrons	2013년 8월 15일~ 9월 10일(27일간)	모집기간 : 2013년 4월 25일~5월 10일 심사기간 : 2013년 5월 20일~6월 10일	26개국 73명	17개국 21명
제6기	The Dynamics of Thinking Through Art	2014년 8월 11일~ 9월 6일(27일간)	모집기간 : 2014년 4월 25일~5월 10일 심사기간 : 2014년 5월 15일~5월 28일	32개국 75명	합격자 : 18개국 21명 수료자 : 17개국 20명

5) 국제큐레이터코스 수료자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는 국제 미술기획자로서 꿈을 키우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젊은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지원자를 대상으로 전시기획경험, 연구 및 집필활동, 지원동기, 전공여부 및 수상경력, 영어능력(국내인의 경우) 등을 점수로 환산해 심사위원들의 평점을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 1회씩 총 6기, 132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구분	수료자	국내 (광주 포함)	국외	비고
제1기 (2009)	23명	5명 (광주 3)	18명(미국 3, 이탈리아 3, 독일 2, 뉴질랜드, 인도, 벨기에, 남아공, 세르비아, 일본, 케냐, 스페인, 프랑스, 터키 각 1)	14개국
제2기 (2010)	22명	2명	20명(미국 4, 호주 2, 캐나다 2, 이탈리아 2,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중국, 독일, 인도, 필리핀, 러시아, 스페인, 터키, 이탈리아/미국 각 1)	14개국
제3기 (2011)	23명	3명 (광주 1)	20명(중국 2, 프랑스 2, 이탈리아 2, 미국, 캐나다, 영국, 방글라데시/영국, 독일,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터키/벨기에, 파키스탄, 불가리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남아공/슬로바키아 각 1)	18개국
제4기 (2012)	23명	2명	21명(미국 2, 영국, 호주, 중국,인도, 대만, 불가리아, 네덜란드,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루마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각 1)	18개국
제5기 (2013)	21명	2명 (광주 1)	19명(미국 3, 이탈리아 2, 러시아, 프랑스,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포르투갈, 남아공, 콜롬비아/미국, 캐나다, 폴란드, 인도, 네델란드, 호주, 중국 각 1)	17개국
제6기 (2014)	20명	2명	18명(이탈리아 2, 브라질 2, 독일, 인도네시아, 오만, 미국, 인도, 중국, 일본, 터키, 필리핀, 리투아니아, 페루, 멕시코, 덴마크, 폴란드 각 1)	17개국

3.
시민교육프로그램

지난 20여 년간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현대미술과 디자인, 양대 비엔날레를 격년제로 번갈아 개최하면서 매회 시의성 있는 주제와 미학적 담론, 메시지, 시각이미지들로 시대적 이슈와 미래 문화가치를 탐구해왔다. 이와 함께,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행사기획과 성과들을 토대로 광주는 물론 한국의 문화인력을 육성하고, 도시의 브랜드 파워와 문화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비엔날레 전시 이외에 문화소통과 공유의 장을 열어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역량을 함께 가꾸어가고자 시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1) 비엔날레 미술영상대학

'비엔날레 미술영상대학'은 미술대학 전공과정의 학교학습이나, 일반 문화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양강좌와는 달리, 광주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현대미술의 생생한 동향과 작가 및 작품 정보를 공유하고 현대미술 일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4기의 미술영상대학(매학기 12주 24강)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운영하였다. 재단 이사인 윤명로(서울대 교수), 이종상(서울대 교수)가 학장을 맡고 박동영 KBS광주방송총국장이 명예학장을 맡았다. 저렴한 수강료(4만원, 등록비 1만원)로 현대미술 강의, 관련 전시행사·문화현장 탐방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별로 100여명이 수료하였다.

교육내용을 보면 제1기는 ' 현대미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현대미술의 흐름과 쟁점', '현대미술과 영상문화', '한국현대미술의 역사와 전망'의 강좌 등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4기 강좌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제 강의에서 한걸음 나아가 직접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끌어들였다. 복잡하고 난해한 현대미술을 미술사나 미학 등 이론 중심의 교실강의를 벗어나 '누가 현대미술을 즐기는가?' '삶의 공간과 도시이미지' 등 우리가 대면하는 현대미술의 실제적 측면에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또 도시와 강의실을 벗어나 작가의 스튜디오나 전시장 등을 찾아가 창작환경을 체험하고, 작품을 직접 보며, 작업장면도 살펴보고, 작가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발제와 함께 작가와 직접 대화하며 토론하고, 강좌 후에도 웹토론을 진행하는 등 입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수료 후에는 비엔날레 미술영상대학장 명의의 수료증과 함께, 비엔날레 전시기간 중 무료출입증을 발급받게 되고, 광주비엔날레 업무와 관련한 자원봉사자, 인턴·도슨트 등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 부여, 국내외 전시견학행사 참여시 할인혜택 등의 특전을 부여하였다.

수강자들은 이 과정의 수료를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증진과 더불어 이후 광주비엔날레 자원봉사 등 문화현장 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비 행사기간 중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넓히고 광주비엔날레 이미지 제고 및 상시 홍보효과를 이어가는 등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직장인이나 현장 활동가들이 많다보니 작가 스튜디오, 문화현장 방문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날에는 참여가 저조하였다. 4기 수강생 모집기간 중 차기비엔날레 진행과 관련한 추진 일정이 촉박하기도 하여 수강신청이 급감하고 마지막 과정이 되었다.

프로그램

일시	주제	강사	비고
2001. 5. 2~7. 27 12주(주2회)	세계비엔날레의 동향, 왜 현대미술이 어려운가, 모더니즘과 예술의 자율성 이념, 만화·애니메이션·멀티미디어, 80년대 말 한국내 포스트모더니즘 활성화,	윤명로(서울대 교수), 김윤수(영남대 교수), 성완경(2002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박신의(경희대 교수), 박정기(조선대 교수), 황영성(조선대 교수) 등	50명 모집 91명 수료
2001. 9. 15 ~11. 24 11주(주2회)	큐레이터의 역할, 경기도자엑스포 견학 등	송미숙(성신여대 교수) 등	60명 모집 100명 등록
2002. 9. 12. ~11. 29 11주(주2회)	미디어시티비엔날레·부산영화제· 전주 영화촬영현장 견학 등	임권택(영화감독) 등	136명등록 128명 수료
2003. 4. 4~7. 2 12주(주2회)	현대미술의 주 관람층은 누구인가, 삶의 공간과 도시 이미지, 남도미술의 역사와 현재, 창작내용과 작가의 변화, 작가 영감의 진원지는(황영성 작업실), 담양의 정자들과 경작문화(박문종 작업실), 나주 금천의 배꽃과 문인화(박태후 작업실), 미술관의 역할과 관람방법(신세계갤러리) 등 작가 스튜디오 방문, 경주문화엑스포 등 문화현장 탐방 등	이종상(이사, 미술영상대학 학장, 서울대 교수), 이용우(2004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윤난지(이화여대 교수), 박영택(금호갤러리 큐레이터), 강홍구(작가), 조송식(조선대 교수), 황호경(광주신세계갤러리 큐레이터), 강성곤(호남대 교수) 등	42명

2) 비엔날레 포럼

광주비엔날레 포럼은 비행사기간 중 비엔날레와 시민사회, 문화예술계와 수시 접촉기회를 넓히면서 비엔날레 추진상황 및 현대미술 동향 관련 주요 이슈와 지역 미술문화계 현안에 관한 지역사회, 미술계와의 소통을 위한 생산적 담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매월 1회 광주시내 문화공간들을 순회하면서 지역 미술문화계 관계자, 작가, 대학생 등 30~40명의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 강사진으로 이용우(예술총감독), 조인호(기획홍보팀장), 최정화(작가) 등이 참여해 비엔날레 관련 주요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였다.

지역 미술계와 상호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첫 포럼은 광주청년미술작가회, 광주 민예총 미술분과, 청년미술인 모임 등 지역 미술계인사와 비엔날레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청년작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미술계와 광주비엔날레의 상호 교감의 장을 마련하고 광주비엔날레의 안정적 개최 기반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두 번째 포럼은 지역미술계와 미술학도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정화 작가를 초대하여 작품활동 및 작품세계, 국내외경험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청년작가·미술학도와의 현대미술 또는 작가의 작업과 관련한 토론을 펼쳤다.

세 번째 포럼은 일곡도서관에서 열린 <도서관미술제>라는 기획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미술의 영역과 역할이 갈수록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상황 속에서 작가들 스스로 작업 방향과 내용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하였다.

네 번째 포럼은 제5회 광주비엔날레 이용우 예술총감독의 5회 행사 방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역미술계와의 대화를 통해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럼은 당초 월례강좌로 개설하였으나 재단의 시기별 현안업무 및 여건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진행되었고. 분야별, 사안별 소규모 간담회 형태의 포럼으로 진행하였다.

날짜	주제	강사	비고
2002. 10. 24 YMCA	"지역미술과 광주 비엔날레" 지역미술게 활성화와 광주비엔날레의 안정적 개최기반 마련을 위한 의견 교환 및 상호교감의 장 마련	지역 청년작가 토론	
2002. 11. 27 하나로갤러리	"최정화 : 작가로 살아가기" 지역작가, 미술대학생들의 참여로 포럼 주제 공유 및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 폭 확대 계기 마련	최정화 (작가)	
2003. 3. 21 일곡도서관 강당	"일상 속에서의 미술" 일상과 공공영역에서의 미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조인호(광주비엔날레 기획홍보팀장)	
2003. 5. 30 YMCA	"제 5회 광주비엔날레 – 어떻게 치를 것인가?" 현 단계 국내외 미술동향, 제 5회 행사 및 전시기획 방향 소개	이용우 (제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2003. 11. 3 전남대 용봉문화관	"광주비엔날레의 미학적 정체성" 이용우 예술총감독의 발제와 지역 학자, 학생들의 참여로 제5회 행사 주제 및 방향에 대한 소개 및 토론	이용우 (제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공동주최
2004. 4. 30 조선대 미대	"현대미술과 참여 관객" 참여작가 전수천과 관객 권호상씨의 참여로 '참여관객제'의 실제 진행과정 및 작가의 작품 기획방향 소개	전수천(작가)	

3) 광주문화포럼

'광주문화포럼'은 창의와 혁신의 시각문화 현장인 광주비엔날레와 더불어 우리시대 인문·사회에 관한 폭넓은 접근과 이해를 도우면서,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와 현장 소통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2013년 하반기에 월례행사로 진행되었다.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와 광주일보사 공동주최로 광주비엔날레는 기획과 운영 등 전체적인 진행을, 광주일보사는 지면을 통한 언론홍보를 분담하였다. 강의는 시각문화를 통해 인문·사회 관련 주요 이슈와 비전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일반시민·작가·학생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광주비엔날레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사회문화 현장의 주요 인사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6개월 동안 모두 6강이 진행되었다. 1강은 최근 큰 흐름을 타고 있는 한국 팝아트 활동사례(복합매체작가 최정화), 2강은 시각문화현장을 기획하는 큐레이터의 역할과 활동(스톡홀름아트센터 관장 마리아 린드), 3강은 자본시장 상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예술의 현실에 관한 진단(광주비엔날레재단 이용우 대표이사), 4강은 광주가 정책적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미디어아트에 관한 사회철학적 관점(숙명여대 박영욱 교수), 5강은 최근 국내외 미술시장의 흐름과 미술계 상황(한국화랑협회 표미선 회장), 6강은 예술의 분화와 그 속에 투영된 동서고금 미술에서 법의 모습(전 서울대학교 법대 안경환 교수) 등이었다.

강의실 공간사정에 따라 매회 80여명을 사전 신청 받거나 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적정 수를 관리하였으며, 일반시민과 미술인·문화활동가·대학 교수, 대학생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활동사례와 경험, 이미지 자료를 활용한 유익한 강의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일시	주제	강사
2013. 7. 24	거북털 토끼뿔	최정화(미술가)
2013. 8. 21	오늘날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	마리아 린드(스톡홀름 아트센터 관장)
2013. 9. 25	디자인, 거시기 머시기	이영혜(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2013. 10. 16	미디어아트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박영욱(숙명여자대학교 교수)
2013. 11. 2	예술 자본주의의 비명	이용우(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
2013. 12. 18	현대미술과 법	안경환(서울대학교법대교수)

4) 도슨트 교육

광주비엔날레가 관람서비스와 문화향유 폭을 넓히기 위해 문화자원봉사제도로 도입한 도슨트 제도는 미술전공 인력들의 재교육과 전시안내 전문인력 양성코스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도슨트 제도는 2002년 제4회 때 처음 시범 실시되었고, 5회 때부터 정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부분 미술전공자들이 많지만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 타 분야 활동가들의 참여도 적지 않아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의 역할을 맡아왔다. 초기에는 현대미술에 관한 기초교육과정부터 진행하였으나 문화 환경 변화에 따라 참여자들의 기본 이해도가 높아지고, 참여자들의 참여시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과정의 집중력과 효율성을 위해 점차 단축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전문가들의 강의와 현장 탐방학습, 조별학습 등으로 진행되며 기본교육과 심화학습과정을 거친 뒤 시연을 통해 최종 선발하였다.

도슨트들은 행사기간 중 시간별 정규 안내프로그램과 주요인사 안내, 사전 예약 안내 등을 진행하여 전시작품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5회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 구성	1차 정기교육, 갤러리 미팅, 갤러리 탐방, 도슨트 워크샵, One day Docent, 2차 교육, 전시 설치 실습, 상시교육	
1차 정기교육	기간	2004. 5. 22~6. 12(총 8회)
	장소	시립민속박물관 세미나실, 광주비엔날레 회의실
	내용	각 전시소개, 도슨트 역할과 임무, 전시와 해석, 한국 현대미술, 도슨트 실무 실습 등
2차 정기교육	기간	2004. 8. 19~8. 21(총 6회)
	장소	광주비엔날레 세미나실
	내용	도슨트 실무 교육, 작품관리론, 작가 연구
상시 교육	기간	도슨트 지원 이후 지속 추진
	장소	온·오프라인, 광주비엔날레 회의실
	내용	도슨트 카페 자료실 활용, 광주비엔날레 관련 행사 참여, 그룹 스터디

제6회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교육

초기교육	기간	2006. 3. 31~6. 30
	프로그램	· '미술을 쉽게 이해하고 소개하는 방법론' 정효찬(한양대 강사) · '내가 도슨트가 된 이유' · '도슨트 활동을 위한 조언' 윤은희(도슨트 협회) '전시기획 과정과 작품 감상' 황호경(신세계 갤러리 수석큐레이터)
심화교육	기간	2006. 7. 10~9(1주)
	프로그램	· '제 3섹터 시민프로그램 소개' 심재욱(교육정보축제팀장) · '마지막장 전시 작품과 작가 소개' 이은하(전시 담당자)

제7회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교육

기초교육	기 간	2008. 5. 2~6. 27, 8주간 주1회 2~3시간 정기수업 진행
	프로그램	· '문화자원봉사자로서의 도슨트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 이춘아 · '도슨트, 전시를 읽고 관객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 최윤아 · '갤러리 미팅 & 작가와의 만남' 박성현 등이 있음.
심화교육	기간	2008. 7. 4 ~ 8. 29, 8주간 주1회 2~3시간 정기수업 진행
	프로그램	· '2008광주비엔날레 공간계획' 최춘웅 · '비엔날레 도슨트의 역할과 태도' 윤은희(3시간)

제8회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교육

기초교육	기간	2010. 6. 28~7. 2(5일간), 13:00~17:00
	장소	비엔날레 회의실
	대상	도슨트 1차 선발자 63명
	프로그램	· '도슨트, 전시를 읽고 관객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 한주연(삼성미술관 리움 선임연구원) · '이미지와 텍스트, 디자인' 정진열(디자이너, 2010광주비엔날레 EIP개발) · '현대미술 감상교육과 방법' 백령(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심화교육	기간	2010. 8. 2~8. 6(5일간), 8월 중
	장소	비엔날레관 회의실 및 전시공간
	대상	최종 선발자 40명
	프로그램	· '2010광주비엔날레 전시 및 작품 소개' 마시밀리아노 지오니(2010 총감독) · '관람객과 소통의 시작-친절, 서비스 교육' 양화정(CS전문가)

전시기간 중 교육

재교육	기간	2010. 9. 16~9. 18 / 9. 23~9. 24(총 5일), 8:00~8:50
	장소	비엔날레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대상	도슨트 40명
	내용	도슨트 개인의 현장경험에 따른 심화학습 및 재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기간	2010. 10. 20, 18:00~20:30
	장소	비엔날레관 자료실
	대상	도슨트 40명
	내용	도슨트 활동 중 에피소드 및 사례, 활동영상을 살펴보며 도슨트 활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재단 관계자와 공유하는 워크샵

제9회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교육

기초교육	기간	2012. 6. 25~6. 29(5일간) / 13:00~17:00
	장소	비엔날레 제문헌 회의실
	대상	도슨트 1차 선발자 62명
	프로그램	· '비엔날레 큐레이터쉽 – 전시기획의 이해' 김선정(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현대예술의 새로운 질서 : 미술이 공동체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다양한 방식들' 강수미(미학, 미술비평, 독립큐레이터) · '미적경험의 매개자로서 도슨트' 이광준(미학, 기획자) 등이 있음
심화교육	기간	2012. 8. 2~8. 6(5일간), 8월 중
	장소	비엔날레관 회의실 및 전시공간
	대상	최종 선발자 36명
	프로그램	· '도시와 기억, 역사, 현대미술' 김남시(연세대 인문학 연구원 HK연구교수) · '작가 및 작품소개' 프로덕션 매니저 / 담당 코디네이터 · '작품 설치의 특징과 이해' 담당 테크니션

제10회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교육

기초교육	기간	2014. 6. 23~6. 27(5일간), 13:00~17:00
	장소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
	대상	도슨트 1차 선발 기초교육 대상자
	프로그램	· '행위·관계·비(非)관계 : 퍼포먼스 기반의 현대미술' 강수미(미학, 미술비평, 동덕여대 교수) ·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비엔날레' 이준희(월간미술 편집장) 등이 있음
심화교육	기간	2014. 8. 4~8. 7(4일간), 13:00~18:00
	장소	광주비엔날레관 거시기홀
	대상	도슨트 기초교육 수료, 심화교육 대상자
	프로그램	· '관람객과의 소통의 시작 – 친절, 서비스 교육' 양화정(CS 전문가) · '작가 및 작품 소개' 제시카 모건(예술총감독) 등이 있음

4부

평가와 비전 모색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속적으로 전문인들이 참여하는 발전방안 연구를 시행해왔다. 이 연구들은 광주비엔날레가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다음 회에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개최 환경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우선과제 및 역할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수행된 발전방안연구는 당면사안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발전적 개선책들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1998년, 2000년, 2007년, 2013년의 발전방안연구를 비롯, 그 사이 재단과 외부에서 진행된 여러 심포지엄, 토론회, 공청회들을 광주비엔날레 추진과 발전방안 모색에 거울로 삼아왔다.

VISION

창의적 혁신과 공존의
글로컬 시각문화 매개처

지역 및 대외 네트워킹
활성화로
소통 협력체제 강화

개최지 랜드마크 및
문화진흥 발신지 역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단 경영 기반 구축

글로컬 시각문화
선도처로서
국제적 위상 정립과
차별성 강화

2010 광주비엔날레
만인보 10000 LIVES
GWANGJU BIENNALE 2010
2010. 9.3 — 11.7
GWANGJU BIENNALE
아트샵 전시도록 판매점
CAFE

창의적 혁신과 공존의 글로컬 시각문화매개처로서의
비전을 수립한 광주비엔날레는 참신한 예술적 제안과
역동적 변화로 세계인의 관심을 광주로 모으고,
더욱 창대한 20년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1. 행정평가

광주비엔날레의 재원은 크게 국비와 시비, 자체 부담으로 나뉘어져있다. 국가에서는 국비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평가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지역발전 정책 및 문화관련 지원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차기 예산 지원 등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광주비엔날레는 행사 개최 2년 전에 시행하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및 개최 여부 승인절차에 따라 사전심의를 거치면서 또한 매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의 지역발전사업 평가와 매 행사 개최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국고지원 시각예술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평가 지표는 해당 부처의 성격에 따른 지원의 목적이 반영되어, 지역발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표는 크게 차이가 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주로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사업의 지역기여를 중시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는 국제미술전시행사로서의 행사의 전문가적, 질적 성과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는 공통적으로 정량적 성과를 중시하고 있어,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예술 행사의 성과를 '관객수 집객'을 넘어서 정성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수치화하여 증명하느냐의 과제가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아래는 각 부처의 평가지표이다. 평가지표는 때에 따라 변동되기도 한다. 특히 2014년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방식이 세부내역사업에서, 지자체의 포괄내역사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단위로 변경되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로서는 불이익이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 주요 평가 및 결과

구분	지역발전사업종합평가	국고지원 시각예술분야평가	비고
평가주관	지역발전위원회(대통령직속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지역사업평가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평가대상	지역발전특회계 전 사업	국고지원대상 시각예술행사	매회 지원사업은 변경됨
평가방법	포괄보조사업별 평가 (문화시설 확충 운영 8개 사업 합산 평가)	당회행사 서면평가, 현장실사, 관계자인터뷰, 만족도조사	2014년 기준
평가결과	'15년도 C등급(2014) '14년도 B등급(2013) '13년도 S등급(2012) '12년도 S등급(2011)	'14년도 우수 / '12년도 적합 / '10년도 우수 / '08년도 적합 / '06년도 우수	2014년 평가방법변경 (개별사업→ 市포괄보조사업)에 따라, 등급 동반 하락

2. 경제성 분석

광주비엔날레는 행사 개최 년도에 현장 데이터를 적용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행사 개최에 따른 경제적 산출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발전연구원(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행사 개최년도의 7월~9월초에 실시하는 경제성 분석은 광주비엔날레 및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다. 전시 개최에 따른 투자지출과 소비지출에 대한 추정을 통하여 광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구하고, 추가적으로 행사개최에 따른 간접효과를 정리하여 정성적 효과까지 분석해 행사 운영에 중요한 데이터로 참고해왔다.

광주비엔날레

총 지출 규모(2012년 및 2014년 비교)

(단위 : 백만원)

총지출		투자지출		소비지출			
				문화사업		관람객 소비액	
2014년	2012년	2014년	2012년	2014년	2012년	2014년	2012년
20,413	29,854	7,071	8,438	2,091	2,066	11,251	19,350

주요 파급·유발 효과(2012년 및 2014년 비교)

1. 분석결과_전국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구분	소비지출		투자지출		총지출	
	2014년	2012년	2014년	2012년	2014년	2012년
생산유발효과	32,309	51,831	16,582	19,788	48,891	71,619
부가가치유발효과	10,889	17,446	5,953	7,104	16,842	24,549
고용유발효과	487	792	227	271	714	1,062

2. 분석결과_광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구분	소비지출		투자지출		총지출	
	2014년	2012년	2014년	2012년	2014년	2012년
생산유발효과	16,259	25,929	9,140	10,907	25,398	36,833
부가가치유발효과	7,696	12,314	4,437	5,295	12,133	17,609
고용유발효과	375	604	192	229	567	83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 지출 규모(2009년 및 2011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성 항목	총지출		투자지출		소비지출		소비지출
					문화사업	관람객 소비액	
연도	2011년	2009년	2011년	2009년	2011년	2011년	2009년
금액	18,254	26,757	4,500	5,506	1,154	12,600	21,251

주요 파급·유발 효과

1. 분석결과(2009년)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구분	소비지출	투자지출	총지출
생산유발효과	36,036	9,118	45,154
소득유발효과	19,968	6,118	26,086
부가가치유발효과	28,542	7,408	35,948
고용유발효과	2,265	343	2,608

2. 분석결과_전국(2011년)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구분	소비지출	투자지출	총지출
생산유발효과	33,348	10,553	43,901
부가가치유발효과	11,194	3,788	14,982
고용유발효과	509	144	654

3. 분석결과_광주(2011년)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구분	소비지출	투자지출	총지출
생산유발효과	16,654	5,817	22,470
부가가치유발효과	7,886	2,824	10,710
고용유발효과	390	122	512

광주비엔날레 및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간접 효과

▶광주의 정체성 및 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에 기여

· 국내외 문화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범람하는 세계 비엔날레와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새로운 전시문화 제안

· 현대미술을 비롯한 사회문화 전체를 폭넓게 조망하면서 기획과 전시내용, 관람 면에서 다층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획능력을 지역이 확보하는 계기

· 사회·정치·인권의 문제들을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광주의 정체성, 광주정신의 전국화 및 세계화에 기여

▶국제적인 디자인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 광주의 전략산업인 디자인 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광주를 세계에 디자인중심도시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광주 디자인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

▶도시공간의 시민 친화성 강화 및 관광자원화

· 도시공간(장소)과 커뮤니티를 융합하고 기존의 도시구조와의 통합 지향성은 비엔날레가 시민과 도시환경 간의 가교로 기능하게 하고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 친화성 강화에 공헌

· 가고 싶은 도시의 상징공간으로 조성됨으로써 향후 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MICE 산업 육성에 공헌

·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형태의 전시 및 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시너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마케팅 수단으로서 광주비엔날레가 중요

· 산업전시 및 콘퍼런스, 디자인 콘텐츠 개발 등 국제적인 행사개최를 통하여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 확보 등의 효과도 지역사회가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비엔날레 개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홍보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정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외국인에게는 호기심을 가지고 광주를 바라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할 것으로 기대

3.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연구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연구'는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의 대표 비엔날레로서 위상과 세계적 비엔날레로의 도약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다. 신생 비엔날레의 활기찬 에너지를 토대로 하되 100년 베니스비엔날레와 같은 전문적인 가치와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색을 담은 것이다. 이들 연구와 함께 광주비엔날레는 매회 행사 종료 후 다양한 방식의 평가나 결과보고, 발전방안 워크숍 등을 실시해왔다.

1) 광주비엔날레 발전계획 기본안(1998)

1, 2회 행사 이후, IMF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제3회 광주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과정 중 제2차 전시기획위원회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정상화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21세기형 광주비엔날레 장단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 개선과제를 정리하였다. 주로 1, 2회 광주비엔날레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1998년 7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친 광주비엔날레 학예연구실 직원들의 내부연구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1998년의 발전계획은 광주비엔날레 경영과 예술성의 통합적인 시각 속에서 세운 장기적인 비전이기 보다는, 새천년의 시작을 앞두고 금융위기와 함께 총감독 사퇴 등 다양한 문제지형 속에서 제3회 행사 개최 준비를 위한 차원이 컸다. 그래서 연구 자료 등도 행사 결과 자료와 경험에 의존하여 각 분야의 연구자적 전문성 보다는 현장 실무경험이 주로 반영된 내부의 반성적 발전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주비엔날레 직원들이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었던 반면, 이 계획들은 총감독 사퇴와 민영화 파동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지만, 전반적 내용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주요내용>

– 21세기 광주비엔날레의 새로운 패러다임(정체성과 차별화 전략) 수립 : 국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21세기형 국제비엔날레의 새로운 모델 창출

– 광주비엔날레의 문화기획 역량 제고 : 일회적 행사 집행의 틀을 넘어 상시적인 문화기획생산의 체계로 전환하여 기획력과 관리능력을 축적함으로써 광주비엔날레의 운영 체계 자체를 지식산업화, 문화산업화

–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인 생산적 조직운영

· '관료적 관리중심체제'에서 '전문적 문화경영체제'로 전환

· 중복된 인력규모를 크게 줄이고 결재라인을 단순화시켜 저비용 고효율을 도모

· 광주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은 분리시켜 각기 본래의 기능 강화

– 경제 위기의 시대에 조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억제하여 중앙정부나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통한 수익확대를 꾀함으로써, 200억여 원의 기금과 현재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 도출

· 민주성 : 광주의 역사적 경험을 문화적 정체성으로 승화

· 아시아성 : 아시아 미술문화의 중심창구 역할과 더불어 구미와 아시아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킴

· 미래성 : 전통적 미술개념 넘어 복합예술장르를 포괄한 실험성·개방성

2) 광주비엔날레 장기발전방안연구(2000)

2000년 제3회 행사를 마친 후 광주비엔날레 장기발전방안연구추진위원회를 구성, 장기발전방안 연구팀을 발족하였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이후 5년간에 걸친 세 차례의 개최를 통해 급속하게 국제적인 문화이벤트로 성장하였으나, 종합계획이 취약했고 장기전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3회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창설 특수 효과가 소멸되어 가면서, 장기적 개최 기반을 위한 비엔날레의 제도적 안정기 진입이 필요한 단계였다. 특히 1,2회를 거쳐 3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시총감독제가 도입되는 체제적 전환이 있었으나 조직의 불안정 요소가 잔존하고 있었다. 시기적으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기금의 확충과 기금 규모에 적합한 조직 및 사업의 규모 산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8년 발전계획안 적용에서 취약했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절차와 방법, 전문연구영역 분담,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보완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2000 장기발전방안연구 연구진

구 분	분야	성 명	비 고
팀장 책임 연구위원	총괄 총론	정근식	전남대 교수, 사회학, 호남문화연구소장
연구위원	조직운영	이인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연구위원, 미술사
	경영	정형식	조선대 교수, 경영학
	전시운영	김정화	서울대박물관 특별연구원, 뮤지엄컨설팅
	전시운영	이태호	전남대 교수, 한국미술사, 전남대박물관장
	홍보	이원형	호남대 교수, 광고홍보학 재단 홍보전문위원
연구보조원	총괄	정문영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문화인류학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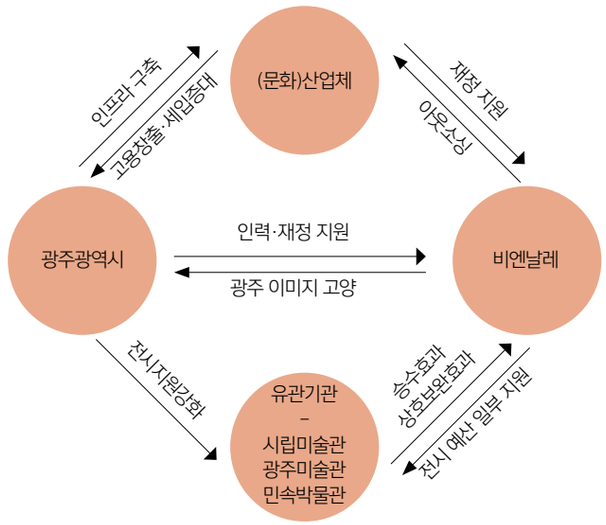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

- 전시 중심의 복합축제모델 : 광주비엔날레는 첫째 미술전시를 핵심으로 하며, 둘째 여타 장르 문화이벤트를 엄선하여 동시에 개최하는, '전시중심 복합문화축제' 모델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문화이벤트의 종류와 횟수를 대폭 줄이고, 대형 문화이벤트로 나아가야 하며, 아울러 미술전시 핵심 개념과 문화이벤트의 주제적 연관성을 높여야 함
- 이념적 정체성으로서 '개방적 광주정신' : 광주비엔날레는 기존의 광주정신론에 바탕을 두면서도 보다 넓고 유연하게 이념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과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함. 미술문화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공동체적 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광주비엔날레에 부여된 중요한 기능임. 그러나 이런 사회통합의 기능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로 열린 개방성을 가져야 하며 보편적 인류로서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함.

조직의 정비

- 민간 부분의 전문성·자발성과 행정의 공공성을 조화시켜 문화예술행정 분야의 이상적인 민·관 협력 모델 모색
- 창의적 연성조직 구현
- 조직 감축 및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전시총감독 선임방법 및 절차 내규화
- 전시기획위원회의 기능 조정
- 이사회와 사무국 체제 도입
- 민간 이사장제 도입, 문화행정 전문가로서의 사무총장 선임 등

광주광역시와 비엔날레의 이상적 협력 모델(2000)



전시기획 및 실행

- 비엔날레 내부의 연구기능 강화 및 비엔날레 가치 확립
- 전시운영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부족 보완
- 인력운용의 권한과 책임소재 강화
- 본전시 중심의 전시기획 및 예산 부여, 부대전시의 축소
- 전시기획과 학술, 축제행사의 유기적 관계 설정
- 기존 문화인프라 활용 정책
- 젊은 작가 양성프로그램 실시
- 청년작가 비엔날레 및 어린이미술관 등 문화교육시설 확대
- 전시 홍보의 전문성 강화
- 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단계별 진행

신규 사업 육성

비 개최년도 타 전시사업 개발 : 대중적인 영상전 개최, 디자인비엔날레 개최, 국제문화상품 전시 개최

사업구분	사업개발 방식
기존 수익사업	· 휘장사업의 조기발주로 스폰서의 활용기간 장기화 · 광고탑 등 시설물 배치의 광역권역화
일반 출판물	· 유명 문화서적관련 출판사와 공동사업 전개
정기 미술 간행물	· 현대 미술계간지의 발행 · 재단 직원의 전문성 배양
교육사업	· 비엔날레 아카데미 설립 · 주부 미술대학 운영
영상·비디오사업	· 행사개최연도에 영상비디오전 신설 · 또는 행사 비개최년도에 영상비디오전 개최 · 영상비디오 전문기업 및 단체와 컨소시엄 결 성
인터넷 문화사업	· 내부 전문인력 채용 및 양성 · 문화예술 DB구축과타 전문단체와 Link
디자인 사업	· 비엔날레 CIP개발 · 로고·심볼 사용권 판매 · 자체 디자인인력 강화
문화예술벤처센터	· 정부지정 벤처센터의 건립과 지원 획득 · 기존인력의 역량 축적 · 대학 및 외부전문가 집단의 아웃소싱
영상벤처센터	· 광주시 영상벤처센터를 비엔날레에 유치 · 벤처센터 운영인력 채용 및 역량 강화 · 관련 단체와 공동 보유
디자인혁신센터	· 산자부 지정의 디자인 혁신센터 유치 · 비엔날레 개최년 또는 비개최년에 산업디자인전 신설
사이버정보센터	· 문화예술 DB구축 · 전문인력의 양성 · 관련 단체와 정보공유
미술공예사업	· 미술용 복제사업 · 지역 특산공예와 연계된 사업 전개
문화상품개발	· 지역전통문화를 기초로 문화상품 개발 ·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개발·생산 판매
지역관광 연계사업	· 지역 관광여행업체 및 관련기관과 컨소시엄 결성 ·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유통
방문자센터	· 정보지원의 방문자 센터를 비엔날레에 유치

학술, 연구, 교육프로그램과 축제행사

- 비엔날레 관람객의 대중화 vs 특성화 : 내용적, 질적 충실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문화적 욕구가 강한 집단들의 관심 유도 필요
- 담론의 정치로서 학술회의 개최
- 현대미술경향 및 비엔날레 동향, 조직운영, 관람객 연구 등 연구기능의 강화
- 교육프로그램 강화
- 문화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
- 축제행사 개선

3)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연구(2007)

2007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연구는 아시아권 비엔날레의 약진 속에서 7회를 앞둔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대미술의 실험과 진흥을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 맞춰졌다. 이를 위해 선진 비엔날레 사례연구를 통한 광주비엔날레 발전 방안 쟁점 도출, 아시아 비엔날레 구도 속에서 갖게 되는 정체성 및 차별화 전략 모색, 재단의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에서의 새로운 접근을 통한 국제적 위상 확보, 행사 운영을 위한 재원 및 예산운용의 합리적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는 재단 실무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별도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의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는 주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광주비엔날레의 기획, 운영, 성과분석 및 평가에 대한 다양한 자료 조사 및 문헌연구, 재단직원 대상 워크숍을 통한 실질적인 조직 운영의 문제 파악, T/F팀과의 상호소통 체계를 통한 추진 방안 조율, 세계 비엔날레의 재단 및 조직 방문을 통한 집중 인터뷰로 진행됐다.

이 연구는 제안된 다수의 내용들이 실제 재단 운영에 상당부분 실행됨에 따라 성공적인 연구로 평가받는다. 그 일례로 민간이사장 체계에서 시장이 명예이사장이 되고, 문화CEO(이용우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제7회 행사 총감독으로서 광주비엔날레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총감독 오쿠이 엔위저가 선임되었다. 이후 2016년 11회 행사까지 계속 외국인이 감독을 역임함으로써 재단의 국제적 실행역량 강화는 물론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조직 내에서는 2009년 정책연구실이 신설되어 재단 정책사업으로써 국제큐레이터코스, 광주비엔날레 포럼, 국제현대미술정론지 『NOON』지 발간 등을 통해 국제교류 및 재단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2007발전방안연구 연구진

구 분	분야	성 명	비 고
책임 연구위원	총 괄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연구위원	국제교류	유진상	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 2006광주비엔날레 평가위원
	조직	정형식	조선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6 광주비엔날레 평가위원
	재정	양준영	경영정보연구원장
	홍보마케팅	박해광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대내외네트워크 및 참여프로그램	백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해외 사례	친타오 유	유럽 및 북미연구소 연구원, 시니카 아카데미아, 대만 타이페이거주

주요내용

- 광주비엔날레 차별화 전략 : 전문적인 큐레이터 및 국제적 예술감독 선임
  - · 국제(해외)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비엔날레의 전문성 제시.
  - · 이를 통해 아시아비엔날레와의 네트워킹과 함께 프로그램의 선점.
  - · 세계의 문제를 아시아의 눈으로 세계를 다시 보도록 함.
- 광주의 지역적 정체성과 세계성 결합
  - · 광주시의 정체성을 현대미술로 반영. 광주시 도시 발전전략(Clean & Art City)과 부합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 · 지역 정체성을 현대미술의 특성화로 연결, 지역과 도시에 개입하는 미술. 미술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Social Art의 모델 개발.

- 영 비엔날레를 통한 아시아권 신진작가 발굴 전략
- 특화된 국제교류 전략 실행
· 예술감독의 네트워킹 자원을 내적 자원화 방안
· 특화된 국제교류 팀을 통해 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이고 자료 축적적으로 운영.
· 서구를 포함한 국제 동시대미술의 주요한 이슈들을 공유. 중국, 인도, 일본 및 동남아를 아우르는 전문적 미술 DB를 운용.
- 총감독 선정방법 개선 및 재단 연구기획 기능 강화
· 연구기획실 신설 등
- 재단 운영의 효율화
· 문화CEO 영입을 통한 체제개편
- 대외소통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 재단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자료실 활성화)
· 비엔날레 상설홍보관 설치 운영
·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4)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연구(2013)

2007년 발전방안연구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실제로 상당 부분 현장에 적용됐고 그 결과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5대 비엔날레로서의 위상을 다짐과 동시에 세계비엔날레협회 결성을 주도, 세계비엔날레대회를 광주에 유치하고 초기 회장에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등 세계현대미술계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진 반면 2008년 이래 관람객 수가 급감하며 입장료 수익을 비롯한 재단의 수익 역시 매회 40% 정도 급감했다. 또한 국내외 경제상황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 후원금 조성이 어려워지고, 국비 예산확보 역시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 지역발전위원회, 문화관광부 평가 등이 점차 강화되면서 재단의 경영환경의 위협 요소로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은 사업의 재검토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영효율화의 필요성을 절감, 20주년을 앞둔 2013년에 발전방안연구를 실시하였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토대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미션과 비전, 전략을 재수립하고 경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문화마케팅, 문화경영 연구를 주로 진행해온 (주)쥬스컴퍼니가 진행하였다. 또한 내부 T.F를 구성, 전문 연구팀과 협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별도 발전방안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 자문을 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는 내부 임직원 인터뷰, 설문조사 1) 시민의견조사 2) 재단직원설문조사 3) 전문가설문조사, 전문가 FGI, 유관기관 및 네트워크 그룹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엄밀한 직무조사 및 업무체계분류표 작성 등의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진단과 조직설계 등을 실시하였다.

2013발전방안연구 연구진

책임연구	윤성진	(주)쥬스컴퍼니 아트디렉터 / 이사
공동연구	강 원	아시아문화개발원 창조원 사업팀장
	김창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수석컨설턴트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박재길	(주)쥬스컴퍼니 컨설팅디렉터 / 이사
	이한호	(주)쥬스컴퍼니 대표이사
	추미경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
전문위원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
	이흥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 교수
	정경운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전문위원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기곤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광욱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성현	대인시장 예술감독

<주요내용>

미션과 비전 및 전략

미션	동시대 현대미술 혁신의 발산지, 광주비엔날레
비전	세계 미술계를 선도하는 아시아발 시각문화의 거점
경영목표	세계 미술현장에서 영향력 확대 위한 5대 역량강화
전략목표	1. 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본질역량 강화 2. 창의적 조직효율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3.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속역량 강화 4. 브랜드가치 및 수익성 제고 위한 사업역량 강화 5. 지역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역량 강화
경영목표	5대 전략목표에 따른 정책실천과제/사업실천과제 50개 도출

경쟁력/효율성 강화 조직개편안

[기본방향]

▶적정 보직비율 및 인력 산정, 전략사업 및 업무량 분석결과 등 고려
▶대팀제 운영 및 조직계층 축소, 재단 주요사업 및 기능별 효율적 통합 조정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직급간 직위·보직부여 탄력적 운영

[단기개편안](2014~15년)

▶팀장제 폐지(조직체계 간소화)
▶마케팅 디렉터 신설(사무처장과 동급, 기금 및 재원확충 강화)
▶홍보사업부 → 마케팅부(마케팅 역량 강화)
▶정책연구실 일부기능 조정
- 시민참여프로그램 → 전시부(유관사업간 집중력 제고)
- 예산편성·관리 : 관리부 → 정책실(예산의 편성·집행 분리원칙)

[중기개편 1안](2015년 이후)

▶마케팅 기능 강화 : 마케팅 디렉터 및 마케팅부 실행역량 강화

▶프로젝트사업부 운영: 디자인비엔날레·광주폴리 등 외부 수탁사업 담당

▶전시지원 부서조정 : 전시부→ 관리부(작품설치·운영 등 기능인력 관리)

▶파트제 업무추진 : 부서 내 주요 업무별 파트단위 구성 운영

[중기개편 2안](2015 이후)

▶경영부문 강화 : 사무처장을 최고마케팅경영자(Chief Marketing Officer)로 전환하여 재단의 마케팅 역량의 강화

▶프로젝트사업부 운영 : 디자인비엔날레·광주폴리 등 외부 수탁사업 담당

재원조성 및 마케팅 활성화 전략

▶기금 운용범위 확대 : 국공채 매입, 예·적금 상품 운영, 고효율 투자대상 물색 및 활용 등 기금 이자수익 제고방법 다변화

▶포트폴리오 매니저 운용 : 자금의 안정적 운영 관리 및 운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전문가 채용

▶비즈니스 파트너십 : 민관 문화산업과 연계 제휴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 확대 추진

▶펀딩 프로그램 : VVIP 대상 '탑 클라우드 펀딩'과 대중참여형 '소시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금확충 및 마케팅 효율화 방안 모색

▶최고마케팅경영자(CMO) 제도 운영 : 재단 마케팅, 펀드레이징·신사업 기획 추진 등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 마케팅 경영자를 사무처장급으로 영입 운영

▶마케팅 시스템 강화 : 기금확충 사업유치시 인센티브 제공, 유관업체·기업과 상호협력형 전시사업 확대, 수익사업 전담인력 운영 등

▶티켓제도 다변화 :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티켓, 개인기부형 티켓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무료관람기회 제공 등 비엔날레 티켓 마케팅 다변화

▶기타 : 비엔날레 홍보·광고용 아트상품 제작 판매, 지역 투어상품 연계 활용, 국제문화도시 거점으로서 중외공원 예술면세특구 지정 및 활용 등

5) 혁신위원회 '7대 혁신안'(2015)

2014년에 특별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행사와 10회 전시준비의 집중력을 위해 2013년 발전방안연구의 현장 실행 시점은 이들 행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 12월 이후로 유보되었다. 하지만 20주년 프로젝트의 '세월오월'작품 논란 등의 문제로 인해 당시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광주비엔날레는 대대적인 혁신 요구에 직면했다. 임시대표이사 체제 하에서 혁신위원회를 발족, 약 6개월간의 혁신위원회 활동을 거쳐 2015년 2월에 최종적으로 7대 혁신안이 발표됐다.

광주비엔날레 7대 혁신안

▶광주의 역사적 · 문화 예술적 가치를 극대화한 글로벌 비엔날레

- 글로벌 & 로컬 기반 국제현대미술제
- 광주정신과 당대 예술실천이 결합하는 플랫폼
- 현대미술의 실험장이자 미래 예술세대 육성의 장

▶조직의 고유 역량 강화를 통한 정체성 실현

- 구성원의 전문성 및 직무 관련성을 제고하는 업무 배치
- 재단의 대내외 네트워킹 활성화 및 조직 역량 다각화
- 객관적 기준과 평가에 근거한 재단 내 사업 재평가 및 조정

▶이사진 구성의 혁신과 최고 의결기구로서 역할 및 책임 강화

- 당연직 이사 축소
-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합리적 경영능력과 다원적 리더십을 갖춘 인사
- 주요 정책 결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 담보

▶파견 공무원 축소 및 민간 사무처장제 도입

- 개방형 공모를 통한 사무처장 선출
- 대표성을 가진 직원의 이사진 참여를 통한 주체성 고양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위수탁사업 중지
- 경영 공시를 통한 재단예산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주력사업과 부대사업 우선순위 설정 및 객관적 경영지표 마련

▶재원 확보와 효율적 유지 관리 체재 구축

-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재원 확보관련 책임성 강화
- 재단 기금의 수익 증대를 위한 운용 다각화

▶재단과 지역의 소통 및 협력 시스템 구축

- 시민사회 협력기구로서(가칭) 광주비엔날레 발전위원회 운영
-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전담팀 신설
- 광주비엔날레와 지역사회의 상호협력 및 상호발전

2장. 정체성과 비전
광주비엔날레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2015)

2015년 2월 발표된 혁신안에 따라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한 재단은 3월 신임 박양우 대표이사의 취임과 함께 재도약의 혁신을 위한 비전전략 T.F를 구성하였다. T.F는 광주비엔날레가 당면한 경영여건 및 환경을 분석하고 기존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을 재검토하는 한편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 개발에 주력했다. 강도 높은 T.F활동을 통해 도출한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2015년 4월 20일 발표)을 통해 정체성·비전의 재정립, 정책적 실천과제 등 새로운 20년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발전방안은 기존의 발전방안연구들과 2014년 혁신위원회안을 토대로 도출한 최종적인 재단의 비전, 전략, 4대 정책목표 20개 실천과제 등을 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별로 수립된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토대로 조직 개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경영여건 및 환경분석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세계 5대 비엔날레로서 국제적 위상과 인지도 ·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국제사회에 각인된 진보적 시민운동의 저력 · 창설 20년의 축적된 경험과 조직역량 · 역대 기획자, 작가, 큐레이터코스 수료자 등 폭넓은 국제적 인적망 · 기초 고정수익원인 기금 285억원 보유	· 실험적 현대미술제로서 대중성 취약 · 지역미술계와 밀착력 부족 · 중간층 경력직원 및 경영 마케팅인력 부족 · 지자체 및 유관기관 티켓판매지원 약화 · 도시의 관광유인요소 및 관련인프라 부족 · 관람객 입장수입 외 핵심수익사업 미흡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대규모 국책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 KTX완공 따른 도시접근성 향상 · 유관기관 이전 빛고을혁신도시 본격 가동 · 중외종합예술공원 비엔날레특구, 시각미디어지구 조성 추진 · 재단 경영진·이사진 개편, 혁신정책 단계별 실행	· 장기 경기불황에 따른 후원·협찬 및 금리 지속적 하락 · 점차 강화되는 외부평가 및 국비지원 축소 추세 · 대규모 문화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 국내 및 인접국 신생 비엔날레 약진 · 노후 전시관 대대적 개보수 현안대두

2. 정체성 수립

<이념적 정체성>

▶비엔날레의 혁신성

120여년 역사를 통해 구축해 온 비엔날레 본연의 특성 그대로 창조적 파격과 실험정신을 우선하는 첨단 시각문화의 현장으로서 비엔날레 특성 차별화

▶진보적 광주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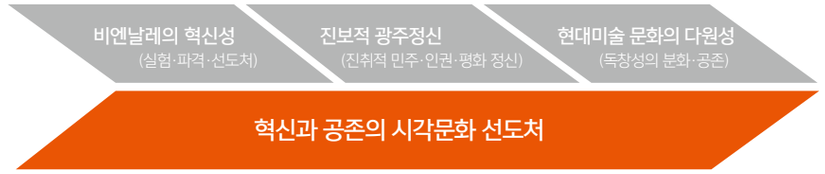
의향의 전통을 현대사로 이어 온 국제사회 속의 민주도시로서 광주의 역사와 민주·인권·평화를 향한 진취적인 광주정신을 시각문화로 승화시켜 인류보편 가치로 확장시켜 나감

▶현대미술 문화의 다원성

아시아 권역 안에 더불어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언어·종교·민속 등 다원주의와, 개별 독창성을 근간으로 끝없이 분화하는 현대미술의 다원성을 비엔날레 특성과 연결하여 미래 시각문화의 특성으로 부각시켜 나감

➡ 광주비엔날레의 이념적 정체성 : 혁신과 공존의 시각문화 선도처

비엔날레 본연의 창의적 혁신정신과, 광주정신에서 나타나는 진취적 민주·인권·평화의 정신, 현대미술의 다원성을 융합한 '혁신과 공존의 시각문화 선도처'로서 광주비엔날레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부각시켜 나감



<행사성격에 따른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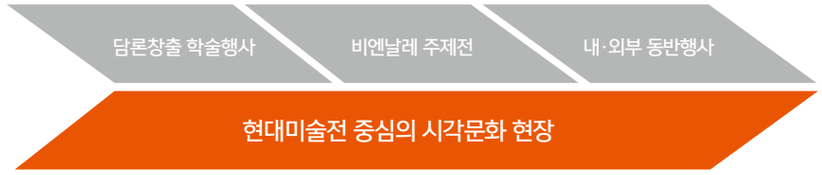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의 거리감 해소 및 미술계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6회까지 본전시(주제전) 외에 특별전 또는 프로젝트 등을 병행 개최함

▶또한, 창설 초기에 빈약한 국내 문화행사 여건을 감안하여 대중적인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공연·이벤트 부대행사를 곁들임

▶그러나, 지방자치제 정착으로 늘어나는 지역축제들 속에서 비엔날레 고유 성격을 특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전을 중심으로 국제학술회의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일부를 병행하는 구조로 변경함

➡ 광주비엔날레 행사성격 : 현대미술 전시회 중심의 시각문화 현장

비엔날레 본연의 혁신적 현대미술전이면서, 주제전을 중심으로 동반전시 및 일부 시민·관객들의 참여와 프로그램을 곁들이는 시각문화 현장



3. 새 비전과 정책목표

광주비엔날레가 지향하는 가치로서 비전은 정체성을 기본바탕으로 삼는다. 비엔날레 본연의 혁신적 창의정신과, 광주비엔날레 개최기반이기도 한 광주의 진보적 민주정신, 아시아문화의 특성과도 상통하는 현대미술의 다원성을 융합하여 시대의 주요 이슈나 담론을 주제전과 학술회의 등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하고 확장시키는 문화매개처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 광주비엔날레의 비전 : 창의적 혁신과 공존의 글로컬 시각문화 매개처

정책목표 및 실행과제

비전	창의적 혁신과 공존의 글로컬 시각문화 매개처
4대 정책 목표	1. 글로컬 시각문화 선도처로서 국제적 위상 정립과 차별성 강화
	2.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단 경영 기반 구축
	3. 지역 및 대외 네트워킹 활성화로 소통 협력체제 강화
	4. 개최지 랜드마크 및 문화진흥 발신지 역할

정책목표 1.
글로컬 시각문화 선도처로서 국제적 위상 정립과 차별성 강화

실천과제	1	광주비엔날레의 차별성 강화	지속
	2	국제적 역할 및 정책사업 특화	지속
	3	광주비엔날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중기
	4	지역작가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속
	5	청소년 비엔날레 개최	장기

정책목표 2.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실천과제	6	조직 운영의 효율화	단기
	7	재단 내부 평가 시스템 구축	단기
	8	경영 공시를 통한 재단 예산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단기
	9	후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단기
	10	기금 확충 및 체계적인 재원 관리	단기
	11	비엔날레 MD상품 개발	단기
	12	입장수익 확대를 위한 마케팅 다각화	단기

정책목표 3.
지역 및 대외 네트워크 협력시스템 강화

실천과제	13	아시아문화전당 및 광주문화기관 협력사업 활성화	지속
	14	광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운영	단기
	15	광주비엔날레 대학(가칭) 운영	단기
	16	대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지속

정책목표 4.
개최지 랜드마크 및 문화진흥 발신지 역할

실천과제	17	개최지 문화진흥의 발신지 역할 강화	지속
	18	광주폴리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단기
	19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운영 활성화	중기
	20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브관 조성 및 운영	중장기

숫자로 만나본 광주비엔날레 역사 20년

1995년 창설돼 당시 대한민국에선 낯선 개념이었던 현대미술축제의 새 장을 열었던 광주비엔날레.
20년 역사 동안 국제 미술계에 민주와 인권, 평화라는 광주 만의 정체성을 담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전시를 선보이면서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했다. 숫자로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와 위상을 만나보자.

1995 >

광주비엔날레 창설의 역사로 기억될 해다. 광주비엔날레는 예향 광주의 뿌리를 바탕으로 광주의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고자 창설됐다.

1183 >

1995년 1회 대회부터 10회 대회까지 역대 본전시에 참여했던 작가 수이다. 제프 쿤스, 신디 셔먼, 게르하르트 리히터, 요셉 보이스, 애니쉬 카푸어, 빌 비올라 등 수많은 현대미술 거장들이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로 이름을 올렸으며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현대미술의 저변을 확대해왔다.

8783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면적은 약 8783㎡(2661평)이다. 약 500평 규모의 5개의 전시관에서 그동안 설치, 회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수 천 점의 작품들이 선보여졌다. 20년 동안 수 백 명의 도슨트와 운영요원, 봉사자들이 전시관에서 땀을 흘리면서 관람객들과 소통해왔다.

5 >

20년 역사 동안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에는 200여 개의 비엔날레가 있으며, 광주비엔날레는 단 시간에 1895년 세계 최초로 창설된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1955년), 상파울로 비엔날레(1951년), 휘트니 비엔날레(1932년)와 함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비엔날레가 되었다.

10 >

20년 동안 총 10회의 예술비엔날레가 치러졌다. 1995년 1회 '경계를 넘어' 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행사가 열렸으며 매 행사 때 마다 광주의 정체성을 담보로 하면서 현대미술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주제들로 관람객들을 맞이해왔다.

13 >

제10회까지 광주비엔날레를 거쳐 간 감독의 수이다. 제3회부터 총감독제가 도입되면서 현재의 예술총감독체제를 갖추게 됐다. 제3회 오광수, 제4회 성완경, 제 5회 이용우, 제6회 김홍희, 제7회 오쿠이 엔위저, 제8회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를 비롯해 제 9회에서는 6명의 아시아 여성 공동감독, 제10회 제시카 모건 등이 선정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19 >

(재)광주비엔날레는 미술 축제뿐 아니라 광주의 문화·관광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소형 조형물 건립 프로젝트인 '광주폴리'를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거쳐 진행했다. 현재 광주읍성터를 중심으로 11개의 1차 폴리와 광주 도심 곳곳에 8개의 2차 광주폴리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630,000 >

1995년 첫 회 광주비엔날레는 여러모로 신기록을 세웠다. 163만 명이라는 세계 비엔날레 역사상 가장 많은 관람객 수를 남겼으며, 이 수치는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이후 광주비엔날레는 40만~50만 명의 관람객 수를 유지하면서 전위적인 현대미술 축제로서는 적지 않은 관람층을 확보하고 있다.

부록

1. 광주비엔날레 20년 주요 연혁
2. 광주비엔날레 창설선언문
3. 역대 광주비엔날레 주제전 참여작가 명단
4. 역대 광주비엔날레 수상자 명단
5.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역대 이사회 임원 명단
6. 광주비엔날레 기부금 및 기업후원 내역

1. 광주비엔날레 20년 주요 연혁

1994. 11 광주비엔날레 개최 승인(문화체육부), 개최계획 발표 기자회견
12 초대 조직위원장 임영방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 선임
광주비엔날레 국제·국내 심포지엄(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1995. 3 광주비엔날레 재단법인 설립허가(3. 29, 문화체육부)
4 광주비엔날레 재단법인 설립등기(4. 1, 광주지방법원)
4 제1대 강운태 이사장(광주광역시장) 취임
7 제2대 송언종 이사장(광주광역시장) 취임
9 제1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9. 20, 중외공원야외공연장, '경계를 넘어', 본전시-50개국 92명, 6개 특별전 245명 참여)
11 제1회 광주비엔날레 폐막식(11. 20, 관람객 1,634,825명)
1996. 2 광주비엔날레 지원본부·광주시립미술관 조직통합
3 제2회 조직위원장 유준상 예술의전당 전시본부장 선임
1997. 9 제2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9. 1, 중외공원야외공연장, '지구의 여백', 본전시-35개국 117명, 5개 특별전 256명 참여)
10 제2회 광주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중외공원관리사무소 강당)
11 제2회 광주비엔날레 폐막(11. 27, 관람객 908,212명)
1998. 3 제3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총감독 최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선임
7 제3대 고재유 이사장(광주광역시장) 취임
11 제3회 광주비엔날레 국제심포지엄(중외공원관리사무소 강당)
12 최민 전시총감독 해촉, 신임 전시총감독 오광수 국립현대미술관장 선임
1999. 1 광주비엔날레 민영화 파동
4 제4대 이사장 차범석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선임
8 광주비엔날레 재단·광주시립미술관 조직분리
2000. 3 제3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3. 29, 중외공원 야외공연장, '人+間', 본전시-46개국 90명, 5개 특별전 1,439명 참여)
4 제3회 광주비엔날레 국제학술심포지엄(광주문예회관 소극장)
6 제3회 광주비엔날레 폐막(6. 7, 관람객 614,231명)
11 제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성완경 인하대 교수 선임
2001. 1 차범석 이사장 사임에 따른 제5대 김포천 이사장 (전 광주MBC사장) 취임
5 광주비엔날레 미술영상대학 1기 개강(5. 2~7. 27, 91명 수료)
9 광주비엔날레 미술영상대학 2기 개강(9. 15~11. 24, 100여명 수료)
2002. 3 제6대 김포천 이사장 연임
제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3. 29, '멈춤',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프로젝트1-33개국 326명 외 3개 프로젝트 99명 작가 참여)
5 제4회 광주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서울 SK빌딩 대강당)
6 제4회 광주비엔날레 폐막(6. 29, 관람객 556,623명)
9 비엔날레 미술영상대학 3기 개강(9. 12~11. 29, 128명 수료)
2003. 2 제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이용우 뉴욕매체예술센터 관장 선임
4 비엔날레영상대학 4기 개강(4. 4~7. 2, 42명 수료)
11 제5회 광주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11. 27~28, 서울대·조선대 세미나실)
2004. 1 제5회 광주비엔날레 참여관객 워크숍(광주 프라도호텔)
9 제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및 문화수도 선포식(9. 10,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먼지한톨물한방울', 주제전 39개국 104명, 4개 현장프로젝트 108명 작가참여)
제5회 광주비엔날레 참여관객 대토론회(9. 10~11, 비엔날레 전시관)
11 제5회 광주비엔날레 폐막(11. 13, 관람객 518,508명)
2005. 1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순종 총감독(서울대 교수) 선임
4 제7대 한갑수 이사장(한국산업경제연구원 회장) 취임
제6회 광주비엔날레 김홍희 예술총감독(쌈지스페이스 관장) 선임
10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10. 18, '삶을 비추는 디자인',
본전시·특별전 등 33개국 829디자이너·기업 참여) 및 세미나(김대중컨벤션센터)
11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11. 3, 관람객 288,513명)
2006. 6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순인 총감독(한국디자인진흥원장) 선임
9 제6회 광주비엔날레 개막(9. 8, 중외공원 야외공연장, 첫장·마지막장 32개국 127명 참여)
및 열린 토론회(9. 8, 비엔날레전시관 회의실)
11 제6회 광주비엔날레 폐막(11. 11, 관람객 700,111명)
2007. 3 제8대 한갑수 이사장 연임
7 제7회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오쿠이 엔웨저·신정아 선임
신정아 감독내정 취소 및 오쿠이 엔웨저 예술총감독 선임
이사장 및 선출직 이사 전원 사퇴
10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10. 5, '빛 LIGHT', 김대중컨벤션센터, 본전시·2개 특별전 등
45개국 927명 디자이너·103개 기업 참여, 세계디자인평화선언) 및 국제학술회의
11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11. 5, 관람객 251,220명)
2008. 4 제9대 박광태 이사장(광주광역시장) 취임
9 제7회 광주비엔날레 개막(9. 5, '연례보고',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길 위에서·제안·끼워 넣기 등 36개국 127명 작가참여)
10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은병수 비움 대표 선임
제7회 광주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서울 인사미술공간, 북경 중앙미술학원)
11 제7회 광주비엔날레 폐막(관람객 356,325명)
2009. 3 제8회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뉴욕 뉴뮤지엄 특별전 디릭터 선임
5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비엔날레관 회의실)
8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 1기 개강(8. 23~9. 20, 15개국 26명 수료)
9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9. 18, '더할나위 없는',
주제전·3개 특별프로젝트 등 48개국 519명 디자이너·376기업 참여)
11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11. 4, 관람객 202,053명)
2010. 3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승효상 공동감독(이로재 대표) 선임
5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전 '오월의 꽃' 전시
(5. 12~6. 13, 광주시립미술관 등) 및 심포지엄·전남대 컨벤션홀)
7 제10대 강운태 이사장(광주광역시장) 취임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 아이 웨이웨이 공동감독 선임
8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 2기 개강(8. 9~9. 5, 14개국 22명 수료)

9 아트광주 개최(9. 1~9. 5, 김대중컨벤션센터)
제8회 광주비엔날레 개막(9. 3, '만인보', 31개국 134명 작가참여)
11 제8회 광주비엔날레 폐막(11. 7, 관람객 356,325명)
2011. 2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폴리' 시민보고회(광주시청 대회의실)
4 제9회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 김선정·마미 카타오카 등 5인 선임
(7월 알리아 스와스티카 추가선임)
8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 3기 개강(8. 8~9. 3, 18개국 23명 수료)
9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9. 2, '도가도비상도',
유명·무명·커뮤니티·광주폴리·비엔날레시티 등 40개국 146명 디자이너·86기업)
광주폴리 개막식(9. 1, '소통의 오두막' 등 10개소)
10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10. 23 관람객 896,502명)
11 광주비엔날레 지원동 '제문헌' 개소
2012. 2 제9회 광주비엔날레 1차 워크스테이션(2. 14~15, 전남대 용봉문화관, 서울 아트선재센터)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 선임
5 광주폴리Ⅱ 감독 니콜라스 히르쉬 프랑크푸르트 슈테델슐레 건축대학장 선임
6 이용우 대표이사 직무개시
8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 4기 개강(8. 13~9. 8, 18개국 24명 수료)
9 제9회 광주비엔날레 개막(9. 7~11. 11, '라운드테이블',
집단성의 로그인 로그아웃 등 6개 섹션, 40개국 118명·팀 작가참여)
10 제1차 세계비엔날레대회(10. 27~31, 김대중컨벤션센터)
11 제9회 광주비엔날레 폐막(관람객 645,061명)
2013. 4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제시카 모건 테이트모던 큐레이터 선임
7 광주문화포럼 개강(~12월 월 1회, 재단·광주일보사 공동주최)
8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 5기 개강(8. 15~9. 10, 17개국 21명 수료)
9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9. 6~11. 3, '거시기 머시기',
주제관·본전시·특별전 등 24개국 299명 디자이너·33개 기업/기관 참여)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컨퍼런스(9. 6, 9. 13, 비엔날레관 거시기홀)
11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관람객 210,151명)
광주폴리Ⅱ 준공식(11. 10, '광주천독서실' 등 8개소)
2014. 5 광주비엔날레 창설20주년 특별프로젝트 국제심포지엄
6 제10회 광주비엔날레 국제컨퍼런스(런던 테이트모던)
7 제11대 윤장현 이사장(광주광역시장) 취임
8 광주비엔날레 창설20주년 특별프로젝트 개막(8. 1~11. 8, '달콤한 이슬, 1980 그 이후',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및 학술강연, 거리 퍼포먼스 등 걸개그림 '세월 오월' 파동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사임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 6기 개강(8. 11~9. 6)
9 제10회 광주비엔날레 개막(9. 5~11. 9, '터전을 불태우라')
10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위원장 겸 대표이사 정동채) 활동 개시(~15. 2. 26)
11 제10회 광주비엔날레 폐막
광주비엔날레 창설20주년 특별프로젝트 폐막
12 제12대 전윤철 이사장(전 감사원장) 취임

2. 광주비엔날레 창설선언문

예술의 진정한 정신과 가치는 문명사회의 갈등 속에서 본질적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시대, 문화의 패권주의 시대는 가도 예술의 본질적 기능과 신뢰에 관한 질문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예술은 이제 권위주의가 자초한 고립과 관념을 떠나 분방한 시대정신의 현장으로 나서야 하며 대중적 교감과 지지를 위하여 새로운 밭을 일구어야 한다.
1995년 세기말 역사의 굽이에서 광주비엔날레는 새로운 예술의 질서를 위하여 닻을 올린다. 광주, 한국 그리고 세계사의 왜곡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예술의 신명나는 한마당을 위하여 그 기수를 열린 세계로 돌리려 한다. 이와 함께 분단의 한국사를 극복하고 분절된 세계사를 예술로 밝히는 빛고을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창조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다.
예술은 대결과 모순, 폭력과 차별을 거부하며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자연정신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것은 예술의 탁월한 자생력에 기인한 것이며 정치사회, 산업사회의 파국을 치유하는 예술의 기능이라고 믿는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생산의 중심축을 자임한다. 동서양의 평등한 역사창조와 21세기 아시아 문화의 능동적 발아를 위하여 태평양시대 문화공동체를 위하여 다양한 민족문화의 고유한 생산방식을 존중한다.
광주비엔날레는 서구화보다 세계화에,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위하여 예술의 집중력 적응력을 길러갈 것이다. 예술의 신분을 미래지표와 현실인식에 균등하게 적용하고 전통의 가치를 삶과 정신속에서 찾아내는 문화운동으로 성숙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첨단과학과 전통의 협력을 모색하고 자유와 상상력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일궈갈 것이다.

1995. 2. 10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

THE GWANGJU BIENNALE DECLARATION

Art's true spirit and values are undergoing an identity crisis wrought by the conflicts our society. Although the era of political ideology and cultural hegemony has come to an end questions concerning the essential functions and credibility of art still remain unanswered. Art must overcome the isolation and bias induced by authoritarianism and break new ground to create a freedom of the spirit that welcomes all peoples.
The year 1995 may signal the close of the century and thus the conclusion of a chapter in history but the Gwangju Biennale aims to open a new other in the world of art. trying to clarify ambiguities about the history of Gwangju, Korea and of the world, this festival of art promises to make a new era of openness. Furthermore, this even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truly diverse 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art illuminate not just the tragic partitioning of Korea but other divisions plagueing the world.

Art must reject conflict, confrontation, violence and discrimination. It must respect the spirit of nature as based on humanism. this is the very source of strength that enables art to maintain a life of its own and the very function that art should assume to cure ills of industrial society.

The Gwangju Biennale is rooted in the spirit of the people of Gwangju and their great artistic heritage. The people of Gwangju respect the diversity and uniqueness of cultures around the world, and seek balance between the East and west. They hope to see the creation of a lively pan-Asian culture for 21st century, the Pacific Age.

Using art's ability to condense and adapt, the Gwangju Biennale will pursue globalization rather than westernization ; diversity rather than uniformity. Art should be flexibile enough to act as an index for the future and a reflection of present realities, yet be rich and mature enough to maintain traditional values in our lives and thinking. The latest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can collaborate with tradition in this process, and ultimately guide us in our pursuit of a new consciousness grounded in freedom and imagination.

3. 역대 광주비엔날레 주제전 참여작가 명단

제1회 광주비엔날레

가이바 아모츠(Guy Bar Amotz), 이스라엘 / 카릴 라바(Khalil Rabah), 팔레스타인 / 셀마 구르부즈(Selma Gurbuz), 터키 / 나딤 카람(Nadim Karam), 레바논 / 이크람 카바지(Ikram Kabbaj), 모로코 / 찬트 아베디시안(Chant Avedissian), 이집트 / 파스칼 마르틴 티유(Pascale Marthine Tayou), 카메룬 / 오시 아우두(Osi Audu), 나이지리아 / 페니 시오피스(Penny Siopis), 남아프리카공화국 / 케이 핫 산(Kay Hassan), 남아프리카공화국 / 쟈크 베델(Jacques Bedel), 아르헨티나 / 루이스 페르난데스 베네디트(Luis Fernandez Benedit), 아르헨티나 / 귈라모 쿠잇카(Guillermo Kuitca), 아르헨티나 / 구토 라카즈(Guto Lacaz), 브라질 / 어네스트네토(Ernesto Neto), 브라질 / 알프레도 하르(Alfredo Jaar), 칠레 / 도리스 살세도(Doris Salcedo), 콜롬비아 / 호세 똘라(Jose Tola), 페루 / 카로로스 카펠란(Carlos Caperan), 우루과이 / 헤르난데즈 디에즈(Hernandez Diez), 베네주엘라 / 리르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미국 / 캐리 메이 윔즈(Carrie Mae Weems), 미국 / 마이클 주(Michael Joo), 미국 / 다이에나 세터(Diana Thater), 미국 / 척 크로즈(Chuck Close), 미국 / 크쵸(Kcho), 쿠바 / 야나 스터박(Jana Sterbak), 캐나다 / 아나 토프스(Ana Torfs), 캐나다 / 제프 월(Jeff Wall), 캐나다 / 홀리와 갈란(Julio Galan), 멕시코 / 가브리엘 오르즈코(Gabriel Orozco), 멕시코 / 블라디미르 쿠프리아노프(Vladimir Kuprianov), 러시아 / 유리 레이더만(Yuri Leyderman), 러시아 / 올가 토브레뤼츠(Olga Torbeluts), 러시아 / 조피아 쿨리크(Zofia Kulik), 폴란드 / 마레크 츨란다 외 1명(Marek Chland), 폴란드 / 로자 엘 핫산(Rosa El Hassan), 헝가리 / 밀레나 도피도바(Milena Dopidova), 체코 공화국 / 달리보르 말티니스(Dalibor Martinis), 크로아티아 / 루체자르 보야지예프(Luchezar Boyadjiyev), 불가리아 / 민다우가스 나바카스(Mindaugas Navakas), 불가리아 / 더들라스 고든(Douglas Gordon), 영국 / 필립 내피어(Philippe Napier), 영국 / 스티븐 피핀(Steven Pippen), 영국 / 파브리스 위베르(Fabrice Hybert), 프랑스 / 자비에 벨랑(Xavier Veilhan), 프랑스 / 프랑크 스퀴르티(Frank Scurti), 프랑스 / 카르스텐 횔러(Carsten Holler), 독일 / 니나피셔·마로안 엘사니(Nina Fisher·Maroan El Sani), 독일 / 마리오 아이로(Mario Airo), 이탈리아 / 마우리지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 이탈리아 / 베도바 마제이(Vedova Mazzei), 이탈리아 / 시오메네 크리스피노·마리 스텔라 스칼라(Simeone Crispino·Maristella Scala), 이탈리아 / 마리케 반 바르메르담(Marijke van Warmerdam), 네덜란드 / 파트릭 반 케켄베르그(Patrick van Caeckenbergh), 벨기에 / 켄 하디(Ken Hardy), 아일랜드 / 조지 라파스(Georges Lappas), 그리스 / 베아트 스트레울리(Beat Streuli), 스위스 / 에우라리아 발도세라(Eulalia Valldosera), 스페인 / 마벨 팔라신·마르크 비아플라나(Mabel Palacin·Marc Viaplana), 스페인 / 페드로 바브리타 레이스(Pedro Cabrita Reis), 포루투칼 / 크리스 트네·이레네 호휀뷔흘러(Christine·Irene Hohenbuchler), 오스트리아 / 요아킴 코에스터(Koester Joachim), 덴마크 / 루셍종(Lu Sheng-Zhong), 중국 / 팡리준(Fang Li-Jun), 중국 / 쿠데슈(Qiu Deshu), 중국 / 도시히로 구노(Toshihiro Kuno), 일본 / 쇼이치 세이노(Shoichi Seino), 일본 / 히라바야시 가오루(Hirabayashi Kaoru), 일본 / 칼리찰란 굽타(Kalicharan Gupta), 인도 / 라빈데르 잠왈(Ravinder Jamwal), 인도 / 리웬(Lee Wen), 싱가포르 / 탄 친 쿠안(Tan Chin Kuan), 말레이시아 / 헨리 도노(Henri Dono), 인도네시아 / 산세른 미린다수타(Sansern Milindasuta), 태국 / 안성금(Ahn Sung Keum), 한국 / 김명혜(Kim Myung-hye), 한국 / 김익영(Kim YiK Yung), 한국 / 김정헌(Kim Jung-Heun), 한국 / 임옥상(Lim

Ok-Sang), 한국 / 신경호(Shin Kyung-Ho), 한국 / 홍성담(Hong Sung-Dam), 한국 / 서정태(Suh Jung-Tae), 한국 / 우제길(Woo Jae-Gil), 한국 / 제프 로우(Geoffe Lowe), 호주 / 트레이시 모파트(Tracey Moffatt), 호주 / 리차드 킬린(Richard Killeen), 뉴질랜드 / 존 풀(John Pule), 뉴질랜드

제2회 광주비엔날레

프란츠 게르취(Franz Gertsch), 스위스 / 게리 힐(Gary Hill), 미국 / 가브리엘 코스타스(Gabriele Kostas), 그리스 / 볼프강 라이프(Wolfgang Laib), 독일 /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독일 / 피필로 티 리스트(Pipilotti Rist), 스위스 / 빌 비올라(Bill Viola), 미국 / 세르지 스피처(Serge Spitzer), 루마니아 / 라이너 가날(Rainer Ganahl), 오스트리아 / 스탠 더글라스(Stan Douglas), 캐나다 / 펭 멩보(Feng Mengbo), 중국 / 벤 보티에(Ben Vautier), 프랑스 / 잉게보르그 뤼셔(Ingeborg Lüscher), 독일 / 이브 클라인(Yves Klein), 프랑스 / 임충섭(Lim Choong-sup), 한국 / 바우어 필름(Baurs Film), 독일 / 장 팅글리(Jean Tinguely), 스위스 / 니엘 토로니(Niele Toroni), 스위스 / 스위스 작가연대(USA United Swiss Artist), 스위스 /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이탈리아 / 까밀로 호세 베르가라(Camilo Jose Vergara), 칠레 / 밀로미르 코바체빅(Milomir Kovacevic), 보스니아 / 마가렛 모튼(Margaret Morton), 미국 / 한스 브루너(Hannes Brunner), 스위스 / 존 골링스(John Gollings), 호주 / 장영호 Yung-ho Chang), 중국 / 가브리엘르 바실리코(Gabrielle Basilico), 이탈리아 / 하심 사르키스(Hashim Sarkis), 알란 사예흐(Allan Sayegh), 마르커스 셰이퍼·하바드 대학 디자인 대학원(Markus Schaefer·Harvard Univerc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레바논 / 스테파니 뷔르클(Stefanie B Rkle), 독일 / 케빈 닐(Kevin Neels), 미국 / 니콜라에 마지네아누(Margineanu), 루마니아 / 하우징 제네레이터(Housing Generator), 로날드 월(Ronald Wall), 에우드 네튼(Ewoud Netten), 네델란드 / 까를로스 가라이코아(Carlos Garaicoa), 쿠바 / 에멧 가윈(Emmet Gowin), 미국 / 에우드 레바논·아미트 고렌(Yeud Levanon·Amit Goren), 이스라엘 / 시게루 반(Shigeru Ban), 일본 / 그렉 지라르·아론 탄(Greg Girard·Aaron H. H. Tan), 캐나다, 싱가포르 / 시저 펠리(Cesar Pelli), 아르헨티나 / 하성흡·김혜선(Ha Sung-heup·Kim Hei-sum), 한국 / 아라타 이소자키(Arata Isozaki), 일본 / 어네스트 시랑글(Hok, Eamest Cirangle Hok), 미국 / 임정의(Lim Chung-eui), 민선주(Minn Sohn-joo), 신지철(Shin Ji-chul), 한국 / 마스밀리아노 푹사(Massimilano Fuksas), 이탈리아 / 토요 이토(Toyo Ito), 일본 / 콘, 페터슨·폭스 건축(Kohn, Pedersen·Fox Associates PC), 미국 / 존 리 ·마이클 팀출라 건축(John M.Y.Lee·Michael Timchula), 미국 / 아-토포스(a-Topos), 데이빗 턴 불(David Turnbull), 제인 헤리슨(Jane Harrison), 영국 / 릭 로우(Rick Lowe), 미국 / 르네 그린(Renée Green), 미국 / 아이메이 가르시아(Aim e Garc A), 쿠바 / 압솔루트노 그룹·조란 판텔릭·드라간 라킥·보자나 페트릭(Apsolutno art Association·Zoran Pantelic·Dragan Rakic·Bojana Petric) 유고 / 아트캠프(Artcamp), 노부로 타카야마(Noboro Takayama), 민 타나카(Min tanaka), 노리유키 히라구치(Noriyuki Hiraguchi), 일본 / 로잔헬라 레노(Rosangela Renno), 브라질 / 이기봉(Rhee Ki-bong), 한국 / 마리 세스테(Marie Sester), 프랑스 / 첸 젠(Chen Zhen), 중국 / 존 케이지(John Cage), 미국 / 벨키스 아이용(Belkis AY N), 쿠바 / 조지 나 스타(Georgina Starr), 영국 / 강 익중(Kang Ik-Joong), 한국 / 나빈 라완차이쿨과 코시트 준타라팁 그리고 광주, 지앙 마이, 아틀란타의 어린이들과 공동작업(Navin Rawanchaikul in association with Kosit Juntaratip, Woneak Juntaratip & Young people from the cities of Gwangju, Chiang Mai & Atlanta), 태국 / 갈라그룹(The GALA Committee), 미국 / 수 빙(Xu Bing), 중국 / 루이스 캄니처(Luis Camnitzer), 우루과이 / 엠마뉴엘 까를리에(Emmanuel Carlier), 프랑스 / 모나 하툼(Mona Hatoum), 레바논 / 알랭 세샤스(Alain Séchas), 콜롬비아 / 알베르토 브레치아(Alberto Breccia), 우루과이 / 나이젤 롤프(Nigel Rolfe), 아일랜드 / 부르스 노만(Bruce Nauman), 미국 / 오스발도 롬버그(Osvaldo Romberg), 아르헨티나 / 에릭 불라토프(Erik Boulatov), 러시아 / 프레데릭 브룰리 부아브레(Frédéric Bruly Bouabré), 아이보리 코스트 / 데이비드 리브(David Reeb), 이스라엘 / 크리스 마커(Chris Marker), 프랑스 / 하룬 파록키(Harun Farocki), 독일 / 네드코 솔라코프(Nedko Solakov), 불가리아 / 비반 순다람(Vivan Sundaram), 인도 / 박 모 (Bahc Mo), 한국 / 박홍천(Park Hong-chun), 한국 / 손봉채(Son Bong-chae), 한국 / 마뉴엘 오캄포(Manuel Ocampo), 필리핀 / 요엡 반 리쇼우트(Joep van Lieshout), 네덜란드 / 린달 존스(Lyndall Jones), 호주 / 그레고리 크릇슨(Gregory Crewdson), 미국 / 아네뜨 메사제(Annette Messager), 프랑스 / 황용핑(Huang Yong ping), 중국 / 보디 이섹 킹겔레스(Bodys Isek Kingelez), 콩고 / 신디 셔먼(Cindy Sherman), 미국 / 윔 델보예(Wim Delvoyer), 벨기에 / 파스칼 마르틴느 타유(Pascale Martine Tayou), 카메룬 / 파브리스 위베르(Fabrice Hybert), 프랑스 / 마리코 모리(Mariko Mori), 일본 / 루이스 부르조아(Louise Bourgeois), 프랑스 / 폴 맥카시(Paul McCarthy), 미국 / 피터 피쉴리·다비드 바이스(Peter Fischli·David Weiss), 스위스 / 길버트·조지(Gilbert·George), 영국 / 유리 짜이그(Uri Tzaig), 이스라엘 / 로제마리 트로켈(Rosemarie Trockel), 독일 / 김 범(Beom Kim), 한국 / 구정아(Koo Jeong-A), 한국

제3회 광주비엔날레

가다 아메르(Ghada Amer), 이집트 / 에이자-리사 아틸라(Eija-Liisa Ahtila), 핀란드 / 비거트·벅스트 롬(Bigert·Bergström), 스웨덴 / 캔디스 브라이츠(Candice Breitz), 남아프리카 공화국 / 아이제 에크만(Ayşe Erkmen), 터키 / 롬왈드 하주메(Romuald Hazoumé), 베닌 / 굴슨 카라무스타파(Güslsün Karamustafa), 터키 / 윌리암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 남아프리카 공화국 / 제이콥 콜딩(Jacob Kolding), 덴마크 / 피터 랜드(Peter Land), 덴마크 / 모세콰 랑가(Moshekwa Langa), 남아프리카 공화국 / 아나 린달(Anna Lindal), 아이슬란드 / 에스코 만니코(Esko Männikkö), 핀란드 / 산투 모포켄(Santu Mofekeng), 남아프리카 공화국 / 쉬린 네샤트(Shirin Neshat), 이란 / 뷸렌트 상가(Bülent şangar), 터키 / 앤-소피 시덴(Ann-Sofi Sidén), 스웨덴 / 비베케 쇼볼(Vibeke Sjøvoll), 노르웨이 / 할레 텡거(Hale Tenger), 터키 / 파티마 튜가(Fatimah Tuggar), 나이지리아 / 엘렌 하비(Ellen Harvey), 미국 / 줄리 헤퍼난(Julie Heffernan), 미국 / 니키 리(NikkiS. Lee), 미국 / 제니에타 아이리(Janieta Eyre), 미국 / 에이미 애들러(Amy Adler), 미국 / 글렌 라이곤(Glenn Ligon) , 미국 / 존 코플란(John Coplans), 미국 / 레이첼 비더 노울스(Rachelle Viader Knowles), 미국 / 산드라 스콜닉(Sandra Scolnik), 미국 / 마이클 데이비스(Michael Davis), 미국 / 수잔나 코피(Susanna Coffey), 미국 / 수-엔 웡(Su-en Wong), 미국 / 노만 요네모토(Norman Yamamoto), 미국 / 라일 애쉬톤 해리스(Lyle Ashton Harris), 미국 / 척 클로스(Chuck Close), 미국 / 미구엘 엔젤 리오스(Miguel Angel Rios), 아르헨티나 / 마르타 마리아 뻬레즈 브라보(Marta Maria Perez Bravo), 쿠바 / 세르지오 베가(Sergio Vega), 아르헨티나 / 코코 푸스코(Coco Fusco), 미국 / 퉁가(Tunga), 브라질 / 타니아 부르게라(Tania Bruguera), 쿠바 / 후앙 마뉴엘 에카바리아(Juan Manuel Echavarria), 콜롬비아 / 실도 메이레레스(Cildo Meireles), 브라질 / 알프레도 자알(Alfredo Jaar), 칠레 / 유지니오 딧본(Eugenio Dittborn), 칠레 / 아터 바리오(Artur Barrio), 포르투칼·브라질 / 하비에 테레즈(Javier Tellez), 베네수엘라 / 실비

아 그루너(Silvia Gruner), 멕시코 /마 류밍(Ma Liuming), 중국 / 쟝 시아오강(Zhan Xiaogang), 중국 / 구 웬다(Gu Wenda), 중국 / 루루아스카론(Dennis Ascalon), 필리핀 / 준 구엔 하츠시바(Jun Nguyen-Hatsushiba), 베트남 / 니티 왓츠야(Niti Wattuya), 태국 / 스라시 크솔웡(Surasi Kusolwong), 태국 / 웡 호이첸(Wong Hoy Cheong), 말레이시아 / 포포(Popo), 미얀마 / 탄 다우(Tang Dawu), 싱가포르 / 아구스 스와게(Agus Suwage), 인도네시아 / 크리슈나 뮬티(Krisna Murti), 인도네시아 / 나리니 마라니(Nalini Malani), 파키스탄 / 스타프샨쉬티(Sudafshan Shetty), 인도 / 스보드 굽타(Subodh Gupta), 인도 / 토야 시게오(Shigeo Toya), 일본 / 나까야마 다이스케(Daisuke Nakayama), 일본 / 가사하라 에미코(Emiko kasahara), 일본 / 고든 베넷 (Gorden Bennett), 호주 / 구안 웨이(Guan Wei), 호주 / 자스틴 쿠퍼(Justine Cooper), 호주 / 페트리시아 패치니(Patricia Paccinini), 호주 / 김호석(Kim Ho-suk), 한국 / 강 운(Kang Un), 한국 / 권소원(Kwon So-won), 한국 / 윤석남(Yun Suk-nam), 한국 / 이순주(Yi Soon-joo), 한국 / 임영선(Lim Young-sun), 한국 / 바이런 김(Byron Kim), 한국 / 김태곤(Kim Tae-gon), 한국 / 홍성담(Hong Sung-dam), 한국

제4회 광주비엔날레

아티스 프로 액티브, 유니버시티 방사 우타마(Artis Pro Active/University Bangsar Utama), 말레이시아 / 빅 스카이 마인드, 모엘펀드(Big Sky Mind/Mowelfund), 필리핀 / 보르헤스 리브레리아(Borges Libreria), 중국) / 카스코(CASCO), 네델란드 / 체메티 아트 하우스(Cemeti Art House), 인도네시아 / 디지털 아트랩(Digital ArtLab), 이스라엘 / 폭살 파운데이션(Foksal Foundation), 폴란드 / 포럼A(Forum A), 한국 / 글래스박스(Glassbox), 프랑스 / 아이티 파크(IT Park), 대만 / 쿠리만추토(Kurimanzutto), 멕시코 / 로프트(LOFT), 중국 / 대안공간 루프(LOOP), 한국 / 오다 프로제시(Oda Projesi), 터키 / 파라-사이트(Para-Site), 홍콩 / 프라스틱 키네틱 웜즈(Plastique Kinetic Worms), 싱가포르 / 대안공간 풀(pool), 한국 / 프로젝트 304(Project 304), 태국 / 프로토아카데미(Protoacademy), 영국 / 루앙루파(Ruangrupa), 인도네시아 / 시그날(Signal), 스웨덴 / 수퍼플렉스(Superflex), 덴마크 / 트랜스미션 갤러리(Transmission Gallery), 영국 / 우카바트(U-kabat), 태국 / 비디오티지(Videotage), 홍콩 / 소니아 아비앙(Sonia Abian), 아르헨티나 / 에이이에스 그룹(AES Group), 러시아 / 하릴 알틴데르(Halil Altindere), 터키 / 아라흐마이아니 피살(Arahmaiani Feisal), 인도네시아 / 아틀리에 바우와우(Atelier Bow Wow), 일본 / 박문종(Mun-jong Bak), 한국 / 오토 버쳄(Otto Berchem), 미국 / 요하나 빌링(Johanna Billing), 스웨덴 / 로스 비렐(Ross Birrell), 영국 / 베로니크 부디에(Veronique Boudier), 프랑스 / 미셸 엘름그린·잉가 드락셋(Michael Elmgreen·Ingar Dragset), 덴마크 / 에스라 에르센(Esra Ersen), 터키 / 니나 휘셔·마론 엘 사니(Nina Ficsher·Maroan el Sani), 독일 / 얀 레이·후 지에(Yan Lei·Fu Jie), 홍콩 / 안토니오 갈레고(Antonio Gallego), 프랑스 / 젤라틴(Gelatin), 오스트리아 / 장 지아니(Geng Jianyi), 중국 / 김소라·김홍석(sora kim·gimhongsok), 한국 / 구 덱신(Gu Dexin), 중국 / 얀스 하닝(Jens Haaning), 덴마크 / 함진(Jin Ham), 한국 / 폴 해리슨·존 우드(Paul Harrison·John Wood), 영국 / 영 헤이(Young Hay), 홍콩 / 테칭 쉐(Tehching Hsieh), 대만 / 임흥순(Heung-soon Im), 한국 / 시니치 오가와·알란 존스톤(Shinichi Ogawa·Alan Johnston), 일본, 영국 / 주재환(Jae-whan Joo), 한국 / 정연두(Yeon-doo Jung), 한국 / 온 카와라(On Kawara), 일본 / 김상길(Sang-gil Kim), 한국 / 김순기(Soun-gui Kim), 한국 / 공성훈(Sung-hun Kong), 한국 / 구정아(Jeong-A Koo), 한국 / 수라시 쿠솔웡(Surasi Kusolwong), 태국 / 린 뢰벤슈타인(Lyn Löwenstein), 영국 / 클로드 레베크(Claude Lévêque), 프랑스 / 마크 루이스(Mark Lewis), 캐나다 / 르 킁 유(Liew Kung Yu), 말레이시아 / 림 재 첸(Lim Tzay Chuen), 싱가포르 / 마이클 린(Michael Lin), 대만 / 린 일린(Lin Yilin), 중국 / 힐러리 로이드(Hilary Lloyd), 영국 / 안다 마니크·마린탄 시래(Andar Manik·Marintan Sirait), 인도네시아 / 매튜 누이(Matthew Ngui), 싱가포르 / 카르스텐 니콜라이(Carsten Nicolai), 독일 / 올라프 니콜라이(Olaf Nicolai), 독일 / 모토히코 오다니(Motohiko Odani), 일본 / 츠요시 오자와(Tsuyoshi Ozawa), 일본 / 마르코 펠리한(Marko Peljhan), 슬로베니아 / 포스트 8(Post 8), 대만 / 에코 프라워토(Eko Prawoto), 인도네시아 / 뷸란트 상가(Bülent Sangar), 터키 / 빌헬름 사스날(Wilhelm Sasnal), 폴란드 / 주디 프레야 시바얀(Judy Freya Sibayan), 필리핀 / 숀 스나이더(Sean Snyder), 미국 / 네드코 솔라코프(Nedko Solakov), 불가리아 / 송 동(Song Dong), 중국 / 성능경(Neung-kyung Sung), 한국 / 베르트 타이스(Bert Theis), 룩셈브루그 / 지테 빌레센(Gitte Villesen), 덴마크 / 시슬레 자파(Sislej Xhafa), 코소보 / 주 탕(Xu Tan), 중국 / 양 지창(Yang Jiechang), 중국 / 인 시우첸(Yin Xiuzhen), 중국 / 유승호(Seung-ho Yoo), 한국 / 윤주경(Joo-kyung Yoon), 한국 / 장영혜 중공업(YOUNG-HAE CHANG HEAVY INDUSTRIES), 한국 / 장 페일리(Zhang Peili), 중국 / 수잔 초이(Susan Choi), 한국 / 임원주(Wonju Lim), 한국 / 고병옥(Byoung Ok Koh), 한국 / 데이비드 코티(David Korty), 미국 / 제니퍼 문(Jennifer Moon), 미국 / 조셉 박(Joseph Park), 캐나다 / 데이비드 정(Y David Chung), 독일 / 천성임(Seong Chun), 한국 / 이진(Jin Lee), 한국 / 리나 김(Lina Kim), 브라질 / 요시코 시마다·황보강자(Yoshiko Shimada·Hwangbo Kanja), 일본 / 김주영(JooYoung Kim), 한국 / 성상원(Sang Won Sung), 한국 / 정영(Young Chung), 한국 / 빅토르 안(Viktor An), 우즈베키스탄 / 로흥석(Fung Sok Ro), 일본 / 박일남(Il Nam Park), 일본 / 채준(Chae Jun), 일본 / 김성민(Sung Min kim), 일본 / 김영숙(Yong Suk Kim), 일본 / 최헌기(Xianji Cui), 중국 / 윤희창(Hee Chang Yoon), 일본 / 석희만(Hee Man Suk), 한국 / 세르게이 송(Sergei Song), 카자흐스탄 / 강홍구(Kang Hong-gu), 한국 / 김남훈(Kim Nam-hoon), 한국 / 김미형(Kim Mi-hyung), 한국 / 김 범(Kim Bum), 한국 / 김세진(Kim Se-jin), 한국 / 김승영(Kim Seung-young), 한국 / 김영수(Kim Young-soo), 한국 / 김영철(Kim Young-chul), 한국 / 손승현(Son Seung-hyun), 한국 / 김유선(Kim Yu-sun), 한국 / 김인규(Kim In-kyu), 한국 / 김정민(Kim Jung-min), 한국 / 김종구(Kim Jong-ku), 한국 / 김주호(Kim Ju-ho), 한국 / 김지원(Kim Ji-won), 한국 / 김혜선(Kim Hye-sun), 한국 / 문 범(Moon Beom), 한국 / 박경주(Park Kyung-ju), 한국 / 박불똥(Park Bul-dong), 한국 / 박영숙(Park Young-sook), 한국 / 박태규(Park Tae-kyu), 한국 / 배영환(Bae Young-hwan), 한국 / 서용선(Seo Yong-sun), 한국 / 신학철(Shin Hak-chul), 한국 / 안성희(Ahn Sung-hee), 한국 / 안창홍(Ahn Chang-hong), 한국 / 오형근(Oh Hyung-geun), 한국 / 유영준(Yoo Young-jun), 한국 / 윤동천(Yoon Dong-chun), 한국 / 윤정미(Yoon Jung-mi), 한국 / 이경신(Lee Kyung-shin), 한국 / 이상일(Lee Sang-il), 한국 / 이순종(Lee Soon-jong), 한국 / 이윰(Lee Yum), 한국 / 이응노(Lee Eung-no), 한국 / 이이남(Lee Yi-nam), 한국 / 이중재(Lee Joong-jae), 한국 / 이태호(Lee Tae-ho), 한국 / 임성훈(Lim Sung-hoon), 한국 / 장진영(Jang Jin-young), 한국 / 장해리(Jang Hye-ri), 한국 / 정정엽(Jang Jung-yeop), 한국 / 정주하(Jung Joo-ha), 한국 / 조덕현(Cho Deok-hyun), 한국 / 최병수(Choi Byung-soo), 한국 / 최소연(Choi So-yeon), 한국 / 최진욱(Choi Jin-wook), 한국 / 최호철(Choi Ho-chul), 한국 / 한계륜(Han Kye-ryoon), 한국 / 허용철(Heo Yong-chul), 한국 / 정현(Jung Hyun), 한국 / 공성순(Kong Sung-soon), 한국 / 박상호(Park Sang-ho), 한국 / 김용익(Kim Yong-ik), 한국 / 이용백(Lee Yong-baik), 한국 / 이중근(Lee Joong-keun), 한국 / 홍순명(Hong Sun-

myoung), 한국 / 장영호(Jang Young-ho), 한국 / 올가 테라소(Olga Terraso), 스페인 / 안규철(Ahn Kyu-chul), 한국 / 알레한드로 자히라 폴로(Alejandro Zaera Polo), 영국 / 아드리안 게즈(Adriaan Gueze), 네덜란드 / 김영준(Kim Young-jun), 한국 / 김종규(Kim Jong-kyu), 한국 / 서혜림(Seo Hye-rim), 한국 / 이 민(I Min), 한국 / 심현주(Shim Hyun-joo), 한국 / 이종호(Lee Jong-ho), 한국 / 최재희·임무택(Choi Jae-hee·Lim Moo-taik), 한국 / 류영국(Ryu Young-kuk), 한국 / 정선휘(Jung Sun-hui), 한국

제5회 광주비엔날레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 이탈리아 / 켄델 기어스(Kendell Geers), 이탈리아 / 사파로프 카킴(Saparov Khakim), 레오니드 소코흐(Leonoid Sokov), 우즈베키스탄 / 피터 모진스키(Peter Moszynski), 영국 / 호타 카스트로(Jota Castro), 페루 / 로스 췌링턴(Ross Cherrington), 마크 퀸(Marc Quinn), 영국 / 고은(Eun Koh), 한국 / 박불똥(Park, Bul Ddong), 한국 / 솔로몬 오벵(Solomon Obeng), 엘 아나츄이(El Anatsui), 가나 / 자만 아 니쿨라포·무이와 오시푸예(Jahman Anikulapo·Muyiwa Osifuye), 나이지리아 / 림 시옥 펭(Yeo Siok Peng), 싱가포르 / 흐랑시스(Francis Ng), 싱가포르 / 류 더쟝(Ou Yu Jei), 중국 / 위에 민쥔(Yue Min Jun), 중국 / 권호상(Hosang Kwon), 한국 / 전수천(Jheon, Soo Cheon), 한국/ 리 티엔(Lee Tien , 쑨 위엔·펑위(Sun Yuan·Peng Yu), 중국 / 쿠마 켄고·토리미츠 모모요(Kengo Kuma·Momoyo Torimitsu), 일본 / 카밀야 쥬브란(Kamilya Jubran), 에밀리 야시르(Emily Jacir), 팔레스타인 / 후안 보닐야(Juan Bonilla), 안토니 문타다스(Antoni Muntadas), 스페인 / 리차드 로즈(Richard Rhodes), 짐 샌본(Jim Sanborn), 미국 / 체 디디안 안예(Che Didian Anye), 말람(Malam), 카메룬 / 최완욱·전준호(Choi wan Yook·Jheon, Joon Ho), 한국 / 고바야시 야수오·미야지마 타츠오(Yasuo Kobayashi·Tatsuo Miyajima), 일본 / 에바 마리살디(Eva Marisaldi), 이탈리아 / 데보라 맥닐·켈리 리차드슨(Deborah McNeill·Kelly Richardson), 캐나다 / 데이비드 레이·라퀴엘 슈와르츠(David Rey·Raquel Schwartz), 볼리비아 / 지엔쥔 장·바바라 에델슈타인(Jian Jun Zhang·Barbara Edelstein), 중국, 미국 / 슈테판 라바누스·일카 마이어(Stefan Rabanus·Ilka Meyer), 독일 / 요십 라스코 모츠닉크·마례티차 포트르츠(Josip Rastko Mocnik·Marjetica Potrc), 슬로베니아 / 미카엘 데디예르·아사 엘젠(Mikael Dedijer·Asa Elzen), 스웨덴 / 안경환·김병종(Kyounghwan Ahn·Kim, Byoung Jong), 한국 / 노성태·김승영(Sungtea Noh·Kim,seung Young), 한국 / 레오폴드 노섹·월터씨오 칼다스(Leopold Nosek·Walterico Caldas), 브라질 / 탈라 아부 타하·이브라힘 나스랄라(Tala Mohd. Abu Taha·Ibrahim Nasrallah), 요르단 / 피터 모진스키(Peter Moszynski), 영국/ 호타 카스트로(Jota Castro), 페루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프랑스 / 파울리나 에스피노사(Paulina Espinosa, 파블로 카르도쏘(Pablo Cardoso), 에콰도르 / 에드워드 루샤(Edward Ruscha), 미국 / 천 지쉬엔(Chen Jixuan), 쑨 샤오펑(Sun Xiafeng), 중국 / 마르코 라미레즈(Marco Ramírez), 테레사 마르고예스(Teresa Margolles), 멕시코 / 지율(Jiyul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 ECO Artist), 한국 / 아이반 린다(Ivan Rynda), 체코 / 막달레나 예텔로바(Magdalena Jetelová), 체코 / 리차드 해밀턴(Richard Hamilton), 영국 / 모니카 프랜디(Monica Prandi), 마르코 마지(Marco Maggi), 우루과이 / 람 슈안 트롱(Rham Xuan Truong), 구엔 민 탄(Nguyen Minh Thanh), 베트남 / 피터 퀑(Peter Kwong), 지미 더햄(Jimmie Durham), 미국 / 아말리아 콘툴리(Amalia Kontoul)i, 나이아 프란굴리(Nayia Frangouli), 그리스 / 문규현(Kyu-hyoun Moon), 부안사람들(BUAN People), 한국 / 에드와르도 카츠(Eduardo Kac), 브라질 / 주하현(Ha-hyoun Joo), 금중기(Joong-ki Geum), 한국 /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독일 / 세빌 아타우즈(Sevil Atauz), 아흐멧 옥템(Ahmet Öktem), 터키 / 루카스 다만(Lukas Damann), 질라 로이테네거(Zilla Leutenegger), 스위스 / 리 티엔(Lee Tien / 쑨 위엔·펑 위(SunYuan·PengYu), 중국 / 코넬리스 로스(Cornelis Ros), 류드밀라 고를로바(Lyudmila Gorlova), 러시아 / 미우챠 프라다(Miuccia Prada), 이탈리아 / 이경호(Kyung-Ho Lee), 한국 / 레일라 다클리(Leïla Dakhli), 프랑스 / 루시 오르타(Lucy Orta), 프랑스 / 다니엘 플룸(Daniel Pflumm), 스위스 / 이정은(Jung-eun Lee), 그룹(SAA Group SAA), 한국 / 산토쉬 바부(Santhosh Babu), 애니쉬 카푸어(Anish Kapoor), 인도 / 남인순(Insoon Nam), 김진란(Jin-ran Kim), 한국 / 페르난도 페레즈(Fernando Pérez), 제니퍼 알로라·기예르모 칼자 디야(Jenifer Allora·Guillermo Calzadilla), 쿠바 / 루브나 타히리(Loubna Tahiri), 무니르 파트미(Mounir Fatmi), 모로코 / 로즈 크웨나(Rose Kwena), 왕게치 무투(Wangechi Mutu), 케냐 / 해롤드 마날라(Harold Manala), 즈웰레투 므테트와(Zwelethu Mthethwa), 남아공 / 피터 모신스키(Peter Moszynski), 영국/ 호타 카스트로(Jota Castro), 페루 / 제리 멘더(Jerry Mander), 러셀 크로티(Russell Crotty), 미국 / 키트 그라우어(Kit Grauer), 브라이언 융엔(Brian Jungen), 캐나다 / 브루나 에스포지토(Bruna Esposito), 사에토네 지안안드레아(Saettone Gianandrea), 이탈리아 / 크레이그 저드(Craig Judd), 더 킹핀스(The Kingpins), 호주 / 다레데모 피카소(Daredemo Picasso), 이이지마 코지(Koji Ijima), 일본 / 머빈 베르가라(Mervin C. Vergara), 알프레도· 이자벨 아킬리잔(Alfredo·Isabel Aquilizan), 필리핀 / 이도수(Doh-Soo Lee), 한국 / 뮤작(Muzucks,) 일본 / 이진영(Jin Yong Lee), 한국 / 배동환(Dong Hwan Pai), 한국 / 콜코즈(Kolkoz), 프랑스 / 김민정(Min Jung Kim), 한국 / 조영남(Young Nam Cho), 한국 / 백순실(Soon Shil Baik), 한국 / 마리오 아리로(Mario Airo), 이탈리아 / 래리 리트(Larry Litt), 미국 / 고헌(Hon Koh), 한국 / 황호섭(Ho Sup Hwang), 한국 / 마이크 마샬(Mike Marshall), 영국 / 임옥상(Ok Sang Lim), 한국 / 모니카 괴츠(Monika Goetz), 독일 / 마쿠스 베첼(Markus Wetzel), 스위스

제6회 광주비엔날레

마이클 주(Michael Joo), 미국 / 데이빗 하몬스(David Hammons), 미국 / 딘 큐 레(Dinh Q Le), 베트남 / 홍 레이(Hong Lei),중국 / 이수경(Lee Soo Kyung), 한국 / 미와 야나기(Miwa Yanagi), 일본 / 최정화(Choi Jung Hwa), 한국 / 젱 리우(Zheng Liu), 중국 / 라퀴브 쇼(Raqib Shaw), 인도 / 지티쉬 칼라트(Jitish Kallat), 인도 / 최민화(Choi Min Hwa), 한국 / 삼타 벤야히아(Samta Benyahia), 레바논 / 헤리 도노(Heri Dono), 인도네시아 / 장 후안(Zhang Huan), 중국 / 황인기(Whang In Kie), 한국/ 크리스 웰스비(Chris Welsby), 영국 / 김종구(Kim Jong Ku), 한국 / 수 빙(Xu Bing), 중국 / 김상연(Kim Sang Yeon), 한국 / 시하루 시오타(Chiharu Shiota), 일본 / 수잔 빅터(Suzann Victor), 싱가폴 / 아라야 잠레아른수크(Araya Rasdjarmrearnsook), 태국 / 시셀 톨라스(Sissel Tolaas), 노르웨이 / 딘 큐 레(Dinh Q Le), 베트남 / 리즈 아우토제나·조슈아 포트웨이(Lise Autogena·Joshua Portway), 덴마크, 영국 / 곽선경(Sun K. Kwak), 한국 / 히로시 센주(Hiroshi Senju), 일본 / 이우환(Lee Ufan), 한국 / 이종상(Lee Jong Sang), 한국 / 도브 브레드쇼(Dove Bradshaw), 미국 / 봉 파오파니트(Vong Phaophanit), 라오스 /장 마크 펠레티에(Jean-Marc Pelletier), 캐나다 / 슈민 린(Shu-min Lin), 타이완 / 아키오 카미사토, 타케히사 마시모, 사토시 시바타(Akio KAMISATO, TakehisaMASHIMO, Satoshi SHIBATA), 일본 / 레이 나이토(Rei Naito), 일본 / 플럭서스(Fluxus) / 송 동(Song Dong), 중국 / 수잔 메이슬라스(Susan Meiselas), 미국 / 첸 치에 옌(Chen Chieh-Jen), 타이완 / 장 달리(Zhang Dali), 중국 / 리다 압둘(Lida Abdul), 아프가니스탄 / 바산 지티켓(Vasan Sitthiket), 태국 / 퀴 지지

에(Qiu Zhijie), 중국 / 토마스 바이얼레(Thomas Bayrle), 독일 / 손봉채(Son Bong Chae), 한국 / 마니트 스리와닛품(Manit Sriwanichpoom), 태국 / 아르민 린케(Armin Linke), 이탈리아 / 준 구엔 하츠시바(Jun Nguyen-Hatsushiba), 베트남 / 루나 이슬람(Runa Islam), 방글라데시 / 로니 반 브루멜렌(Lonnie van Brummelen), 네덜란드 / 제니퍼 티(Jennifer Tee), 네덜란드 / 멜릭 오하니언(Melik Ohanian), 프랑스 / 송상희(Song Sang-hee), 한국 / 줄리카 루델리우스(Julika Rudelius), 네덜란드 / 김홍석(Gimhongsok), 한국 / 센 유엔(Shen Yuan), 중국 / 마이클 엘름그린·잉가 드라그세트(Michael Elmgreen·Ingar Dragset), 덴마크·노르웨이 / 디아스·리드베그(Dias·Riedweg) 브라질, 스위스 / 에릭 반 리스하우트(Erik van Lieshout), 네덜란드 / 모니카 본비치니(Monica Bonvicini), 이탈리아 / 수퍼플렉스·옌스 하닝(Superflex·Jens Haaning), 덴마크 / 부르노 세라롱그(Bruno Serralongue), 프랑스 / 메샥 가바(Meschac Gaba), 베냉,네덜란드 / 코펜하겐 프리 유니버시티(Copenhagen Free University), 덴마크 / 임민욱(Lim, Min-ouk), 한국 / 데이만타스 나르케비셔스(Deimantas Narkevicius), 리투아니아 / 노메다·게디미나스 우르보나스(Nomeda·Gediminas Urbonas), 리투아니아 / 라우라 호렐리(Laura Horelli), 핀란드 / 숀 스나이더(Sean Snyder), 미국 / 미하엘 보틀러(Michael Beutler), 독일 /아크람 자타리(Akram Zaatari), 레바논 / 함경아(Ham Kyung-ah), 한국 / 플라잉시티(flyingCity), 한국 / 신지철(Shin Ji-cheol), 한국 / 16비버(16 Beaver), 미국 / 정기헌·진시영(Jeong Ki-heoun·Jin Si Young), 한국 / JNP프로덕션(JNP Production), 한국 / 슈카르트(Škart), 세르비아 / 믹스라이스(mixrice), 한국 / 파울라 야콥(Paola Yacoub), 레바논 / 미셸 라세르(Michel Lasserre), 프랑스 / 토마스 엘렌 해리스(Thomas Allen Harris), 미국 /아포레아(Aporrea), 베네수엘라 / 아루(ARU), 볼리비아 / 그루포 알라비오(Grupo Alavío), 아르헨티나 / 인디미디어 볼리비아(Indymedia Bolivia), 볼리비아

제7회 광주비엔날레

아델 압데세메드(Abdessemed Adel), 알제리 / 바니 아비디(Abidi Bani), 파키스탄 / 데이비드 아디아예(Adjaye David), 가나 / 레이문도 알바노(Albano Raymundo), 필리핀 / 제니퍼 알로라·길레르모 칼자딜라(Allora Jennifer·Calzadilla Guillermo), 미국 / 라라 알마르세이(Almarcegui Lara), 스페인 / 프란시스 알뤼스(Alys Francis), 벨기에 / 박진영(Area Park), 한국 / 스테파노 아리엔티(Arienti, Stefano), 이탈리아 / 가오루 아리마(Arima Kaoru), 일본 / 마리오 벤자민(Benjamin Mario), 아이티 / 사디 베닝(Benning Sadie), 미국 / 휴마 브하바(Bhabha Huma), 파키스탄 / 우르술라 비이만(Biemann Ursula), 스위스 / 빙위(Bingyi), 중국 / 타니아 브루게라·아르트 콘덕타(Bruguera Tania ·Arte Conducta), 쿠바 / 마리아나 브니모브(Bunimov Mariana), 베네수엘라 / 제라르 빈(Byrne Gerard), 아일랜드 / 첸 치우린(Chen Qiulin), 중국 / 첸 사오징(Chen Shaoxiong), 중국 / 조은지(Eunji Cho), 한국 / 정서영(Chung Seoyoung), 한국 / 브루스 코너(Conner Bruce), 미국 / 토마스 데만드(Demand Thomas), 독일 / 아툴 도디야(Dodiya Atul), 인도 / 릴리 뒤주리(Dujourie Lili), 벨기에 / 필리페 둘자이드·로베르토 고타르디(Dulzaides Felipe·Gottardi Roberto), 쿠바, 이탈리아 / 시무스 파렐(Farrell Seamus), 아일랜드 / 라이나 베르나 파스빈더(Fassbinder Rainer Werner), 독일 / 다니엘 파우스트(Faust Daniel), 미국 / 니나 피셔·마로안 엘 사니(Fischer, Nina·El Sani, Maroan), 독일 / 페터 프리들(Friedl Peter), 오스트리아 / 가오 스챵(Gao Shiqiang), 중국 / 말론 그리피스(Griffith Marlon), 트리니다드토바고 / 구헌주(Gu Hun-ju), 한국 / 타마 기마라에스(Guimaraes, Tamar), 브라질 / 쉴파 굽타(Gupta Shilpa), 인도 / 한스 하케(Haacke Hans), 독일 / 로타 헴 펠(Hempel Lothar), 독일 / 잔 헨레(Henle Jan), 미국 / 황지영(Hwang Chiyoung), 한국 / 이만 이사(Issa Iman), 이집트 / 조해준·조동환(Jo Haejun·Jo Donghwan), 한국 / 아이작 줄리앙(Julien Isaac), 영국 / 강태훈(Kang Teahun), 한국 / 하산 칸(Khan Hassan), 이집트 / 소니아 쿠라나(Khurana Sonia), 인도 / 바이런 킴(Kim Byron), 미국 / 김성환(Kim Sung Hwan), 한국 / 고승욱(Seung Wook Koh), 한국 / 압둘라예 코나테(Konate Abdoulaye), 말리 / 구동희(Koo Donghee), 한국 / 다비드 라멜라스(Lamelas David), 아르헨티나 / 라넷: 임인애·홍은영(Larnet: Lim In Ae·Hong Eun Young), 한국 / 이진원(Lee Jin Won aka GAZAEBAL), 한국 / 이슬기(Lee Seulgi), 한국 / 크리스텔 뢰회(Lheureux Christelle), 프랑스 / 글렌 라이곤(Ligon Glenn), 미국 / 자바스 로페스(Lopes Jarbas), 브라질 / 레이건 루이(Louie Reagan), 미국 / 켄 룸(Lum Ken), 캐나다 / 마문호(Ma Mun-ho), 한국 / 맵 오피스(MAP Office: Gutierrez Laurent·Portefaix Valerie), 프랑스 / 케리 제임스 마샬(Marshall Kerry James), 미국 / 모나 마주크(Marzouk Mona), 이집트 / 고든 마타 클락(Matta Clark Gordon), 미국 / 스티브 맥퀸(McQueen Steve), 영국 / 다니엘 메디나(Medina Daniel), 베네수엘라 / 루이 몰리나 판틴(Molina Pantin Luis), 베네수엘라 / 매튜 모나한(Monahan Matthew), 미국 / 잔 알타이(Can Altay), 터키 / 니나 카넬(Nina Canell), 스웨덴 / 루노 라고마르시노(Runo Lagomarsino), 스웨덴 / 이우연(Wooyeon Lee), 한국 / 피진 콜렉티브(Pidgin Collective), 한국 / 이주요(Jewyo Rhii), 한국 / 지미 로버트(Jimmy Robert), 프랑스 / 마이-다-다(MYDADA), 미국 / 남화연(Nam Hwayeon), 한국 / 오일 21(Oil 21), 독일 / 카이린 올리비에(Olivier Karyn), 미국 / 엘 옵소메르(Opsomer Els), 벨기에 / 박진아(Park Jina), 한국 / 박주연(Park Jooyeon), 한국 / 박문종(Park Munjong), 한국 / 백기영(Peik Kiyoung), 한국 / 레자 피아다사(Piyadasa Redza), 말레이시아 / 아피난 포쉬아난다(Poshyananda Apinan), 타이 / 조 렉트리페(Ractliffe Jo), 남아프리카공화국 / 만들라 루터(Reuter, Mandla), 독일 / 왈리드 사덱(Sadek Walid), 레바논 / 요하힘 숀필트(Schonfeldt Joachim), 남아프리카공화국 / 파투 칸드 센거(Senghor Fatou Kande), 세네갈 / 신호윤(Shin Ho-yoon), 한국 / 타린 사이먼(Simon Taryn), 미국 / 다야니타 싱(Singh Dayanita), 인도 / 프라닛 소이(Soi Praneet), 인도 / 히로시 수기토(Sugito Hiroshi), 일본 / 캐서린 설리반(Sullivan Catherine), 미국 / 짐 수팡 카트(Supangkat Jim), 인도네시아 / 코키 타나카(Tanaka Koki), 일본 / 호세 토이락(Toirac Jose), 쿠바 / 세실리아 트립(Tripp Caecilia), 독일 / 의재 허백련(Uijae Huh Baikryun), 한국 / 자끄 빌르글레(Villegle Jacques), 프랑스 / 빈센트 페리아(Vincent+Feria: Vincent, Francoise·Feria, Eloy), 프랑스, 베네수엘라 / 알프레드 베네모저(Wenemoser Alfred), 오스트리아 / 시슬레이 쟈파(Xhafa Sislej), 코소보 / 양성윤(Yang Sungyoon), 한국 / 리넷 이아덤 보아케(Yiadom Boakye Lynette), 영국 / 브루스 요네모토(Yonemoto Bruce), 미국 / 코헤이 요시유키(Yoshiyuki Kohei), 일본 / 자리나(Zarina), 인도 / 돌로레스 지니·후안 마이다간(Zinny, Dolores·Maidagan, Juan), 아르헨티나 / 존 취리어(Zurier John), 미국

제8회 광주비엔날레

파베우 알타메르(Pawel Althamer), 폴란드 / 칼 앤드리(Carl Andre), 미국 / 아르 오리앙트 오브제(Art Orienté Objet), 프랑스 / 애너 아태커(Anna Artaker), 오스트리아 / 토바 아우어바흐(Tauba Auerbach), 미국 / 모턴 바틀릿(Morton Bartlett), 미국 / 토마스 바이를레(Thomas Bayrle), 독일 / 어니스트 J.벨로크(E.J.Bellocq), 미국 / 한스 벨머(Hans Bellmer), 독일 / 네일런드 블레이크(Nayland

Blake), 미국 / 조나단 보로프스키(Jonathan Borofsky), 미국 / 이리나 보테아(Irina Botea), 루마니아 / 커스틴 브래쉬(Kerstin Bratsch), 독일 / 글렌 브라운(Glenn Brown), 영국 / 제임스 리 바이어스(James Lee Byars), 미국 / 듀칸 캠벨(Duncan Campbell), 아일랜드 / 제임스 캐슬(James Castele), 미국 /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 이탈리아 / 자크 샤를리에(Jacques Charlier), 벨기에 / 조혜정(HyeJeong Cho), 대한민국 / 최광호(Kwangho Choi), 대한민국 / 앤 콜리어(Anne Collier), 미국 / 로베르토 쿠오기(Roberto Cuoghi), 이탈리아 / 케렌 시테르(Keren Cytter), 이스라엘 / 존 드 안드레아(John de Andrea), 미국 / 필립로르카 디코르시아(Philip-Lorca diCorcia), 미국 / 안드레 데디에네스(Andre de Dienes), 루마니아 / 마이크 디스파머(Mike Disfarmer), 미국 / 워커 에반스(Walker Evans), 미국 / 안경점(Eye Glass Shop), 대한민국 / 하룬 파로키(Harun Farocki), 독일 /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 프랑스 / 한스 피터 펠먼(Hans-Peter Feldman), 독일 / 피슐리·바이스(Fischli·Weiss), 스위스 / 리 프리들랜더(Lee Friedlander), 미국 / 카타리나 프리치(Katharina Fritsch), 독일 / 오렐리앙 프로망(Aurelien Froment), 프랑스 / 폴 푸스코(Paul Fusco), 미국 / 시프리엥 가이야르(Cyprien Gaillard), 프랑스 / 루프레히트 가이거(Rupprecht Geiger), 독일 / 프란츠 게르치(Franz Gertsch), 스위스 / 헤르만 글뢰크너(Hermann Glöckner), 독일 / 구더신(Gu Dexin), 중국 / 주앙 마리아 구즈망·페드루(Joao Maria Gusmao·Pedro Paiva), 포르투갈 / 궈펑이(Guo Fengyi), 중국 /함양아(Yang-ah Ham), 대한민국 / 듀안 핸슨(Duane Hanson), 미국 / 이데사 헨델레스(Ydessa Hendeles), 캐나다 / 토마스 히르슈호른(Thomas Hirschhorn), 스위스 / 톰 홀러트(Tom Holert), 독일 / 아르나우드 홀레만(Arnoud Holleman), 네덜란드 / 카스텐 횔러(Carsten Höller), 벨기에 / 로니 혼(Roni Horn), 미국 / 데칭셰(Tehching Hsieh), 싱가포르 / 황용핑(HuangYong Ping), 중국 / 임흥순(Heungsoon Im), 대한민국 / 산야 이베코빅(Sanja Ivekovic), 크로아티아 / 지켄 고보·익스페리먼털 워크숍(Jikken Kobo·Experimental Workshop), 일본 / 야스민 카비르(Yasmin Kabir), 방글라데시 / 칸쉬안(Kan Xuan), 중국 / 제이콥 카사이(Jacob Kassay), 미국 / Leandro Katz, 아르헨티나 / 마이크 켈리(Mike Kelley), 미국 / 에드워드·낸시 레딘 키엔홀츠(Edward·Nancy Reddin Keinholz, 미국 / 김한용(Hanyong Kim), 대한민국 / 콘라드 클라펙(Konrad Klapheck), 독일 / 김옥랑 꼭두 컬렉션(Kokdu Dolls, from the collection of Ock Rang Kim), 대한민국 / 앨리스 콕(Alice Kok), 싱가포르 / 제프 쿤스(Jeff Koons), 미국 / 테츠미 쿠도(Tetsumi Kudo), 일본 / 엠마 쿤즈(Emma Kunz), 스위스 / 마리아 라스니히(Maria Lassnig), 오스트리아 / 마크 레키(Mark Leckey), 영국 / 이정(Jung Lee), 대한민국 / 이승택(Seungtack Lee), 대한민국 / 쉐리 레빈(Sherrie Levine), 미국 / 헤르베르트 리슈트(Herbert Lis)t, 독일 / 리우 웨이(Liu Wei), 중국 / 리우 젱 (Liu Zheng), 중국 / 폴 맥카시(Paul McCarthy), 미국 / 구스타프 메츠거(Gustav Metzger), 독일 / 존 밀러(John Miller), 미국 / 라비 므루에(Rabih Mroue), 레바논 / 맷 멀리컨(Matt Mullican), 미국 / 남한 사진관(Namhan Photo Studio), 대한민국 / 부르스 노우먼(Bruce Nauman), 미국 / 신로 오타케(Shinro Ohtake), 일본 / 헨릭 올슨 (HenrikOlesen), 덴마크 / 엘리엇 포터(Eliot Porter), 미국 / 세스 프라이스(Seth Price), 미국 / 톰 퍼키(Thom Puckey), 영국 / 브리짓 라일리(BridgetRiley), 영국 / 피터 뢰어(Peter Roehr), 독일 / 디터 로트(Dieter Roth), 독일 / 사토 아타루(Ataru Sato), 일본 / 카를 셍커(Karl Schenker), 독일 / 장 프레데릭 슈나이더(Jean-Frédéric Schnyder), 스위스 / 티노 세갈(Tino Sehgal), 영국 / 폴 샤리츠(Paul Sharits), 미국 / 신디 셔먼(Cindy Sherman), 미국 / 자오수퉁, 왕관이(Zhao Shutong, Wang Guanyi), 중국 / 로리 시몬스(Laurie Simmons), 미국 / 히토 슈테예를(Hito Steyerl), 독일 / 스터트번트(Sturtevant), 미국 / 폴 텍(Paul Thek), 미국 / 라이언 트리카틴(Ryan Trecartin), 미국 / 유스풀 포토그래피(Useful Photography), 네덜란드 / 프랑코 바카리(Franco Vaccari), 이탈리아 / 스탠 밴더비크(Stan VanDerBeek), 미국 / 댄 보(Danh Vo), 베트남 / 앤디 워홀(Andy Warhol),미국 / 안드로 베쿠아(Andro Wekua), 그루지야 / 우원광(Wu Wenguang), 중국 / 크리스토퍼 윌리엄스(ChristopherWilliams), 미국 / 밍웅(Ming Wong), 싱가포르 / 카츠히로 야마구치(Katsuhiro Yamaguchi), 일본/ 양혜규(Haegue Yang), 대한민국 / 예징루(Ye Jinglu), 중국 / 장엔리(Zhang Enli), 중국 / 저우 샤오후(Zhou Xiaohu), 중국 / 세르게이 자르바(Sergey Zarva), 우크라이나 / 야쿠브 지올코브스키(Jakub Ziolkowski), 폴란드 / 아르투르 즈미예브스키(Artur Zmijewski), 폴란드 / 박태규(Taekyu Park), 대한민국 / 오윤(Oh Yoon), 대한민국

제9회 광주비엔날레

캠프(CAMP), 인도 / 쉬바 차치(Sheba Chhachhi), 에티오피아 / 취토 델라트(Chto Delat), 러시아 / 푸아드 엘쿠리(Fouad Elkoury), 프랑스 / 아나 휴스만(Ana Husman), 크로아티아 / 세일라 카메릭(Sejla Kameric),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마하 마문(Maha Maamoun), 미국/ 크리스 마커(Chris Marker), 프랑스 / 다린카 포프 미틱(Darinka Pop-Mitic), 세르비아 / 앨런 세큘라·노엘 버치(Allan Sekula·Noel Burch), 미국 / 장가 싱 쉬암(Jangarh Sing Shyam), 인도 / 노순택(NOH Suntag), 한국 / 알라 유니스(Ala Yunis), 쿠웨이트 /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West Eastern Divan Orchestra), 독일 / 소피아 알 마리아(Sophia Al-Maria), 미국 / 페이샬 바그리쉬(Faycal Baghriche), 알제리 / 애덤 브룸버그·올리버 차나린(Adam Broomberg·Oliver Chanarin),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 엑스어반_콜렉티브(Exurban_collective), 터키 / 요아나 하지토마스·칼릴 요레이(Joana Hadjithomas·Khalil Joreige), 레바논 / 슈르크 하르브(Shuruq Harb), 팔레스타인 / 말락 헬미 (Malak Helmy), 이집트 / 페이지스(Pages), 이란 / 와엘 샤키(Wael Shawky), 이진트 / 슬라브스와 타타스(Slavs and Tatars), 레바논 / 아이 웨이웨이(Ai Weiwei), 중국 / 벤자민 암스트롱(Benjamin Armstrong), 오스트리아 / 최미연(Choi Mi-Yeon), 한국 / 줄리아 다울트(Julia Dault), 캐나다 / 스콧 이디(Scott Eady), 뉴질랜드 / 로랑 그라소(Laurent Grasso), 프랑스 / 앨런 카프로(Allan Kaprow), 미국 / 굴나라 카스말리예바(Gulnara Kasmalieva), 키르기스스탄 / 무라트벡 듀말리예프(Muratbek Djumaliev), 키르기스스탄 / 비슈케크 컨템포러리아트 아트이스트 스쿨(ArtEast School for Contemporary Art, Bishkek), 키르기스스탄 / 김주연(Juyeon Kim), 한국 / 김수자(Kimsooja), 한국 / 볼프강 라이프(Wolfgang Laib), 독일 / 이정록(Jeonglok LEE), 한국 / 예르보신 멜디베코프(Yerbossyn Meldibekov), 카자흐스탄 / 하룬 미르자(Haroon Mirza), 영국 / 데인 미첼(Dane Mitchell), 뉴질랜드 / 아키 사사모토(Aki Sasamoto), 일본 / 모토유키 시타미치(Motoyuki Shitamichi), 일본 / 투 웨이-쳉(Tu Wei-Cheng), 타이완 / 마키 토시마(Maki Toshima), 일본 / 안규철(Ahn Kyuchul), 한국 / 줄리에타 아란다·안톤 비도클(Julieta Aranda·Anton Vidokle), 멕시코, 러시아 / 마그누스 뱃토스(Magnus Bärtås), 스웨덴 / 비빔밥(박상화, 장한별, 이매리, 김한열, 강운) Bibimbbap(Sang-Hwa Park, Hanbyul Jang, Mae-lee Lee, Han-yeol Kim, Un Kang), 한국 / 마크 브래드포드(Mark Bradford), 미국 / 아브라함 크루스비예가스(Abraham Cruzvillegas), 멕시코 / 제니 홀저 (Jenny Holzer), 미국 / 황지해(Jihae Hwang), 한국 / 마이클 주(Michael Joo), 미국 / 정윤석(Jung Yoonsuk), 한국 / 길초실(Chosil Kil), 한국 / 김범(Kim Beom), 한국 / 문경원·전준호(MOON Kyungwon·JEON Joonho), 한국 / 로이스 응(Royce Ng), 오스트레일리아 / 제바디아 애링톤(Zebadiah Arrington), 미국 / 고수휘(Suhuu Goh), 한국 / 소이치로 미츠야(Soichiro Mitsuya), 일본 / 토비아스 레베르거(Tobias Rehberger), 독일 / 임동식(Rim

Dong Sik), 한국 / 서도호(Do Ho Suh), 한국 /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아르헨티나 / 우순옥(U Sunok), 한국 / 딕 베르뒬트(Dick Verdult), 네덜란드 / 시징맨(첸 샤오시옹, 김홍석, 츠요시 오자와) Xijing Men(Chen Shaoxiong, Gimhongsok, Tsuyoshi Ozawa), 중국, 한국, 일본 / 준 양(Jun Yang), 중국 / 앤디호프 1930(Andy Hope 1930), 독일 / 라시드 아라인(Rasheed Araeen), 파키스탄 / 제임스 케힐(James Cahill), 미국 / 바르다 카이바노(Varda Caivano), 아르헨티나 / 요제프 다베르니그(Josef Dabernig), 오스트리아 / 한 동(Han Dong), 중국 / 사이먼 후지와라(Simon Fujiwara), 영국 / 보리스 그로이스(Boris Groys), 독일 / 리 푸춘(Li Fuchun), 중국 / 리 란(Li Ran), 중국 / 나스치우 모스키투(Nástio Mosquito), 앙골라 / 켈리 샤흐트(Kelly Schacht), 벨기에 / 우 창(Wu Tsang), 미국 / 루 유에(Lu Yue), 중국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임민욱(Minouk Lim), 한국 / 제레미 델러(Jeremy Deller), 영국 / 스털링 루비(Sterling Ruby), 독일 / 세실리아 벵골레아·프랑수아 세뇨(Cecilia Bengolea·Francois Chaignaud), 아르헨티나, 프랑스 / 조아킴(Joakim), 프랑스 / 홍영인(Young In Hong), 한국 / 정금형(Geum Hyung Jeong), 한국 / 옥인 콜렉티브(Okin Collective), 한국 / 엘 울티모 그리토(El Ultimo Grito), 영국 / 잭 골드스타인(Jack Goldstein), 캐나다 / 이불(Lee Bul), 한국 / 켄 언즈워스(KenUnsworth), 오스트레일리아 / 김영수(Young Soo Kim), 한국 / 제임스 리처즈(James Richards), 영국 / 후마 물지(Huma Mulji), 파키스탄 / 카미유 앙로(Camile Henrot), 프랑스 / 안와르 셈자(Anwar Shemza), 인도 / 이브 클라인(Yves Klein), 프랑스 / 비르기트 위르겐센(Birgit Jurgenssen), 오스트리아 / 오토 피에네(Otto Piene), 독일 / 코넬리아 파커(Cornelia Parker), 영국 / 로즈마리 트로켈(Rosemarie Trockel), 독일 / 가브리엘 오로스코(Gabriel Orozco), 멕시코 / 안나 마리아 마이올리노(Anna Maria Maiolino), 이탈리아 / 에드워드 키엔홀츠·낸시 레딘 키엔홀츠(Edward Kienholz·Nancy Kienholz), 미국 / 아난드 팟와르드한(Anand Patwardhan), 인도 / 후마 물지(Huma Mulji), 파키스탄 / 하메드 압델라(Hamed Abdalla), 이집트 / 귤슌 카라무스타파(Gulsun Karamustafa), 터키 / 브렌다 파하르도(Brenda Fajardo), 필리핀 / 류촹(Liu Chuang), 중국 / 에두아르도 바수알도(Eduardo Basualdo), 아르헨티나 / 미르체아 수키우(Mircea Suciu), 루마니아 / 제인 알렉산더(Jane Alexander), 남아프리카공화국 / 야마시타 키쿠지(Yamashita Kikuji), 일본 / 구정아(Jeong-a Koo), 한국 / 아포스톨로스 게오르기우(Apostolos Georgiou), 그리스 / 박세희(Sehee Sarah Bark), 한국 / 옥인콜렉티브(Okin Collective), 한국 / 피오트르 우클란스키(Piotr Uklanski), 폴란드 / 이슬기(Seulgi Lee), 한국 / 홍영인(Young In Hong), 한국 / 탕디신(Tang Dixin), 중국 / 조나타스 지 안드라지(Jonathas de Andrade), 브라질 / 성능경(Neuengkyung Sung), 한국 / 겅지안이(Jianyi Geng), 중국 / 양성철(Sungchul Yang), 한국 / 최수앙(Xooang Choi), 한국 / 테츠야 이시다(Tetsuya Ishida), 일본 / 찰스 아틀라스(Charles Atlas), 미국 / 레나테 베르틀만(Renate Bertlmann), 오스트리아 / 윤석남(Suknam Yun), 한국 / 로버트 하이네켄(Robert Heinecken), 미국 / 압바스 아카반(Abbas Akhavan), 이란 / 데이비드 보이나로비치(David Wojnarowicz), 미국 / 로델 타파야(Rodel Tapaya), 필리핀 / 루바이나 히미드(Lubaina Himid), 탄자니아 / 황재형(Jai-Hyoung Hwang), 한국 / 최운형(Woon Hyoung Choi), 한국 / 실리아 헴튼(Celia Hempton), 영국 / 류샤오동(Xiadong Liu), 중국 / 슈시 술라이만(Shooshie Sulaiman), 말레이사아 / 바누 제네토글루(Banu Cennetoglu), 터키 / 쉴라 가우다(Sheela Gowda), 인도 / 이완(Wan Lee), 한국 / 히데미 니시다(Hidemi Nishida), 일본 / 에코 누그로호(Eko Nugroho), 인도네시아 / 요슈아 오콘(Yoshua Okon), 멕시코 / 그림패 둥지(Artist Group Dung-ji), 한국 / 댄플레빈(Dan Flavin), 미국 / 아크람 자타리(Akram Zaatari), 레바논 / 우르스 피셔(Urs Fischer), 스위스 /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프랑스 / 프렘 사히브(Prem Sahib), 영국 / 조지 콘도(George Condo), 미국 / 카롤 크리스티안 푈(Carol Christian Poell), 오스트리아 / 스튜어트 우(Stewart Uoo), 미국 / 허만 총(Heman Chong), 말레이시아 / 토모코 요네다(Tomoko Yoneda), 일본 / 레나타 루카스(Renata Lucas), 브라질 / 알로라·칼사디야(Allora·Calzadilla), 미국, 쿠바 / 블라시스 카니아리스(Vlassis Caniaris), 그리스 / 후 시앙첸(Xiangqian Hu), 중국 / 안드레아 바우어스(Andrea Bowers), 미국 / 귀네쉬 테르콜(Gunes Terkol), 터키 / 바젤 압바스·루안 아부라암(Basel Abbas·Ruanne Abou-Rahme), 키프러스, 미국 / 비르기트 위르겐센(Birgit Jurgenssen), 오스트리아 / 개빈 캐년(Gavin Kenyon), 미국 / 울리케 오팅거(Ulrike Ottinger), 독일 / 닐 얄터(Nil Yalter), 이집트 / 므리날리니 무케르지(Mrinalini Mukherjee), 인도 / 리오넬 벤트(Lionel wendt), 스리랑카 / 코넬 브루다스쿠(Cornel Brudascu), 루마니아 / 타미네 몬자비(Tahmineh Monzavi), 이란 / 김복만(Bokman Kim), 한국 / 나우푸스 라미레스 피구에로아(Naufus Ramirez-Figueroa), 콰테말라 / 앤시아 해밀턴·니콜라스 번(Anthea Hamilton·Nicholas Byrne), 영국 / 에이 아라카와·임인자(Ei Arakawa·Inza Lim), 일본, 한국 / 샤론 헤이즈(Sharon Hayes), 미국 / 카를로스 모타(Carlos Motta), 콜롬비아 / 로만 온닥(Roman Ondak), 슬로바키아 / 김성환(Sunghwan Kim), 한국 / 올라푸르 엘리아손(Olafur Eliasson), 덴마크 / 카르슈텐 횔러(Carsten Holler), 벨기에 / 체자리 보자노프스키(Cezary Bodzianowsky), 폴란드 /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Dominique Gonzalez-Foester), 프랑스 / 에이에이 브론슨(AA Bronson), 캐나다

4. 역대 광주비엔날레 수상자 명단

제1회 광주비엔날레

- 대상 : <잊어버리기 위하여> 크쵸 & 알렉시스 레이바(쿠바)
- 특별상 : <다즈니가 세운 판문점> 김정헌(한국) / <클로드 모네 정원에서의 일주일> 다이아나 세이터(미국) / <밤에 흐르는 눈물> 트레이서 모파트(호주)
- 인기작가상 : 우제길(한국)

제2회 광주비엔날레

- 공로상 : 피필로티 리스트 Pipilotti Rist (스위스) / 가브리엘르 바실리코 Gabriele Basilico (이태리) / 첸젠 Chen Zhen (중국) / 에릭 블라토프 Eric Boulatov (러시아) / 폴 맥카시 Paul McCarthy (미국)

제3회 광주비엔날레

- 대상 : 쉬린 네샤트(이란)
- 아시아작가상 : 토야 시게오(일본)
- 특별상 : 첸치에-엔(대만) / 세레테르 다우크도르즈(몽고)
- 미술기자상 : 김호석(한국)

제4회 광주비엔날레

- 본상 : 수라시 쿠솔웡(타이) / 김세진(한국) / 루앙루파(인도네시아)
- 특별상 : 주재환(한국)

제5회 광주비엔날레

- 빛고을상 : <가장 가까운 공기> 월터씨오 칼다스 Waltercio Caldas (브라질)
- 한국국제교류 재단상 : <소리로 돌아가기> 제니퍼 알로라 & 기예르모 칼자딜라 Jennifer Allora & Guillermo Calzadilla(쿠바)
- 광주은행상 : <또 다른 기념비를 위하여> 전준호 Joon-ho Jeon(한국)
- 광주비엔날레 참여관객소통상 : <대양의 한 방울>, <1m의 문제들> 호타 카스트로 Jota Castro (페루) & 피터 모진스키 Peter Mozynski(영국)
- 광주비엔날레 현장상 : 현장 3 '그 밖의 어떤 것'(5·18 자유공원)

제6회 광주비엔날레

- 대상(공동수상) : <버릴 것 없는> 송동 (중국) / <보디 옵푸스케터스> 마이클 주(미국)
- 광주은행상 : <오리지널 라이브클럽> 임민욱(한국)
- 한국국제교류재단상 : <프로-테스트 랩 아카이브> 노메다 & 게르미나스 우르보나스(리투아니아)

제7회 광주비엔날레

-기념 작품 : <미군과 아버지> 등 드로잉 연작 조동환 & 조해준(한국)

제8회 광주비엔날레

- 눈 예술상 중견작가상 : 구스타프 메츠거
- 눈 예술상 신진작가상 : 양혜규

제9회 광주비엔날레

- 눈 예술상 중견작가상 : 문경원, 전준호
- 눈 예술상 신진작가상 : 모토유키 시타미치

제10회 광주비엔날레

- 눈 예술상 중견작가상 : 이불
- 눈 예술상 신진작가상 : 세실리아 벵골리아 & 프랑수나 세뇨

5.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역대 이사회 임원 명단

구분	성명	임기	직위
이사장	송언종	1995. 4 ~ 1996. 3	광주광역시장
명예이사장	강운태	1995. 4 ~ 1996. 3	전 광주광역시장
부이사장	강봉규	1995. 4 ~ 1996. 3	예총광주시지회장
부이사장	정영식	1995. 4 ~ 1996. 3	광주광역시부시장
이사	강연균	1995. 4 ~ 1996. 3	서양화가
이사	김명민	1995. 4 ~ 1996. 3	전 광주광역시 내무위원장
이사	김영호	1995. 4 ~ 1996. 3	일신방직사장
이사	박정구	1995. 4 ~ 1996. 3	광주상공회의소장
이사	서병조	1995. 4 ~ 1996. 3	광주시의회의장
이사	이돈흥	1995. 4 ~ 1996. 3	서예가
이사	장영숙	1995. 4 ~ 1996. 3	광주광역의회 내무위원장
이사	정윤태	1995. 4 ~ 1996. 3	미협광주지회장
이사장	송언종	1996. 4 ~ 1999. 3	광주광역시장
부이사장	송재구	1996. 4 ~ 1999. 3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부이사장	임병성	1996. 4 ~ 1999. 3	한국화가, 전 예총시지회장
부이사장	한만섭	1996. 4 ~ 2002.3	예총광주지회장, 전남대교수
이사	강봉규	1996. 4 ~ 1999. 3	사진작가, 전 예총광주지회장
이사	강연균	1996. 4 ~ 1999. 3	광주시립미술관장
이사	김명민	1996. 4 ~ 1999.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이사	김영호	1996. 4 ~ 1999. 3	일신방직사장
이사	김형수	1996. 4 ~ 1999. 3	한국화가
이사	박상섭	1996. 4 ~ 1999. 3	서양화가
이사	박정구	1996. 4 ~ 1999. 3	금호그룹회장,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사	박행보	1996. 4 ~ 1999. 3	한국화가
이사	반명환	1996. 4 ~ 1999. 3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장
이사	오승윤	1996. 4 ~ 1999. 3	서양화가
이사	오 주	1996. 4 ~ 1999. 3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사	이돈흥	1996. 4 ~ 1999. 3	서예가
이사	정윤태	1996. 4 ~ 1999. 3	조각가, 미협광주지회장
이사	황영성	1996. 4 ~ 1999. 3	서양화가, 조대미대교수
이사	박정구	1998. 3 ~ 2001. 3	광주상공회의소장
이사	이돈홍	1998. 3 ~ 2001. 3	서예가
이사	문병란	1998. 4 ~ 2001. 3	조선대 교수
이사	하철경	1999. 3 ~ 2002. 3	예총전남지회장
부이사장	김완기	1999. 10 ~ 2001. 12	행정부시장
이사	오 주	2000. 8 ~ 2002. 5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사	방대영	2000. 8 ~ 2002. 5	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
이사장	김포천	2000. 12 ~ 2005. 1	전 광주문화방송 사장
이사	노성만	1999. 3 ~ 2002. 3	전 전남대학교총장
이사	윤명로	1999. 3 ~ 2002. 3	서울대 미대교수
이사	윤장현	1999. 3 ~ 2002. 3	시민연대모임공동대표
이사	이명한	1999. 3 ~ 2002. 3	민예총광주지회장
이사	정동채	1999. 3 ~ 2002. 3	국회의원
이사	정찬용	1999. 3 ~ 2001. 4	광주YMCA 사무총장
이사	오건탁	1998. 4 ~ 2002. 8	미협광주지회장, 광주시립미술관장
명예이사장	고재유	1998. 8 ~ 2002. 6	광주광역시장
이사	윤광렬	1999. 3 ~ 2002. 3	예총광주지회장
이사	김동호	1999. 3 ~ 2002. 3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사	김윤수	1999. 3 ~ 2002. 3	전 영남대교수
부이사장	김종태	1999. 3 ~ 2002. 3	광주일보회장
이사	박철교	2001. 4 ~ 2004. 2	미협광주지회장
이사	김상윤	2001. 4 ~ 2001. 12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차장

구분	성명	임기	직위
이사	박정구	2001. 7 ~ 2002. 7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상임부이사장	심재민	2001. 12 ~ 2004. 10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이사	유방희	2002. 3 ~ 2003. 2	한국예총 광주시지회장
명예이사장	박광태	2002. 7 ~ 2010. 7	광주광역시장
이사	이형석	2002. 7 ~ 2004. 7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사	김선옥	2002. 7 ~ 2004. 7	광주광역시 행자위원장
이사	마형렬	2002. 9 ~ 2007. 8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사	이태길	2002. 10 ~ 2004. 10	광주시립미술관장
명예이사장	강운태	2002. 9 ~ 2005. 1	전 광주광역시장
이사	김필식	2002. 9 ~ 2005. 1	동신대학교 이사장
이사	나정웅	2002. 9 ~ 2005. 1	광주과학기술원장
이사	남상규	2002. 9 ~ 2005. 1	부국문화재단이사장
이사	박경린	2002. 9 ~ 2005. 1	광주YWCA 사무총장
이사	서승원	2002. 9 ~ 2005. 1	홍익대미대 교수
이사	염홍섭	2002. 9 ~ 2005. 1	광주전남경영자협회장
이사	이종상	2002. 9 ~ 2005. 1	서울대박물관장
이사	황영성	2002. 9 ~ 2005. 1	서양화가, 조선대미대교수
이사	임권택	2002. 9 ~ 2005. 1	영화감독
이사	박금자	2003. 3 ~ 2007. 1	예총광주지회장
이사	박지택	2004. 2 ~ 2010. 11	미협광주지회장
이사	반명환	2004. 7 ~ 2006. 6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사	최영호	2004. 7 ~ 2006. 6	광주광역시의회행자위원장
이사	정남준	2004. 10 ~ 2006. 8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이사	오건탁	2004. 10 ~ 2006.10	광주시립미술관장
이사장	한갑수	2005. 3 ~ 2007. 7	한국산업경제연구원 회장
이사	고재일	2005. 3 ~ 2007. 3	대창운수 대표
이사	권명광	2005. 3 ~ 2007. 3	홍익대 총장
이사	권영걸	2005. 3 ~ 2007. 3	서울대 미대 학장
이사	김수경	2005. 3 ~ 2007. 3	수도약품 대표이사
이사	김필식	2005. 3 ~ 2007. 3	동신대학교 이사장
이사	나정웅	2005. 3 ~ 2007. 3	전 광주과학기술원장
이사	남상규	2005. 3 ~ 2007. 3	부국문화재단이사장
이사	박종운	2005. 3 ~ 2007. 3	조선대 디자인학부 명예교수
이사	안희옥	2005. 3 ~ 2007. 3	광주YWCA 사무총장
이사	오승윤	2005. 3 ~ 2006. 1	서양화가
이사	이봉규	2005. 3 ~ 2007. 3	광주대 디자인학부 교수
이사	이용우	2005. 3 ~ 2007. 3	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이사	이종상	2005. 3 ~ 2007. 3	전 서울대박물관장
이사	정송규	2005. 3 ~ 2007. 3	서양화가
이사	황영성	2005. 3 ~ 2007. 3	전 조선대미대교수
이사	김남훈	2005. 9 ~ 2007. 7	광주전남디자이너협회장
이사	김동호	2005. 9 ~ 2007. 7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이사	강박원	2006. 7 ~ 2007. 8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사	조호권	2006. 7 ~ 2008. 7	광주광역시의회행자위원장
상임부이사장	임우진	2006. 9 ~ 2008. 3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이사	최규철	2007. 2 ~	예총광주지회장
이사	정광주	2007. 2 ~ 2010. 2	미협광주지회장
이사	강연균	2007. 4 ~ 2007. 7	서양화가
이사	고재일	2007. 4 ~ 2007. 7	대창운수 대표
이사	권명광	2007. 4 ~ 2007. 7	홍익대 총장
이사	권영걸	2007. 4 ~ 2007. 7.	서울대 미대 학장
이사	김윤수	2007. 4 ~ 2007. 7	전 영남대교수
이사	김필식	2007. 4 ~ 2007. 7	동신대학교 이사장
이사	김홍남	2007. 4 ~ 2007. 7	국립중앙박물관과장
이사	남상규	2007. 4 ~ 2007. 7	부국문화재단이사장

구분	성명	임기	직위
이사	박종운	2007. 4 ~ 2007. 7	조선대 디자인학부 명예교수
이사	안희옥	2007. 4 ~ 2007. 7	광주YWCA 사무총장
이사	양계남	2007. 4 ~ 2007. 7	조선대미대 교수
이사	이봉규	2007. 4 ~ 2007. 7	광주대 디자인학부 교수
이사	이용우	2007. 4 ~ 2007. 7	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이사	이종상	2007. 4 ~ 2007. 7	전 서울대박물관장
이사	홍라영	2007. 4 ~ 2007. 7	삼성미술관리움 부관장
이사	황영성	2007. 4 ~ 2007. 7	전 조선대미대교수
이사	김남훈	2007. 7 ~ 2009. 7	광주전남디자이너협회장
이사	김윤수	2007. 7 ~ 2009. 7	전 영남대교수
이사	안희옥	2007. 7 ~ 2009. 7	광주YWCA 사무총장
이사	이봉규	2007. 7 ~ 2009. 7	광주대 디자인학부 교수
이사	최영훈	2007. 7 ~ 2009. 7	조선대 미대교수
이사	정승주	2007. 7 ~ 2009. 7	전남대 명예교수
이사	김영호	2007. 7 ~ 2009. 7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이사	김광명	2007. 7 ~ 2009. 7	숭실대 인문대 학장
이사	고재일	2007. 7 ~ 2009. 7	대창운수 대표
이사	최종만	2008. 3 ~2010. 3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이사	김성숙	2008. 7 ~ 2010.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이사	우제길	2009. 12 ~ 2011. 12	우제길미술관 관장
이사	표미선	2009. 12 ~ 2011. 12	한국화랑협회회장
이사	윤광호	2009. 12 ~ 2011. 12	광주디자인센터 대표
이사	임채형	2009. 12 ~ 2011. 12	조선대 디자인학부 교수
이사	송숙남	2009. 12 ~ 2011. 12	광주대 교수
이사	임선숙	2009. 12 ~ 2011. 12	변호사
이사	이정용	2009. 12 ~ 2011. 12	호남대 미술대학 교수
이사	홍라영	2009. 12 ~ 2011. 12	삼성미술관리움 부관장
이사	최영훈	2009. 12 ~ 2011. 7	조선대 미대교수
이사	정승주	2009. 12 ~ 2011. 7	전남대 명예교수
이사	김광명	2009. 12 ~ 2011. 7	숭실대 인문대학장
이사	김영호	2009. 12 ~ 2011. 7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이사	송귀근	2010. 3 ~ 2011. 10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이사	정순이	2010. 2 ~ 2013. 2	미협광주지회장
이사장	강운태	2010. 7 ~ 2014. 6	광주광역시장
이사	황영성	2011. 3 ~ 2014. 8	광주시립미술관장
이사	이병록	2011. 10 ~ 2013. 4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이사	홍라영	2011. 12 ~ 2014. 12	삼성리움미술관 부관장
이사	이정용	2011. 12 ~ 2014. 12	호남대 미대교수
이사	임선숙	2011. 12 ~ 2014. 12	변호사
이사	송숙남	2011. 12 ~ 2014. 12	광주대 교수
이사	표미선	2011. 12 ~ 2014. 12	한국화랑협회 회장
이사	김승환	2011. 12 ~ 2014. 12	조선대 미대 교수
이사	김영나	2011. 12 ~ 2014. 12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사	김희근	2011. 12 ~ 2014. 12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이사	노성대	2011. 12 ~ 2014. 12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사	심상용	2011. 12 ~ 2014. 12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이사	안상수	2011. 12 ~ 2014. 12	안그라픽스 대표
이사	이상준	2011. 12 ~ 2014. 12	호텔프리마 대표이사
이사	장상근	2011. 12 ~ 2014. 12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이사	정금희	2011. 12 ~ 2014. 12	전남대 예대 교수
이사	정현희	2011. 12 ~ 2014. 12	여성포럼집행위원장
이사	조창현	2011. 12 ~ 2013. 4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사	오형국	2013. 4 ~ 2015. 4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이사	유신열	2013. 4 ~ 2014.12	광주신세계 대표
이사	우현희	2013. 8 ~	KBC문화재단 대표

구분	성명	임기	직위
이사	나상옥	2014. 1 ~	미협광주지회장
이사장, 명예이사장	윤장현	이사 : 2014. 7 ~ 2014. 10 명예이사 : 2014.10 ~	광주광역시장
이사	조진호	2014. 10 ~	광주시립미술관장
대표이사	정동채	2014. 10 ~ 2015. 2	전)문화부장관
이사장	전윤철	2014. 12 ~ 2015. 12	전)감사원장
대표이사	박양우	이사 : 2014. 12~ 대표이사 : 2015. 3 ~	전)문화부차관
이사	강신중	2014. 12 ~	변호사
이사	문 인	2015. 4 ~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사	김상헌	2015. 1 ~	네이버(주) 대표이사/사장
이사	강수미	2015. 4 ~	동덕여대 회화과 교수
이사	김윤석	2015. 4 ~	광주하계U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사	박재순	2015. 4 ~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사	서정진	2015. 4 ~	셀트리온제약 대표이사 회장
이사	정준모	2015. 4 ~	국민대대학원 초빙교수
이사	김홍남	2015. 9 ~ 2016. 1	전)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이사	송철복	2015. 9 ~ 2016. 1	포커스뉴스 국제전문위원
이사	정숙영	2015. 9 ~	광주대 교수
이사	정연심	2015. 9 ~	홍익대 예술학과 교수
이사	오기만	2015. 9 ~	전남경영자총협회 사무총장
이사	유신열	2015. 9 ~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
감사	고경주	1995. 3 ~ 1999. 3	광주매일사장
감사	류한덕	1995. 3 ~ 1995. 9	前 광주광역시내무국장
감사	이하은	1995. 9 ~ 1997. 3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감사	윤진호	1996. 3 ~ 1998. 5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감사	최종만	1998. 5 ~ 1999. 1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감사	김정수	1999. 1 ~ 1999. 2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감사	윤준하	1999. 3 ~ 2003. 12	공인회계사
감사	김국웅	1999. 4 ~ 2003. 4	(주)무등 대표
감사	최동진	2003. 3 ~ 2005. 3	공인회계사
감사	김동원	2003. 10 ~ 2007. 12	전남대명예교수
감사	강상률	2003. 12 ~ 2014. 12	동명회계법인 대표이사
감사	김원욱	2008. 2 ~ 2012. 2	광주매일사장
감사	서영진	2012. 3 ~ 현재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감사	남원희	2015. 1 ~ 현재	회계법인 길인 호남본부장

6. 광주비엔날레 기부금 및 기업후원 내역

1)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기부금(1995 ~ 2006년)

(단위 : 천원)

기탁자	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6
합 계	28,521,103	9,795,427	3,137,260	5,267,794	2,000,000	14,122	500,000	2,006,500	3,000,000	2,800,000
국시비	9,900,000	-	3,000,000	3,000,000	1,400,000	-	500,000	2,000,000	-	-
국 비	8,400,000		2,000,000	3,000,000	1,400,000			2,000,000		
시 비	1,500,000		1,000,000				500,000			
협 찬	11,833,187	9,047,565	65,000	2,100,000	600,000	14,122	-	6,500	-	-
금호그룹	3,000,000	3.000,000								
나산종합건설	2,000,000			2,000,000						
거평그룹	1,000,000	1,000,000								
삼성그룹	1,000,000	1,000,000								
광주은행	600,000				600,000					
아남산업	500,000	500,000								
해태그룹	500,000	500,000								
광주금융단	303,000	303,000								
교보생명	300,000	300,000								
금광기업	300,000	300,000								
남광건설	300,000	300,000								
익명	300,000	300,000								
일신방직	300,000	300,000								
(주)전방	200,000	200,000								
(주)화니	200,000	200,000								
해양도시가스	200,000	200,000								
광주전남 신용금고	100,000	100,000								
대창운수	100,000	100,000								
대한주택공사	100,000			100,000						
동화석유	100,000	100,000								
개명월드	60,000		60,000							
남해종합개발	50,000	50,000								
부국철강	50,000	50,000								
화천기공사	50,000	50,000								
남화토건	30,000	30,000								
보해양조	30,000	30,000								
협찬사업 집행잔액	24,115	24,115								
무기명(11)	21,500	21,500								
강운태광주시장	10,000	10,000								
건설증권(주)	10,000	10,000								
광동건설	10,000	10,000								
미라보건설	10,000	10,000								
재경향우회	10,000	10,000								
재일도민회	10,000	10,000								
지방은행협회	10,000	10,000								
재단직원(7)	8,122					8,122				
김상윤	6,500							6,500		
오광수	6,000					6,000				
서울대화광고	5,000	5,000								
인천호남향우회	5,000	5,000								
한남투자신탁	5,000		5,000							
제이코리아 정만영	3,000	3,000								
이태리안경 강성준	1,050	1,050								
광주국제로타리 이상근	1,000	1,000								
기세훈	1,000	1,000								
망월주유소 김용신	1,000	1,000								
박세정서울	1,000	1,000								
대전충남기업 서정웅	500	500								
대한화재 전남본부	400	400								
기 타	6,787,916	747,862	72,260	167,794	-	-	-	-	3,000,000	2,800,000
잉여금	6,330,000	530,000							3,000,000	2,800,000
이자발생분	186,656	18,862		167,794						
재단설립금	100,000	100,000								
작품판매대(8)	99,000	99,000								

2) 역대 광주비엔날레 기업 후원 내역

제 1회 광주비엔날레(1995년)

(단위 : 천원)

업 체 명	합 계	현 금	현 물
총 계	898,260	864,800	33,460
(주)광주은행	600,000	600,000	
동양맥주(OB)	40,000	40,000	
두산제관(주)	30,000	30,000	
OB 씨그램	30,000	30,000	
시대크리스탈	24,800	24,800	
호남식품(주)	20,000	20,000	
보해양조(주)	20,000	20,000	
해태제과(주)	17,000	17,000	
해태음료(주)	10,000	10,000	
영일식품(주)	10,000	10,000	
화니음료(주)	11,060	6,000	5,060
한독상사	6,000	6,000	
(주)호산	5,000	5,000	
(주)동양현상소	5,000	5,000	
자 원 요	5,000	5,000	
담배인삼공사	5,000	5,000	
유한도예공방	5,000	5,000	
광주전남공예협동조합	5,000	5,000	
금강기업	3,000	3,000	
일 진 사	3,000	3,000	
(주)삼풍	3,000	3,000	
모닝벨유업	3,000	3,000	
한국제다	2,000	2,000	
럭키여행사	2,000	2,000	
오대양육대주	2,000	2,000	
럭키프라자	1,000	1,000	
(주)전남특산물 유통사업단	1,000	1,000	
국제외식산업	1,000	1,000	
한국이동통신	28,400		28,400

제2회 광주비엔날레(1997년)

(단위 : 천원)

업체명	합계	현금	현물
총 계	1,824,478	1,785,623	38,855
Sk Telecom	150,000	150,000	
(주)광주은행	1,300,000	1,300,000	
OB맥주(주)	30,000	30,000	
(주)삼포식품	5,000	5,000	
해태음료(주)	10,000	10,000	
보해양조(주)	20,000	20,000	
한국코닥(주)	15,000	15,000	
화니음료(주)	20,055	11,200	8,855
(주)미원유통	30,000	30,000	
그린유통	10,000	10,000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	20,000	20,000	
모닝벨유업(주)	3,000	3,000	
나주봉황배술가공사업소	1,000	1,000	
해태제과(주)	15,000	15,000	
(주)대신종합상사	36,200	36,200	
한나약세사리	14,800	14,800	
일 진 사	12,360	12,360	
오대양육대주	8,600	8,600	
시대크리스탈	51,900	21,900	30,000
삼협물산	3,000	3,000	
(주)아트그룹 시우터	10,500	10,500	
신평도예	16,200	16,200	
그린하우스	1,000	1,000	
국제외식산업	1,500	1,500	
차생산유통영농조합법인	2,200	2,200	
송강정미소	1,000	1,000	
(주)에이피인터내셔날	3,000	3,000	
광주전남공예협동조합	26,063	26,063	
INS조형연구소	1,000	1,000	
에덴토패럴	6,100	6,100	

제3회 광주비엔날레(2000년)

(단위 : 천원)

업체명	합계	현금	현물
총 계	3,324,000	2,879,000	445,000
(주)광주은행	800,000	800,000	
포항제철	500,000	500,000	
현대증권	500,000	500,000	
KT전남본부(한국통신)	200,000	200,000	
광주신세계	150,000	150,000	
롯데쇼핑(주)	150,000	150,000	
(주)부호물산	150,000	150,000	
한국중공업(주)	60,000	60,000	
한국전력공사	50,000	50,000	
주한미국대사관	45,000	45,000	
두메외식산업(주)	45,000	45,000	
한국예술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000	40,000	
대상유통(주)	36,000	36,000	
한국마사회	30,000	30,000	
한국코카콜라음료(주)	30,000	30,000	
보해양조(주)	30,000	30,000	
이미지포토플러스	12,000	12,000	
부국산업(주)	10,000	10,000	
일신문화재단	10,000	10,000	
동화산업	10,000	10,000	
한국후지필름(주)	10,000	10,000	
아트타운예술도서	5,000	5,000	
흰희샘물	5,000	5,000	
주한이태리대사관	1,000	1,000	
아시아나항공(주)	200,000		200,000
(주)대한항공	200,000		200,000
LG전자	40,000		40,000
현대백화점	5,000		5,000

제4회 광주비엔날레(2002년)

(단위 : 천원)

업체명	합계	현금	현물
총 계	2,061,734	1,529,634	507,450
(주)광주은행	800,000	800,000	
KT	150,000	150,000	
(주)광주신세계	100,000	100,000	
SK텔레콤(주)	100,000	100,000	
삼성전자(주)	100,000	100,000	
미대사관	50,234	50,234	
기아자동차(주)	50,000	50,000	
(주)진로	50,000	50,000	
오대양육대주 등 4개업체	40,000	44,000	
(종합광고)현대	50,000	25,000	
부국철강(주)	20,000	20,000	
삼능건설(주)	10,000	10,000	
(재)유당문화재단	10,000	10,000	
전문건설협회	10,000	10,000	
한국가스공사	5,000	5,000	
한국후지필름	8,000	4,000	
이레커피	1,000	1,000	
(주)리더	7,500	400	7,450
LG전자	200,000		200,000
아시아나항공(주)	200,000		200,000
(주)대한항공	100,000		100,000

제5회 광주비엔날레(2004년)

(단위 : 천원)

업체명	합계	현금	현물
총 계	1,721,730	1,566,750	154,980
(주)광주은행	800,000	800,000	
광양제철소	200,000	200,000	
삼성전자(주)	141,750	141,750	
KT	100,000	100,000	
광주신세계	100,000	100,000	
SK텔레콤(주)	50,000	50,000	
강원랜드	50,000	50,000	
신명애드	61,000	61,000	
부국산업(주)	20,000	20,000	
삼능건설(주)	10,000	10,000	
(재)유당문화재단	10,000	10,000	
삼 원	10,000	10,000	
오대양육대주	10,000	10,000	
한국후지필름	6,060	4,000	2,060

업체명	합계	현금	현물
아시아나항공(주)	95,202		95,202
(주)대한항공	57,718		57,718

제6회 광주비엔날레(2006년)

(단위 : 천원)

업체명	합계	현금	현물
총 계	2,428,602	1,958,000	470,602
(주)광주은행	700,000	700,000	
NHN(주)	394,719	10,000	384,719
삼성전자(주)	200,000	200,000	
광양제철소	200,000	200,000	
(주)광주신세계	100,000	100,000	
(주)케이티전남본부	100,000	100,000	
두산인프라코어(주)	100,000	100,000	
동원시스템즈(주)	100,000	100,000	
KT&G	100,000	100,000	
경남기업(주)	100,000	100,000	
아시아나항공(주)	99,799	50,000	49,799
한국수력원자력(주)	70,000	70,000	
한국토지공사	30,000	30,000	
부국철강(주)	20,000	20,000	
삼능건설(주)	20,000	20,000	
프라임산업(주)	10,000	10,000	
(주)한글과컴퓨터	10,000	10,000	
(주)삼안	10,000	10,000	
삼원	10,000	10,000	
보해양조(주)	11,009	8,000	3,009
한국중부발전(주)	5,000	5,000	
대한전문건설협회	5,000	5,000	
(주)대한항공	22,059		22,059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	11,016		11,016

제7회 광주비엔날레(2008년)

(단위 : 천원)

업체명	합계	현금	현물	비고
총 계	1,349,712	808,750	540,962	
(주)광주은행	200,000	200,000		
(주)광주신세계	100,000	100,000		
광양제철소	50,000	50,000		
현대건설(주)	50,000	50,000		
(주)아시아애드	50,000	50,000		
(주)신한은행	30,000	30,000		
(주)대우건설	25,000	25,000		
대한통운(주)	25,000	25,000		
선진아트(주)	20,000	20,000		
삼원토탈디자인(주)	12,000	12,000		
삼능건설(주)	10,000	10,000		
송촌종합건설(주)	10,000	10,000		
대한주택공사	3,000	3,000		
(주)명성미디어	3,000	3,000		
삼성전자(주)	141,750	141,750		광고대행사
코카콜라음료(주)	50,000	50,000		
NHN(주)	436,444	10,000	426,444	
종합광고기획일진사	10,000	10,000		
보해양조(주)	11,009	8,000	3,009	

업체명	합계	현금	현물	비고
(주)대한항공	55,519		55,519	항공권
아시아나항공(주)	38,890		38,890	항공권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	15,000		15,000	
(주)인스나인	3,100	1,000	2,100	

제8회 광주비엔날레(2010년)

(단위 : 천원)

업체명	합계	현금	현물	비고
총 계	177,057	108,500	68,557	
(주)광주신세계	100,000	100,000		
(주)보해상호저축은행	8,000	8,000		
인스나인	3,000	500	2,500	
아시아나항공(주)	30,000		30,000	무료항공권
(주)대한항공	8,057		8,057	할인항공권(25%)
NHN(주)	20,000		20,000	인터넷 광고
함평천지복분자 영농조합	5,000		5,000	
보해양조(주)	3,000		3,000	

제9회 광주비엔날레(2012년)

(단위 : 천원)

업체명	합계	현금	현물	비고
총 계	167,000	115,000	52,000	
(주)광주신세계	100,000	100,000		
라이프크리닉 요양병원	10,000	10,000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5,000	5,000		
신한카드(주)	10,000	10,000		
아시아나항공(주)	50,000		50,000	무료항공권
보해양조	2,000		2,000	

제10회 광주비엔날레(2014년)

(단위 : 천원)

업체명	합계	현금	현물
총 계	271,900	219,900	52,000
(주)광주신세계	120,000	120,000	
금호고속(주)	50,000	50,000	
(주)광주은행	40,000	40,000	
신한카드 주식회사	9,900	9,900	
아시아나항공(주)	50,000		50,000
보해양조	2,000		2,000

광주비엔날레 1995-2014

발행일 2015. 12.
발행처 (재)광주비엔날레
61104,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1
발행인 겸 편집인 박양우 대표이사
편집위원회 조인호(정책기획실장)
김은영(전시부장)
전광미(홍보마케팅부장)
신정하(광주폴리부장)
서병옥(총무부장)

9 791195 793303 05060
ISBN 979-11-957933-0-3 (EPUB)